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연보라 유설희



연구보고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15-39세 일반국민이다. 목표 표본 규모는 전년 대비 500명 늘어난 3,500명으로 산정하여 청년층 조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고, 최종 조사결과 총 3,530표본이 수집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및 방법, 실사 환경 상의 문제점 진단, 신규 문항 반응을 확인하고 본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예비조사를 진행 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6주간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3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39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고,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9-R02-2

I.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3
2. 조사 내용	5
3. 조사 절차	9
4. 조사 일정	12
5. 무응답 현황	13
6. 표본설계 및 가중치	24

II.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41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42

부록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405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	410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414
4.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	447
5.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464
6.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539

표 목차

표 I-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
표 I-2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5
표 I-3 조사 일정	12
표 I-4 항목 무응답	13
표 I-5 모집단 현황(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5
표 I-6 만 15-39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5
표 I-7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26
표 I-8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26
표 I-9 층화 방법	27
표 I-10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27
표 I-11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29
표 I-12 각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29
표 I-13 각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예상	29
표 I-14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30
표 I-15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31
표 I-16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현황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2
표 I-17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남자(장래인구추계, 2019년도)	35
표 I-18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여자(장래인구추계, 2019년도)	35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42
표 II-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43
표 II-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연도별 추이 ..	44
표 II-2-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45

표 II-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연도별 추이	46
표 II-3-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47
표 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연도별 추이 ..	48
표 II-4-1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49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연도별 추이	50
표 II-5-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51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연도별 추이	52
표 II-6-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53
표 II-7 결혼 경험	54
표 II-8 결혼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55
표 II-8-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56
표 II-9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57
표 II-9-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58
표 II-10 결혼을 망설임 이유 연도별 추이	59
표 II-10-1 결혼을 망설임 이유	60
표 II-11 맞벌이 여부 연도별 추이	61
표 II-11-1 맞벌이 여부	62
표 II-12 현재 자녀 존재 유무 연도별 추이	63
표 II-12-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64
표 II-13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연도별 추이	65
표 II-13-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66
표 II-14 2025년 출산율 전망 연도별 추이	67
표 II-14-1 2025년 출산율 전망	68
표 II-1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연도별 추이	69
표 II-15-1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70
표 II-16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71
표 II-16-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72
표 II-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73
표 II-17-1 2025년 입시경쟁 전망	74
표 II-18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연도별 추이	75
표 II-18-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76
표 II-19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77

표 II-19-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78
표 II-20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79
표 II-20-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80
표 II-2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81
표 II-22 대학 전공 계열 연도별 추이	82
표 II-22-1 대학 전공 계열	83
표 II-22-2 대학 전공 계열(한국표준교육분류 적용)	84
표 II-23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연도별 추이	85
표 II-23-1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86
표 II-24 졸업 유예 이유	87
표 II-25 복수전공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 경험 여부	88
표 II-26 복수전공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 전공계열	89
표 II-27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90
표 II-28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1
표 II-29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2
표 II-30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93
표 II-31 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94
표 II-32 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5
표 II-33 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6
표 II-34 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97
표 II-35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98
표 II-36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여부	99
표 II-37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상태	100
표 II-38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 상태	101
표 II-39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102

표 II-39-1 대학 미진학 사유	103
표 II-40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104
표 II-40-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105
표 II-41 고등학교 재학 경험	106
표 II-42 재학 고교 유형	107
표 II-43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 변경 경험	108
표 II-44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109
표 II-45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110
표 II-46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진로, 직업 체험	111
표 II-47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학과, 전공 체험	112
표 II-48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113
표 II-4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6) 취업처 연계	114
표 II-50 취업준비 여부 연도별 추이	115
표 II-50-1 취업준비 여부	116
표 II-51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117
표 II-52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118
표 II-53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119
표 II-54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120
표 II-55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	121
표 II-56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	122
표 II-57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123

표 II-58 취업 준비 경험_8) 현장실습 경험	124
표 II-59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125
표 II-60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	126
표 II-61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	127
표 II-62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128
표 II-63 취업 준비 경험_13) 기타	129
표 II-64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학교	130
표 II-65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공공기관	131
표 II-66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사설기관	132
표 II-67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부모님이나 친인척	133
표 II-6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친구, 선후배	134
표 II-69 주체별 도움 내용_1) 학교	135
표 II-70 주체별 도움 내용_2) 공공기관	136
표 II-71 주체별 도움 내용_3) 사설기관	137
표 II-72 주체별 도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	138
표 II-73 주체별 도움 내용_5) 친구, 선후배	139
표 II-74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140
표 II-75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141
표 II-76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142
표 II-77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143
표 II-77-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144
표 II-7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연도별 추이	145
표 II-78-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146
표 II-79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147
표 II-79-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148
표 II-80 적정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149
표 II-80-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150
표 II-8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151

표 II-81-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152
표 II-82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153
표 II-82-1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	154
표 II-83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연도별 추이	155
표 II-83-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156
표 II-84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연도별 추이	157
표 II-84-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158
표 II-85 채무 발생 이유	159
표 II-86 채무 발생 기관	160
표 II-8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161
표 II-87-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162
표 II-8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63
표 II-8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164
표 II-8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65
표 II-8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166
표 II-9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67
표 II-9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168
표 II-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69
표 II-9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170
표 II-9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71
표 II-9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172

표 II-9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73
표 II-9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174
표 II-9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75
표 II-9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176
표 II-9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77
표 II-9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178
표 II-9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179
표 II-9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180
표 II-9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181
표 II-99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182
표 II-100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83
표 II-10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84
표 II-102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연도별 추이	185
표 II-102-1 중소기업 취업 의향	186
표 II-103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187
표 II-103-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88
표 II-104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189
표 II-104-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190

표 II-105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연도별 추이	191
표 II-105-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192
표 II-106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193
표 II-106-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194
표 II-107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195
표 II-107-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196
표 II-108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연도별 추이	197
표 II-108-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98
표 II-109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199
표 II-109-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200
표 II-110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201
표 II-111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상위5위)	202
표 II-112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203
표 II-113 구직 활동 기간	204
표 II-11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연도별 추이	205
표 II-114-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206
표 II-11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연도별 추이	207
표 II-115-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208
표 II-116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209
표 II-116-1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210
표 II-117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211
표 II-117-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212
표 II-118 일하는 곳 연도별 추이	213
표 II-118-1 일하는 곳	214
표 II-119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연도별 추이	215
표 II-119-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216
표 II-120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연도별 추이	217
표 II-120-1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218
표 II-12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연도별 추이	219
표 II-121-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220

표 II-12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221
표 II-123	추가 노동 가능 여부	222
표 II-124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223
표 II-125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연도별 추이	224
표 II-125-1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225
표 II-126	이직 의향 연도별 추이	226
표 II-126-1	이직 의향	227
표 II-127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228
표 II-127-1	이직 희망 사유	229
표 II-128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230
표 II-129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231
표 II-130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232
표 II-131	실업급여 인지 여부	233
표 II-132	실업급여 수급 여부	234
표 II-13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235
표 II-13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연도별 추이	236
표 II-134-1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237
표 II-135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연도별 추이	238
표 II-135-1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239
표 II-13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연도별 추이	240
표 II-136-1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241
표 II-137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도별 추이	242
표 II-137-1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43
표 II-138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연도별 추이	244
표 II-138-1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245
표 II-139	부모 동거 여부 연도별 추이	246
표 II-139-1	부모 동거 여부	247
표 II-14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248
표 II-140-1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249
표 II-14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연도별 추이	250

표 II-14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251
표 II-142 1인 가구 주거 형태 연도별 추이	252
표 II-142-1 1인 가구 주거 형태	253
표 II-14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254
표 II-144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255
표 II-144-1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256
표 II-145 건강검진 수검 여부	257
표 II-146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258
표 II-147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259
표 II-14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260
표 II-148-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261
표 II-14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262
표 II-14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263
표 II-15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264
표 II-150-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265
표 II-15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연도별 추이	266
표 II-15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267
표 II-15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연도별 추이	268
표 II-15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269
표 II-15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70
표 II-15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 비교적 잘 지냈다 ..	271
표 II-15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 상당히 우울했다 ..	272
표 II-15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273

표 II-15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 잠을 설쳤다	274
표 II-15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275
표 II-15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276
표 II-16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277
표 II-16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 마음이 슬펐다	278
표 II-16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79
표 II-16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80
표 II-164 규칙적인 운동 여부 연도별 추이	281
표 II-164-1 규칙적인 운동 여부	282
표 II-165 규칙적인 운동 빈도 연도별 추이	283
표 II-165-1 규칙적인 운동 빈도	284
표 II-166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연도별 추이	285
표 II-166-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286
표 II-167 성형수술 경험 연도별 추이	287
표 II-167-1 성형수술 경험	288
표 II-168 성형수술 목적 연도별 추이	289
표 II-168-1 성형수술 목적	290
표 II-169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연도별 추이	291
표 II-169-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292
표 II-170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연도별 추이	293
표 II-170-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294
표 II-17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연도별 추이	295
표 II-171-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296
표 II-172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연도별 추이	297
표 II-172-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298
표 II-17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연도별 추이	299
표 II-173-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300

표 II-1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연도별 추이	301
표 II-174-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302
표 II-17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연도별 추이	303
표 II-175-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304
표 II-17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연도별 추이	305
표 II-176-1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306
표 II-177 평소 외출 정도 연도별 추이	307
표 II-177-1 평소 외출 정도	308
표 II-178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연도별 추이 ...	309
표 II-178-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310
표 II-179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연도별 추이	311
표 II-179-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312
표 II-18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연도별 추이	313
표 II-180-1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314
표 II-18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연도별 추이	315
표 II-181-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316
표 II-18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연도별 추이	317
표 II-182-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318
표 II-18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연도별 추이	319
표 II-183-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320
표 II-18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연도별 추이	321
표 II-184-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322
표 II-185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연도별 추이	323
표 II-185-1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324

표 II-186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연도별 추이	325
표 II-186-1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326
표 II-187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도별 추이	327
표 II-187-1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328
표 II-188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연도별 추이	329
표 II-188-1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330
표 II-189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331
표 II-189-1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32
표 II-190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333
표 II-190-1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334
표 II-19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335
표 II-191-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336
표 II-192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337
표 II-192-1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38
표 II-193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339
표 II-193-1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340
표 II-194 의견 표명 행동_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341
표 II-195 의견 표명 행동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342
표 II-196 의견 표명 행동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343
표 II-197 의견 표명 행동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344

표 II-198 의견 표명 행동_10)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정당에 가입, 기부하기	345
표 II-199 의견 표명 행동_11)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346
표 II-200 의견 표명 행동_12) 투표에 참여하기	347
표 II-20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도별 추이	348
표 II-201-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49
표 II-202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350
표 II-202-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51
표 II-203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352
표 II-203-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53
표 II-204 정치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54
표 II-205 정치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355
표 II-206 정치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356
표 II-207 정치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57
표 II-208 정치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358
표 II-209 정치 참여 경험_6) 사회,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359
표 II-210 정치 참여 경험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360
표 II-211 정치 참여 경험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361
표 II-212 정치 참여 경험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362
표 II-213 정치 참여 경험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363
표 II-214 정치 참여 경험_11)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364

표 II-215 사회 및 정치 참여 이유	365
표 II-216 정치문제 관심 정도	366
표 II-217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367
표 II-218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368
표 II-219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369
표 II-220 단체(모임) 참여 경험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370
표 II-221 단체(모임) 참여 경험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371
표 II-222 단체(모임) 참여 경험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372
표 II-223 단체(모임) 참여 경험_4) 종교모임	373
표 II-224 단체(모임) 참여 경험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374
표 II-225 단체(모임) 참여 경험_6) 지역사회 모임 (반상회, 주민협회 등)	375
표 II-226 단체(모임) 참여 경험_7) 학술단체	376
표 II-227 단체(모임) 참여 경험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377
표 II-228 단체(모임) 참여 이유	378
표 II-229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379
표 II-230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2) 친목 및 친교 (동창, 향우회 등) 모임	380
표 II-231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381
표 II-232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4) 종교모임	382
표 II-233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5) 시민사회 단체 (NGO, NPO 등)	383
표 II-234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6) 지역사회 모임 (반상회, 주민협회 등)	384
표 II-235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7) 학술단체	385
표 II-236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386
표 II-237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387

표 II-238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388
표 II-239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2) 지자체 청년기본 조례	389
표 II-240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3) 지자체 청년참여 기구	390
표 II-241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391
표 II-242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392
표 II-243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상위 5위)	393
표 II-243-1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 (상위 5위)	394
표 II-244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395
표 II-24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396
표 II-246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397
표 II-247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4) 봉사활동	398
표 II-248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5)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399
표 II-249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400
표 II-250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7) 사회단체 활동	401

○———— I .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 2. 조사 내용
- 3. 조사 절차
- 4. 조사 일정
- 5. 무응답 현황
- 6.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조사 대상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15-39세 일반국민이다. 표본 규모는 2018년 대비 500명 늘어난 3,500명으로 조사규모를 확대, 청년층 조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최종 조사 결과 총 3,530표본이 수집 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1,839명(52.1%), 여자가 1,691명(47.9%)이었고 연령별로는 만15-18세가 661명(12.7%), 만19-29세가 1,431명(40.5%), 만30-39세가 1,438명(40.7%)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652명(18.5%), 인천, 경기 거주자가 786명(22.3%), 대전, 충청, 세종, 강원 거주자가 552명(15.6%), 광주, 전라, 제주 거주자가 492명(13.9%),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가 570명(16.1%)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거주자가 478명(13.5%)이었다.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582명(16.5%),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540명(15.3%)이었고,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901명(25.5%), 대졸이상인 경우가 1,507명(42.7%)이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1,863명(52.8%)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응답자가 1,667명(47.2%)으로 조사 되었다.

표 1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	체	3,530	100.0
성별	남 자	1,839	52.1
	여 자	1,691	47.9
연령	만 1 5 ~ 1 8 세	661	18.7
	만 1 9 ~ 2 9 세	1,431	40.5
	만 3 0 ~ 3 9 세	1,438	40.7
지역	서 울	652	18.5
	인 천 / 경 기	786	22.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5.6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13.9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16.1
	대 구 / 경 북	478	13.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6.5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540	15.3
	고 졸 이 하	901	25.5
	대 졸 이 상	1,507	42.7
주거 형태	동 거	1,863	52.8
	비 동 거 / 독 립	1,667	47.2

2. 조사 내용

표 1-2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대책	-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결혼 여부	-	문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8-1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8-2
	맞벌이 유무	-	문9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10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1
	2025년 출산을 전망	-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3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3-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5(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문16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졸업여부*, 학년*, 입학 및 졸업연월	-	문16(1)~(7)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7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8
	졸업 유예 사유 및 미이수 사유	-	문19
	복수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경험*	-	문20
	복수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전공 계열*	-	문20-1
	고교교육 및 대학교육 만족도	문8	문21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	문22
	대학원 박사 과정 진학 여부*	-	문22-1
	대학원 재학상태*	-	문22-2
	대학 미진학 사유	-	문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9	문24
	고등학교 재학 경험*	문10	문25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고등학교 유형*	문10-1	문25-1
	고등학교 재학 학년*	문10-2	-
	고등학교 재학 중 계열 및 전공 변경 여부*	문10-3	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	문10-4	문25-3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문10-4-1	문25-3-1
	취업 준비 여부	문11	문26
	취업 준비 기간*	-	문26-1
	취업 준비 방법별 경험 여부 *	문12	문27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여부*	문13	문28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정도*	문13-1	문28-1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내용*	문13-2	문28-2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 월 이용 비용*	문13-3	문28-3
	사설기관 외 취업준비 관련 월 이용 비용*	문13-4	문28-4
	평일 기준 취업 준비 투자 시간*	문13-5	문28-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4	문29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30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5	문3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문16	문32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7	문3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8	문34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9	문35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9-1	문35-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문36
	채무 발생 사유	-	문36-1
	대출을 받은 기관*	-	문36-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20	문3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	문21	문38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22	문39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22-1	문39-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40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4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41-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41-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42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43
	지난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	문44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	문4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	문45-1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	문46
	구직활동을 한 기간	-	문4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48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문49(1)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문49(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문49(3)
	지난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	문49-3-1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	문49-3-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문49(4)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50
	이직 의향	-	문51
	이직 희망 사유	-	문51-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5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	문52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	문53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문54
	실업급여 인지 여부	-	문55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문5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문56-1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23	문57
	집에 대한 생각	문24(1)~(3)	문58(1)~(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5	문59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6	문60
	부모 동거 여부	문27	문61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8	-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62
	현재 주거 형태	-	문62-1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29	문6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30	문64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31	문6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32	문6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33	문67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문34(1)~(5)	문68(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문35(1)~(11)	문69(1)~(1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36	문70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36-1	문70-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37	문71
	성형수술 경험	문38	문72
	성형수술 목적	문38-1	문72-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38-2	문72-2
6.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9(1)~(4)	문73(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40	문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41	문75
7.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수	문42	문76
	평소 외출 정도	문43	문77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43-1	문77-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43-2	문77-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	문78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	문79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44(1)~(7)	문80(1)~(7)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1)	문45(1)~(5)	문81(1)~(12)
8. 정치·사회 참여	정치적 효능감	문46(1)~(3)	문82(1)~(3)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경험*	-	문83
	사회·정치 참여 이유*	-	문84
	정치 문제 관심 정도*	-	문85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	문86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	문87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문88
	단체(모임) 참여 경험*	-	문89
	단체(모임) 참여 이유*	-	문90
	단체(모임) 참여 의향*	-	문91
	청년들의 단체,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문92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별 인지도*	-	문93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문94
	10대(중·고등학교) 시기 내 활동별 참여 경험*	-	문95

1) 청년용 설문지의 경우 2019년 조사 시 7개 문항이 추가됨(중·고등학생용 설문 문항은 동일)

3.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조사방법, 응답자 반응, 실사 환경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 하였다. 예비조사는 종이설문을 활용한 1:1 개별면접법(Face to Face Interview)으로 진행한 후 이어서 문항 소요시간 및 난이도,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등 조사 내용과 조사 진행 관련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간단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만15-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용 설문 10부와 만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용 설문 40부 등 총 50부²⁾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표의 난이도나 설문 자체의 불편함 정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중학생 응답자가 고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거나 미혼 상태일 때 자녀 계획을 응답하는 등 향후 문제에 대해 답하기가 어려웠다는 의견, 체형, 채무, 성형수술, 월소득 등의 민감한 정보는 응답하기 까다롭다는 의견, 노동 공급/수요 관련 정책, 청년 관련 법, 기구, 지원 정책 등 평소 많이 접하지 않았던 정책 관련 내용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동 로직 및 연계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표시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 등이 지적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시 정책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예시문

2) 만19-39세 청년용 설문 40분 성별, 연령대, 취업 여부, 혼인 여부를 고려 하여 성별로는 남성 20부, 여성 20부, 연령대별로는 20대 20명, 30대 20명, 취업 여부별로는 경활자 20명, 비경활자 20명,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자 14명, 미혼자 26명으로 각각 구성하여 진행 하였다.

추가, 조사지침서 내용 보충,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조사 항목의 경우 면접원이 현장에서 추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이동 로직 및 연계 문항 관련 인쇄물 작성 후 현장에서 활용하였다.

이상의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구 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로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태블릿PC 내 사전 구현된 설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상자만 종이설문을 활용한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원칙, 조사표 내용 및 응답 방법, 조사 진행 방식 등 조사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입 예정 조사원 전원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18년 7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진행하였고, 최초 집체교육 외에 중도 포기 인원을 대체할 조사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조사원 대상의 수시교육이 실사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사전에 준비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준해 조사 배경 및 목적, 적격 가구 확인, 진행 절차별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조사개요 파트, 설문 유형 구분 및 문항별 의미, 용어 정의, 보기문항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표 작성방법 파트, 주요 조사 도구인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가구 정보 입력, 조사 화면 접속 및 진행을 교육, 실습 해 보는 TAPI

프로그램 교육 파트, 마지막으로 교육한 내용에 대해 면접원들이 이해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내용 테스트 등 4개 파트에 걸쳐 약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실제 조사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사 수락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 읍면 지역의 경우 동·반장, 이장 등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해당 가구 내에 본 조사대상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 있다면 성별과 연령대별로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재택 중인 가구원에 대해 다시 각각 조사 협조를 구한 후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진행 하였다. 만약 적격 연령대 가구원 중 방문 당시에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재방문 일정을 정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치를 희망할 경우 조사표 인쇄물 및 조사 가이드를 유치한 후 다음 회수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개별면접을 마친 후, 또는 유치한 조사표를 회수한 후 조사원은 빠진 문항은 없는지, 논리구조 상 잘못된 응답이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육안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수정을 요청 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표가 이상 없이 완결되면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4. 조사 일정

본 조사를 수행하기까지의 상세한 일정은 다음 <표 I -3>과 같다. 본 조사는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6주간 실시되었다.

표 I -3 조사 일정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표본설계	~ 2019. 5. 17.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반영
예비 조사	2019. 05. 02. ~ 2019. 05. 10.	총 50부 (중/고등학생용 10부, 청년용 40부)
변경승인 진행	2019. 05. 03. ~ 2019. 05. 31.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
조사방법(TAPI) 프로그램 개발	2019. 05. 13. ~ 2019. 06. 07.	설문, 인터뷰어, 매니저 개발
실사 준비	2019. 05. 20. ~ 2019. 05. 31.	교육자료 준비, 조사원 선발, 명부 수령, 조사물품 배포
조사원 교육	2019. 05. 28. ~ 2019. 05. 30.	총 5개 지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조사표 최종 확정	2019. 06. 05.	2종 (중/고등학생용(만15-18세), 청년용(만19-39세))
본조사 진행	2019. 06. 10. ~ 2019. 07. 26.	
자료입력 및 보완	2019. 07. 29. ~ 2019. 08. 02.	
데이터 클리닝 및 데이터 검수	2019. 08. 13. ~ 2019. 08. 27.	2019. 8. 27. 데이터 검수 실시

5. 무응답 현황

조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항목 무응답 현황은 <표 I -4>와 같으며 2019년 본 조사 시에는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I -4 항목 무응답

(단위: 명, %)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3,530	0 (0.0)
문2.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3,530	0 (0.0)
문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3,530	0 (0.0)
문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3,530	0 (0.0)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2,948	0 (0.0)
문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2,948	0 (0.0)
문7. 결혼 여부	2,948	0 (0.0)
문8. 결혼 준비 경험 여부	2,948	0 (0.0)
문8-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1,213	0 (0.0)
문8-2. 결혼을 망설임 이유	341	0 (0.0)
문9. 맞벌이 여부	1,157	0 (0.0)
문10. 현재 자녀 존재 유무	2,948	0 (0.0)
문1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2,948	0 (0.0)
문12. 2025년 출산율 전망	2,948	0 (0.0)
문13.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3,530	0 (0.0)
문13-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935	0 (0.0)
문14. 2025년 입시경쟁 전망	3,530	0 (0.0)
문1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3,530	0 (0.0)
문1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3,530	0 (0.0)
문1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3,530	0 (0.0)
문16.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2,948	0 (0.0)
문16-1.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2,196	0 (0.0)
문17. 졸업 유예 경험	2,196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8.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196	0 (0.0)
문19. 졸업 유예 및 필요 요건 미이수 이유	219	0 (0.0)
문20. 복수/부/심화/연계전공 경험 여부	2,196	0 (0.0)
문20-1. 복수/부/심화/연계전공 계열	176	0 (0.0)
문21.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2,196	0 (0.0)
문21.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196	0 (0.0)
문21.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196	0 (0.0)
문21.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196	0 (0.0)
(중고등학생용) 문8. 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582	0 (0.0)
(중고등학생용) 문8. 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82	0 (0.0)
(중고등학생용) 문8. 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82	0 (0.0)
(중고등학생용) 문8. 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582	0 (0.0)
문22.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2,196	0 (0.0)
문22-1.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여부	75	0 (0.0)
문22-1. 대학원 재학 상태	75	0 (0.0)
문23. 대학 미진학 사유	752	0 (0.0)
문24. 향후 대학 진학 의향	1,334	0 (0.0)
문25. 고등학교 재학 경험	3,530	0 (0.0)
문25-1. 재학 고등학교 유형	3,354	0 (0.0)
(중고등학생용) 문10-2. 재학 학년	450	0 (0.0)
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 및 전공 변경	3,354	0 (0.0)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3,354	0 (0.0)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2) 진로와 직업 수업	3,354	0 (0.0)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캠프 등)	3,354	0 (0.0)

문항내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3,354	0 (0.0)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3,354	0 (0.0)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_6) 취업처 연계	3,354	0 (0.0)
문25-3-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2,205	0 (0.0)
문25-3-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1,511	0 (0.0)
문25-3-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캠프 등)	1,061	0 (0.0)
문25-3-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1,069	0 (0.0)
문25-3-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1,078	0 (0.0)
문25-3-1.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_6) 취업처 연계	541	0 (0.0)
문26. 취업준비 여부	3,530	0 (0.0)
문26-1. 취업준비 기간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8) 현장실습 경험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0) 인턴 경험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1) 봉사활동 경험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286	0 (0.0)
문27.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_13) 기타	1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286	0 (0.0)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86	0 (0.0)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286	0 (0.0)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4) 부모님이나 친인척	286	0 (0.0)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5) 친구, 선후배	286	0 (0.0)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곳_6) 기타	-	0 (0.0)
문28-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133	0 (0.0)
문28-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82	0 (0.0)
문28-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112	0 (0.0)
문28-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4) 부모님이나 친인척	97	0 (0.0)
문28-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5) 친구, 선후배	143	0 (0.0)
문28-1. 도움을 받은 대상별 도움 정도_6) 기타	-	0 (0.0)
문28-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133	0 (0.0)
문28-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82	0 (0.0)
문28-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112	0 (0.0)
문28-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	97	0 (0.0)
문28-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5) 친구, 선후배	143	0 (0.0)
문28-2. 주체별 도움을 받은 내용_6) 기타	-	0 (0.0)
문28-3. 사설기관 이용 비용		
문28-4. 사설기관 외 이용 비용		
문28-5. 취업준비 투자 시간		
문29.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3,530	0 (0.0)
문30.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2,948	0 (0.0)
문3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3,530	0 (0.0)

문항내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32. 2020년 걱정 최저 임금	3,530	0 (0.0)
문33.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3,530	0 (0.0)
문34.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3,530	0 (0.0)
문35. 한 달 생활비 정도	3,530	0 (0.0)
문35-1.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3,530	0 (0.0)
문36. 갚아야 할 채무 여부	2,948	0 (0.0)
문36-1. 채무 발생 이유	738	0 (0.0)
문36-2. 채무 대상 기관	738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30	0 (0.0)
문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3,530	0 (0.0)
문3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3,530	0 (0.0)
문3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3,530	0 (0.0)
문3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3,530	0 (0.0)
문3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3,530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3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30	0 (0.0)
문3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30	0 (0.0)
문39. 중소기업 취업 의향	3,530	0 (0.0)
문39-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362	0 (0.0)
문40.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2,948	0 (0.0)
문4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2,948	0 (0.0)
문41-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2,948	0 (0.0)
문41-2.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2,948	0 (0.0)
문4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2,948	0 (0.0)
문43.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943	0 (0.0)
문44.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25	0 (0.0)
문4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802	0 (0.0)
문46. 교육,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512	0 (0.0)
문47. 구직활동 지속 기간	133	0 (0.0)
문4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2,005	0 (0.0)
문49. 근로 조건_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2,005	0 (0.0)
문49. 근로 조건_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2,005	0 (0.0)
문49. 근로 조건_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2,005	0 (0.0)
문49. 근로 조건_3-1) 업무 추가, 업무시간 추가 부여 시 근로 가능 여부	253	0 (0.0)
문49. 근로 조건_3-2) 지난 4주간 더 많은 일을 위해 일을 찾아본 경험 여부	253	0 (0.0)
문49. 근로 조건_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2,005	0 (0.0)
문50.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2,005	0 (0.0)
문51. 이직 의향	2,005	0 (0.0)
문51-1. 이직 희망 사유	490	0 (0.0)
문52.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2,948	0 (0.0)
문53.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2,811	0 (0.0)
문54. 취업 후 퇴사 또는 해고 경험	2,948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55. 실업급여 인지 여부	1,334	0 (0.0)
문56. 실업급여 수급 여부	1,111	0 (0.0)
문56-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698	0 (0.0)
문57.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3,530	0 (0.0)
문58.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3,530	0 (0.0)
문58.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530	0 (0.0)
문58.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530	0 (0.0)
문59. 공동주거 경험 여부	3,530	0 (0.0)
문60.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3,530	0 (0.0)
문61. 부모 동거 여부	3,530	0 (0.0)
(중고등학생용) 문28. 향후 분가 예상 시기	574	0 (0.0)
문62. 미혼 독립 거주 여부	1,659	0 (0.0)
문62-1. 1인 가구 주거 형태	472	0 (0.0)
문6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3,530	0 (0.0)
문64. 주관적인 체형 평가	3,530	0 (0.0)
문65. 건강검진 수검 여부	3,530	0 (0.0)
문66.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3,530	0 (0.0)
문67.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582	0 (0.0)
문6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3,530	0 (0.0)
문6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3,530	0 (0.0)
문6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3,530	0 (0.0)
문6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3,530	0 (0.0)
문6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2) 비교적 잘 지냈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3) 상당히 우울했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3,530	0 (0.0)

문항내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69. 주관적인 감정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9) 마음이 슬펐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3,530	0 (0.0)
문69. 주관적인 감정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3,530	0 (0.0)
문70. 규칙적인 운동 여부	3,530	0 (0.0)
문70-1. 규칙적인 운동 빈도	1,097	0 (0.0)
문7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3,530	0 (0.0)
문72. 성형수술 경험	3,530	0 (0.0)
문72-1. 성형수술 목적	318	0 (0.0)
문72-2.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297	0 (0.0)
문73.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3,530	0 (0.0)
문73.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3,530	0 (0.0)
문7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3,530	0 (0.0)
문7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3,530	0 (0.0)
문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3,530	0 (0.0)
문7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3,530	0 (0.0)
문7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및 수	3,530	0 (0.0)
문77. 평소 외출 정도	3,530	0 (0.0)
문77-1. 현재 상태 지속 기간	100	0 (0.0)
문77-2. 현재 상태가 된 계기	100	0 (0.0)
문78. 지난 주 점심기준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및 횟수	2,948	0 (0.0)
문79. 지난 주 저녁기준 혼자 술을 먹은 경험 및 횟수	2,948	0 (0.0)
문80.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3,530	0 (0.0)
문80.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3,530	0 (0.0)
문80.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3,530	0 (0.0)
문80.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3,530	0 (0.0)
문80.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3,530	0 (0.0)
문80.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3,530	0 (0.0)
문80.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3,530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530	0 (0.0)

문항내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3,530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3)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3,530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530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3,530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2,948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2,948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2,948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2,948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2,948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2,948	0 (0.0)
문81. 사회, 정치 문제 관련 향후 의견 표명 의향_12) 투표에 참여하기	2,948	0 (0.0)
문82.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530	0 (0.0)
문82.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530	0 (0.0)
문82.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530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2,948	0 (0.0)

문항내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2,948	0 (0.0)
문83.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_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2,948	0 (0.0)
문84. 사회 및 정치 참여 이유	2,039	0 (0.0)
문85. 정치 문제 관심 정도	2,948	0 (0.0)
문86.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부	2,948	0 (0.0)
문87.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여부	2,948	0 (0.0)
문88.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4) 종교모임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7) 학술단체	2,948	0 (0.0)
문89. 단체(모임) 참여 경험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2,948	0 (0.0)
문90. 단체(모임) 참여 이유	2,419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2,948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2,948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2,948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4) 종교모임	2,948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2,948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2,948	0 (0.0)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7) 학술단체	2,948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91. 단체(모임) 참여 의향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2,948	0 (0.0)
문92. 청년들의 단체(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2,948	0 (0.0)
문93.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_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2,948	0 (0.0)
문93.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_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2,948	0 (0.0)
문93.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_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2,948	0 (0.0)
문93.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_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2,948	0 (0.0)
문93.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_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2,948	0 (0.0)
문94. 청년들의 사회,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4) 봉사활동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5)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7) 사회단체 활동	2,948	0 (0.0)
문9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활동 경험_8) 기타	-	0 (0.0)

6. 표본설계 및 가중치³⁾

1) 모집단 분석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다.

〈표 I -5〉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모집단 현황이다. 모집단 내 전체 일반가구는 19,673,875호⁴⁾이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일반가구의 23.4%와 19.4%를 차지하고, 전체 조사대상(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 16,532,031명 중 경기와 서울이 각각 25.5%, 20.5%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경남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이다.

2019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2017년⁵⁾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3) 이 절은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본 조사의 표본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다. 본 조사는 통계청 조사구 방식의 가구조사로 설계 되었으므로 표본설계 내용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을 게재하였다.

4)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가구형태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형태가 '집단가구(비혈연)',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등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표본설계 진행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표본추출틀은 2017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였다.

표 I -5 모집단 현황(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가구 수	열%	만15-39세 성인	열%
전국	19,673,875	100.0%	16,532,031	100.0%
서울	3,813,260	19.4%	3,388,666	20.5%
부산	1,354,401	6.9%	1,071,235	6.5%
대구	948,030	4.8%	783,144	4.7%
인천	1,080,285	5.5%	971,284	5.9%
광주	575,732	2.9%	514,548	3.1%
대전	597,736	3.0%	541,458	3.3%
울산	428,720	2.2%	381,662	2.3%
세종	104,325	0.5%	98,281	0.6%
경기	4,602,950	23.4%	4,209,877	25.5%
강원	620,729	3.2%	446,452	2.7%
충북	629,073	3.2%	501,725	3.0%
충남	834,986	4.2%	668,304	4.0%
전북	728,871	3.7%	536,311	3.2%
전남	733,757	3.7%	469,641	2.8%
경북	1,087,807	5.5%	763,845	4.6%
경남	1,292,998	6.6%	994,544	6.0%
제주	240,215	1.2%	191,054	1.2%

표 I -6 만 15-39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2,891,577	3,355,986	3,164,039	3,216,057	3,904,372	16,532,031
서울	486,459	661,569	735,323	727,683	777,632	3,388,666
광역시	부산	180,155	231,153	209,493	249,880	1,071,235
	대구	146,783	170,185	148,739	140,523	783,144
	인천	161,436	190,964	192,289	191,132	971,284
	광주	101,208	114,650	91,856	91,459	514,548
	대전	99,918	124,742	104,070	97,389	541,458
	울산	67,201	73,591	71,788	74,938	381,662
	세종	15,631	17,536	15,724	20,674	98,281
광역시 소계	772,332	922,821	833,959	816,669	1,015,831	4,361,612
도 지역	경기	735,505	810,977	796,839	824,632	4,209,877
	강원	89,224	103,149	81,027	76,594	446,452
	충북	95,873	112,596	90,676	92,156	501,725
	충남	126,640	138,349	117,722	128,521	668,304
	전북	113,587	122,021	92,330	91,748	536,311
	전남	100,754	93,977	76,918	86,282	469,641
	경북	147,319	161,828	134,837	143,193	763,845
	경남	186,796	191,438	171,338	192,691	994,544
	제주	37,088	37,261	33,070	35,888	191,054

2) 층화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이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15세-39세 가구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 (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I -7>과 <표 I -8>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I -7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I -8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층화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33개 1차 층을 구성하였다. 이후 서울, 광역시 및 11개

도 지역(동) 층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고, 읍면 지역에서 세부 층화는 따로 없었다. <표 I-9>는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고 <표 I-10>은 각각 층별 조사구 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 I-9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총 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 광역시(7)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도 지역	11개 지역(동부)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11개 도 지역(읍·면부)	-	11

표 I-10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개)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37,957	132,954	71,317	342,228
서울-북서	3,660	7,748	0	11,408
서울-북동	7,981	11,936	0	19,917
서울-남서	7,481	12,670	0	20,151
서울-남동	6,235	6,482	0	12,717
부산	11,989	11,220	0	23,209
대구	8,084	7,479	0	15,563
인천	9,224	8,817	0	18,041
광주	5,766	3,641	0	9,407
대전	4,959	4,518	0	9,477
울산	4,022	3,180	0	7,202
세종	1,372	566	0	1,938
경기-북부	2,940	1,362	5,891	10,193
경기-중부	18,753	15,883	1,796	36,432
경기-남부	12,535	10,697	5,689	28,921
강원	3,510	2,791	6,126	12,427
충북	3,435	2,624	5,777	11,836
충남	3,707	2,624	8,756	15,087
전북	4,923	3,642	5,395	13,960
전남	3,264	2,110	9,218	14,592
경북	5,126	4,626	11,812	21,564
경남	7,792	6,237	9,681	23,710
제주	1,199	2,101	1,176	4,476

3)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만 15~39세의 청년층 3,500명을 전국에서 표집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가구 한 가구당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 수는 0.84명으로 약 4,2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모두 조사할 경우 3,500명의 목표 표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약 10명의 청년층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350개이다. 단, 해당 연령대의 경우 낮은 재택률로 인해 조사대상 면접이 어렵고, 특히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가 가구원 당 0.66명으로 동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표집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6개 권역⁶⁾ 단위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에 대해서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어야 한다.

통계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 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설계에 사용된 최종 배분법은 각 통계작성 단위별 가구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최종방안으로 하였다. 이 배분법을 적용하면 권역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I-11〉은 2018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다. 이 조사의 설계효과 값은 약 2.03~4.3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9\%$ (설계효과 3.17를 적용한 결과임)이다.

6) 서울 / 경기·인천 /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 광주·전남·전북·제주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표 | -11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행정구역	표본배분 현황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q7)	39.4%	2.6%	2.03
중소기업 취업 의향(q33)	63.9%	3.0%	3.13
친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q74)	92.1%	2.0%	4.36
평균	-	-	3.17
중위수	-	-	3.13

표 | -12 각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시도	모집단	표본배분 현황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권역별 우선할당(20) 후 비례배분
전국	19,367,696	300	300	300
서울	3,813,260	68	64	64
경기·인천	5,683,235	100	78	86
대전·세종·충청·강원	2,786,849	50	55	53
광주·전라·제주	2,278,575	41	49	47
부산·울산·경남	3,076,119	55	57	56
대구·경북	2,035,837	36	47	44

표 | -13 각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가 예상

시도	모집단 가구 수	새로운 표본설계	
		표본크기	오차의 한계
전국	19,673,875	3,500	2.9%p
서울	3,813,260	640	6.9%p
경기·인천	5,683,235	780	6.2%p
대전·세종·충청·강원	2,786,849	550	7.4%p
광주·전라·제주	2,278,575	490	7.9%p
부산·울산·경남	3,076,119	570	7.3%p
대구·경북	2,035,837	470	8.0%p

7) 오차의 한계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단순임의추출법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큰 값을 갖게 된다.

각 권역에서 시도별 표본배분은 조사대상자 수(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1-14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시도	만 15-39세 성인	열%	표본 조사구 수
전국	16,532,031	100.0%	350
서울	3,388,666	20.5%	64
부산	1,071,235	6.5%	25
대구	783,144	4.7%	24
인천	971,284	5.9%	15
광주	514,548	3.1%	15
대전	541,458	3.3%	13
울산	381,662	2.3%	9
세종	98,281	0.6%	3
경기	4,209,877	25.5%	63
강원	446,452	2.7%	11
충북	501,725	3.0%	12
충남	668,304	4.0%	16
전북	536,311	3.2%	16
전남	469,641	2.8%	13
경북	763,845	4.6%	23
경남	994,544	6.0%	23
제주	191,054	1.2%	5

표 1-15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43	139	68	350
서울-북서	4	7	0	11
서울-북동	8	12	0	20
서울-남서	7	13	0	20
서울-남동	6	7	0	13
부산	13	12	0	25
대구	12	12	0	24
인천	8	7	0	15
광주	9	6	0	15
대전	7	6	0	13
울산	5	4	0	9
세종	2	1	0	3
경기-북부	3	2	4	9
경기-중부	15	13	2	30
경기-남부	10	9	5	24
강원	3	3	5	11
충북	3	3	6	12
충남	4	3	9	16
전북	6	4	6	16
전남	3	2	8	13
경북	5	5	13	23
경남	8	6	9	23
제주	2	2	1	5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35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39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고,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역별 표본가구당 조사대상자 수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조사구에서 추출되는 가구수를 결정하였다. 2017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는 0.88명이고, 읍면 지역에서는 0.66명이다. 이에 따라 표본 조사구에서 목표표본크기인 10명의 청년층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2가구, 읍면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5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I -16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현황(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 구분	만 15-39세 인구	일반 가구 수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응답자 수(예상)		
				표본 조사구	조사 가구 수	응답자 수 (예상) ⁸⁾
전국	16,532,031	19,673,875	0.84	350	4,404	3,651
동 지역	14,015,111	15,881,216	0.88	282	3,384	2,978
읍면 지역	2,516,920	3,792,659	0.66	68	1,020	673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조사구를 활용할 때 조사구 전체가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불능인 경우에는 예비표본에서 대체하도록 하였다.

8) 일부 조사대상자의 응답 거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무응답으로 최종 응답자 수는 약 3,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가중치 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이 조사의 최종 가중치는 지역, 조사구별 추출률과 무응답율의 차이를 반영한 후 모집단 정보에 대한 사후층화를 통해서 얻어졌다.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9년 기준의 「인구추계」 결과이고, 각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표본조사구의 크기 척도(measure of size)인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p_{1hi} = n_h \frac{S_{hi}}{S_h}$$

여기서,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척도(조사구 내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의 모집단 총 가구 수(크기의 척도 총합)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2가구 또는 15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12$ (또는 15)이다.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에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m_{hi}}$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틀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별로 진행되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1} = \frac{m_{hi}}{r_{hi}}$$

가구 내 무응답 조정은 각 표본 가구에서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 수와 응답 가구원 수의 비(比)로 계산한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2} = \frac{\text{해당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text{응답 가구원 수}}$$

벤치마킹 조정은 최신 모집단 정보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였다.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권역별(6)×연령대(5)×성별(2)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별, 성별, 연령별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계산하여 모집단과 조사 표본간의 분포 차이를 보정하였으며, <표 I-17>과 <표 I-18>는 각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 결과이다.

종합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가구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1} \times \text{무응답 조정2}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1-17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남자(장래인구추계, 2019년도)

시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1,390,661	1,784,304	1,914,470	1,736,144	2,094,020	8,919,599
서울	227,038	314,601	407,193	369,290	401,512	1,719,634
부산	82,438	118,371	125,045	103,290	128,857	558,001
대구	70,814	91,174	90,852	74,583	89,186	416,609
인천	78,492	100,930	110,950	102,960	127,476	520,808
광주	47,762	59,252	54,933	46,785	59,046	267,778
대전	44,175	63,211	67,222	52,288	57,795	284,691
울산	33,848	43,241	44,684	42,126	51,719	215,618
세종	9,023	10,518	12,000	12,437	18,434	62,412
경기	364,387	437,731	485,813	462,351	571,119	2,321,401
강원	42,477	58,017	53,607	41,126	49,526	244,753
충북	44,572	60,231	60,034	51,675	61,090	277,602
충남	57,669	75,668	80,182	75,185	91,344	380,048
전북	52,487	67,551	59,058	47,270	60,882	287,248
전남	50,134	57,843	46,118	44,668	60,979	259,742
경북	70,418	91,807	87,222	80,338	97,805	427,590
경남	95,100	112,610	109,277	110,453	140,713	568,153
제주	19,827	21,548	20,280	19,319	26,537	107,511

표 1-18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여자(장래인구추계, 2019년도)

시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1,279,688	1,594,736	1,655,123	1,554,095	1,948,026	8,031,668
서울	215,885	330,439	414,642	367,406	393,336	1,721,708
부산	75,881	108,734	109,068	94,800	121,989	510,472
대구	63,285	78,892	73,510	63,887	87,580	367,154
인천	73,607	90,829	99,048	92,399	116,749	472,632
광주	44,026	54,751	49,914	43,309	57,174	249,174
대전	40,715	58,667	54,921	45,991	56,007	256,301
울산	29,627	30,622	32,425	33,731	45,698	172,103
세종	8,784	9,964	10,509	12,935	19,643	61,835
경기	339,480	394,574	419,603	411,028	529,848	2,094,533
강원	38,105	43,682	37,653	34,816	46,704	200,960
충북	40,365	51,913	45,887	43,024	54,593	235,782
충남	52,827	66,343	61,535	59,656	76,407	316,768
전북	48,423	55,762	46,882	42,996	56,449	250,512
전남	45,080	43,226	35,999	39,008	53,786	217,099
경북	61,496	72,758	64,420	64,626	85,602	348,902
경남	84,291	85,292	81,312	86,679	121,592	459,166
제주	17,811	18,288	17,795	17,804	24,869	96,567

6) 모수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① 용어 정의

○ y_{hijk} :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h : 층 번호, i : 조사구 번호, j : 가구 번호, k : 가구 내 개인 번호

○ w_{hijk} : 표본 가중치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해서 산출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전체 및 지역 특성별 구분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관찰값 y_{hijk}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w_{\dots}} : \text{모평균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k} 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된다.

$$\hat{p} = \frac{\left(\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 \right)}{w_{\dots}} : \text{모비율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④ 추정량의 분산

모평균(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가구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 - \bar{y}) \right) / w_{\dots},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표준오차: $s.e(\bar{y}) = \sqrt{\text{var}(\bar{y})}$,
- 상대표준오차: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text{var}(\bar{y})}$

○———— II.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 수	%	사례 수	%
전	체	3,530	100.0	16,951,267	100.0
	남 자	1,839	52.1	8,919,599	52.6
	여 자	1,691	47.9	8,031,668	47.4
연령	만 1 5 ~ 1 8 세	661	18.7	2,155,559	12.7
	만 1 9 ~ 2 9 세	1,431	40.5	7,463,423	44.0
	만 3 0 ~ 3 9 세	1,438	40.7	7,332,285	43.3
지역	서 울	652	18.5	3,441,342	20.3
	인 천 / 경 기	786	22.3	5,409,374	31.9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5.6	2,321,152	13.7
	광주/전라/제주	492	13.9	1,735,631	10.2
	부산/울산/경남	570	16.1	2,483,513	14.7
	대 구 / 경 북	478	13.5	1,560,255	9.2
	중 / 고 등 학 생	582	16.5	1,869,222	11.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5.3	2,516,677	14.8
	고 졸 이 하	901	25.5	4,607,455	27.2
	대 졸 이 상	1,507	42.7	7,957,913	46.9
주거 형태	동 거	1,863	52.8	8,725,442	51.5
	비 동 거 / 독 립	1,667	47.2	8,225,825	48.5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은 아동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상한 10.9세, 하한 4.2세, 청소년 연령을 상한 18.4세, 하한 12.4세, 청년 연령을 상한 32.3세, 하한 19.5세로 규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아동, 청소년, 연령 규정은 모두 하락하였고, 청년 상한 연령만 전년대비 0.9세 상승함
- 연령별로는 만15-18세에서 청년 상한 연령이 30.9세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만19-29세 32.3세, 만30-39세 32.8세)보다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청년 상한 연령이 33.4세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31.0세), 고졸이하(31.8세)에서 청년 상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2016	2,534	5.2	11.5	12.6	18.4	19.3	29.5
2017	2,714	4.5	11.2	12.2	18.4	19.4	31.2
2018	3,133	4.8	11.3	12.8	18.8	19.8	31.4
2019	3,530	4.2	10.9	12.4	18.4	19.5	32.3

표 II-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전 체			3,530	4.2	10.9	12.4	18.4	19.5	32.3
성별	남	자	1,839	4.2	10.9	12.4	18.4	19.5	32.5
	여	자	1,691	4.3	10.9	12.3	18.4	19.5	32.2
연령	만 1 5 ~ 1 8 세		661	4.3	11.0	12.4	18.4	19.5	30.9
	만 1 9 ~ 2 9 세		1,431	4.2	10.9	12.4	18.5	19.6	32.3
	만 3 0 ~ 3 9 세		1,438	4.2	10.9	12.3	18.3	19.4	32.8
지역	서 울		652	4.3	10.6	12.3	18.3	19.4	31.6
	인 천 / 경 기		786	4.7	11.2	12.5	18.4	19.5	32.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7	10.6	12.1	18.6	19.6	32.6
	광주/전라/제주		492	3.8	11.1	12.4	18.4	19.5	32.8
	부산/울산/경남		570	3.9	10.8	12.1	18.6	19.6	32.8
	대 구 / 경 북		478	4.6	11.4	12.7	18.6	19.6	33.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3	11.0	12.4	18.5	19.5	31.0
	대학생/대학원생		540	4.3	11.0	12.4	18.6	19.6	32.6
	고 졸 이 하		901	4.3	10.8	12.3	18.4	19.5	31.8
	대 졸 이 상		1,507	4.2	11.0	12.4	18.4	19.5	32.9
주거 형태	동 거		1,863	4.3	10.9	12.3	18.5	19.5	32.1
	비 동 거 / 독 립		1,667	4.2	11.0	12.4	18.4	19.5	32.6

2) 원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 청년들에게 원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적정 분가 독립 연령을 물어본 결과,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2018년 46.9% 대비 5.5%p 상승하였고 적정 독립 연령은 평균 25.6세로 2018년 27.9세에 비해 2.3세 하락함
- 성별로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56.5%)가 여자(47.8%)보다 높음
- 지역별로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57.4%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43.6%), 대구/경북(38.6%)에서는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5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2.4	26.2	44.2	3.5
2017	2,714	58.9	25.4	36.4	4.7
2018	3,133	46.9	27.9	47.1	6.0
2019	3,530	52.4	25.6	43.8	3.8

표 II-2-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3,530	52.4	25.6	43.8	3.8
성별	남	자	1,839	56.5	26.0	40.3	3.2	
	여	자	1,691	47.8	25.1	47.7	4.5	
연령	만 1 5 ~ 1 8 세		661	54.2	23.9	43	2.7	
	만 1 9 ~ 2 9 세		1,431	50.1	25.7	46.1	3.8	
	만 3 0 ~ 3 9 세		1,438	54.2	26.1	41.8	4.1	
지역	서 울		652	43.6	26.9	50.6	5.7	
	인 천 / 경 기		786	56.7	25.6	39.7	3.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6.1	24.3	41.7	2.2	
	광주/전라/제주		492	56.4	24.9	40.2	3.4	
	부산/울산/경남		570	57.4	26.0	37.8	4.9	
	대 구 / 경 북		478	38.6	26.0	60.0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53.2	23.8	43.9	2.9	
	대학생/대학원생		540	46	25.8	49.4	4.6	
	고 졸 이 하		901	57.6	25.3	38.1	4.3	
	대 졸 이 상		1,507	51.2	26.2	45.4	3.5	
주거 형태	동 거		1,863	49.2	25.9	46.9	3.9	
	비 동 거 / 독 립		1,667	55.7	25.4	40.5	3.7	

3) 결혼의 필요성

- 청년들에게 결혼의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연령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2018년 42.9% 대비 2.9%p 상승한 반면, 적정 결혼 평균 연령은 30.4세로 2018년(30.9세) 대비 소폭(-0.5세) 하락함
- 성별로는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51.4%)가 여자(39.7%)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4.0%로 가장 낮음 반면, 적정 결혼 연령은 응답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가장 높고, 전 지역에서 적정 결혼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응답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는 37.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6.0	30.1	40.1	4.0
2017	2,714	53.9	30.2	40.7	5.3
2018	3,133	42.9	30.9	49.3	7.8
2019	3,530	45.8	30.4	47.9	6.2

표 II-3-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3,530	45.8	30.4	47.9	6.2
성별	남	1,839	51.4	30.9	44.4	4.3
	여	1,691	39.7	29.7	51.9	8.4
연령	만 15 ~ 18 세	661	46.6	29.4	45.5	7.8
	만 19 ~ 29 세	1,431	44.0	30.3	48.3	7.7
	만 30 ~ 39 세	1,438	47.5	30.8	48.3	4.2
지역	서울	652	45.9	30.9	46.3	7.8
	인천 / 경기	786	43.9	30.1	49.8	6.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47.4	30.0	49.5	3.1
	광주/전라/제주	492	54.7	30.4	41.2	4.0
	부산/울산/경남	570	48.8	30.6	42.7	8.5
	대구 / 경북	478	35.7	30.6	58.7	5.6
	충 / 고 등 학 생	582	46.2	29.4	46.6	7.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37.7	30.6	51.5	10.8
	고 졸 이 하	901	51.6	30.0	43.7	4.7
	대 졸 이 상	1,507	45.0	30.9	49.6	5.4
주거 형태	동 거	1,863	43.1	30.4	48.6	8.3
	비 동 거 / 독 립	1,667	48.8	30.4	47.2	4.0

4) 자녀를 가질 필요성

- 청년들에게 자녀의 필요성 및 자녀 출산 적정 연령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2018년 44.0% 대비 2.1% 상승하였고, 적정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31.8세로 2018년(32.0세) 대비 큰 차이가 없었음
- 성별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남자(51.3%)가 여자(40.3%)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만30~39세에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0.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60.3%로 다른 지역 대비 높고, 적정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서울이 32.3세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는 34.9%로 가장 낮음

표 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4.0	31.2	42.4	3.6
2017	2,714	54.1	31.3	41.4	4.5
2018	3,133	44.0	32.0	48.5	7.6
2019	3,530	46.1	31.8	47.6	6.3

표 II-4-1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3,530	46.1	31.8	47.6	6.3
성별	남	자	1,839	51.3	32.2	44.2	4.6
	여	자	1,691	40.3	31.2	51.5	8.2
연령	만 1 5 ~ 1 8 세		661	43.3	31.8	47.6	9.1
	만 1 9 ~ 2 9 세		1,431	43.0	31.7	49.2	7.9
	만 3 0 ~ 3 9 세		1,438	50.1	32.0	46.1	3.8
지역	서 울		652	46.0	32.3	47.5	6.4
	인 천 / 경 기		786	44.1	31.7	49.6	6.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46.0	31.1	50.4	3.6
	광주/전라/제주		492	60.3	31.7	35.2	4.5
	부산/울산/경남		570	47.7	32.0	42.2	10.1
	대 구 / 경 북		478	34.7	31.8	59.4	5.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3.3	31.8	48.4	8.3
	대학생/대학원생		540	34.9	32.1	54.0	11.2
	고 졸 이 하		901	53.5	31.3	41.2	5.3
	대 졸 이 상		1,507	46.0	32.1	49.2	4.8
주거 형태	동 거		1,863	41.1	32.0	50.4	8.5
	비 동 거 / 독 립		1,667	51.4	31.6	44.7	3.9

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18.1%),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17.1%)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가구의 주거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가, 여자는 남자 대비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30.0%), ‘가구의 소득 증대’(23.2%)가, 서울 지역에서는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가 24.1%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6.2%, 대졸 이상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가 13.3%로 높음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2015	1,000	14.3	25.5	8.6	28.7	12.1	6.5	4.3	-
2016	2,192	16.4	17.4	10.9	22.1	16.5	12.0	4.7	0.2
2017	2,321	13.5	21.2	9.6	24.3	14.4	9.8	6.8	0.5
2018	2,641	9.9	19.2	11.6	22.4	16.7	14.3	5.9	0.1
2019	2,948	9.2	18.1	7.1	21.2	16.9	17.1	10.3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5-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948	9.2	18.1	7.1	21.2	16.9	17.1	10.3	0.1
성별	남	자	1,537	10.7	15.7	6.6	22.1	19.3	20.3	5.3	0.1	
	여	자	1,411	7.5	20.9	7.7	20.1	14.2	13.4	16.0	0.2	
연령	만 1 5 ~ 1 8 세		79	9.7	15.8	7.5	30.4	8.4	18.0	10.3	0.0	
	만 1 9 ~ 2 9 세		1,431	9.9	19.6	7.1	21.1	15.9	15.8	10.4	0.2	
	만 3 0 ~ 3 9 세		1,438	8.4	16.8	7.1	21.0	18.2	18.3	10.2	0.1	
지역	서 울		567	5.7	18.7	6.4	15.1	16.6	24.1	13.3	0.0	
	인 천 / 경 기		661	10.2	19.0	7.4	19.7	16.6	17.2	9.7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0.8	20.4	7.7	21.7	14.2	15.0	9.7	0.6	
	광 주 / 전라 / 제 주		402	11.7	13.6	6.2	26.1	16.8	13.9	11.8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11.2	21.4	8.1	24.0	16.6	9.9	8.8	0.0	
	대 구 / 경 북		394	5.1	10.1	6.1	30.0	23.2	18.7	6.9	0.0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 생		540	10.8	18.3	6.0	26.2	17.8	13.2	7.8	0.0	
	고 졸 이 하		901	12.7	14.5	8.3	23.4	17.6	16.9	6.4	0.1	
	대 졸 이 상		1,507	6.6	20.2	6.8	18.3	16.2	18.4	13.3	0.2	
주거 형태	동 거		1,289	9.7	19.2	6.1	22.0	15.9	17.6	9.4	0.1	
	비 동 거 / 독 립		1,659	8.8	17.3	7.9	20.5	17.7	16.6	11.0	0.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21.4%), ‘가구의 소득 증대’(13.1%)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가구의 주거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가, 여자는 남자 대비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16.0%) 및 인천/경기(14.8%) 지역에서 ‘가구의 주거부담 완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32.4%), ‘가구의 소득 증대’(22.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9.0%, 대졸 이상에서 ‘육아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24.5%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방과후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대상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2016	2,192	20.3	21.6	5.0	2.2	23.8	14.6	8.8	3.2	0.4
2017	2,321	18.1	24.7	5.9	4.1	24.9	10.3	7.7	4.1	0.2
2018	2,641	17.3	23.5	5.5	6.4	18.3	14.5	7.8	6.7	0.1
2019	2,948	12.5	22.2	6.3	3.9	21.4	13.1	11.8	8.5	0.4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는 2016, 2017년에는 ‘아동수당 신설’로 질문하여 응답 받은 결과임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6-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방과후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대상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948	12.5	22.2	6.3	3.9	21.4	13.1	11.8	8.5	0.4
성별	남	자	1,537	13.3	20.7	5.7	4.2	21.3	15.4	13.7	5.3	0.5
	여	자	1,411	11.6	24.0	6.9	3.6	21.5	10.5	9.6	12.1	0.3
연령	만 1 5 ~ 1 8 세	79	16.0	28.3	1.9	1.8	26.1	6.9	7.6	11.5	0.0	
	만 1 9 ~ 2 9 세	1,431	12.8	22.7	4.1	4.1	22.8	12.6	11.5	9.1	0.2	
	만 3 0 ~ 3 9 세	1,438	12.1	21.5	8.6	3.7	19.7	13.9	12.2	7.7	0.6	
지역	서 울	567	9.6	21.3	6.3	1.0	20.7	12.5	16.0	12.7	0.0	
	인 천 / 경 기	661	11.9	24.3	6.3	4.7	17.7	12.4	14.8	7.1	0.6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1.1	25.7	6.2	4.7	23.2	10.4	8.5	9.3	0.9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17.6	20.1	6.7	5.3	21.1	10.9	8.3	9.4	0.7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15.5	24.0	6.6	4.8	22.0	13.5	6.6	6.9	0.0	
	대 구 / 경 북	394	12.8	11.1	5.1	3.5	32.4	22.7	8.5	3.9	0.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11.7	21.8	3.6	2.3	29.0	13.2	10.2	8.3	0.0	
	고 졸 이 하	901	14.5	18.5	5.6	5.6	21.2	14.8	11.9	7.6	0.3	
	대 졸 이 상	1,507	11.6	24.5	7.6	3.4	19.0	12.1	12.2	9.1	0.5	
주거 형태	동 거	1,289	12.3	23.5	4.6	3.1	22.8	12.3	12.4	8.8	0.3	
	비 동 거 / 독 립	1,659	12.7	21.2	7.7	4.6	20.2	13.8	11.2	8.2	0.4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7) 결혼 경험

- 청년들에게 결혼 경험을 조사한 결과, 43.4%가 경험이 '있다'(배우자 있음 42.6%+사별·이혼 0.8%)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자(53.3%)가 남자(34.6%)보다 결혼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결혼 경험이 '있다'(54.3%)는 응답 비율이 고졸이하(47.2%)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7 결혼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결혼하지 않음
성별	전 체	2,948	42.6	0.8	56.6
	남 자	1,537	34.0	0.7	65.4
	여 자	1,411	52.3	1.0	46.7
연령	만 15 ~ 18 세	79	0.0	0.0	100.0
	만 19 ~ 29 세	1,431	14.1	0.5	85.4
	만 30 ~ 39 세	1,438	73.3	1.3	25.5
지역	서울	567	38.9	0.2	60.9
	인천 / 경기	661	46.5	1.3	52.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1.1	1.3	57.6
	광주/전라/제주	402	41.0	0.5	58.5
	부산/울산/경남	478	41.2	0.8	58.0
	대구 / 경북	394	43.6	0.4	56.0
	대학생/대학원생	540	2.0	0.2	97.8
학력	고 졸 이 하	901	45.9	1.3	52.8
	대 졸 이 상	1,507	53.5	0.8	45.7
주거	동 거	1,289	5.8	0.6	93.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73.4	1.0	25.6

8) 결혼 준비 경험

- 청년들의 결혼 준비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4.5%가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 39.4% 대비 5.1%p 상승함
- 성별로는 여자(53.6%)가 남자(36.4%)보다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은 결혼 준비 경험 '있다' 응답 비율이 39.9%로 40%대인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결혼 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5.4%로 고졸이하(49.0%)에 비해 높음

표 II-8 결혼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192	42.0	58.0
2017	2,321	44.3	55.7
2018	2,641	39.4	60.6
2019	2,948	44.5	55.5

표 II-8-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948	44.5	55.5
성별	남 자	1,537	36.4	63.6
	여 자	1,411	53.6	46.4
연령	만 1 5 ~ 1 8 세	79	0.0	100.0
	만 1 9 ~ 2 9 세	1,431	15.5	84.5
	만 3 0 ~ 3 9 세	1,438	75.7	24.3
지역	서 울	567	39.9	60.1
	인 천 / 경 기	661	49.2	50.8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2.9	57.1
	광주/전라/제주	402	43.8	56.2
	부산/울산/경남	478	43.6	56.4
	대 구 / 경 북	394	43.0	57.0
	대학생/대학원생	540	1.6	98.4
학력	고 졸 이 하	901	49.0	51.0
	대 졸 이 상	1,507	55.4	44.6
주거 형태	동 거	1,289	8.1	91.9
	비 동 거 / 독 립	1,659	74.9	25.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9)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결혼 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설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망설임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30.5%로, 2018년 32.9% 대비 2.4%p 하락함
-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지역에서 '예(망설임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35.3%로 대졸이상(27.9%)에 비해 '예(망설임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동거 중인 청년에게서 '예'라는 응답이 52.9%로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9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920	41.4	52.3
2017	1,011	31.2	68.8
2018	1,020	32.9	67.1
2019	1,213	30.5	69.5

* 주 1)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2) 2016년에는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 유무'로 질문하여 응답 받은 결과이며 2017년부터는 망설임 이유를 포괄하여 '결혼을 망설임 경험 유무'로 응답 받은 결과임
(2016년 조사에는 '결혼비용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보기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6.8%였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9-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213	30.5	69.5
	자	501	30.4	69.6
성별	남	501	30.4	69.6
	여	712	30.5	69.5
연령	만 19 ~ 29 세	188	31.2	68.8
	만 30 ~ 39 세	1,025	30.3	69.7
지역	서울	204	26.1	73.9
	인천 / 경기	312	40.0	60.0
	대전/충청/세종/강원	166	29.8	70.2
	광주/전라/제주	171	18.5	81.5
	부산/울산/경남	203	27.3	72.7
	대구 / 경북	157	21.0	79.0
	대학생/대학원생	6	38.0	62.0
학력	고졸 이하	393	35.3	64.7
	대졸 이상	814	27.9	72.1
주거 형태	동거	90	52.9	47.1
	비동거 / 독립	1,123	28.4	71.6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10) 결혼을 망설인 이유

- 결혼 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결혼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16.4%),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11.8%) 등의 순임
- 성별로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결혼비용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자는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9-29세의 경우 ‘결혼비용 때문에’(62.5%)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만30-39세는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17.4%)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결혼비용 때문에’(60.4%) 망설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 결혼을 망설인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기타
2017	308	46.4	12.5	7.5	13.7	18.8	1.1
2018	353	65.8	9.1	6.3	9.1	9.2	0.6
2019	341	53.2	8.6	8.5	11.8	16.4	1.5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표 II-10-1 결혼을 망설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 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 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기타	
전		체	341	53.2	8.6	8.5	11.8	16.4	1.5
성별	남	자	143	59.0	6.3	11.9	8.5	12.9	1.3
	여	자	198	48.7	10.4	6.0	14.3	19.0	1.6
연령	만 1 9 ~ 2 9 세		50	62.5	11.3	4.3	9.8	12.1	0.0
	만 3 0 ~ 3 9 세		291	51.2	8.1	9.5	12.2	17.3	1.8
지역	서	울	52	51.3	0.9	2.8	29.6	15.5	0.0
	인 천 / 경 기		120	54.1	7.4	12.7	6.4	17.2	2.3
	대전/충청/세종/강원		47	45.8	15.1	7.3	9.9	18.4	3.4
	광주/전라/제주		30	56.5	12.7	10.5	12.3	8.0	0.0
	부산/울산/경남		60	60.4	15.3	2.2	11.8	10.2	0.0
	대 구 / 경 북		32	48.0	7.1	6.0	9.3	29.6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	0.0	0.0	100.0	0.0	0.0	0.0
	고 졸 이 하		122	55.9	13.5	7.0	9.6	14.0	0.0
	대 졸 이 상		218	52.1	5.6	8.4	13.3	18.1	2.5
주거 형태	동	거	44	56.4	7.5	9.8	11.8	14.5	0.0
	비 동 거 / 독 립		297	52.6	8.8	8.3	11.8	16.7	1.8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11) 맞벌이 여부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벌이 여부를 물어 본 결과, 46.6%가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 61.6% 대비 15.0%p 하락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59.7%로 다른 지역 대비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맞벌이 비율이 47.9%로 높게 나타남

표 II-11 맞벌이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2016	853	47.7	52.3
2017	969	49.9	49.5
2018	1,046	61.6	38.4
2019	1,157	46.6	53.4

*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 결과에 모름/무응답 0.6%가 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1-1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전	체	1,157	46.6	53.4
	자	463	46.2	53.8
성별	여	694	46.9	53.1
	자	694	46.9	53.1
연령	만 19 ~ 29 세	171	47.6	52.4
	만 30 ~ 39 세	986	46.4	53.6
지역	서울	197	45.7	54.3
	인천 / 경기	293	42.1	57.9
	대전/충청/세종/강원	158	59.7	40.3
	광주/전라/제주	161	50.4	49.6
	부산/울산/경남	191	42.3	57.7
	대구 / 경북	157	49.4	50.6
	대학생/대학원생	7	44.0	56.0
	고졸 이하	371	44.1	55.9
학력	대졸 이상	779	47.9	52.1
	대졸 이상	779	47.9	52.1
주거 형태	동거	62	45.0	55.0
	비동거 / 독립	1,095	46.7	53.3

* 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 현재 자녀 존재 여부

- 현재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5.4%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여 2018년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 28.3% 대비 7.1%p 상승하였으나, 평균 자녀수는 1.6명으로 전년도(1.5명)와 유사한 수준임
- 성별로는 여자(45.8%)가 남자(26.2%)보다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지역에서 자녀가 있다는 비율이 41.4%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43.7%)에서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2 현재 자녀 존재 유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2016	2,192	31.7	1.6	68.3
2017	2,321	35.6	1.7	64.4
2018	2,641	28.3	1.5	71.7
2019	2,948	35.4	1.6	64.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2-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 체		2,948	35.4	1.6	64.6
성별	남 자	1,537	26.2	1.6	73.8
	여 자	1,411	45.8	1.6	54.2
연령	만 1 5 ~ 1 8 세	79	0.0	-	100.0
	만 1 9 ~ 2 9 세	1,431	9.9	1.4	90.1
	만 3 0 ~ 3 9 세	1,438	62.8	1.7	37.2
지역	서 울	567	31.2	1.5	68.8
	인 천 / 경 기	661	41.3	1.7	58.7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32.4	1.6	67.6
	광 주/전라/제주	402	33.0	1.8	67.0
	부 산/울산/경남	478	34.6	1.7	65.4
	대 구 / 경 북	394	33.2	1.6	66.8
	대학생/대학원생	540	2.0	2.3	98.0
학력	고 졸 이 하	901	39.5	1.7	60.5
	대 졸 이 상	1,507	43.7	1.6	56.3
주거 형태	동 거	1,289	5.3	1.5	94.7
	비 동 거 / 독 립	1,659	60.7	1.7	39.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3)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7.6%가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 56.2% 대비 8.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55.0%)가 여자(39.4%)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30~39세에서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37.0%)이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52.9%)에서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동거(57.2%)가 비동거/독립(39.6%)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192	59.5	40.5
2017	2,321	55.8	44.2
2018	2,641	56.2	43.8
2019	2,948	47.6	52.4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3-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948	47.6	52.4
	자				
성별	남	자	1,537	55.0	45.0
	여	자	1,411	39.4	60.6
연령	만 15 ~ 18 세		79	54.4	45.6
	만 19 ~ 29 세		1,431	57.8	42.2
	만 30 ~ 39 세		1,438	37.0	63.0
지역	서울		567	47.8	52.2
	인천 / 경기		661	41.5	58.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5.7	44.3
	광주/전라/제주		402	52.3	47.7
	부산/울산/경남		478	50.2	49.8
	대구 / 경북		394	47.2	52.8
	대학생/대학원생		540	52.9	47.1
학력	고졸 이하		901	43.8	56.2
	대졸 이상		1,507	48.2	51.8
주거 형태	동거		1,289	57.2	42.8
	비동거 / 독립		1,659	39.6	60.4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4) 2025년 출산율 전망

- 현재와 비교했을 때 2025년의 출산율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는 응답이 80.5%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68.2% 대비 큰 폭(12.3%p)으로 상승하였음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6.8%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비동거/독립 상태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81.2%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 2025년 출산율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2016	2,534	5.9	21.2	72.9
2017	2,321	4.6	18.3	77.1
2018	2,641	3.1	28.7	68.2
2019	2,948	1.6	17.9	80.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4-1 2025년 출산율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전	체	2,948	1.6	17.9	80.5
성별	남 자	1,537	1.8	18.6	79.6
	여 자	1,411	1.4	17.2	81.4
연령	만 15 ~ 18 세	79	0.0	28.0	72.0
	만 19 ~ 29 세	1,431	1.8	18.7	79.5
	만 30 ~ 39 세	1,438	1.5	16.8	81.8
지역	서울	567	0.5	26.8	72.7
	인천 / 경기	661	1.7	15.9	82.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0.9	13.6	85.5
	광주/전라/제주	402	4.2	16.9	78.9
	부산/울산/경남	478	2.7	13.0	84.4
	대구 / 경북	394	0.3	20.2	79.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1	17.5	81.4
	고졸 이하	901	2.4	16.8	80.8
	대졸 이상	1,507	1.4	18.7	79.9
주거 형태	동거	1,289	1.8	18.6	79.6
	비동거 / 독립	1,659	1.5	17.4	81.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5) 해외 이주 고려 경험

-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8.8%로 2018년 14.1% 대비 14.7%p 상승함
- 성별로는 여자(30.5%)가 남자(27.2%)보다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4.9%로 높게 나타남

표 II-1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534	22.2	77.7
2017	2,714	36.0	64.0
2018	3,133	14.1	85.9
2019	3,530	28.8	71.2

표 II-15-1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530	28.8	71.2
	남 자	1,839	27.2	72.8
	여 자	1,691	30.5	69.5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2.1	77.9
	만 1 9 ~ 2 9 세	1,431	28.4	71.6
	만 3 0 ~ 3 9 세	1,438	31.2	68.8
지역	서 울	652	32.3	67.7
	인 천 / 경 기	786	32.0	68.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1.9	68.1
	광주/전라/제주	492	21.3	78.7
	부산/울산/경남	570	26.3	73.7
	대 구 / 경 북	478	17.4	82.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2.3	77.7
	대학생/대학원생	540	26.1	73.9
	고 졸 이 하	901	22.3	77.7
	대 졸 이 상	1,507	34.9	65.1
주거 형태	동 거	1,863	25.7	74.3
	비 동 거 / 독 립	1,667	32.1	67.9

16) 해외 이주 고려 이유

-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청년을 대상으로 고려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17.8%),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14.2%) 등의 순으로, 2018년 대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보았다는 응답은 상승한 반면,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응답은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여자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남자에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만30-39세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34.1%),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20.3%),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15.6%)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6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2016	564	12.8	18.5	27.8	12.6	6.8	8.4	7.8	2.5	1.7	1.2
2017	943	11.2	18.7	34.3	13.4	5.5	7.9	3.7	2.1	2.0	1.0
2018	411	15.5	26.2	23.0	10.5	8.7	8.4	4.1	1.1	2.3	0.2
2019	935	9.5	17.8	30.9	14.2	5.3	10.9	3.9	4.4	0.9	2.3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6-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전	체	935	9.5	17.8	30.9	14.2	5.3	10.9	3.9	4.4	0.9	2.3
	자	461	10.9	20.0	34.6	9.8	6.0	7.3	5.4	4.0	0.9	1.2
성별	여	474	8.2	15.6	27.3	18.5	4.6	14.5	2.4	4.7	0.9	3.3
연령	만 15 ~ 18 세	138	19.3	28.6	25.9	13.6	6.2	1.6	3.3	0.7	0.7	0.0
	만 19 ~ 29 세	380	13.3	24.1	28.6	7.7	6.9	7.9	3.2	5.9	0.9	1.5
	만 30 ~ 39 세	417	4.0	9.7	34.1	20.3	3.6	15.6	4.6	3.7	0.9	3.4
지역	서울	204	13.2	16.7	30.1	10.8	5.7	8.7	4.0	8.9	0.5	1.3
	인천 / 경기	242	8.8	18.6	30.3	17.2	4.4	9.8	1.9	5.1	1.6	2.4
	대전/충청/세종/강원	171	7.7	16.9	30.8	15.1	6.0	12.9	4.6	1.4	0.0	4.6
	광주/전라/제주	98	7.3	12.9	29.8	14.8	9.1	18.1	2.9	1.4	2.5	1.2
	부산/울산/경남	139	10.0	16.7	36.3	13.4	3.2	11.6	5.5	1.4	0.0	1.9
	대구 / 경북	81	5.7	28.7	26.7	7.7	7.3	10.9	11.3	0.0	0.5	1.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23	19.5	31.7	26.6	12.8	4.7	1.9	1.2	0.8	0.8	0.0
	대학생/대학원생	140	15.2	28.8	27.1	7.1	10.7	2.9	4.3	2.9	0.4	0.6
	고 졸 이 하	177	8.9	12.0	34.2	13.0	4.4	11.1	5.1	9.1	1.5	0.8
	대 졸 이 상	495	6.9	15.3	31.2	16.5	4.5	14.1	3.7	3.5	0.8	3.5
주거 형태	동거	432	14.9	23.1	30.4	8.2	7.8	4.1	4.4	4.5	0.9	1.8
	비 동 거 / 독 립	503	4.9	13.3	31.4	19.3	3.2	16.8	3.4	4.2	0.9	2.7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이 현재 대비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41.2% 대비 5.7%p 상승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52.3%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음

표 II-17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2016	2,534	28.3	36.2	35.5
2017	2,714	25.3	27.1	47.7
2018	3,133	20.0	38.8	41.2
2019	3,530	19.8	33.3	46.9

표 II-17-1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	체		3,530	19.8	33.3	46.9
	남	자	1,839	20.6	33.0	46.4
	여	자	1,691	19.0	33.6	47.4
연령	만 15 ~ 18 세		661	19.1	28.6	52.2
	만 19 ~ 29 세		1,431	17.9	34.0	48.1
	만 30 ~ 39 세		1,438	22.0	34.0	44.1
지역	서울		652	16.6	38.5	44.9
	인천 / 경기		786	23.5	33.8	42.8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3.0	26.8	50.2
	광주/전라/제주		492	16.6	31.1	52.3
	부산/울산/경남		570	23.0	26.1	50.9
	대구 / 경북		478	8.0	43.7	48.3
	중 / 고 등 학 생		582	19.2	27.0	53.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0.6	32.5	46.9
	고 졸 이 하		901	16.8	32.3	50.9
	대 졸 이 상		1,507	21.5	35.6	43.0
주거 형태	동 거		1,863	19.0	32.5	48.5
	비 동 거 / 독 립		1,667	20.7	34.1	45.2

1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중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7.4%(그렇다 29.6%+매우 그렇다 7.8%)로 ‘그렇지 않다’ 43.4%(전혀 그렇지 않다 8.6%+그렇지 않다 34.8%)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61.2%(그렇다 53.5%+매우 그렇다 7.7%) 대비 대비 23.8%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40.2%(그렇다 31.7%+매우 그렇다 8.5%)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34.9%(그렇다 27.7%+매우 그렇다 7.2%)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7.6%(그렇다 35.9%+매우 그렇다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4.1%(그렇다 35.9%+매우 그렇다 8.2%)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8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3.8	22.4	31.1	36.9	5.8
2017	2,714	10.7	33.0	20.5	25.7	10.1
2018	3,133	1.3	12.7	24.7	53.5	7.7
2019	3,530	8.6	34.8	19.2	29.6	7.8

표 II-18-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8.6	34.8	19.2	29.6	7.8
성별	남 자	1,839	10.5	36.1	18.6	27.7	7.2
	여 자	1,691	6.5	33.5	19.9	31.7	8.5
연령	만 1 5 ~ 1 8 세	661	7.1	30.5	14.8	35.9	11.7
	만 1 9 ~ 2 9 세	1,431	10.7	35.8	19.1	28.6	5.8
	만 3 0 ~ 3 9 세	1,438	6.9	35.2	20.5	28.7	8.7
지역	서 울	652	6.7	33.1	16.1	35.9	8.2
	인 천 / 경 기	786	9.9	34.0	20.6	27.6	8.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9	41.4	19.9	22.9	5.9
	광주/전라/제주	492	9.0	31.2	18.2	34.6	7.0
	부산/울산/경남	570	8.9	38.2	19.2	23.5	10.1
	대 구 / 경 북	478	5.7	30.6	21.2	36.5	5.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6.3	30.1	14.8	37.3	11.5
	대학생/대학원생	540	8.2	29.6	16.8	39.0	6.5
	고 졸 이 하	901	13.0	46.9	20.8	15.4	4.0
	대 졸 이 상	1,507	6.8	30.6	20.0	33.0	9.5
주거 형태	동 거	1,863	9.2	33.5	18.2	31.8	7.3
	비 동 거 / 독 립	1,667	7.9	36.3	20.3	27.2	8.3

1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5.7%(그렇다 46.6%+매우 그렇다 19.1%)로 ‘그렇지 않다’ 13.7%(전혀 그렇지 않다 1.8%+그렇지 않다 11.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73.5%(그렇다 54.7%+매우 그렇다 18.8%) 대비 대비 7.8%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68.6%(그렇다 47.9%+매우 그렇다 20.7%)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63.1%(그렇다 45.4%+매우 그렇다 17.7%)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2.9%(그렇다 50.2%+매우 그렇다 22.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3.9%(그렇다 50.4%+매우 그렇다 23.5%)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9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0	8.1	22.9	49.9	18.0
2017	2,714	3.0	11.3	18.9	44.1	22.7
2018	3,133	0.4	4.1	22.0	54.7	18.8
2019	3,530	1.8	11.9	20.5	46.6	19.1

표 II-19-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학력)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전	체	3,530	1.8	11.9	20.5	46.6	19.1
성별	남 자	1,839	2.5	12.4	22.0	45.4	17.7
	여 자	1,691	1.1	11.4	18.9	47.9	20.7
연령	만 15 ~ 18 세	661	1.0	10.3	15.8	50.2	22.7
	만 19 ~ 29 세	1,431	2.6	11.8	21.9	46.0	17.6
	만 30 ~ 39 세	1,438	1.3	12.5	20.5	46.0	19.6
지역	서 울	652	1.0	7.1	18.0	50.4	23.5
	인 천 / 경 기	786	2.3	12.0	21.3	44.4	20.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8	17.3	24.1	42.4	13.5
	광주/전라/제주	492	1.2	13.7	18.8	47.9	18.4
	부산/울산/경남	570	2.1	11.9	21.1	46.1	18.8
	대 구 / 경 북	478	1.1	12.6	19.1	50.7	16.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2	10.3	15.2	50.4	23.0
	대학생/대학원생	540	2.7	8.6	19.5	52.5	16.8
	고 졸 이 하	901	2.6	19.3	27.5	38.5	12.1
	대 졸 이 상	1,507	1.3	9.1	18.1	48.4	23.1
주거 형태	동 거	1,863	2.3	10.6	20.4	47.5	19.1
	비 동 거 / 독 립	1,667	1.3	13.3	20.7	45.5	19.2

20)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력)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7.9%(그렇다 47.0%+매우 그렇다 20.9%)로 ‘그렇지 않다’ 14.0%(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1.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74.8%(그렇다 54.9%+매우 그렇다 19.9%) 대비 대비 6.9%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는 만15-18세의 ‘그렇다’ 응답이 72.4%(그렇다 48.7%+매우 그렇다 23.7%)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7.7%(그렇다 52.0%+매우 그렇다 25.7%)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3.6%(그렇다 40.0%+매우 그렇다 1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0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3	7.6	22.6	47.5	21.0
2017	2,714	3.7	12.1	17.3	42.8	24.2
2018	3,133	0.4	4.0	20.9	54.9	19.9
2019	3,530	2.1	11.9	18.1	47.0	20.9

표 II-20-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2.1	11.9	18.1	47.0	20.9
성별	남 자	1,839	2.5	12.1	18.9	47.3	19.3
	여 자	1,691	1.6	11.7	17.3	46.8	22.7
연령	만 15 ~ 18 세	661	1.6	13.0	13.0	48.7	23.7
	만 19 ~ 29 세	1,431	3.1	11.7	19.9	45.9	19.3
	만 30 ~ 39 세	1,438	1.1	11.7	17.7	47.7	21.8
지역	서울	652	1.4	7.0	13.9	52.0	25.7
	인천 / 경기	786	2.2	11.9	18.5	44.0	23.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5	18.1	20.5	44.4	14.4
	광주/전라/제주	492	1.4	14.7	19.2	44.4	20.2
	부산/울산/경남	570	3.5	9.7	21.2	47.0	18.6
	대구 / 경북	478	0.9	13.8	16.4	53.1	15.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6	13.5	11.7	49.8	23.4
	대학생/대학원생	540	2.7	10.4	16.0	49.3	21.6
	고 졸 이 하	901	3.4	16.8	26.2	40.0	13.6
	대 졸 이 상	1,507	1.2	9.1	15.6	49.7	24.4
주거 형태	동 거	1,863	2.5	11.9	17.8	46.7	21.1
	비 동 거 / 독 립	1,667	1.6	11.9	18.5	47.4	20.7

2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4.5%로 ‘없다’(25.5%)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진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1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948	74.5	25.5
	남	1,537	73.7	26.3
	여	1,411	75.4	24.6
연령	만 1 5 ~ 1 8 세	79	55.7	44.3
	만 1 9 ~ 2 9 세	1,431	76.3	23.7
	만 3 0 ~ 3 9 세	1,438	73.4	26.6
지역	서 울	567	80.9	19.1
	인 천 / 경 기	661	69.5	30.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4.1	25.9
	광주/전라/제주	402	71.6	28.4
	부산/울산/경남	478	77.2	22.8
	대 구 / 경 북	394	77.1	22.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00.0	0.0
	고 졸 이 하	901	16.6	83.4
	대 졸 이 상	1,507	100.0	0.0
주거	동 거	1,289	76.2	23.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73.1	26.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 대학 전공 계열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 계열을 물어본 결과, ‘공학 계열’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18.3%), ‘예체능계열’(12.3%)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자는 ‘공학계열’이 39.0%, 여자는 ‘인문계열’이 24.7%로 타 성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인문계열’이 25.7%,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공학계열’(30.2%),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사회계열(경상 계열 제외)’이 16.9%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22 대학 전공 계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경상 계열 제외)	경상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사관 학교, 경찰대	기타
2016	1,455	27.8	12.5	9.5	12.4	21.5	3.9	4.9	7.2	0.0	0.3
2017	1,772	19.4	13.0	8.1	9.4	22.3	6.7	4.4	11.2	0.5	3.2
2018	2,018	28.3	17.2	9.4	14.4	19.6	2.1	3.0	4.7	0.0	1.2
2019	2,196	18.3	11.1	8.6	10.6	25.0	5.6	4.9	12.3	0.5	3.0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결과에 모름/무응답 1.8%가 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22-1 대학 전공 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경상 계열 제외)	경상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 능계 열	사관 학교, 경찰 대	기타
전체		2,196	18.3	11.1	8.6	10.6	25.0	5.6	4.9	12.3	0.5	3.0
성별	남 자	1,142	12.5	8.9	9.8	10.5	39.0	2.3	2.1	11.5	0.8	2.7
	여 자	1,054	24.7	13.5	7.4	10.6	9.7	9.3	8.0	13.2	0.2	3.5
연령	만 1 5 ~ 1 8 세	47	15.3	6.0	5.3	14.5	29.3	3.7	0.0	20.2	3.7	1.9
	만 1 9 ~ 2 9 세	1,086	18.5	10.7	8.3	11.1	21.9	6.4	4.5	14.8	0.6	3.2
	만 3 0 ~ 3 9 세	1,063	18.2	11.7	9.0	9.8	28.2	4.8	5.4	9.5	0.3	2.9
지역	서 울	446	25.7	10.1	9.2	9.2	19.0	4.7	5.1	14.3	0.2	2.6
	인 천 / 경 기	460	19.5	12.9	8.8	9.1	26.0	4.2	4.9	11.7	0.8	2.1
	대전/충청/세종/ 강 원	331	15.7	8.3	7.1	11.5	27.3	5.4	5.7	15.5	0.4	3.2
	광주/전라/제주	292	13.3	12.8	7.2	12.5	23.9	9.8	4.1	10.1	1.1	5.2
	부산/울산/경남	367	17.6	7.0	9.3	11.4	30.2	8.4	2.6	9.3	0.2	4.1
	대 구 / 경 북	300	7.0	16.9	9.2	14.0	26.0	3.9	7.8	11.9	0.5	2.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4.8	11.7	7.7	11.7	27.5	5.4	3.2	14.6	0.6	2.8
	고 졸 이 하	149	10.7	12.2	7.3	9.9	21.0	5.0	4.8	22.1	2.8	4.2
	대 졸 이 상	1,507	20.2	10.8	9.0	10.3	24.6	5.7	5.4	10.7	0.3	3.0
주거 형태	동 거	976	18.3	10.7	8.6	11.2	23.2	5.3	4.4	14.5	0.7	3.3
	비 동 거 / 독 립	1,220	18.4	11.5	8.6	10.0	26.6	5.9	5.4	10.4	0.3	2.9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22-2 대학 전공 계열(한국표준교육분류 적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 프로 그램 및 자격/ 서비스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사회 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자연 과학, 수학 및 통계학 /농림 어업 및 수의학	정보 통신 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보건 및 복지	
전			체	2,196	3.0	4.9	30.6	11.1	9.1	10.6	25.0	5.6
성별	남	자	1,142	2.7	2.1	24.0	8.9	10.6	10.5	39.0	2.3	
	여	자	1,054	3.5	8.0	38.0	13.5	7.5	10.6	9.7	9.3	
연령	만 1 5 ~ 1 8 세		47	1.9	0.0	35.6	6.0	9.0	14.5	29.3	3.7	
	만 1 9 ~ 2 9 세		1,086	3.2	4.5	33.3	10.7	8.9	11.1	21.9	6.4	
	만 3 0 ~ 3 9 세		1,063	2.9	5.4	27.7	11.7	9.3	9.8	28.2	4.8	
지역	서 울		446	2.6	5.1	40.0	10.1	9.4	9.2	19.0	4.7	
	인 천 / 경 기		460	2.1	4.9	31.2	12.9	9.6	9.1	26.0	4.2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3.2	5.7	31.2	8.3	7.5	11.5	27.3	5.4	
	광 주 / 전 라 / 제 주		292	5.2	4.1	23.4	12.8	8.3	12.5	23.9	9.8	
	부 산 / 울 산 / 경 남		367	4.1	2.6	26.9	7.0	9.5	11.4	30.2	8.4	
	대 구 / 경 북		300	2.9	7.8	18.9	16.9	9.7	14.0	26.0	3.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8	3.2	29.4	11.7	8.3	11.7	27.5	5.4	
	고 졸 이 하		149	4.2	4.8	32.8	12.2	10.1	9.9	21.0	5.0	
	대 졸 이 상		1,507	3.0	5.4	30.8	10.8	9.3	10.3	24.6	5.7	
주거 형태	동 거		976	3.3	4.4	32.7	10.7	9.3	11.2	23.2	5.3	
	비 동 거 / 독 립		1,220	2.9	5.4	28.8	11.5	9.0	10.0	26.6	5.9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영역)를 고려하여 응답 결과를 재구성함

23)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졸업 요건을 이수하거도 졸업을 늦춘(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지를 물어본 결과, 9.5%가 졸업 유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 13.3% 대비 3.8%p 하락하였음
- 졸업을 늦추기 위해 필요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4.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8.0% 대비 3.8%p 하락하였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졸업 유예 경험(12.7%)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7.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3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16	1,455	5.3	93.2	2.2	97.7
2017	1,772	14.5	83.0	6.1	93.9
2018	2,018	13.3	86.7	8.0	92.0
2019	2,196	9.5	90.5	4.2	95.8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6, 2017년 조사에는 졸업 유예 경험 보기문항으로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음'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였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23-1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196	9.5	90.5	4.2	95.8
성별	남 자	1,142	10.0	90.0	4.4	95.6
	여 자	1,054	8.9	91.1	4.1	95.9
연령	만 15 ~ 18 세	47	0.0	100.0	0.0	100.0
	만 19 ~ 29 세	1,086	8.7	91.3	3.6	96.4
	만 30 ~ 39 세	1,063	10.6	89.4	5.0	95.0
지역	서울	446	12.7	87.3	7.5	92.5
	인천 / 경기	460	10.0	90.0	3.0	97.0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6.6	93.4	3.7	96.3
	광주/전라/제주	292	5.8	94.2	2.9	97.1
	부산/울산/경남	367	8.8	91.2	3.8	96.2
	대구 / 경북	300	8.9	91.1	3.1	96.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6.7	93.3	3.6	96.4
	고졸 이하	149	4.6	95.4	3.2	96.8
	대졸 이상	1,507	10.8	89.2	4.5	95.5
주거 형태	동거	976	9.1	90.9	3.9	96.1
	비동거 / 독립	1,220	9.8	90.2	4.5	95.5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4) 졸업 유예 이유

- 졸업 유예 또는 요건 미이수 이유로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22.8%),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13.4%) 등의 순임
- 연령별로 보면 만19-29세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만30-39세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57.5%) 응답 비율이 높음

표 II-24 졸업 유예 이유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타
전	체	219	51.0	22.8	13.4	9.6	2.0	1.3
성별	남	125	47.8	18.2	16.7	12.9	3.3	1.0
	여	94	54.8	28.3	9.4	5.6	0.3	1.6
연령	만 19 ~ 29 세	98	43.2	26.5	18.1	6.8	4.0	1.4
	만 30 ~ 39 세	121	57.5	19.7	9.3	11.9	0.3	1.2
지역	서울	61	54.9	21.8	18.7	2.4	2.1	0.0
	인천 / 경기	48	48.3	32.1	6.8	10.7	0.0	2.2
	대전/충청/세종/강원	27	33.6	22.1	13.0	28.0	3.2	0.0
	광주/전라/제주	23	33.5	12.3	22.0	13.9	7.6	10.7
	부산/울산/경남	33	58.2	13.9	17.1	8.4	2.4	0.0
	대구 / 경북	27	67.1	18.2	4.0	8.9	1.9	0.0
	대학생/대학원생	32	26.2	37.1	31.1	4.2	1.4	0.0
학력	고졸 이하	7	15.2	50.1	15.7	18.9	0.0	0.0
	대졸 이상	180	57.5	18.8	9.6	10.3	2.2	1.6
주거	동거	89	49.3	24.7	17.9	4.4	2.3	1.5
형태	비동거 / 독립	130	52.3	21.4	9.8	13.7	1.7	1.1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에 있는 경우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25) 복수전공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 경험 여부

- 대학 재학 중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있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5 복수전공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196	8.3	91.7
	남	1,142	7.7	92.3
	여	1,054	9.0	91.0
연령	만 15 ~ 18 세	47	5.6	94.4
	만 19 ~ 29 세	1,086	8.4	91.6
	만 30 ~ 39 세	1,063	8.4	91.6
지역	서울	446	11.1	88.9
	인천 / 경기	460	9.0	91.0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6.9	93.1
	광주/전라/제주	292	10.3	89.7
	부산/울산/경남	367	3.3	96.7
	대구 / 경북	300	7.6	92.4
	대학생/대학원생	540	6.6	93.4
학력	고졸 이하	149	4.1	95.9
	대졸 이상	1,507	9.3	90.7
주거	동거	976	8.9	91.1
형태	비동거 / 독립	1,220	7.8	92.2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6) 복수전공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 전공계열

- 복수전공, 부전공(심화/연계전공)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해당 전공계열을 물어본 결과 ‘인문계열’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상계열’(20.1%), ‘사회계열’(18.7%)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경상계열’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인문계열’, ‘교육계열’이 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6 복수전공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 전공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경상 계열 제외)	경상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 능계 열	사관 학교, 경찰 대	기타
전체		176	27.7	18.7	20.1	4.3	7.8	1.6	11.6	6.0	1.4	1.0
성별	남 자	87	21.9	17.7	26.9	4.4	10.7	0.6	6.8	6.1	2.8	2.1
	여 자	89	33.3	19.6	13.6	4.2	5.0	2.5	16.1	5.8	0.0	0.0
연령	만 1 5 ~ 1 8 세	3	17.0	0.0	0.0	40.7	0.0	0.0	0.0	42.3	0.0	0.0
	만 1 9 ~ 2 9 세	87	16.1	24.8	19.8	4.5	7.5	3.1	13.4	6.8	2.1	2.0
	만 3 0 ~ 3 9 세	86	40.3	12.6	20.7	3.3	8.2	0.0	9.9	4.3	0.6	0.0
지역	서 울	50	30.8	25.4	20.8	3.4	10.1	0.0	5.6	3.0	1.0	0.0
	인 천 / 경 기	38	23.2	19.4	24.4	3.9	4.9	0.0	12.4	6.2	3.3	2.2
	대전/충청/세종/강원	28	31.8	12.8	5.3	8.2	0.0	5.4	27.6	8.9	0.0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29	23.7	15.7	21.4	5.2	7.0	8.2	10.5	5.9	0.0	2.4
	부 산 / 울 산 / 경 남	10	38.6	6.3	10.3	0.0	38.5	0.0	6.3	0.0	0.0	0.0
	대 구 / 경 북	21	26.8	12.8	25.5	5.5	0.0	0.0	13.5	15.8	0.0	0.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0	12.5	15.7	24.9	7.2	10.5	8.9	5.8	8.6	0.0	5.7
학력	고 졸 이 하	5	25.5	0.0	18.1	0.0	0.0	0.0	24.8	0.0	31.6	0.0
	대 졸 이 상	131	31.3	20.2	19.0	3.8	7.5	0.0	12.3	5.6	0.4	0.0
주거	동 거	85	20.7	25.7	21.4	3.7	2.9	0.6	14.4	5.8	2.7	2.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91	34.8	11.7	18.7	4.8	12.6	2.5	8.7	6.1	0.0	0.0

* 주: 복수, 부, 심화, 연계전공 경험이 있는 응답자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7) 대학 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

-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적합성 등을 물어본 결과, 먼저 ‘대학 교육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39.9%(그렇다 37.9%+매우 그렇다 2.0%)로 ‘그렇지 않다’ 19.4%(전혀 그렇지 않다 3.0%+그렇지 않다 16.4%)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43.3%(그렇다 41.6%+매우 그렇다 1.7%)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36.7%(그렇다 34.5%+매우 그렇다 2.2%)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27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196	3.0	16.4	40.8	37.9	2.0
		남	1,142	2.8	18.0	42.6	34.5	2.2
		여	1,054	3.2	14.7	38.8	41.6	1.7
연령		만 15 ~ 18 세	47	4.4	15.2	34.2	45.4	0.8
		만 19 ~ 29 세	1,086	2.6	14.5	40.9	39.9	2.2
		만 30 ~ 39 세	1,063	3.3	18.5	40.9	35.6	1.8
지역		서울	446	1.3	11.3	40.4	45.6	1.4
		인천 / 경기	460	4.5	22.0	43.1	28.6	1.9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5.2	12.5	44.2	36.2	1.9
		광주/전라/제주	292	3.6	20.9	38.9	33.3	3.2
		부산/울산/경남	367	1.4	14.6	35.4	45.3	3.2
		대구 / 경북	300	0.7	14.8	40.2	43.9	0.3
		대학생/대학원생	540	1.4	12.4	36.1	48.0	2.0
학력		고졸이하	149	5.0	51.2	34.1	8.4	1.3
		대졸이상	1,507	3.2	14.3	42.9	37.5	2.0
주거	동	거	976	2.1	15.1	39.7	41.0	2.1
형태	비동거 / 독립		1,220	3.7	17.5	41.7	35.2	1.8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8) 대학 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0.4%(그렇다 43.3%+매우 그렇다 7.1%)로 ‘그렇지 않다’ 17.3%(전혀 그렇지 않다 3.3%+그렇지 않다 14.0%)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53.8%(그렇다 46.1%+매우 그렇다 7.7%)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47.3%(그렇다 40.8%+매우 그렇다 6.5%)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8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196	3.3	14.0	32.3	43.3	7.1
	자	1,142	3.5	15.7	33.6	40.8	6.5
성별	여	1,054	3.1	12.2	31.0	46.1	7.7
	만 15 ~ 18 세	47	2.0	6.1	33.2	52.8	5.9
연령	만 19 ~ 29 세	1,086	2.7	11.6	32.8	45.3	7.6
	만 30 ~ 39 세	1,063	3.9	16.8	31.8	41.0	6.5
지역	서울	446	1.7	9.3	26.3	53.8	8.9
	인천 / 경기	460	5.9	16.7	34.4	37.6	5.5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3.4	16.2	37.5	36.1	6.9
	광주 / 전라 / 제주	292	3.5	18.2	28.5	40.7	9.1
	부산 / 울산 / 경남	367	1.5	12.4	32.3	45.9	7.9
	대구 / 경북	300	1.1	12.2	37.1	45.3	4.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0.7	7.3	30.1	54.3	7.6
	고졸 이하	149	11.2	40.1	32.0	14.6	2.1
주거 형태	대졸 이상	1,507	3.3	13.6	33.1	42.6	7.4
	동거	976	2.6	12.7	31.5	45.0	8.1
주거 형태	비동거 / 독립	1,220	3.8	15.2	33.0	41.8	6.1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9) 대학 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5.0%(그렇다 46.9%+매우 그렇다 8.1%)로 ‘그렇지 않다’ 16.1%(전혀 그렇지 않다 2.0%+그렇지 않다 14.1%)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57.3%(그렇다 49.0%+매우 그렇다 8.3%)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52.9%(그렇다 45.0%+매우 그렇다 7.9%)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9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196	2.0	14.1	29.0	46.9	8.1
	남 자	1,142	2.0	16.8	28.3	45.0	7.9
	여 자	1,054	2.0	11.1	29.7	49.0	8.3
연령	만 1 5 ~ 1 8 세	47	2.0	2.9	38.9	49.6	6.5
	만 1 9 ~ 2 9 세	1,086	1.5	12.4	27.5	50.0	8.6
	만 3 0 ~ 3 9 세	1,063	2.5	16.2	30.2	43.6	7.5
지역	서 울	446	0.9	10.9	21.0	57.1	10.2
	인 천 / 경 기	460	3.3	16.9	29.8	43.2	6.8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1.9	17.3	35.1	37.5	8.1
	광 주 / 전 라 / 제 주	292	2.8	17.1	30.9	41.8	7.5
	부 산 / 울 산 / 경 남	367	1.3	10.6	31.0	45.8	11.2
	대 구 / 경 북	300	0.8	10.7	31.7	54.7	2.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0.8	6.6	27.9	55.7	9.1
	고 졸 이 하	149	4.5	40.4	27.9	24.8	2.4
	대 졸 이 상	1,507	2.1	13.9	29.4	46.3	8.3
주거 형태	동 거	976	1.4	12.6	27.6	49.8	8.7
	비 동 거 / 독 립	1,220	2.5	15.4	30.2	44.4	7.5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30) 대학 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선택한 대학의 학과(전공)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46.5%(그렇다 40.5%+매우 그렇다 6.0%)로 ‘그렇지 않다’ 116.8%(전혀 그렇지 않다 3.1%+그렇지 않다 13.7%)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48.9%(그렇다 42.4%+매우 그렇다 6.5%)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44.3%(그렇다 38.7%+매우 그렇다 5.6%) 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 -30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196	3.1	13.7	36.7	40.5	6.0
	남	1,142	3.6	15.5	36.6	38.7	5.6
	여	1,054	2.6	11.7	36.8	42.4	6.5
연령	만 1 5 ~ 1 8 세	47	3.4	9.5	38.7	37.6	10.8
	만 1 9 ~ 2 9 세	1,086	2.8	10.9	37.6	42.8	5.9
	만 3 0 ~ 3 9 세	1,063	3.4	16.8	35.7	38.0	6.0
지역	서 울	446	1.2	9.0	32.8	48.8	8.1
	인 천 / 경 기	460	5.1	16.1	40.0	33.9	4.9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3.1	14.4	42.1	35.7	4.7
	광 주 / 전 라 / 제 주	292	4.7	14.5	31.5	41.7	7.7
	부 산 / 울 산 / 경남	367	2.5	13.3	34.5	42.6	7.1
	대 구 / 경 북	300	0.7	16.7	36.6	43.3	2.8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1.9	8.3	32.6	48.5	8.7
학력	고 졸 이 하	149	13.8	40.4	30.3	14.8	0.8
	대 졸 이 상	1,507	2.5	12.9	38.6	40.4	5.6
주거	동 거	976	2.9	11.0	36.8	42.9	6.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20	3.2	16.1	36.6	38.3	5.7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31) 고교 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 교육에 만족한다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에 만족하는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3.7%(그렇다 27.5%+매우 그렇다 6.2%)로 ‘그렇지 않다’ 19.2%(전혀 그렇지 않다 3.2%+그렇지 않다 16.0%)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그렇다’ 응답이 36.0%(그렇다 29.9%+매우 그렇다 6.1%)로 여자의 ‘그렇다’ 응답 31.5%(그렇다 25.2%+매우 그렇다 6.3%)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41.5%(그렇다 37.2%+매우 그렇다 4.3%)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31 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모름
전	체	582	3.2	16.0	26.1	27.5	6.2	20.9
	남	302	2.0	13.7	25.9	29.9	6.1	22.3
	여	280	4.5	18.3	26.3	25.2	6.3	19.5
연령	만 15 ~ 18 세	582	3.2	16.0	26.1	27.5	6.2	20.9
지역	서울	85	0.0	20.2	25.2	37.2	4.3	13.1
	인천 / 경기	125	2.5	14.8	31.3	30.7	4.7	16.0
	대전/충청/세종/강원	106	5.3	17.1	15.9	26.1	11.1	24.4
	광주/전라/제주	90	2.5	15.9	24.1	20.3	10.9	26.2
	부산/울산/경남	92	8.3	15.7	22.3	17.9	5.5	30.2
	대구 / 경북	84	1.5	12.7	32.3	26.5	3.0	24.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3.2	16.0	26.1	27.5	6.2	20.9
주거	동 거	574	3.3	15.9	26.3	27.3	6.3	21.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	0.0	26.2	10.3	50.2	0.0	13.3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잘모름' 중학생만 응답 가능

32) 고교 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교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6.7%(그렇다 42.8%+매우 그렇다 13.9%)로 ‘그렇지 않다’ 14.7%(전혀 그렇지 않다 3.4%+그렇지 않다 11.3%)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그렇다’ 응답이 60.7%(그렇다 46.2%+매우 그렇다 14.5%)로 여자의 ‘그렇다’ 응답 52.8%(그렇다 39.4%+매우 그렇다 13.4%)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32 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82	3.4	11.3	28.5	42.8	13.9
	자		302	1.8	11.4	26.2	46.2	14.5
성별	여		280	5.1	11.2	30.9	39.4	13.4
연령	만 15 ~ 18 세		582	3.4	11.3	28.5	42.8	13.9
지역	서울		85	1.8	15.2	32.7	43.7	6.5
	인천 / 경기		125	2.1	10.7	29.6	35.7	22.0
	대전/충청/세종/강원		106	4.8	7.7	23.7	40.1	23.6
	광주/전라/제주		90	5.2	8.8	22.4	56.8	6.8
	부산/울산/경남		92	5.1	11.1	28.9	48.4	6.5
	대구 / 경북		84	3.8	14.9	31.4	43.9	6.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3.4	11.3	28.5	42.8	13.9
주거	동 거		574	3.4	11.4	28.7	42.4	14.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	0.0	0.0	14.5	77.4	8.1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33) 고교 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교 교육에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3.7%(그렇다 42.3%+매우 그렇다 11.4%)로 ‘그렇지 않다’ 20.6%(전혀 그렇지 않다 3.3%+그렇지 않다 17.3%)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65.1%(그렇다 46.1%+매우 그렇다 19.0%)로 높은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그렇다’ 응답 비율이 45.2%(그렇다 39.7%+매우 그렇다 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33 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582	3.3	17.3	25.8	42.3	11.4
		자	302	3.1	16.0	26.2	43.4	11.2
		여	280	3.4	18.5	25.5	41.1	11.5
연령		만 15 ~ 18 세	582	3.3	17.3	25.8	42.3	11.4
지역		서울	85	1.0	30.4	22.6	40.3	5.6
		인천 / 경기	125	2.2	16.4	26.9	38.3	16.2
		대전/충청/세종/강원	106	3.8	12.4	18.6	46.1	19.0
		광주/전라/제주	90	5.2	4.4	29.9	47.6	12.9
		부산/울산/경남	92	3.6	22.0	29.1	39.7	5.5
		대구 / 경북	84	6.5	14.4	28.1	49.2	1.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3.3	17.3	25.8	42.3	11.4
주거		동 거	574	3.3	17.3	26.1	41.8	11.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	0.0	14.5	0.0	85.5	0.0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34) 고교 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48.6%(그렇다 38.0%+매우 그렇다 10.6%)로 ‘그렇지 않다’ 6.5% (전혀 그렇지 않다 0.7%+그렇지 않다 5.8%)에 비해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다’ 응답이 52.1%(그렇다 40.3%+매우 그렇다 11.8%)로 남자의 ‘그렇다’ 응답 45.1%(그렇다 35.6%+매우 그렇다 9.5%) 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34 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모름
전	체		582	0.7	5.8	24.0	38.0	10.6	20.9
성별	남	자	302	0.5	4.5	27.6	35.6	9.5	22.3
	여	자	280	0.8	7.2	20.4	40.3	11.8	19.5
연령	만 15 ~ 18 세		582	0.7	5.8	24.0	38.0	10.6	20.9
지역	서	울	85	1.2	3.6	32.0	39.3	10.8	13.1
	인 천 / 경 기		125	0.5	7.3	25.9	38.1	12.2	16.0
	대전/충청/세종/강원		106	0.4	1.8	17.1	38.1	18.2	24.4
	광 주 / 전 라 / 제 주		90	0.8	3.3	19.9	34.5	15.4	26.2
	부 산 / 울 산 / 경 남		92	1.2	11.7	21.5	33.8	1.4	30.2
	대 구 / 경 북		84	0.0	5.1	23.4	44.2	3.3	24.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7	5.8	24.0	38.0	10.6	20.9
주거	동	거	574	0.7	5.9	24.3	37.4	10.7	21.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	0.0	0.0	0.0	86.7	0.0	13.3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잘모름’ 중학생만 응답 가능

35)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7.3%이며, 이미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대학원 진학 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2.2%)나 대졸이상(6.1%) 응답자에 비해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12.6%)의 진학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5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다니고 있 거나 졸업)
전	체	2,196	7.3	89.4	3.3
성별	남 자	1,142	6.7	89.8	3.5
	여 자	1,054	8.0	88.9	3.1
연령	만 1 5 ~ 1 8 세	47	11.5	88.5	0.0
	만 1 9 ~ 2 9 세	1,086	9.6	89.0	1.5
	만 3 0 ~ 3 9 세	1,063	4.8	89.9	5.3
지역	서 울	446	10.6	84.5	4.9
	인 천 / 경 기	460	5.4	91.0	3.6
	대전/충청/세종/강원	331	10.3	86.9	2.8
	광주/전라/제주	292	5.4	91.6	2.9
	부산/울산/경남	367	5.6	93.6	0.8
	대 구 / 경 북	300	5.9	90.4	3.8
	대학생/대학원생	540	12.6	87.4	0.0
학력	고 졸 이 하	149	2.2	97.8	0.0
	대 졸 이 상	1,507	6.1	89.2	4.7
주거	동 거	976	8.7	89.3	2.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20	6.1	89.5	4.5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36)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여부

- 대학원에 진학을 한 청년들에게 박사과정에 진학 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8.3%로 조사됨
- 성별 박사과정 진학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I-36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5	18.3	81.7
	자	40	18.8	81.2
성별	여	35	17.7	82.3
	자	35	17.7	82.3
연령	만 19 ~ 29 세	19	35.3	64.7
	만 30 ~ 39 세	56	13.3	86.7
지역	서울	22	21.1	78.9
	인천 / 경기	19	14.0	86.0
	대전/충청/세종/강원	9	0.0	100.0
	광주/전라/제주	9	24.1	75.9
	부산/울산/경남	4	53.9	46.1
	대구 / 경북	12	25.6	74.4
학력	대졸 이상	75	18.3	81.7
주거	동거	21	22.4	77.6
형태	비동거 / 독립	54	16.7	83.3

* 주: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만 응답

37)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상태

-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박사과정에 진학하지는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학 상태를 물어본 결과 ‘졸업’이 72.6%로 가장 많았고, ‘재학’이 17.1%, ‘수료’가 9.2%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졸업 비율은 큰 차이 없으나 남자는 ‘재학’ 중(21.2%), 여자는 ‘수료’ 상태(14.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7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학	휴학	수료	졸업
전	체	75	17.1	1.0	9.2	72.6
	남	40	21.2	1.1	5.1	72.6
	여	35	12.0	0.9	14.3	72.7
연령	만 19 ~ 29 세	19	38.9	2.7	2.5	56.0
	만 30 ~ 39 세	56	10.6	0.6	11.2	77.6
지역	서울	22	10.6	0.0	4.6	84.8
	인천 / 경기	19	26.9	1.9	13.4	57.8
	대전/충청/세종/강원	9	11.4	3.7	13.4	71.4
	광주/전라/제주	9	10.8	0.0	15.9	73.3
	부산/울산/경남	4	0.0	0.0	0.0	100.0
	대구 / 경북	12	24.6	0.0	4.4	71.0
학력	대졸 이상	75	17.1	1.0	9.2	72.6
주거	동거	21	35.7	0.0	0.0	64.3
형태	비동거 / 독립	54	9.6	1.5	12.9	76.0

* 주: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만 응답

38)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 상태

○ 박사과정까지 진학한 청년들의 재학 상태를 물어본 결과 ‘재학’이 54.3%로 가장 많았고, ‘졸업’이 23.3%, ‘수료’가 15.7%로 나타남

표 II-38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학	휴학	수료	졸업
전	체	15	54.3	6.7	15.7	23.3
	남	8	58.8	0.0	0.0	41.2
	여	7	48.4	15.4	36.2	0.0
연령	만 19 ~ 29 세	6	89.0	0.0	11.0	0.0
	만 30 ~ 39 세	9	27.0	11.9	19.5	41.6
지역	서울	5	55.6	0.0	11.6	32.8
	인천 / 경기	3	73.1	26.9	0.0	0.0
	광주/전라/제주	2	0.0	0.0	100.0	0.0
	부산/울산/경남	2	0.0	0.0	0.0	100.0
	대구 / 경북	3	100.0	0.0	0.0	0.0
학력	대졸 이상	15	54.3	6.7	15.7	23.3
주거	동거	6	84.3	0.0	0.0	15.7
형태	비동거 / 독립	9	38.3	10.3	24.1	27.3

* 주: 대학원 진학 및 박사과정 진학한 경우만 응답

39) 대학 미진학 사유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6.5%),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16.8%) 등의 순으로 2018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만15-18세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25.8%), 만19-29세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9.3%), 만 30-39세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37.5%)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7.5%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9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2016	737	0.6	31.3	22.6	17.4	24.4	2.8	1.0	-
2017	549	0.7	40.2	9.5	13.0	32.0	3.8	0.8	-
2018	623	1.7	35.8	15.8	18.0	25.9	2.5	0.1	0.1
2019	752	2.2	35.8	13.4	16.8	26.5	4.3	0.9	-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표 II-39-1 대학 미진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 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전			체 752	2.2	35.8	13.4	16.8	26.5	4.3	0.9
성별	남	자	395	2.8	35.9	11.7	16.3	27.4	4.2	1.7
	여	자	357	1.6	35.7	15.3	17.4	25.5	4.5	0.0
연령	만 1 5 ~ 1 8 세		32	11.7	27.0	14.4	25.8	21.1	0.0	0.0
	만 1 9 ~ 2 9 세		345	2.1	34.6	7.4	20.1	29.3	4.5	2.0
	만 3 0 ~ 3 9 세		375	1.8	37.5	18.7	13.2	24.3	4.5	0.0
지역	서	울	121	1.0	35.8	13.1	27.5	16.3	6.3	0.0
	인 천 / 경 기		201	2.6	34.1	12.4	17.3	27.5	4.5	1.6
	대전/충청/세종/강원		115	2.5	31.6	14.6	11.8	34.1	4.1	1.5
	광 주 / 전 라 / 제 주		110	2.2	40.8	8.2	11.5	36.0	1.3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111	2.5	37.6	22.9	12.4	21.8	2.1	0.7
	대 구 / 경 북		94	2.3	41.3	8.0	16.9	23.3	8.1	0.0
학력	고 졸 이 하		752	2.2	35.8	13.4	16.8	26.5	4.3	0.9
주거 형태	동 거		313	3.4	29.4	9.8	23.2	27.7	4.8	1.7
	비 동 거 / 독 립		439	1.4	40.6	16.0	12.1	25.6	4.0	0.3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40)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추후 대학 진학 의사를 물어본 결과 ‘예(진학 하겠다)’는 의견이 35.5%로 2018년 41.3% 대비 5.8%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39.5%)가 남자(32.0%)보다 대학 진학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학 의향도 하락하였으며, 만15-18세(84.6%) 대비 만19-29세(13.4%) 및 만30-39세(5.5%)의 진학 의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이 42.1%로 대학 진학 의향을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40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1,079	36.6	63.4
2017	942	38.4	61.6
2018	1,115	41.3	58.7
2019	1,334	35.5	64.5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표 II-40-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334	35.5	64.5
성별	남 자	697	32.0	68.0
	여 자	637	39.5	60.5
연령	만 15 ~ 18 세	614	84.6	15.4
	만 19 ~ 29 세	345	13.4	86.6
	만 30 ~ 39 세	375	5.5	94.5
지역	서 울	206	36.7	63.3
	인 천 / 경 기	326	30.8	69.2
	대전/충청/세종/강원	221	42.1	57.9
	광 주/전라/제주	200	35.0	65.0
	부 산/울 산/경남	203	37.4	62.6
	대 구 / 경 북	178	40.1	59.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88.6	11.4
	고 졸 이 하	752	9.8	90.2
주거 형태	동 거	887	53.7	46.3
	비 동 거 / 독 립	447	7.2	92.8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41) 고등학교 재학 경험

- 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지(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96.5%로 조사됨
-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96%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 경험률을 보임

표 II-41 고등학교 재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3,530	96.5	3.5
	자			
성별	남	1,839	96.1	3.9
	여	1,691	96.9	3.1
연령	만 15 ~ 18 세	661	80.9	19.1
	만 19 ~ 29 세	1,431	98.8	1.2
	만 30 ~ 39 세	1,438	98.7	1.3
지역	서울	652	98.4	1.6
	인천 / 경기	786	97.0	3.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5.6	4.4
	광주/전라/제주	492	94.6	5.4
	부산/울산/경남	570	95.2	4.8
	대구 / 경북	478	95.6	4.4
	중 / 고 등 학 생	582	78.9	21.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99.7	0.3
	고 졸 이 하	901	96.0	4.0
	대 졸 이 상	1,507	99.8	0.2
주거	동	1,863	94.4	5.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98.7	1.3

42) 재학 고교 유형

- 다녔던(고등학생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일반고’가 77.8%, ‘특성화고’가 18.4%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특성화고’ 응답이 27.7%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특성화고’ 응답이 39.0%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2 재학 고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고	자율형 고	특성화 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	과학/ 영재고	외국어 / 국제고	예술/ 체육고	기타
전	체	3,354	77.8	1.1	18.4	0.8	0.1	0.5	0.8	0.7
	남	1,737	77.0	1.0	19.4	0.7	0.2	0.2	0.8	0.7
	여	1,617	78.6	1.2	17.3	0.9	0.0	0.8	0.7	0.6
연령	만 15 ~ 18 세	526	80.6	1.2	16.8	0.3	0.4	0.0	0.6	0.2
	만 19 ~ 29 세	1,412	78.1	1.4	17.6	0.6	0.1	0.4	0.9	0.9
	만 30 ~ 39 세	1,416	76.7	0.7	19.6	1.1	0.0	0.7	0.7	0.5
지역	서울	636	81.9	2.2	13.2	0.3	0.1	1.4	0.6	0.3
	인천 / 경기	755	77.7	1.0	17.7	0.9	0.1	0.4	0.8	1.4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75.6	1.0	20.5	0.9	0.3	0.1	1.1	0.5
	광주/전라/제주	461	71.7	0.0	27.7	0.2	0.0	0.0	0.2	0.2
	부산/울산/경남	534	76.9	0.4	19.2	1.9	0.0	0.4	1.1	0.1
	대구 / 경북	450	79.7	1.0	18.1	0.1	0.0	0.0	0.5	0.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50	80.6	1.4	17.0	0.1	0.5	0.0	0.3	0.2
	대학생/대학원생	538	85.4	2.0	8.0	0.5	0.3	0.8	1.1	2.1
	고 졸 이 하	862	56.5	0.9	39.0	2.0	0.0	0.1	1.0	0.5
	대 졸 이 상	1,504	86.7	0.8	10.5	0.3	0.0	0.7	0.6	0.4
주거	동 거	1,712	79.2	1.5	16.7	0.8	0.1	0.3	0.7	0.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42	76.3	0.6	20.1	0.8	0.1	0.7	0.8	0.7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3)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 변경 경험

○ 고등학교 재학 중에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변경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6.6%로, 전체 응답자 중 3.4%만 변경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43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 변경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계열이나 전공 변경한 적이 없다	문과 (이과) 에서 이과 (문과)로 변경 하였다	일반계 (직업계) 에서 직업계 (일반계) 로 변경 하였다	예·체능 계(일반· 직업계) 에서 일반·직 업계(예· 체능계)로 옮겨갔다	전문 교과나 전문 분야를 변경 하였다	기타
전	체	3,354	96.6	2.0	0.6	0.4	0.4	-
성별	남	1,737	97.0	1.7	0.8	0.2	0.3	-
	여	1,617	96.2	2.2	0.5	0.7	0.4	-
연령	만 15 ~ 18세	526	96.3	1.3	0.2	1.5	0.7	-
	만 19 ~ 29세	1,412	96.3	2.3	0.9	0.3	0.2	-
	만 30 ~ 39세	1,416	97.0	1.8	0.5	0.3	0.4	-
지역	서울	636	94.3	3.8	1.3	0.3	0.4	-
	인천 / 경기	755	96.4	2.0	0.7	0.5	0.4	-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96.5	1.5	0.9	0.7	0.3	-
	광주/전라/제주	461	98.5	0.4	0.1	0.6	0.3	-
	부산/울산/경남	534	98.7	0.7	0.1	0.0	0.5	-
	대구 / 경북	450	97.2	2.1	0.0	0.7	0.0	-
	충 / 고 등 학 생	450	95.8	1.5	0.2	1.8	0.6	-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38	96.2	3.3	0.2	0.2	0.1	-
	고 졸 이 하	862	97.4	0.6	1.2	0.4	0.3	-
	대 졸 이 상	1,504	96.5	2.4	0.5	0.3	0.4	-
주거	동	1,712	96.0	2.2	0.7	0.7	0.4	-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42	97.2	1.7	0.5	0.2	0.3	-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4)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취업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64.9%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6.1%(그렇다 43.7%+매우 그렇다 2.4%),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5%(전혀 그렇지 않다 1.5%+그렇지 않다 11.0%)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학생(만15-18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1.1%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4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354	64.9	1.5	11.0	41.4	43.7	2.4	35.1
성별	남	1,737	64.9	1.5	12.1	41.6	41.9	3.0	35.1
	여	1,617	64.9	1.5	9.8	41.2	45.8	1.7	35.1
연령	만 1 5 ~ 1 8 세	526	63.2	0.0	5.7	33.2	55.4	5.7	36.8
	만 1 9 ~ 2 9 세	1,412	68.5	1.4	12.4	43.3	40.6	2.2	31.5
	만 3 0 ~ 3 9 세	1,416	61.7	2.0	10.7	41.3	44.3	1.8	38.3
지역	서울	636	61.5	1.0	10.4	32.1	54.3	2.3	38.5
	인 천 / 경 기	755	59.8	2.5	12.6	51.3	32.2	1.4	40.2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74.2	1.2	6.6	42.6	46.7	2.9	25.8
	광주 / 전라 / 제주	461	70.4	1.5	10.0	35.9	47.5	5.2	29.6
	부산 / 울산 / 경남	534	60.3	0.6	13.6	36.7	46.3	2.8	39.7
	대 구 / 경 북	450	78.1	0.9	11.9	41.2	44.8	1.2	21.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50	61.6	0.0	4.9	32.8	56.9	5.4	38.4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538	70.3	1.0	8.4	37.8	48.5	4.2	29.7
	고 졸 이 하	862	69.2	1.5	13.8	46.9	36.0	1.8	30.8
	대 졸 이 상	1,504	61.4	1.9	11.3	40.9	44.3	1.5	38.6
주거 형태	거	1,712	65.8	1.1	12.1	41.1	42.9	2.9	34.2
	비 동 거 / 독 립	1,642	64.0	1.9	9.9	41.8	44.6	1.9	36.0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5)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44.4%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2.1%(그렇다 38.7%+매우 그렇다 3.4%), ‘도움이 되지 않았다’ 13.1%(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1.0%)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45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3,354	44.4	2.1	11.0	44.8	38.7	3.4	55.6
	남 자	1,737	46.4	1.7	12.2	45.7	36.5	3.9	53.6
	여 자	1,617	42.2	2.7	9.5	43.6	41.4	2.8	57.8
연령	만 1 5 ~ 1 8 세	526	54.1	0.8	5.9	42.4	44.9	5.9	45.9
	만 1 9 ~ 2 9 세	1,412	48.1	1.6	11.1	45.3	38.4	3.6	51.9
	만 3 0 ~ 3 9 세	1,416	38.2	3.3	12.6	44.9	37.0	2.2	61.8
지역	서 울	636	35.6	1.2	9.9	41.1	42.3	5.6	64.4
	인 천 / 경 기	755	44.4	4.5	12.9	53.9	26.7	2.0	55.6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60.7	1.6	9.4	43.4	44.9	0.8	39.3
	광주 / 전라 / 제주	461	49.2	1.4	7.6	39.8	41.8	9.5	50.8
	부산 / 울산 / 경남	534	42.5	0.3	12.0	37.1	46.5	4.0	57.5
	대 구 / 경 북	450	37.8	0.0	12.2	38.8	48.2	0.8	62.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50	54.2	0.0	6.4	39.7	47.3	6.5	45.8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38	51.1	2.8	9.1	43.2	40.3	4.5	48.9
	대 졸 이 하	862	50.8	1.0	12.5	49.0	33.6	4.0	49.2
	대 졸 이 상	1,504	36.8	3.3	11.9	43.6	39.6	1.6	63.2
주거 형태	동 거	1,712	48.7	1.6	10.6	44.5	38.9	4.4	51.3
	비 동 거 / 독 립	1,642	40.0	2.8	11.4	45.1	38.6	2.1	60.0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6)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진로 직업 체험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체험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0.7%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3.5%(그렇다 38.4%+매우 그렇다 5.2%), ‘도움이 되지 않았다’ 14.4%(전혀 그렇지 않다 2.9%+그렇지 않다 11.5%)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46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진로, 직업 체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354	30.7	2.9	11.5	42.0	38.4	5.2	69.3
성별	남	자	1,737	32.1	2.3	12.9	44.7	34.8	5.3	67.9	
	여	자	1,617	29.1	3.7	9.8	38.8	42.7	5.1	70.9	
연령	만 15 ~ 18 세		526	34.5	1.6	3.9	30.4	54.2	9.9	65.5	
	만 19 ~ 29 세		1,412	34.2	2.1	13.0	41.4	38.2	5.3	65.8	
	만 30 ~ 39 세		1,416	26.2	4.4	11.8	46.6	33.6	3.5	73.8	
지역	서 울		636	22.5	0.9	8.8	40.6	42.3	7.4	77.5	
	인 천 / 경 기		755	29.0	6.2	15.5	45.0	30.6	2.6	71.0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48.2	2.6	9.1	44.8	40.7	2.7	51.8	
	광 주 / 전라 / 제주		461	38.0	1.1	8.5	35.8	45.6	9.0	62.0	
	부 산 / 울 산 / 경 남		534	31.3	1.1	14.2	35.0	41.1	8.6	68.7	
	대 구 / 경 북		450	20.0	0.6	5.6	51.2	37.6	5.0	8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50	33.8	0.4	2.8	29.0	56.6	11.2	66.2	
	대학생 / 대학원생		538	33.6	2.9	9.9	39.5	40.0	7.7	66.4	
	대 졸 이 하		862	38.9	2.4	13.8	46.8	33.5	3.4	61.1	
	대 졸 이 상		1,504	24.6	4.0	12.4	42.2	37.3	4.1	75.4	
주거 형태	동 거		1,712	33.5	2.7	10.5	39.8	40.2	6.8	66.5	
	비 동 거 / 독 립		1,642	27.8	3.2	12.7	44.8	36.2	3.2	72.2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7)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학과, 전공 체험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학과, 전공 체험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1.1%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6.4%(그렇다 41.7%+매우 그렇다 4.8%), ‘도움이 되지 않았다’ 13.9%(전혀 그렇지 않다 2.9%+그렇지 않다 11.2%)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47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학과, 전공 체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354	31.1	2.7	11.2	39.6	41.7	4.8	68.9
성별	남 자	1,737	32.2	2.0	12.5	42.2	39.7	3.6	67.8
	여 자	1,617	29.9	3.5	9.7	36.5	44.0	6.2	70.1
	만 15 ~ 18 세	526	37.1	1.8	11.1	26.6	47.1	13.4	62.9
연령	만 19 ~ 29 세	1,412	34.0	1.3	10.7	42.2	41.7	4.2	66.0
	만 30 ~ 39 세	1,416	26.7	4.9	11.9	40.7	39.9	2.7	73.3
	서울	636	25.8	1.1	5.5	33.0	54.2	6.2	74.2
지역	인천 / 경기	755	29.5	3.6	13.3	43.3	37.0	2.8	70.5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43.3	4.2	11.1	41.8	38.7	4.2	56.7
	광주 / 전라 / 제주	461	33.1	2.9	13.0	37.1	38.9	8.2	66.9
	부산 / 울산 / 경남	534	31.4	2.1	13.6	35.9	41.7	6.8	68.6
	대구 / 경북	450	27.6	0.4	9.4	44.7	42.9	2.6	72.4
	중 / 고 등 학 생	450	36.9	0.8	11.6	24.4	47.3	15.9	63.1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38	40.6	1.8	9.4	38.8	44.1	5.9	59.4
	고 졸 이 하	862	25.3	1.6	15.8	49.2	30.3	3.1	74.7
	대 졸 이 상	1,504	30.2	4.1	9.8	38.9	44.7	2.6	69.8
주거 형태	동 거	1,712	35.1	2.4	10.4	38.6	42.2	6.4	64.9
	비 동 거 / 독 립	1,642	27.0	3.2	12.2	40.9	41.0	2.7	73.0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8)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2.0%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42.1%(그렇다 39.3%+매우 그렇다 2.8%), ‘도움이 되지 않았다’ 13.0%(전혀 그렇지 않다 2.6%+그렇지 않다 10.4%)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학생(만15-18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6.1%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8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354	32.0	2.6	10.4	44.9	39.3	2.8	68.0
	자	1,737	32.2	2.1	12.7	44.9	36.9	3.5	67.8
성별	여	1,617	31.8	3.2	7.9	44.8	42.0	2.1	68.2
연령	만 15 ~ 18 세	526	38.0	0.3	6.6	37.0	45.8	10.3	62.0
	만 19 ~ 29 세	1,412	36.2	1.8	11.1	48.3	36.7	2.0	63.8
	만 30 ~ 39 세	1,416	26.2	4.5	10.7	42.8	40.6	1.4	73.8
지역	서울	636	28.3	0.7	4.1	37.9	51.8	5.4	71.7
	인천 / 경기	755	32.4	2.6	12.9	45.7	36.9	1.8	67.6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43.8	4.9	10.0	48.8	33.5	2.7	56.2
	광주 / 전라 / 제주	461	36.8	3.1	8.0	41.3	42.8	4.8	63.2
	부산 / 울산 / 경남	534	28.2	2.5	15.7	46.6	35.0	0.2	71.8
	대구 / 경북	450	22.1	0.6	10.5	51.9	34.4	2.7	77.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50	37.4	0.3	5.7	34.4	48.8	10.8	62.6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38	42.2	2.1	9.1	44.1	41.9	2.8	57.8
	고 졸 이 하	862	28.7	2.2	14.6	56.0	26.1	1.1	71.3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1,504	29.6	3.6	9.8	41.7	43.0	1.9	70.4
	동	1,712	35.7	1.4	11.0	44.1	39.9	3.6	64.3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42	28.2	4.2	9.7	45.8	38.5	1.9	71.8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6) 취업처 연계

-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취업처 연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16.8%로 조사됨
-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 34.5%(그렇다 29.4%+매우 그렇다 5.0%),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7%(전혀 그렇지 않다 6.5%+그렇지 않다 14.2%)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학생(만15-18세)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1.3%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6) 취업처 연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3,354	16.8	6.5	14.2	44.8	29.4	5.0	83.2
	자	1,737	17.6	5.3	17.0	45.1	28.4	4.1	82.4
성별	여	1,617	15.9	7.9	10.8	44.4	30.6	6.2	84.1
연령	만 15 ~ 18 세	526	13.0	2.7	4.2	51.9	32.3	9.0	87.0
	만 19 ~ 29 세	1,412	18.2	4.2	17.6	48.5	24.2	5.5	81.8
	만 30 ~ 39 세	1,416	16.3	9.8	12.3	39.3	34.9	3.7	83.7
지역	서울	636	11.2	2.6	7.9	33.0	44.5	12.0	88.8
	인천 / 경기	755	18.7	9.0	18.1	50.5	19.1	3.4	81.3
	대전/충청/세종/강원	518	25.6	9.7	9.9	53.3	24.0	3.1	74.4
	광주 / 전라 / 제주	461	16.5	4.7	14.0	30.9	43.3	7.1	83.5
	부산 / 울산 / 경남	534	17.5	2.4	17.7	34.7	39.9	5.4	82.5
	대구 / 경북	450	9.3	1.3	12.6	59.7	25.4	0.9	90.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50	12.9	1.5	4.3	47.8	35.8	10.7	87.1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38	13.8	4.6	26.4	41.0	20.3	7.7	86.2
	고 졸 이 하	862	28.4	3.9	14.5	48.6	30.0	3.0	71.6
	대 졸 이 상	1,504	12.1	11.5	11.5	40.5	30.7	5.6	87.9
주거 형태	동	1,712	16.6	5.1	16.9	43.2	27.8	7.0	83.4
	비 동 거 / 독 립	1,642	17.0	7.9	11.6	46.4	31.0	3.1	83.0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50) 취업 준비 여부

- 지난 주에 주로 취업 준비를 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취업 준비를 주로 ‘했다’는 응답이 8.9%로, 2018년 7.7% 대비 소폭(1.1%p) 상승함
- 취업 준비를 한 청년들은 평균 11.1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19-29세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14.3%로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10.5%) 및 서울 지역(9.5%)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11.6%) 및 대졸이상(10.8%)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0 취업준비 여부 연도별 추이⁹⁾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평균 (개월)	
2017	2,714	9.3	-	90.7
2018	3,133	7.7	-	92.3
2019	3,530	8.9	11.1	91.1

9) 취업준비 준비 기간을 묻는 문항은 2019년 신규 문항임

표 II-50-1 취업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8.9	91.1
성별	남 자	1,839	10.0	90.0
	여 자	1,691	7.6	92.4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8	97.2
	만 1 9 ~ 2 9 세	1,431	14.3	85.7
	만 3 0 ~ 3 9 세	1,438	5.2	94.8
지역	서 울	652	9.5	90.5
	인 천 / 경 기	786	10.5	89.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8.4	91.6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7.2	92.8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7.9	92.1
	대 구 / 경 북	478	6.0	94.0
	중 / 고 등 학 생	582	2.9	97.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1.6	88.4
	고 졸 이 하	901	6.6	93.4
	대 졸 이 상	1,507	10.8	89.2
주거 형태	동 거	1,863	12.8	87.2
	비 동 거 / 독 립	1,667	4.8	95.2

51)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 지난 주에 취업준비를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준비별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먼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3%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자(42.9%)가 여자(36.6%)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61.4%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51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40.3	59.7
	남 자	170	42.9	57.1
	여 자	116	36.6	63.4
연령	만 1 5 ~ 1 8 세	22	23.5	76.5
	만 1 9 ~ 2 9 세	192	40.2	59.8
	만 3 0 ~ 3 9 세	72	43.3	56.7
지역	서 울	59	61.4	38.6
	인 천 / 경 기	76	35.8	64.2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9.4	80.6
	광주/전라/제주	30	39.4	60.6
	부산/울산/경남	42	40.3	59.7
	대 구 / 경 북	34	38.4	61.6
	중 / 고 등 학 생	19	26.3	73.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46.6	53.4
	고 졸 이 하	59	38.8	61.2
	대 졸 이 상	151	39.6	60.4
주거	동 거	197	43.9	56.1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30.0	70.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2)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6%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19-29세(54.4%)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험 비율이 63.9%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2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48.6	51.4
	자	170	48.2	51.8
성별	남	170	48.2	51.8
	여	116	49.3	50.7
연령	만 1 5 ~ 1 8 세	22	23.7	76.3
	만 1 9 ~ 2 9 세	192	54.4	45.6
	만 3 0 ~ 3 9 세	72	36.5	63.5
지역	서 울	59	55.0	45.0
	인 천 / 경 기	76	43.3	56.7
	대전/충청/세종/강원	45	53.4	46.6
	광 주 / 전 라 / 제 주	30	47.5	52.5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48.0	52.0
	대 구 / 경 북	34	51.3	48.7
	중 / 고 등 학 생	19	26.5	73.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63.9	36.1
	고 졸 이 하	59	27.1	72.9
	대 졸 이 상	151	52.5	47.5
주거	동 거	197	51.2	48.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41.5	58.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3)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4%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19-29세(46.7%)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61.1%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험 비율이 65.9%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3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43.4	56.6
	남	자	170	43.7	56.3
	여	자	116	42.8	57.2
연령	만 1 5 ~ 1 8 세		22	19.1	80.9
	만 1 9 ~ 2 9 세		192	46.7	53.3
	만 3 0 ~ 3 9 세		72	37.9	62.1
지역	서 울		59	61.1	38.9
	인 천 / 경 기		76	46.6	53.4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6.8	73.2
	광 주 / 전 라 / 제 주		30	37.8	62.2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34.4	65.6
	대 구 / 경 북		34	22.3	77.7
	중 / 고 등 학 생		19	16.2	83.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65.9	34.1
	고 졸 이 하		59	13.4	86.6
	대 졸 이 상		151	48.0	52.0
주거	동 거		197	50.7	49.3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22.5	77.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4)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 ‘해외 연수 및 어학 연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1%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자(11.6%)가 여자(5.5%)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30~39세(11.0%)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14.6%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험 비율이 12.6%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4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9.1	90.9
	성별	남 자	170	11.6	88.4
		여 자	116	5.5	94.5
연령	만 1 5 ~ 1 8 세		22	8.6	91.4
	만 1 9 ~ 2 9 세		192	8.5	91.5
	만 3 0 ~ 3 9 세		72	11.0	89.0
지역	서 울		59	14.6	85.4
	인 천 / 경 기		76	11.1	88.9
	대전/충청/세종/강원		45	0.9	99.1
	광 주/전라/제주		30	4.3	95.7
	부 산/울산/경남		42	9.6	90.4
	대 구 / 경 북		34	0.0	10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9.6	90.4
	대학생/대학원생		57	12.6	87.4
	고 졸 이 하		59	2.1	97.9
	대 졸 이 상		151	10.4	89.6
주거	동 거		197	9.3	90.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8.5	91.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5)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

- ‘면접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4%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자(31.9%)가 여자(28.3%)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31.9%)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38.5%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55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30.4	69.6
	자	170	31.9	68.1
성별	여	116	28.3	71.7
	만 15 ~ 18 세	22	23.6	76.4
연령	만 19 ~ 29 세	192	31.9	68.1
	만 30 ~ 39 세	72	27.3	72.7
지역	서울	59	38.5	61.5
	인천 / 경기	76	32.9	67.1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8.4	71.6
	광주/전라/제주	30	22.0	78.0
	부산/울산/경남	42	24.2	75.8
	대구 / 경북	34	16.1	83.9
	중 / 고 등 학 생	19	26.3	73.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25.2	74.8
	고 졸 이 하	59	24.7	75.3
	대 졸 이 상	151	34.5	65.5
주거	동	197	32.5	67.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24.5	75.5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6)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

- ‘자소서 작성 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4%로,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질문한 12개의 취업 준비 내용 중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51.3%)와 더불어 ‘경험 있다(예)’의 비율이 ‘경험 없다(아니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54.8%)가 여자(46.4%)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52.3%)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험 비율이 54.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6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51.4	48.6
성별	남 자	170	54.8	45.2
	여 자	116	46.4	53.6
연령	만 1 5 ~ 1 8 세	22	45.4	54.6
	만 1 9 ~ 2 9 세	192	52.3	47.7
	만 3 0 ~ 3 9 세	72	49.8	50.2
지역	서 울	59	52.4	47.6
	인 천 / 경 기	76	57.0	43.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47.4	52.6
	광 주 / 전 라 / 제 주	30	54.2	45.8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49.1	50.9
	대 구 / 경 북	34	23.2	76.8
	중 / 고 등 학 생	19	50.7	49.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53.2	46.8
	고 졸 이 하	59	41.6	58.4
	대 졸 이 상	151	54.3	45.7
주거	동 거	197	56.9	43.1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36.0	64.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7)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5%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자(14.1%)가 여자(10.2%)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19.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7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12.5	87.5
	자	170	14.1	85.9
성별	여	116	10.2	89.8
	만 15 ~ 18 세	22	23.9	76.1
연령	만 19 ~ 29 세	192	14.0	86.0
	만 30 ~ 39 세	72	6.5	93.5
지역	서 울	59	17.7	82.3
	인 천 / 경 기	76	10.0	90.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2.8	87.2
	광 주 / 전 라 / 제 주	30	8.5	91.5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19.3	80.7
	대 구 / 경 북	34	0.0	100.0
	중 / 고 등 학 생	19	26.7	73.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15.6	84.4
	고 졸 이 하	59	8.5	91.5
	대 졸 이 상	151	12.0	88.0
주거	동 거	197	15.1	84.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5.1	94.9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8) 취업 준비 경험_8) 현장실습 경험

- ‘현장실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8%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30.7%)가 남자(25.7%)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39.3%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58 취업 준비 경험_8) 현장실습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성별	전체	286	27.8	72.2
	남자	170	25.7	74.3
	여자	116	30.7	69.3
연령	만 15 ~ 18 세	22	33.2	66.8
	만 19 ~ 29 세	192	26.7	73.3
	만 30 ~ 39 세	72	29.7	70.3
지역	서울	59	23.1	76.9
	인천 / 경기	76	33.2	66.8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5.4	84.6
	광주/전라/제주	30	39.3	60.7
	부산/울산/경남	42	27.5	72.5
	대구 / 경북	34	21.4	78.6
	중 / 고 등 학 생	19	33.0	67.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23.5	76.5
	고 졸 이 하	59	28.6	71.4
	대 졸 이 상	151	28.6	71.4
주거	동거	197	28.4	71.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25.9	74.1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59)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3%로,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질문한 12개의 취업 준비 내용 중 ‘자소서 작성 훈련’(51.4%)와 더불어 ‘경험 있다(예)’의 비율이 ‘경험 없다(아니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30-39세(57.1%)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68.2%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험 비율이 60.6%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9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51.3	48.7
	남	자	170	51.9	48.1
	여	자	116	50.4	49.6
연령	만 1 5 ~ 1 8 세		22	50.9	49.1
	만 1 9 ~ 2 9 세		192	49.2	50.8
	만 3 0 ~ 3 9 세		72	57.1	42.9
지역	서 울		59	54.2	45.8
	인 천 / 경 기		76	53.2	46.8
	대전/충청/세종/강원		45	30.8	69.2
	광주/전라/제주		30	68.2	31.8
	부산/울산/경남		42	54.4	45.6
	대 구 / 경 북		34	43.1	56.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56.8	43.2
	대학생/대학원생		57	60.6	39.4
	고 졸 이 하		59	28.4	71.6
	대 졸 이 상		151	55.8	44.2
주거	동 거		197	55.6	44.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39.1	60.9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0)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

- ‘인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0%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19.9%)가 남자(16.7%)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19.4%)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26.5%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험 비율이 24.7%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0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18.0	82.0
	성별	남 자	170	16.7	83.3
		여 자	116	19.9	80.1
연령	만 1 5 ~ 1 8 세		22	0.0	100.0
	만 1 9 ~ 2 9 세		192	19.4	80.6
	만 3 0 ~ 3 9 세		72	16.9	83.1
지역	서 울		59	23.7	76.3
	인 천 / 경 기		76	26.5	73.5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3	98.7
	광 주 / 전 라 / 제 주		30	20.0	80.0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5.9	94.1
	대 구 / 경 북		34	3.8	96.2
	중 / 고 등 학 생		19	0.0	10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14.4	85.6
	고 졸 이 하		59	24.7	75.3
	대 졸 이 상		151	18.0	82.0
주거	동 거		197	19.5	80.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13.7	86.3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1)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

-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8%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34.1%)가 남자(23.6%)보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55.3%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61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27.8	72.2
	남	자	170	23.6	76.4
	여	자	116	34.1	65.9
연령	만 1 5 ~ 1 8 세		22	33.9	66.1
	만 1 9 ~ 2 9 세		192	28.6	71.4
	만 3 0 ~ 3 9 세		72	24.8	75.2
지역	서 울		59	18.6	81.4
	인 천 / 경 기		76	31.3	68.7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7.1	82.9
	광주/전라/제주		30	55.3	44.7
	부산/울산/경남		42	30.2	69.8
	대 구 / 경 북		34	19.9	80.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37.8	62.2
	대학생/대학원생		57	38.9	61.1
	고 졸 이 하		59	13.0	87.0
	대 졸 이 상		151	28.7	71.3
주거	동 거		197	30.3	69.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20.8	79.2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2)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4%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만19-29세(32.1%)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경험 비율이 47.5%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험 비율이 54.2%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2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6	29.4	70.6
	남 자	170	32.5	67.5
	여 자	116	24.8	75.2
연령	만 1 5 ~ 1 8 세	22	29.1	70.9
	만 1 9 ~ 2 9 세	192	32.1	67.9
	만 3 0 ~ 3 9 세	72	21.7	78.3
지역	서 울	59	47.5	52.5
	인 천 / 경 기	76	25.7	74.3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4.6	85.4
	광 주 / 전 라 / 제 주	30	29.4	70.6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27.3	72.7
	대 구 / 경 북	34	22.9	77.1
	중 / 고 등 학 생	19	32.5	67.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54.2	45.8
	고 졸 이 하	59	2.0	98.0
	대 졸 이 상	151	30.3	69.7
주거	동 거	197	34.5	65.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14.8	85.2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3) 취업 준비 경험_13) 기타

○ 기타 경험으로는 ‘취업 준비 박람회 참석’ 경험이 있다고 조사됨

표 II-63 취업 준비 경험_13) 기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	100.0	0.0
성별	여 자	1	100.0	0.0
연령	만 1 5 ~ 1 8 세	1	100.0	0.0
지역	대전/충청/세종/강원	1	100.0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	100.0	0.0
주거 형태	동 거	1	100.0	0.0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4)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학교

-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45.6%이며, 이들의 55.1%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46.4%+매우 그렇다 8.7%)고 응답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 지역, 대졸이상에서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중/고등학생, 동거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 -64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학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86	45.6	2.9	11.3	30.7	46.4	8.7	54.4	
성별	남	170	46.7	0.8	12.2	27.7	48.1	11.2	53.3	
	여	116	43.9	6.3	9.9	35.4	43.7	4.7	56.1	
연령	만 1 5 ~ 1 8 세	22	83.8	0.0	7.1	5.1	69.1	18.7	16.2	
	만 1 9 ~ 2 9 세	192	51.4	3.3	11.2	30.7	46.3	8.5	48.6	
	만 3 0 ~ 3 9 세	72	23.0	2.5	14.6	45.2	33.7	3.9	77.0	
지역	서 울	59	59.7	1.7	2.9	37.8	54.4	3.3	40.3	
	인 천 / 경 기	76	37.6	6.9	17.9	19.8	36.1	19.3	62.4	
	대전/충청/세종/강원	45	50.5	0.0	8.7	33.7	53.5	4.1	49.5	
	광주/전라/제주	30	46.1	3.8	13.5	27.0	42.3	13.5	53.9	
	부산/울산/경남	42	41.0	0.0	14.4	33.6	52.0	0.0	59.0	
	대 구 / 경 북	34	42.9	0.0	13.9	46.2	39.9	0.0	57.1	
	중 / 고 등 학 생	19	91.0	0.0	7.3	5.2	70.9	16.5	9.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68.0	0.0	2.9	33.0	46.5	17.7	32.0	
	고 졸 이 하	59	23.5	16.9	0.0	47.3	17.6	18.2	76.5	
	대 졸 이 상	151	42.9	2.2	18.5	29.6	48.6	0.9	57.1	
주거	동 거	197	50.1	2.2	10.0	28.6	50.2	9.0	49.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32.7	6.4	16.8	39.7	30.0	7.2	67.3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5)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29.3%이며, 이들의 52.2%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44.5%+매우 그렇다 7.7%)고 응답함
- 여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천/경기 지역, 비동거/독립 인 경우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대구/경북 지역, 중/고등학생, 동거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65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공공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86	29.3	2.1	11.2	34.6	44.5	7.7	70.7
성별	남	자	170	26.5	1.4	8.6	30.5	51.7	7.8	73.5
	여	자	116	33.3	3.0	14.1	39.3	36.1	7.5	66.7
연령	만 1 5 ~ 1 8 세		22	25.6	0.0	23.2	15.7	24.5	36.6	74.4
	만 1 9 ~ 2 9 세		192	26.9	3.3	13.6	33.0	43.4	6.7	73.1
	만 3 0 ~ 3 9 세		72	36.5	0.0	4.7	39.8	48.8	6.6	63.5
지역	서 울		59	26.2	3.9	3.1	16.8	62.7	13.6	73.8
	인 천 / 경 기		76	41.6	2.5	14.6	44.5	34.5	3.9	58.4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1.5	0.0	0.0	38.0	53.4	8.6	78.5
	광주/전라/제주		30	15.0	0.0	28.6	13.2	46.6	11.6	85.0
	부산/울산/경남		42	20.9	0.0	16.1	28.4	55.4	0.0	79.1
	대 구 / 경 북		34	17.7	0.0	0.0	15.2	40.5	44.2	82.3
	중 / 고 등 학 생		19	28.5	0.0	23.2	15.7	24.5	36.6	71.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26.8	0.0	14.9	44.9	40.3	0.0	73.2
	고 졸 이 하		59	28.7	3.8	0.0	27.8	68.3	0.0	71.3
	대 졸 이 상		151	30.4	2.3	13.1	34.8	39.0	10.9	69.6
주거	동 거		197	25.3	1.2	13.3	30.2	49.1	6.2	74.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40.6	3.8	7.4	42.2	36.3	10.3	59.4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6)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사설기관

- 사설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38.5%이며, 이들의 59.8%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53.3%+매우 그렇다 6.5%)고 응답함
- 여자, 만19-29세, 서울, 인천/경기 지역, 고졸이하, 동거의 경우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비동거/독립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66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사설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86	38.5	4.3	6.3	29.6	53.3	6.5	61.5
성별	남	자	170	34.3	3.2	4.2	35.4	51.9	5.3	65.7
	여	자	116	44.5	5.5	8.6	23.2	54.9	7.9	55.5
연령	만 1 5 ~ 1 8 세		22	23.9	0.0	0.0	19.2	56.9	23.8	76.1
	만 1 9 ~ 2 9 세		192	40.8	5.7	8.3	26.7	52.7	6.6	59.2
	만 3 0 ~ 3 9 세		72	34.1	0.0	0.0	40.7	55.0	4.3	65.9
지역	서 울		59	42.0	2.4	0.0	15.4	74.9	7.3	58.0
	인 천 / 경 기		76	42.1	3.6	11.6	35.7	44.1	5.1	57.9
	대전/충청/세종/강원		45	31.3	0.0	0.0	41.6	52.0	6.4	68.7
	광주/전라/제주		30	31.9	15.5	14.3	17.5	41.8	10.9	68.1
	부산/울산/경남		42	36.6	9.2	0.0	29.9	50.7	10.2	63.4
	대 구 / 경 북		34	31.6	0.0	9.4	38.2	52.3	0.0	68.4
	중 / 고 등 학 생		19	21.6	0.0	0.0	23.8	46.7	29.5	78.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40.1	0.0	10.5	32.6	55.0	1.9	59.9
	고 졸 이 하		59	45.6	13.2	0.0	32.0	43.7	11.1	54.4
	대 졸 이 상		151	36.5	2.1	7.6	27.7	57.2	5.4	63.5
주거	동 거		197	40.9	5.5	5.6	30.6	52.6	5.7	59.1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31.6	0.0	8.6	26.1	55.8	9.4	68.4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7)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부모님이나 친인척

-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33.2%이며, 이들의 56.9%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41.9%+매우 그렇다 15.1%)고 응답함
- 남자, 만19-29세, 동거의 경우 부모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67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부모님이나 친인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86	33.2	2.3	8.7	32.1	41.9	15.1	66.8
성별	남	170	35.6	1.0	5.0	25.8	47.1	21.0	64.4
	여	116	29.8	4.5	15.0	43.0	32.8	4.7	70.2
연령	만 15 ~ 18 세	22	33.8	0.0	0.0	41.1	31.4	27.4	66.2
	만 19 ~ 29 세	192	37.6	2.3	9.3	28.2	44.3	15.8	62.4
	만 30 ~ 39 세	72	20.9	2.8	7.6	49.4	32.3	8.0	79.1
지역	서울	59	37.6	2.7	7.5	21.7	60.3	7.9	62.4
	인천 / 경기	76	32.3	3.3	12.5	34.9	30.4	19.0	67.7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7.5	0.0	9.6	22.3	62.0	6.1	72.5
	광주/전라/제주	30	26.6	6.6	0.0	38.7	15.4	39.3	73.4
	부산/울산/경남	42	36.6	0.0	8.7	47.9	28.3	15.2	63.4
	대구 / 경북	34	37.2	0.0	0.0	30.4	59.7	9.9	6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33.8	0.0	0.0	46.0	35.1	18.8	66.2
	대학생/대학원생	57	34.6	0.0	0.0	43.6	37.7	18.7	65.4
	고 졸 이 하	59	38.1	2.9	2.4	42.5	20.1	32.1	61.9
	대 졸 이 상	151	31.0	3.1	15.2	22.3	53.3	6.1	69.0
주거	동	197	34.8	0.9	8.6	34.8	39.3	16.5	65.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28.8	7.2	9.1	22.9	50.5	10.3	71.2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친구, 선후배

- 친구, 선후배로부터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은 49.4%이며, 이들의 56.6%는 ‘도움이 되었다’(그렇다 53.3%+매우 그렇다 3.4%)고 응답함
- 남자, 만19-29세, 서울, 광주/전라/제주, 대학생/대학원생, 동거의 경우 친구, 선후배의 도움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대전/충청/세종/강원, 재학 중 학생(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II-6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친구, 선후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86	49.4	3.3	2.0	38.0	53.3	3.4	50.6
성별	남	자	170	55.3	1.6	3.0	35.6	55.7	4.1	44.7
	여	자	116	40.8	6.8	0.0	42.8	48.5	1.9	59.2
연령	만 1 5 ~ 1 8 세		22	43.6	0.0	0.0	27.6	59.4	13.1	56.4
	만 1 9 ~ 2 9 세		192	54.0	3.1	1.6	35.5	56.0	3.8	46.0
	만 3 0 ~ 3 9 세		72	37.5	4.7	4.1	50.1	41.1	0.0	62.5
지역	서 울		59	54.2	1.9	1.5	28.2	64.8	3.6	45.8
	인 천 / 경 기		76	48.9	5.3	1.1	42.3	49.7	1.6	51.1
	대전/충청/세종/강원		45	47.0	0.0	0.0	33.6	58.5	7.9	53.0
	광주/전라/제주		30	53.6	10.0	8.5	36.1	34.9	10.5	46.4
	부산/울산/경남		42	47.5	0.0	3.6	48.8	47.6	0.0	52.5
	대 구 / 경 북		34	39.0	0.0	0.0	41.1	58.9	0.0	61.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48.6	0.0	0.0	27.6	59.4	13.1	51.4
	대학생/대학원생		57	61.7	0.0	1.5	24.5	68.9	5.1	38.3
	고 졸 이 하		59	41.5	9.6	0.0	35.1	51.2	4.2	58.5
	대 졸 이 상		151	48.1	3.1	3.0	45.5	46.7	1.7	51.9
주거	동 거		197	53.3	2.8	2.0	39.0	53.2	3.1	46.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38.4	5.4	2.1	34.4	53.4	4.6	61.6

*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69) 주체별 도움 내용_1) 학교

- 학교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상담'이 41.3%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25.1%), '교육/훈련'(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자는 '정보제공'(28.6%), 교육훈련(30.0%), 여자는 '상담'(56.2%)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는 '상담'(58.9%)을, 만19-29세는 '정보제공'(27.2%)의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은 '상담'(60.5%), 대학생/대학원생은 '정보제공'(29.5%)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9 주체별 도움 내용_1) 학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	체	133	25.1	23.2	41.3	8.6	1.8
성별	남	82	28.6	30.0	31.8	8.4	1.3
	여	51	19.8	12.6	56.2	8.9	2.5
연령	만 15 ~ 18 세	18	12.5	25.4	58.9	3.2	0.0
	만 19 ~ 29 세	94	27.2	24.9	37.2	8.5	2.2
	만 30 ~ 39 세	21	19.7	11.0	57.0	12.3	0.0
지역	서울	35	15.8	22.9	42.0	15.8	3.5
	인천 / 경기	31	24.4	41.0	30.4	4.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3	43.2	14.6	27.3	9.5	5.3
	광주 / 전라 / 제주	15	37.8	9.5	48.4	4.3	0.0
	부산 / 울산 / 경남	17	26.9	8.2	58.1	6.8	0.0
	대구 / 경북	12	9.0	0.0	86.8	4.3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7	12.9	23.4	60.5	3.3	0.0
	대학생 / 대학원생	35	29.5	19.7	43.0	5.2	2.7
	고 졸 이 하	13	20.6	23.2	36.9	19.3	0.0
주거	대 졸 이 상	68	25.3	25.0	38.7	9.1	1.9
	동	102	25.5	25.8	39.4	7.2	2.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1	23.7	11.8	49.6	14.9	0.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0) 주체별 도움 내용_2) 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교육훈련’이 25.4%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24.9%), ‘상담’(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자는 ‘정보제공’(30.1%), ‘교육/훈련’(33.8%), 남자는 ‘상담’(31.1%), ‘일자리 알선’(21.0%), ‘금전적 지원’(9.4%)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는 ‘교육/훈련’(55.5%)을, 만19-29세는 ‘정보제공’(31.3%)의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은 ‘교육/훈련’(55.5%), 대졸이상은 ‘정보제공’(31.9%)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0 주체별 도움 내용_2) 공공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	체	82	24.9	25.4	24.8	16.3	8.6
성별	남 자	44	20.4	18.1	31.1	21.0	9.4
	여 자	38	30.1	33.8	17.5	10.9	7.6
연령	만 1 5 ~ 1 8 세	6	15.7	55.5	22.3	0.0	6.5
	만 1 9 ~ 2 9 세	48	31.3	17.3	32.6	9.7	9.1
	만 3 0 ~ 3 9 세	28	12.7	38.9	9.0	31.8	7.7
지역	서 울	17	8.8	21.9	46.0	10.8	12.5
	인 천 / 경 기	32	29.2	20.2	26.8	15.7	8.1
	대전/충청/세종/강원	11	5.8	57.4	0.0	25.9	11.0
	광 주 / 전 라 / 제 주	6	28.6	24.8	0.0	46.6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11	56.8	11.1	9.7	14.4	8.1
	대 구 / 경 북	5	12.4	72.4	15.2	0.0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6	15.7	55.5	22.3	0.0	6.5
	대학생/대학원생	15	25.7	21.9	52.4	0.0	0.0
	고 졸 이 하	18	4.8	28.1	22.0	45.1	0.0
	대 졸 이 상	43	31.9	23.7	17.6	12.6	14.1
주거 형태	동 거	49	32.0	13.5	31.5	9.5	13.5
	비 동 거 / 독 립	33	12.4	46.4	12.9	28.3	0.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1) 주체별 도움 내용_3) 사설기관

- 사설기관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교육훈련’이 47.0%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24.6%), ‘상담’(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자는 ‘정보제공’의 응답 비율이 34.6%로 남자(1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는 ‘교육/훈련’(53.8%)을, 만19-29세는 ‘정보제공’(26.1%)의 응답이 높음
- 지역별 광주/전라/제주는 ‘정보제공’(62.4%),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은 ‘교육/훈련’의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학력별 고졸이하는 ‘정보제공’(33.5%), 대졸이상은 ‘교육/훈련’(55.3%)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1 주체별 도움 내용_3) 사설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	체	112	24.6	47.0	14.4	13.4	0.7
성별	남	58	15.6	47.6	17.2	19.6	0.0
	여	54	34.6	46.3	11.3	6.4	1.4
연령	만 15 ~ 18 세	7	10.7	53.8	35.5	0.0	0.0
	만 19 ~ 29 세	77	26.1	46.3	13.2	13.6	0.9
	만 30 ~ 39 세	28	21.0	48.4	16.3	14.4	0.0
지역	서울	26	5.7	50.2	31.2	12.9	0.0
	인천 / 경기	31	21.6	55.4	7.3	15.7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5	22.8	57.4	3.4	16.4	0.0
	광주 / 전라 / 제주	11	62.4	10.9	15.5	11.2	0.0
	부산 / 울산 / 경남	17	50.8	22.7	13.5	7.6	5.4
	대구 / 경북	12	24.9	49.0	17.9	8.2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6	13.2	42.8	44.0	0.0	0.0
	대학생 / 대학원생	23	25.0	28.4	34.6	12.0	0.0
	고 졸 이 하	25	33.5	44.0	6.6	16.0	0.0
	대 졸 이 상	58	20.9	55.3	9.3	13.3	1.2
주거	동거	81	26.8	46.3	15.7	10.5	0.8
형태	비동거 / 독립	31	16.5	49.5	9.8	24.1	0.0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2) 주체별 도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

- 부모님, 친인척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금전적 지원’이 42.9%로 가장 높고, ‘상담’(21.4%), ‘일자리 알선’(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자는 ‘금전적 지원’(52.8%), ‘상담’(27.9%) 응답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는 ‘상담’(58.1%)을, 만19-29세는 ‘금전적 지원’(51.8%)의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은 ‘상담’(39.4%),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금전적 지원’(67.4%)의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은 ‘상담’(65.0%), 대학생/대학원생은 ‘금전적 지원’(69.2%)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2 주체별 도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전	체	97	13.6	1.5	21.4	20.6	42.9
성별	남	65	16.3	2.3	17.6	26.5	37.3
	여	32	9.1	0.0	27.9	10.2	52.8
연령	만 15 ~ 18 세	9	0.0	0.0	58.1	36.0	5.9
	만 19 ~ 29 세	71	16.5	0.0	20.8	10.9	51.8
	만 30 ~ 39 세	17	2.8	9.2	14.8	65.2	8.0
지역	서울	23	6.3	0.0	14.1	30.9	48.6
	인천 / 경기	24	10.7	4.0	39.4	16.3	29.7
	대전/충청/세종/강원	13	0.0	0.0	18.6	14.0	67.4
	광주 / 전라 / 제주	10	35.8	0.0	0.0	22.5	41.6
	부산 / 울산 / 경남	16	30.1	0.0	0.0	21.5	48.4
	대구 / 경북	11	21.1	0.0	21.0	12.7	45.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8	0.0	0.0	65.0	28.4	6.6
	대 학생 / 대 학 원 생	20	17.7	0.0	10.9	2.2	69.2
	고 졸 이 하	21	22.9	6.4	20.3	27.8	22.7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48	9.1	0.0	22.8	23.9	44.3
	동 거	68	14.3	1.9	20.4	15.1	48.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29	11.6	0.0	24.8	39.2	24.5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3) 주체별 도움 내용_5) 친구, 선후배

- 친구, 선후배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받은 도움은 ‘정보제공’이 49.4%로 가장 높고, ‘상담’(30.1%), ‘일자리 알선’(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는 ‘상담’(80.9%)을, 만19-29세는 ‘정보제공’(58.5%)의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은 ‘상담’(80.9%), 대학생/대학원생은 ‘정보 제공’(64.1%)의 응답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3 주체별 도움 내용_5) 친구, 선후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전	체	143	49.4	1.0	30.1	19.5
	남	99	49.2	1.5	29.8	19.5
	여	44	49.9	0.0	30.5	19.6
연령	만 1 5 ~ 1 8 세	9	19.1	0.0	80.9	0.0
	만 1 9 ~ 2 9 세	104	58.5	0.0	26.1	15.3
	만 3 0 ~ 3 9 세	30	18.5	5.1	36.4	39.9
지역	서 울	34	48.8	0.0	23.6	27.6
	인 천 / 경 기	36	45.4	2.6	35.3	16.6
	대전/충청/세종/강원	23	29.1	0.0	36.1	34.8
	광주/전라/제주	16	78.6	0.0	10.1	11.4
	부산/울산/경남	20	60.0	0.0	31.0	9.0
	대 구 / 경 북	14	53.7	0.0	40.7	5.6
	중 / 고 등 학 생	9	19.1	0.0	80.9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35	64.1	0.0	29.1	6.8
	고 졸 이 하	25	36.4	5.8	24.5	33.3
	대 졸 이 상	74	49.0	0.0	28.9	22.1
주거	동 거	103	53.3	1.2	29.2	16.3
형태	비 동 거 / 독 립	40	34.5	0.0	33.4	32.1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4) 사설기관을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불한 비용을 물어본 결과, 월평균 20만 7천원으로 조사 됨
- 성별로 보면 남자(23.1만원)가 여자(18.1만원)보다 지불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4 사설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불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월평균 지불 비용(만원)
전	체	112	20.7
	남	58	23.1
	여	54	18.1
연령	만 15 ~ 18 세	7	30.0
	만 19 ~ 29 세	77	20.6
	만 30 ~ 39 세	28	20.3
지역	서울	26	23.6
	인천 / 경기	31	19.2
	대전/충청/세종/강원	15	22.1
	광주/전라/제주	11	10.4
	부산/울산/경남	17	22.8
학력	대구 / 경북	12	25.4
	중 / 고 등 학 생	6	32.3
	대학생/대학원생	23	11.7
	고 졸 이 하	25	20.4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58	23.8
	동 거	81	21.3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1	18.7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만 응답

75)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 사설기관 외 시험응시료, 교재 및 도서 구입 등의 취업준비 관련 비용을 물어 본 결과, 월평균 14만 9천원으로 조사 됨
- 성별로 보면 남자(15.6만원)가 여자(13.8만원)보다 지불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의 월 지불 비용이 15만 8천원으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5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 월평균 지불 비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월평균 지불 비용(만원)
전	체	286	14.9
성별	남	170	15.6
	여	116	13.8
연령	만 1 5 ~ 1 8 세	22	4.5
	만 1 9 ~ 2 9 세	192	15.8
	만 3 0 ~ 3 9 세	72	14.0
지역	서 울	59	19.1
	인 천 / 경 기	76	10.7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4.3
	광 주 / 전라 / 제 주	30	15.9
	부 산 / 울 산 / 경 남	42	20.8
	대 구 / 경 북	34	12.9
	중 / 고 등 학 생	19	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7	16.6
	고 졸 이 하	59	9.0
	대 졸 이 상	151	17.0
주거	동 거	197	16.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10.7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사설기관을 제외한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6)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 평일 1일 기준 취업 준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4.5시간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만19-29세의 하루 평균 취업 준비 투자 시간이 4.8시간으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5.2시간), 대구/경북(5.5시간) 지역에서 다른 지역 대비 투자 시간이 많음

표 II-76 취업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취업준비 투자 시간(시간/1일당)
전	체	286	4.5
성별	남 자	170	4.5
	여 자	116	4.6
연령	만 1 5 ~ 1 8 세	22	3.1
	만 1 9 ~ 2 9 세	192	4.8
	만 3 0 ~ 3 9 세	72	4.2
지역	서 울	59	5.2
	인 천 / 경 기	76	4.2
	대전/충청/세종/강원	45	4.3
	광주/전라/제주	30	4.3
	부산/울산/경남	42	4.2
	대 구 / 경 북	34	5.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9	3.1
	대학생/대학원생	57	4.8
	고 졸 이 하	59	2.9
	대 졸 이 상	151	5.1
주거	동 거	197	4.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	4.1

* 주: 취업 준비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만 응답

77)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현재까지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5.4%로 2018년 12.5% 대비 2.9%p 상승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준비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21.0%)에서 준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77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534	15.2	84.8
2017	2,714	17.8	82.2
2018	3,133	12.5	87.5
2019	3,530	15.4	84.6

표 II-77-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530	15.4	84.6
성별	남 자	1,839	14.6	85.4
	여 자	1,691	16.2	83.8
연령	만 1 5 ~ 1 8 세	661	3.8	96.2
	만 1 9 ~ 2 9 세	1,431	17.3	82.7
	만 3 0 ~ 3 9 세	1,438	16.7	83.3
지역	서 울	652	15.9	84.1
	인 천 / 경 기	786	15.6	84.4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7.0	83.0
	광주/전라/제주	492	15.3	84.7
	부산/울산/경남	570	14.7	85.3
	대 구 / 경 북	478	12.1	87.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0	96.0
	대학생/대학원생	540	15.4	84.6
	고 졸 이 하	901	10.2	89.8
	대 졸 이 상	1,507	21.0	79.0
주거 형태	동 거	1,863	14.8	85.2
	비 동 거 / 독 립	1,667	16.0	84.0

78) 향후 직업훈련 계획 여부

-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인턴 근무 등의 직업 훈련을 향후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받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7.7%로, 2018년 9.5% 대비 8.2%p 상승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직업훈련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22.3%) 지역에서 계획 의향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25.9%)에서 계획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7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693	23.1	76.9
2017	2,321	18.6	79.6
2018	2,641	9.5	90.0
2019	2,948	17.7	80.9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2019년 조사에는 ‘이미 받고 있다’가 보기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2017년 1.8%, 2019년 1.4%였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78-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받고 있다
전	체	2,948	17.7	80.9	1.4
	자	1,537	17.5	81.3	1.1
성별	여	1,411	17.9	80.4	1.7
	만 15 ~ 18 세	79	22.1	77.9	0.0
연령	만 19 ~ 29 세	1,431	20.4	77.9	1.7
	만 30 ~ 39 세	1,438	14.8	84.0	1.2
지역	서울	567	13.6	84.9	1.5
	인천 / 경기	661	22.3	75.7	2.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8.8	80.4	0.8
	광주/전라/제주	402	16.2	82.3	1.5
	부산/울산/경남	478	18.0	81.4	0.6
	대구 / 경북	394	10.4	88.4	1.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5.9	72.3	1.8
	고졸 이하	901	17.1	81.5	1.5
	대졸 이상	1,507	15.5	83.2	1.2
주거 형태	동거	1,289	21.1	77.0	1.9
	비동거 / 독립	1,659	14.9	84.2	0.9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79)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9.4%), ‘급여가 높은 회사’(17.0%) 등의 순이었으며, 2018년 대비 ‘안정적인’, ‘급여가 높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선호 응답 비율은 하락한 반면, ‘직무가 적성에 맞는’, ‘복지 수준이 좋은’ ‘분위기 좋은’, ‘퇴근이 빠른’ 회사 선호 응답은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급여가 높은 회사’(20.3%)가, 여자는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9.8%)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보면, 만15-18세는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22.8%) 선호가, 만 30-39세는 ‘급여가 높은 회사’(18.5%),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8.4%)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급여가 높은 회사’(21.6%), 대졸이상은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8.3%) 선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9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 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2016	2,534	8.8	18.3	2.9	31.0	2.7	10.5	25.6	-
2017	2,714	9.0	19.5	1.6	31.4	6.9	8.8	22.3	0.3
2018	3,133	5.5	22.2	3.9	30.8	2.4	13.2	11.7	10.3
2019	3,530	8.9	17.0	1.0	25.7	5.0	6.9	19.4	16.0

* 주 1) 2017년, 2019년 응답결과에는 ‘기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비율은 0.1%였음 (본 표에 미제시함)
 2) 보기문항 중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는 2017년도부터 추가된 보기문항임

표 II-79-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 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 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기타
전	체	3,530	8.9	17.0	1.0	25.7	5.0	6.9	19.4	16.0	0.1
	남 자	1,839	10.0	20.3	0.9	25.1	4.0	8.3	19.0	12.5	0.1
	여 자	1,691	7.7	13.2	1.2	26.4	6.1	5.4	20.0	19.8	0.2
연령	만 15 ~ 18 세	661	11.8	15.4	2.0	27.9	2.0	8.2	22.8	9.9	0.1
	만 19 ~ 29 세	1,431	11.3	15.8	1.4	23.8	5.5	7.3	19.5	15.3	0.1
	만 30 ~ 39 세	1,438	5.6	18.5	0.4	27.0	5.4	6.1	18.5	18.4	0.2
지역	서울	652	7.6	16.0	0.7	25.9	4.5	7.1	22.1	16.1	0.1
	인천 / 경기	786	8.4	20.0	1.9	21.8	6.0	6.0	19.8	15.8	0.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8	13.5	0.7	25.9	6.3	6.2	20.3	16.9	0.3
	광주/전라/제주	492	7.8	21.4	0.7	25.7	3.8	3.8	19.1	17.7	0.0
	부산/울산/경남	570	10.1	15.7	0.6	31.7	5.6	6.3	13.8	16.3	0.0
	대구 / 경북	478	11.4	10.5	0.4	28.8	1.3	14.9	20.5	12.2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1.4	15.1	2.3	29.3	2.0	7.3	23.1	9.5	0.1
	대학생/대학원생	540	10.8	16.0	1.1	27.2	3.2	6.9	20.9	13.8	0.0
	고 졸 이 하	901	11.4	21.6	1.0	23.6	3.9	6.9	15.5	15.8	0.3
	대 졸 이 상	1,507	6.3	15.0	0.7	25.6	6.9	6.8	20.4	18.3	0.1
주거 형태	동 거	1,863	11.2	16.5	1.5	25.5	4.5	7.3	20.9	12.4	0.1
	비 동 거 / 독 립	1,667	6.4	17.4	0.5	25.9	5.5	6.4	17.9	19.7	0.2

80)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 시간급 기준으로 2020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9,202원으로 2018년 응답 평균 9,235원 대비 33원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9,216원)가 여자(9,186원)보다 적정하다고 최저 임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9,169원)의 적정 최저 임금 액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평균 금액이 9,33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 지역 평균 금액은 8,886원으로 유일하게 9,000원 미만 값으로 조사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9,308원)에서 적정 최저 임금 액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80 적정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원)

연도	사례수	적정 최저 임금 평균(원)
2016(2017년 임금)	2,534	7,585
2017(2019년 임금)	2,714	8,786
2018(2020년 임금)	3,133	9,235
2019(2020년 임금)	3,530	9,202

표 II-80-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평균
전	체	3,530	9,202
성별	남 자	1,839	9,216
	여 자	1,691	9,18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9,204
	만 1 9 ~ 2 9 세	1,431	9,169
	만 3 0 ~ 3 9 세	1,438	9,235
지역	서 울	652	9,291
	인 천 / 경 기	786	9,33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086
	광주/전라/제주	492	9,290
	부산/울산/경남	570	9,043
	대 구 / 경 북	478	8,886
	중 / 고 등 학 생	582	9,17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9,042
	고 졸 이 하	901	9,308
	대 졸 이 상	1,507	9,196
주거 형태	동 거	1,863	9,154
	비 동 거 / 독 립	1,667	9,253

8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이 현재 대비 2025년에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63.6%로 2018년 56.2% 대비 7.4%p 상승하였으며,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10.7%) 역시 2018년 5.9% 대비 4.38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66.2%)보다 남자(61.2%)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68.7%로 가장 높음

표 II-8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2016	2,534	18.3	39.1	42.6
2017	2,714	14.1	26.9	58.9
2018	3,133	5.9	37.9	56.2
2019	3,530	10.7	25.8	63.6

* 주: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81-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	체	3,530	10.7	25.8	63.6
성별	남 자	1,839	11.8	27.0	61.2
	여 자	1,691	9.4	24.4	66.2
연령	만 1 5 ~ 1 8 세	661	8.6	27.5	63.9
	만 1 9 ~ 2 9 세	1,431	9.9	25.8	64.3
	만 3 0 ~ 3 9 세	1,438	12.1	25.3	62.7
지역	서 울	652	10.1	30.0	59.9
	인 천 / 경 기	786	11.1	28.1	60.8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4.5	20.7	64.7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8.8	23.0	68.2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8.6	19.2	72.2
	대 구 / 경 북	478	10.1	29.6	60.4
	중 / 고 등 학 생	582	8.6	27.6	63.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0.8	25.8	63.5
	고 졸 이 하	901	9.3	22.1	68.7
	대 졸 이 상	1,507	11.9	27.5	60.6
	대 졸 이 상	1,507	11.9	27.5	60.6
주거 형태	동 거	1,863	9.4	26.1	64.5
	비 동 거 / 독 립	1,667	12.0	25.4	62.6

82)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급여(수당,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48.8%로 ‘찬성한다’(32.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일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p 하락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7%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60.9%로 높게 나타남

표 II-82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2016	2,534	27.9	53.5	18.7
2017	2,714	29.9	51.5	18.5
2018	3,133	32.5	51.5	16.0
2019	3,530	32.5	48.8	18.7

표 II-82-1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3,530	32.5	48.8	18.7
성별	남 자	1,839	33.5	50.0	16.4
	여 자	1,691	31.4	47.3	21.2
연령	만 15 ~ 18 세	661	39.6	26.6	33.8
	만 19 ~ 29 세	1,431	38.4	43.3	18.2
	만 30 ~ 39 세	1,438	24.5	60.8	14.7
지역	서 울	652	29.1	50.1	20.8
	인 천 / 경 기	786	32.9	47.4	19.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8.2	45.8	15.9
	광주/전라/제주	492	42.7	39.9	17.5
	부산/울산/경남	570	29.5	51.3	19.2
	대 구 / 경 북	478	23.9	60.9	15.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37.6	27.2	35.2
	대학생/대학원생	540	45.1	35.3	19.6
	고 졸 이 하	901	31.1	52.5	16.4
	대 졸 이 상	1,507	28.2	55.9	15.9
주거 형태	동 거	1,863	38.9	39.9	21.3
	비 동 거 / 독 립	1,667	25.8	58.2	16.0

83)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91,416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2018년 (637,873원) 대비 약 15만원 가량 상승한 금액이고, 한 달 생활비 중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은 2018년(31.2%) 대비 3.5%p 하락한 27.7%로 조사됨
- 성별로 남자(798,555원)가 여자(783,488원)보다 높고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금액은 높아지고, 지원받는 비율은 낮아짐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의 경우 평균 981,023원을 지출하고, 동거의 경우 612,666원을 지출해 비동거/독립이 약 30만원의 생활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83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원, %)

연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017	2,714	747,148	26.3
2018	3,133	637,873	31.2
2019	3,530	791,416	27.7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표 II-83-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전	체	3,530	791,416	27.7
성별	남 자	1,839	798,555	29.7
	여 자	1,691	783,488	25.3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87,958	92.8
	만 1 9 ~ 2 9 세	1,431	736,632	32.0
	만 3 0 ~ 3 9 세	1,438	995,188	4.1
지역	서 울	652	796,047	25.8
	인 천 / 경 기	786	754,599	24.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857,049	29.4
	광 주 / 전라 / 제주	492	713,769	33.1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846,603	29.6
	대 구 / 경 북	478	809,740	31.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52,696	96.8
	대학생/대학원생	540	579,734	72.3
	고 졸 이 하	901	857,514	8.6
	대 졸 이 상	1,507	946,630	8.3
주거 형태	동 거	1,863	612,666	47.0
	비 동 거 / 독 립	1,667	981,023	7.1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84)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비율은 27.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25.1%) 대비 2.4%p 상승한 결과임
-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채무 보유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의 경우 34.3%의 채무 보유 비율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력별 고졸이하(24.2%) 보다 대졸이상(34.6%)이 채무 보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 비동거/독립(37.9%)이 동거(15.0%) 보다 채무 보유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II-84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192	20.2	79.8
2017	2,321	27.1	72.9
2018	2,641	25.1	74.9
2019	2,948	27.5	72.5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 포함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84-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948	27.5	72.5
성별	남 자	1,537	28.3	71.7
	여 자	1,411	26.5	73.5
연령	만 15 ~ 18 세	79	0.0	100.0
	만 19 ~ 29 세	1,431	18.3	81.7
	만 30 ~ 39 세	1,438	37.9	62.1
지역	서 울	567	28.1	71.9
	인 천 / 경 기	661	34.3	65.7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21.0	79.0
	광 주 / 전라 / 제주	402	23.4	76.6
	부 산 / 울 산 / 경남	478	27.3	72.7
	대 구 / 경 북	394	16.6	83.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0.9	89.1
	고 졸 이 하	901	24.2	75.8
	대 졸 이 상	1,507	34.6	65.4
주거 형태	동 거	1,289	15.0	85.0
	비 동 거 / 독 립	1,659	37.9	62.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 포함

85) 채무 발생 이유

- 채무 발생 이유는 ‘주거비 마련’이 5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자금 마련’(21.2%), ‘생활비 마련’(9.6%), ‘창업 자금 마련’(6.5%)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만19-29세의 51.8%는 ‘학자금 마련’ 사유로 채무가 발생한 반면 만 30-39세는 75.7%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상이한 차이가 발견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은 ‘학자금 마련’(86.5%)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이상은 고졸이하에 비해 ‘주거비 마련’(65.3%)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85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전	체	738	21.2	59.6	9.6	6.5	3.1
성별	남 자	400	22.8	56.2	10.9	7.0	3.2
	여 자	338	19.3	63.8	8.2	5.9	2.9
연령	만 19 ~ 29 세	242	51.8	26.9	12.2	4.0	5.1
	만 30 ~ 39 세	496	6.1	75.7	8.4	7.8	2.1
지역	서울	145	29.7	62.8	2.3	3.7	1.4
	인천 / 경기	227	21.8	60.2	12.7	2.4	2.9
	대전/충청/세종/강원	92	17.6	48.1	11.7	14.9	7.8
	광주/전라/제주	87	22.6	40.6	12.9	20.0	3.9
	부산/울산/경남	124	12.8	68.9	9.5	7.2	1.7
	대구 / 경북	63	10.2	70.1	7.1	8.4	4.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	86.5	4.7	8.0	0.0	0.8
	고 졸 이 하	194	5.2	59.1	20.4	11.1	4.2
	대 졸 이 상	490	21.1	65.3	5.4	5.3	2.8
주거	동 거	171	60.9	13.3	15.5	6.8	3.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567	8.0	75.0	7.7	6.4	2.9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86) 채무 발생 기관

-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발생 기관을 물어본 결과 ‘은행’이 87.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2금융권’(8.7%), ‘대부업체’(2.5%)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제2금융권’(12.1%), 여자는 ‘은행’(89.3%)에서 돈을 빌린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됨
- 지역별로 서울은 ‘은행’(91.1%),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은 ‘제2금융권’(17.5%)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은 ‘은행’(91.5%), 고졸이하는 ‘제2금융권’(20.0%)에서 돈을 빌린다는 응답이 다른 학력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6 채무 발생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기타
전	체		738	87.1	8.7	2.5	6.4
	성별	남 자	400	85.2	12.1	2.4	7.3
		여 자	338	89.3	4.6	2.7	5.4
연령	만 19 ~ 29 세		242	76.1	9.8	1.8	17.2
	만 30 ~ 39 세		496	92.5	8.2	2.8	1.1
지역	서울		145	91.1	3.5	0.5	5.4
	인천 / 경기		227	88.4	11.5	3.8	5.4
	대전/충청/세종/강원		92	74.0	17.5	6.0	7.7
	광주/전라/제주		87	83.7	4.9	3.4	11.8
	부산/울산/경남		124	89.5	4.9	0.0	6.6
	대구 / 경북		63	85.6	8.3	0.0	6.0
	대학생/대학원생		54	55.3	1.7	7.5	37.4
학력	고 졸 이 하		194	83.9	20.0	4.1	2.6
	대 졸 이 상		490	91.5	4.8	1.4	4.8
주거	동 거		171	76.3	6.8	2.2	19.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567	90.7	9.4	2.6	2.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8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1.7%로 2018년 0.8% 대비 소폭(0.9%p)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아짐

표 II-8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2017	2,714	2.7	86.8	10.5
2018	3,133	0.8	82.9	16.3
2019	3,530	1.7	92.4	5.8

표 II-87-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3,530	1.7	92.4	5.8
	남 자	1,839	1.7	92.3	5.9
	여 자	1,691	1.7	92.6	5.7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4	78.5	21.1
	만 1 9 ~ 2 9 세	1,431	1.8	92.0	6.2
	만 3 0 ~ 3 9 세	1,438	2.0	97.0	1.0
지역	서 울	652	1.1	94.0	5.0
	인 천 / 경 기	786	3.3	89.3	7.4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3	91.5	7.2
	광주/전라/제주	492	1.4	94.1	4.5
	부산/울산/경남	570	0.4	94.1	5.5
	대 구 / 경 북	478	1.0	96.7	2.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4	77.0	22.6
	대학생/대학원생	540	1.0	91.4	7.6
	고 졸 이 하	901	2.6	93.5	4.0
	대 졸 이 상	1,507	1.8	95.8	2.4
주거 형태	동 거	1,863	1.4	87.8	10.8
	비 동 거 / 독 립	1,667	2.0	97.4	0.6

8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0.7%로 2018년 0.6% 대비 소폭(0.1%p)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II-8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2017	2,714	0.8	90.2	8.9
2018	3,133	0.6	85.1	14.4
2019	3,530	0.7	94.5	4.7

표 II-8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3,530	0.7	94.5	4.7
	자	1,839	0.7	94.4	4.9
성별	여	1,691	0.8	94.6	4.6
	자	1,691	0.8	94.6	4.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2	83.2	16.7
	만 1 9 ~ 2 9 세	1,431	0.8	94.3	4.9
	만 3 0 ~ 3 9 세	1,438	0.9	98.1	1.1
지역	서 울	652	0.4	96.1	3.6
	인 천 / 경 기	786	1.1	92.5	6.4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2	92.0	6.8
	광주/전라/제주	492	0.3	96.0	3.7
	부산/울산/경남	570	0.5	96.0	3.5
	대 구 / 경 북	478	0.5	97.8	1.7
	중 / 고 등 학 생	582	0.2	81.8	18.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0.1	93.6	6.3
	고 졸 이 하	901	1.7	95.1	3.2
	대 졸 이 상	1,507	0.5	97.4	2.0
	대 졸 이 상	1,507	0.5	97.4	2.0
주거 형태	동 거	1,863	0.5	90.9	8.6
	비 동 거 / 독 립	1,667	1.0	98.4	0.6

8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집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4.2%로 2018년 10.3% 대비 6.1%p 하락하였음

표 II-8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7.9	92.1
2018	3,133	10.3	89.7
2019	3,530	4.2	95.8

표 II-8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4.2	95.8
	자	1,839	4.5	95.5
성별	남	1,839	4.5	95.5
	여	1,691	3.8	96.2
연령	만 15 ~ 18 세	661	2.1	97.9
	만 19 ~ 29 세	1,431	5.0	95.0
	만 30 ~ 39 세	1,438	3.9	96.1
지역	서울	652	2.8	97.2
	인천 / 경기	786	6.5	93.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4.0	96.0
	광주/전라/제주	492	3.7	96.3
	부산/울산/경남	570	3.1	96.9
	대구 / 경북	478	1.8	98.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7	98.3
	대학생/대학원생	540	4.8	95.2
	고 졸 이 하	901	6.5	93.5
	대 졸 이 상	1,507	3.2	96.8
주거 형태	동 거	1,863	4.1	95.9
	비 동 거 / 독 립	1,667	4.3	95.7

9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1.7%로 2018년 1.1% 대비 0.6%p 상승하였음

표 II-9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2	97.8
2018	3,133	1.1	98.9
2019	3,530	1.7	98.3

표 II-9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1.7	98.3
성별	남 자	1,839	1.9	98.1
	여 자	1,691	1.6	98.4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9	99.1
	만 1 9 ~ 2 9 세	1,431	2.1	97.9
	만 3 0 ~ 3 9 세	1,438	1.6	98.4
지역	서 울	652	1.4	98.6
	인 천 / 경 기	786	3.0	97.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5	97.5
	광주/전라/제주	492	0.6	99.4
	부산/울산/경남	570	0.4	99.6
	대 구 / 경 북	478	0.2	99.8
	중 / 고 등 학 생	582	0.8	99.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3.1	96.9
	고 졸 이 하	901	2.2	97.8
	대 졸 이 상	1,507	1.3	98.7
주거 형태	동 거	1,863	1.7	98.3
	비 동 거 / 독 립	1,667	1.7	98.3

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비율은 9.4%로 나타나 2018년(18.7%) 대비 9.3%p 하락함

표 II-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13.9	86.1
2018	3,133	18.7	81.3
2019	3,530	9.4	90.6

표 II-9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9.4	90.6
	남 자	1,839	9.4	90.6
	여 자	1,691	9.3	90.7
연령	만 1 5 ~ 1 8 세	661	7.4	92.6
	만 1 9 ~ 2 9 세	1,431	10.4	89.6
	만 3 0 ~ 3 9 세	1,438	8.9	91.1
지역	서 울	652	11.0	89.0
	인 천 / 경 기	786	10.9	89.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0	91.0
	광 주/전라/제주	492	7.8	92.2
	부 산/울 산/경남	570	7.5	92.5
	대 구 / 경 북	478	5.7	94.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7.0	93.0
	대학생/대학원생	540	10.3	89.7
	고 졸 이 하	901	9.8	90.2
	대 졸 이 상	1,507	9.4	90.6
주거 형태	동 거	1,863	9.2	90.8
	비 동 거 / 독 립	1,667	9.6	90.4

9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9%로 2018년 0.5% 대비 1.4%p 상승하였음

표 II-9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7	97.3
2018	3,133	0.5	99.5
2019	3,530	1.9	98.1

표 II-9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1.9	98.1
성별	남 자	1,839	2.2	97.8
	여 자	1,691	1.6	98.4
연령	만 1 5 ~ 1 8 세	661	1.5	98.5
	만 1 9 ~ 2 9 세	1,431	3.1	96.9
	만 3 0 ~ 3 9 세	1,438	0.8	99.2
지역	서 울	652	2.7	97.3
	인 천 / 경 기	786	2.1	97.9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0	97.0
	광주/전라/제주	492	1.7	98.3
	부산/울산/경남	570	0.5	99.5
	대 구 / 경 북	478	0.4	99.6
	중 / 고 등 학 생	582	1.7	98.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3.0	97.0
	고 졸 이 하	901	1.7	98.3
	대 졸 이 상	1,507	1.7	98.3
주거 형태	동 거	1,863	1.2	98.8
	비 동 거 / 독 립	1,667	2.7	97.3

9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0.9%로 나타나 2018년(0.3%) 대비 0.6%p 상승함

표 II-9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0.7	99.3
2018	3,133	0.3	99.7
2019	3,530	0.9	99.1

표 II-9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0.9	99.1
성별	남 자	1,839	1.0	99.0
	여 자	1,691	0.9	99.1
연령	만 1 5 ~ 1 8 세	661	1.5	98.5
	만 1 9 ~ 2 9 세	1,431	1.6	98.4
	만 3 0 ~ 3 9 세	1,438	0.1	99.9
지역	서 울	652	0.3	99.7
	인 천 / 경 기	786	1.5	98.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8	99.2
	광주/전라/제주	492	0.8	99.2
	부산/울산/경남	570	1.3	98.7
	대 구 / 경 북	478	0.3	99.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7	98.3
	대학생/대학원생	540	1.4	98.6
	고 졸 이 하	901	1.0	99.0
	대 졸 이 상	1,507	0.6	99.4
주거 형태	동 거	1,863	1.4	98.6
	비 동 거 / 독 립	1,667	0.4	99.6

9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20.2%로 나타나 2018년(22.4%) 대비 2.2%p 하락함
- 성별로 남자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21.8%로 여자(18.4%)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30-39세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10.1%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임
- 주거형태별 동거의 경우 24.4%로 비동거/독립(15.8%)에 비해 비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4.6	75.4
2018	3,133	22.4	77.6
2019	3,530	20.2	79.8

표 II-9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20.2	79.8
	자			
성별	남	1,839	21.8	78.2
	여	1,691	18.4	81.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0.3	79.7
	만 1 9 ~ 2 9 세	1,431	30.1	69.9
	만 3 0 ~ 3 9 세	1,438	10.1	89.9
지역	서 울	652	24.7	75.3
	인 천 / 경 기	786	20.3	79.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9.2	80.8
	광 주/전라/제주	492	18.8	81.2
	부 산/울산/경남	570	15.3	84.7
	대 구 / 경 북	478	21.0	79.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9.8	80.2
	대학생/대학원생	540	29.6	70.4
	고 졸 이 하	901	23.9	76.1
	대 졸 이 상	1,507	15.2	84.8
주거 형태	동 거	1,863	24.4	75.6
	비 동 거 / 독 립	1,667	15.8	84.2

9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0.4%로 나타나 2018년(0.4%)과 동일함

표 II-9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0.3	99.7
2018	3,133	0.4	99.6
2019	3,530	0.4	99.6

표 II-9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0.4	99.6
	자			
성별	남	1,839	0.4	99.6
	여	1,691	0.3	99.7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8	99.2
	만 1 9 ~ 2 9 세	1,431	0.3	99.7
	만 3 0 ~ 3 9 세	1,438	0.3	99.7
지역	서 울	652	0.4	99.6
	인 천 / 경 기	786	0.2	99.8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7	99.3
	광주/전라/제주	492	0.4	99.6
	부산/울산/경남	570	0.3	99.7
	대 구 / 경 북	478	0.4	99.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9	99.1
	대학생/대학원생	540	0.1	99.9
	고 졸 이 하	901	0.3	99.7
	대 졸 이 상	1,507	0.3	99.7
주거 형태	동 거	1,863	0.4	99.6
	비 동 거 / 독 립	1,667	0.3	99.7

9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우리 사회 전체, 기성세대, 정부 및 지자체가 졸업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먼저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3.3% (그렇다 12.6%+매우 그렇다 0.7%)로 ‘그렇지 않다’ 47.5%(전혀 그렇지 않다 6.3%+그렇지 않다 41.2%)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5-1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9.2%(그렇다 18.2%+매우 그렇다 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9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6.3	41.2	39.2	12.6	0.7
	남 자	1,839	5.9	40.8	39.2	13.3	0.8
	여 자	1,691	6.7	41.6	39.2	11.9	0.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5.1	34.6	41.2	18.2	1.0
	만 1 9 ~ 2 9 세	1,431	5.9	40.6	40.0	12.4	1.1
	만 3 0 ~ 3 9 세	1,438	7.0	43.7	37.8	11.3	0.3
지역	서 울	652	7.3	50.2	30.4	11.6	0.5
	인 천 / 경 기	786	7.0	44.3	37.2	10.3	1.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0	31.3	48.1	14.7	0.9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5.0	35.7	48.0	11.3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4.3	36.9	41.7	16.1	0.9
	대 구 / 경 북	478	7.6	38.1	38.4	16.0	0.0
	중 / 고 등 학 생	582	4.0	33.6	42.2	19.0	1.2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540	5.6	43.7	37.3	12.8	0.5
	고 졸 이 하	901	8.4	41.2	38.2	11.6	0.7
	대 졸 이 상	1,507	5.7	42.2	39.7	11.7	0.7
주거 형태	동 거	1,863	5.4	40.7	38.9	13.9	1.0
	비 동 거 / 독 립	1,667	7.1	41.7	39.5	11.3	0.4

9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1.7%(그렇다 29.4%+매우 그렇다 2.3%)로 ‘그렇지 않다’ 19.4%(전혀 그렇지 않다 1.7%+그렇지 않다 17.7%)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졸자에 대한 대우는 달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함
- 지역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9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1.7	17.7	48.9	29.4	2.3
	남	1,839	1.8	18.7	48.2	28.8	2.5
	여	1,691	1.5	16.5	49.7	30.1	2.0
연령	만 15 ~ 18 세	661	1.7	11.7	40.9	41.1	4.6
	만 19 ~ 29 세	1,431	1.6	16.9	49.7	28.9	2.9
	만 30 ~ 39 세	1,438	1.7	20.3	50.5	26.6	1.0
지역	서울	652	1.6	17.0	46.7	33.8	0.9
	인천 / 경기	786	2.1	18.7	49.5	25.7	4.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9	17.4	49.9	29.3	1.5
	광주 / 전라 / 제주	492	1.1	19.9	53.9	23.2	1.9
	부산 / 울산 / 경남	570	0.9	18.5	43.6	34.4	2.6
	대구 / 경북	478	1.7	12.4	53.6	31.9	0.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1	11.9	39.5	42.2	5.3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1.9	14.9	47.9	33.5	1.7
	고 졸 이 하	901	1.8	18.7	49.1	28.0	2.4
	대 졸 이 상	1,507	1.6	19.4	51.4	26.0	1.6
주거	동거	1,863	1.7	16.0	47.2	31.7	3.4
형태	비동거 / 독립	1,667	1.7	19.5	50.8	27.0	1.0

9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기성세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4.5%(그렇다 14.0%+매우 그렇다 0.5%)로 ‘그렇지 않다’ 44.0%(전혀 그렇지 않다 5.7%+그렇지 않다 38.3%)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9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5.7	38.3	41.5	14.0	0.5
	남	1,839	5.7	38.2	41.3	14.4	0.4
	여	1,691	5.6	38.4	41.7	13.5	0.7
연령	만 15 ~ 18 세	661	4.4	28.2	46.7	19.9	0.8
	만 19 ~ 29 세	1,431	5.9	36.0	43.5	14.0	0.6
	만 30 ~ 39 세	1,438	5.8	43.5	38.0	12.2	0.4
지역	서울	652	5.7	42.9	35.4	15.2	0.7
	인천 / 경기	786	6.6	41.3	39.7	12.1	0.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6	32.0	48.9	15.0	0.6
	광주 / 전라 / 제주	492	5.0	36.2	46.3	12.1	0.4
	부산 / 울산 / 경남	570	5.1	36.2	40.7	17.1	1.0
	대구 / 경북	478	7.1	32.6	46.6	13.3	0.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0	27.6	46.5	21.0	1.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4.2	34.2	44.4	16.3	0.8
	고 졸 이 하	901	4.9	41.8	39.6	13.7	0.0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1,507	6.9	40.1	40.6	11.8	0.7
	동 거	1,863	5.7	35.4	43.4	15.1	0.4
비 동 거 / 독 립		1,667	5.6	41.3	39.6	12.8	0.7

99)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기성세대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0.2%(그렇다 19.4%+매우 그렇다 0.8%)로 ‘그렇지 않다’ 33.8%(전혀 그렇지 않다 3.8%+그렇지 않다 30.0%)에 비해 낮게 나타나 기성세대의 고졸자, 대졸자 배려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99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3.8	30.0	45.9	19.4	0.8
	자	1,839	4.2	30.2	45.8	18.9	1.0
성별	여	1,691	3.4	29.9	45.9	20.0	0.7
	만 15 ~ 18 세	661	2.8	22.1	48.0	26.2	0.9
연령	만 19 ~ 29 세	1,431	3.8	30.8	45.5	19.2	0.8
	만 30 ~ 39 세	1,438	4.2	31.6	45.6	17.7	0.9
지역	서 울	652	3.8	33.1	42.2	20.2	0.7
	인 천 / 경 기	786	5.0	31.4	43.7	19.4	0.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0	28.7	51.6	16.1	0.6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4.2	25.6	51.4	18.2	0.5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2.9	28.1	41.0	25.3	2.7
	대 구 / 경 북	478	2.2	28.6	54.1	15.0	0.0
	중 / 고 등 학 생	582	2.2	21.9	47.5	27.4	1.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3.2	27.4	47.6	21.0	0.8
	고 졸 이 하	901	4.0	28.9	46.8	19.7	0.6
	대 졸 이 상	1,507	4.3	33.4	44.4	16.9	0.9
주거	동 거	1,863	3.4	28.4	45.9	21.4	0.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4.3	31.7	45.8	17.4	0.8

100)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5.2% (그렇다 14.5%+매우 그렇다 0.7%)로 ‘그렇지 않다’ 39.9%(전혀 그렇지 않다 5.1%+그렇지 않다 34.8%)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그렇다’ 응답 비율이 현재 재학중인 중/고등학생(17.7%) 및 대학생/대학원생(18.6%) 대비 졸업 상태인 고졸이하(13.2%), 대졸이상(14.7%)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00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5.1	34.8	44.9	14.5	0.7
성별	남	1,839	5.1	34.7	45.4	14.1	0.7
	여	1,691	5.1	34.9	44.4	15.0	0.6
연령	만 15 ~ 18 세	661	3.3	26.7	52.5	17.0	0.5
	만 19 ~ 29 세	1,431	4.8	32.4	46.6	15.2	1.0
	만 30 ~ 39 세	1,438	6.0	39.6	41.0	13.1	0.3
	만 40 ~ 49 세	652	3.8	38.6	37.4	18.8	1.3
지역	서울	786	5.4	37.8	42.8	13.9	0.2
	인천/충청/세종/강원	552	2.7	26.8	54.3	15.3	0.9
	광주/전라/제주	492	5.9	29.6	51.2	13.1	0.2
	부산/울산/경남	570	5.7	31.7	47.7	13.7	1.2
	대구/경북	478	8.8	38.4	43.8	9.0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5	25.9	53.9	17.1	0.6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540	5.1	30.0	46.4	17.9	0.7
	고 졸 이 하	901	5.8	39.4	41.6	13.0	0.2
	대 졸 이 상	1,507	5.3	35.7	44.3	13.8	0.9
주거 형태	동 거	1,863	4.1	32.7	47.2	15.2	0.7
	비 동 거 / 독 립	1,667	6.2	36.9	42.5	13.8	0.6

10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8.8% (그렇다 18.1%+매우 그렇다 0.7%)로 ‘그렇지 않다’ 31.9%(전혀 그렇지 않다 3.5%+그렇지 않다 28.4%)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고졸자, 대졸자 지원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그렇다’ 응답 비율이 현재 재학중인 중/고등학생(27.2%) 및 대학생/대학원생(20.1%) 대비 졸업 상태인 고졸이하(17.4%), 대졸이상(17.2%)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0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3.5	28.4	49.2	18.1	0.7
	자	1,839	3.9	28.6	49.1	17.8	0.6
성별	남	1,691	3.2	28.3	49.3	18.4	0.8
	여	661	2.0	18.8	53.7	24.1	1.5
연령	만 15 ~ 18 세	1,431	3.1	27.8	50.2	18.1	0.8
	만 19 ~ 29 세	1,438	4.4	32.0	46.9	16.3	0.4
	만 30 ~ 39 세	652	3.0	30.2	45.8	20.7	0.3
지역	서 울	786	3.6	28.4	49.8	17.1	1.1
	인 천 / 경 기	552	2.8	27.1	51.7	17.9	0.5
	대전/충청/세종/강원	492	4.0	24.2	52.9	18.0	0.8
	광 주 / 전 라 / 제 주	570	3.5	27.3	46.3	21.9	1.1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5.4	33.2	51.3	10.0	0.1
	대 구 / 경 북	582	1.5	17.8	53.5	25.5	1.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40	4.1	25.1	50.8	19.5	0.6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901	4.4	28.9	49.3	16.3	1.1
	대 졸 이 하	1,507	3.3	31.8	47.7	16.9	0.3
주거	동 거	1,863	2.5	27.1	49.8	19.6	1.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4.6	29.9	48.6	16.5	0.4

102)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2.4%로 2018년 63.9% 대비 소폭(1.5%p) 하락함
- 연령별로는 만19~29세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66.1%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71.9%로 가장 높은 반면,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52.0%로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낮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68.0%)에서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가장 높음

표 II-102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68.9	31.1
2017	2,714	59.4	40.6
2018	3,133	63.9	36.1
2019	3,530	62.4	37.6

표 II-102-1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62.4	37.6
성별	남	자	1,839	61.6	38.4
	여	자	1,691	63.2	36.8
연령	만 1 5 ~ 1 8 세		661	60.4	39.6
	만 1 9 ~ 2 9 세		1,431	66.1	33.9
	만 3 0 ~ 3 9 세		1,438	59.2	40.8
지역	서 울		652	58.9	41.1
	인 천 / 경 기		786	71.9	28.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8.9	41.1
	광주/전라/제주		492	52.0	48.0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56.0	44.0
	대 구 / 경 북		478	63.9	36.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60.2	39.8
	대학생/대학원생		540	61.4	38.6
	고 졸 이 하		901	68.0	32.0
	대 졸 이 상		1,507	59.9	40.1
주거 형태	동 거		1,863	64.6	35.4
	비 동 거 / 독 립		1,667	60.0	40.0

103)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 불안정’이 2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낮은 급여 수준’(22.1%),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12.1%),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11.8%) 등의 순이었음
- 2018년 결과와 비교 해 보면 1순위 ‘고용 불안정’, 2순위 ‘낮은 급여 수준’은 순위가 동일하며,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응답이 4.2%p 상승함
- 연령별로는 만15-18세는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이 15.2%로 높은 반면, 만19-29세와 만 30-39세는 ‘고용 불안정’(만19-29세 29.5%, 만30-39세 29.1%)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라는 응답이 28.8%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03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 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 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2016	789	10.1	4.2	28.2	11.1	22.6	1.8	15.8	-	5.7
2017	1,114	11.5	8.0	20.6	8.4	19.8	2.8	13.3	13.9	1.7
2018	1,163	11.4	8.7	24.7	10.9	20.7	3.5	7.9	11.7	0.5
2019	1,362	8.3	6.6	28.5	6.8	22.1	1.3	12.1	11.8	2.6

* 주 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2) 보기문항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은 2017년도부터 추가된 문항임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6%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03-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 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 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 성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전			체	1,362	8.3	6.6	28.5	6.8	22.1	1.3	12.1	11.8	2.6
성별	남	자	713	9.1	5.2	27.8	6.2	22.6	1.4	13.9	11.4	2.4	
	여	자	649	7.5	8.1	29.3	7.5	21.4	1.1	10.0	12.2	2.8	
연령	만 1 5 ~ 1 8 세		249	15.2	7.0	23.5	8.5	19.3	0.2	11.6	13.5	1.2	
	만 1 9 ~ 2 9 세		504	7.9	6.3	29.5	6.5	22.8	1.4	11.3	11.1	3.2	
	만 3 0 ~ 3 9 세		609	6.7	6.6	29.1	6.6	22.3	1.5	12.8	11.9	2.5	
지역	서울		258	7.4	7.7	19.5	6.7	23.8	1.5	16.4	16.5	0.5	
	인천 / 경 기		235	9.4	4.9	28.9	7.9	25.0	0.7	12.1	7.3	3.8	
	대전/충청/세종/강원		221	11.4	7.6	33.2	6.6	13.5	1.7	9.3	12.3	4.3	
	광주/전라/제주		230	5.8	5.9	31.8	5.0	28.8	1.2	9.9	8.9	2.7	
	부산/울산/경남		250	6.8	7.9	32.8	8.7	20.0	1.7	10.2	10.9	0.9	
	대구 / 경 북		168	9.4	5.0	28.6	3.9	18.0	0.5	12.5	17.2	4.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221	14.5	5.6	23.5	8.8	19.9	0.3	13.3	12.6	1.4	
	대학생/대학원생		211	10.4	4.9	33.7	5.4	19.3	1.3	10.5	13.0	1.5	
	고 졸 이 하		306	5.7	8.7	25.0	6.9	24.4	1.8	13.6	8.9	4.9	
	대 졸 이 상		624	7.5	6.3	29.7	6.7	22.3	1.2	11.5	12.6	2.1	
주거 형태	동 거		675	10.5	6.8	26.0	8.3	21.9	1.4	11.7	10.6	2.7	
	비 동 거 / 독 립		687	6.3	6.3	30.8	5.5	22.2	1.1	12.4	12.9	2.5	

주)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104)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12.2%는 실제로 창업까지 경험하였으며, 실제 창업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창업을 생각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로 나타남
- 창업 경험 및 창업을 생각해 본 경험 모두 2018년(창업 경험 5.7%, 창업 생각 22.7% 대비 각각 6.5%p, 2.6%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실제 창업을 했거나(남자 15.4%, 여자 8.7%)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남자 26.8%, 여자 23.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실제 창업 경험은 만 30-39세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창업을 생각해 본 경험은 만 19-29세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창업 경험이 17.7%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4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17	2,321	12.7	35.8	51.5
2018	2,641	5.7	22.7	71.6
2019	2,948	12.2	25.3	62.5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이전에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아니오' 형태의 보기로 진행되어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표 II-104-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	체	2,948	12.2	25.3	62.5
성별	남 자	1,537	15.4	26.8	57.8
	여 자	1,411	8.7	23.5	67.8
연령	만 15 ~ 18 세	79	5.5	12.4	82.1
	만 19 ~ 29 세	1,431	6.0	25.3	68.8
	만 30 ~ 39 세	1,438	18.9	25.8	55.3
지역	서 울	567	10.0	22.2	67.8
	인 천 / 경 기	661	12.6	29.7	57.6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2.9	28.1	59.0
	광주/전라/제주	402	17.7	23.2	59.0
	부 산/울 산/경 남	478	9.5	24.5	65.9
	대 구 / 경 북	394	13.4	15.6	71.0
	대학생/대학원생	540	2.6	18.1	79.3
학력	고 졸 이 하	901	16.9	30.0	53.2
	대 졸 이 상	1,507	12.6	24.8	62.6
주거 형태	동 거	1,289	6.9	24.4	68.6
	비 동 거 / 독 립	1,659	16.7	26.0	57.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05)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개인, 교육 중심의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과 일자리, 경제 중심의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 중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분야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81.5%로 높았으며, 2018년 78.6% 대비 2.9%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노동 수요’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8.1%로 높은 반면, 서울 지역은 ‘노동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2.1%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05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2016	2,192	16.9	83.1
2017	2,321	17.8	82.2
2018	2,641	21.4	78.6
2019	2,948	18.5	81.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05-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전	체	2,948	18.5	81.5
성별	남 자	1,537	17.4	82.6
	여 자	1,411	19.8	80.2
연령	만 15 ~ 18 세	79	19.4	80.6
	만 19 ~ 29 세	1,431	19.4	80.6
	만 30 ~ 39 세	1,438	17.6	82.4
지역	서 울	567	22.1	77.9
	인 천 / 경 기	661	20.0	80.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9.7	80.3
	광주/전라/제주	402	12.2	87.8
	부산/울산/경남	478	17.3	82.7
	대 구 / 경 북	394	11.9	88.1
	대학생/대학원생	540	20.6	79.4
학력	고 졸 이 하	901	17.1	82.9
	대 졸 이 상	1,507	18.6	81.4
주거 형태	동 거	1,289	19.7	80.3
	비 동 거 / 독 립	1,659	17.5	82.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06)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공급, 즉 개인과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을 물어 본 결과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2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18.9%),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16.9%) 등의 순이었음
- 2018년 대비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응답이 5.3%p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중요도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은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24.9%), 대구/경북 지역은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21.1%)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6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독일이나 스위스 식의 일과 학습 병행 제도 활성화	고학력 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대기업과 공공부문 에 대한 높은 선호도 (청년 눈높이 제고)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기타
2016	2,192	17.9	12.8	15.5	24.6	12.8	14.5	1.7	0.1
2017	2,321	18.0	13.0	14.8	23.4	14.3	14.7	1.8	0.0
2018	2,641	18.8	14.0	14.4	25.8	14.0	11.6	1.4	0.1
2019	2,948	18.9	14.4	11.7	22.9	12.5	16.9	2.7	0.0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06-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948	18.9	14.4	11.7	22.9	12.5	16.9	2.7
	자	1,537	19.0	13.3	11.7	24.0	12.4	17.1	2.5
성별	남	자	1,411	18.8	15.5	11.8	21.8	12.6	16.6
	여	자	1,411	18.8	15.5	11.8	21.8	12.6	16.6
연령	만 15 ~ 18 세	79	23.2	5.7	9.2	25.1	17.8	12.8	6.2
	만 19 ~ 29 세	1,431	19.0	13.7	13.0	22.0	12.6	16.5	3.1
	만 30 ~ 39 세	1,438	18.6	15.4	10.5	23.8	12.2	17.4	2.1
지역	서울	567	24.9	12.2	9.9	23.3	11.3	15.5	2.9
	인천 / 경기	661	17.9	15.8	12.0	20.0	12.2	19.7	2.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5.0	11.7	14.0	23.9	13.7	18.2	3.4
	광주/전라/제주	402	21.6	15.8	11.4	27.5	11.0	9.4	3.2
	부산/울산/경남	478	16.8	11.8	14.5	22.1	15.1	17.5	2.2
	대구 / 경북	394	14.5	21.1	7.4	27.3	12.4	15.1	2.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0.1	15.5	11.8	19.8	12.8	17.2	2.8
	고졸 이하	901	18.6	11.4	14.9	23.3	9.7	17.9	4.0
	대졸 이상	1,507	18.6	15.8	9.9	23.7	14.1	16.1	1.8
주거 형태	동거	1,289	18.8	13.6	11.8	21.6	14.0	16.9	3.3
	비동거 / 독립	1,659	18.9	15.0	11.7	24.1	11.3	16.8	2.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2) 보기: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책임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배당, 급여 지급

107)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 대한 응답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22.2%) 대비 15.3%p 상승하였음
- 다음으로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19.6%), ‘공공부문 채용 확대’(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16.4%), ‘공공부문 채용 확대’(17.5%), 고졸이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24.1%), 대졸이상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41.5)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7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 한 일자리 확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 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2016	2,192	14.6	16.9	26.6	27.3	6.5	5.3	2.4	0.2
2017	2,321	14.5	14.7	18.5	32.1	11.6	5.2	3.0	0.3
2018	2,641	20.5	16.2	22.7	22.2	8.9	5.8	3.5	0.1
2019	2,948	12.0	12.7	19.6	37.5	6.9	6.0	5.2	0.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07-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2,948	12.0	12.7	19.6	37.5	6.9	6.0	5.2	0.1
성별	남	자	1,537	12.8	12.2	20.4	36.8	6.3	5.6	5.8	0.1
	여	자	1,411	11.1	13.3	18.7	38.3	7.5	6.4	4.5	0.1
연령	만 1 5 ~ 1 8 세		79	26.2	15.1	23.1	24.3	3.4	3.7	4.2	0.0
	만 1 9 ~ 2 9 세		1,431	12.9	14.2	18.7	35.6	6.8	6.4	5.3	0.1
	만 3 0 ~ 3 9 세		1,438	10.5	11.1	20.4	40.1	7.0	5.6	5.1	0.1
지역	서		567	14.6	13.7	20.2	30.0	7.9	6.9	6.7	0.0
	인 천 / 경 기		661	11.0	12.2	21.4	39.7	6.0	4.6	4.9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8	6.2	20.2	48.2	5.8	3.4	7.0	0.3
	광주/전라/제주		402	10.9	19.2	20.2	34.0	7.6	5.7	2.4	0.0
	부산/울산/경남		478	14.3	11.6	17.3	30.4	9.0	11.5	5.8	0.0
	대 구 / 경 북		394	11.9	16.7	13.8	46.8	4.6	3.8	2.1	0.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6.4	17.5	16.8	29.2	6.1	6.7	7.1	0.1
	고 졸 이 하		901	11.0	12.1	24.1	35.3	6.8	5.9	4.6	0.1
	대 졸 이 상		1,507	11.2	11.5	17.9	41.5	7.1	5.8	4.9	0.1
주거 형태	동		1,289	13.6	14.3	19.6	34.5	6.1	6.6	5.3	0.1
	비 동 거 / 독 립		1,659	10.7	11.4	19.6	40.1	7.5	5.4	5.1	0.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보기: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 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철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

108)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는지 확인 결과 66.7%는 ‘일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2.2%는 ‘휴가 및 일시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합산한 경제활동 비율은 68.9%였음. 이는 2018년(73.0%: 71.9%+1.1%) 결과 대비 4.1%p 하락한 수치임
- 일을 하였다는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성별 남자(74.9%)가 여자(57.5%)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을 하였다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주거 형태별로 비동거/독립(69.8%)이 동거(62.9%)보다 일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8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2016	2,192	67.7	-	32.3
2017	2,321	71.1	1.8	27.1
2018	2,641	71.9	1.1	27.0
2019	2,948	66.7	2.2	31.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조사는 보기문항이 ‘예(일을 하였음) / 아니오(일을 하지 않았음)’ 형태로 제시되었음

표 II-108-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	체	2,948	66.7	2.2	31.1
성별	남 자	1,537	74.9	1.5	23.6
	여 자	1,411	57.5	3.0	39.6
연령	만 1 5 ~ 1 8 세	79	34.3	2.8	62.9
	만 1 9 ~ 2 9 세	1,431	61.5	1.5	37.0
	만 3 0 ~ 3 9 세	1,438	73.2	3.0	23.9
지역	서 울	567	67.6	2.7	29.7
	인 천 / 경 기	661	66.2	2.9	30.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8.4	2.2	29.4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69.2	0.4	30.4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63.2	1.9	34.9
	대 구 / 경 북	394	66.6	1.1	32.3
	대학생/대학원생	540	34.4	0.4	65.2
학력	고 졸 이 하	901	74.0	1.8	24.2
	대 졸 이 상	1,507	72.6	3.0	24.3
주거 형태	동 거	1,289	62.9	1.7	35.4
	비 동 거 / 독 립	1,659	69.8	2.6	27.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09)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현재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84.3%는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비구직자로, 2018년(88.5%) 대비 4.2%p 하락한 결과임
- 다음으로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비율은 12.6%,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비율이 3.0%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의 구직 비율(26.2%)이 여자(8.6%) 대비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의 구직 비율(20.0%)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만30-39세는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비율(90.1%)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의 구직 비율이 27.3%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 청년의 구직 비율(21.4%)이 타 학력 대비 높게 조사됨
- 주거 형태별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의 구직 비율(22.5%)이 비동거/독립 청년(8.3%) 대비 높음

표 II-109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2017	654	10.7	3.6	85.7
2018	651	8.5	3.0	88.5
2019	943	12.6	3.0	84.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표 II-109-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전		체	943	12.6	3.0	84.3
성별	남	자	382	20.2	5.9	73.8
	여	자	561	7.6	1.1	91.4
연령	만 1 5 ~ 1 8 세		51	2.9	1.3	95.7
	만 1 9 ~ 2 9 세		557	15.9	4.1	80.0
	만 3 0 ~ 3 9 세		335	8.5	1.5	90.1
지역	서울		169	14.3	1.7	84.0
	인천 / 경 기		212	12.7	2.1	85.2
	대전/충청/세종/강원		126	19.2	8.1	72.7
	광주 / 전라 / 제주		123	9.5	3.8	86.7
	부산 / 울산 / 경남		176	9.0	2.4	88.6
	대구 / 경 북		137	9.7	2.0	88.3
	대학생/대학원생		362	5.4	3.8	90.8
학력	고 졸 이 하		224	14.4	0.8	84.8
	대 졸 이 상		357	17.8	3.6	78.6
주거 형태	동 거		479	17.4	5.1	77.5
	비 동 거 / 독 립		464	7.5	0.7	91.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110)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 지난 주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의 응답이 41.1%로 가장 높고, ‘취업 준비 중이어서’(17.4%),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8.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 중이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짐
-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는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77.1%), 서울은 ‘취업 준비 중이어서’(47.7%)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0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학교 (정규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취업 준비 중이서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 원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진학 준비 중이서	기타
전	체	25	41.1	17.4	8.4	5.8	5.6	5.5	16.1
	자	17	41.8	22.0	0.0	7.4	1.4	7.0	20.4
성별	여	8	38.7	0.0	39.9	0.0	21.5	0.0	0.0
	만 15 ~ 18 세	1	0.0	0.0	0.0	0.0	100.0	0.0	0.0
연령	만 19 ~ 29 세	18	51.4	15.2	3.5	3.3	4.9	1.5	20.1
	만 30 ~ 39 세	6	0.0	28.4	30.6	17.5	0.0	23.6	0.0
지역	서울	3	41.2	47.7	0.0	0.0	0.0	11.1	0.0
	인천 / 경기	3	77.1	22.9	0.0	0.0	0.0	0.0	0.0
지역	대전/충청/세종/강원	7	10.7	14.0	16.4	0.0	0.0	12.5	46.3
	광주 / 전라 / 제주	4	61.0	0.0	0.0	25.6	13.5	0.0	0.0
지역	부산 / 울산 / 경남	4	59.7	0.0	20.4	19.9	0.0	0.0	0.0
	대구 / 경북	4	0.0	35.1	0.0	0.0	64.9	0.0	0.0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10	93.4	0.0	0.0	0.0	3.8	2.8	0.0
	고졸 이하	3	0.0	0.0	42.6	40.2	17.2	0.0	0.0
주거 형태	대졸 이상	12	0.0	35.2	11.3	6.5	5.7	8.7	32.5
	동거	20	44.5	19.7	3.2	6.6	6.4	1.4	18.2
주거 형태	비동거 / 독립	5	16.1	0.0	47.4	0.0	0.0	36.5	0.0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만 응답

111)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응답이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33.4%)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의 응답이 58.4%로 여자(19.8%)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11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상위5위)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 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취업을 위한 학원, 직업훈 련 기관 통학 중이어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을것 같아서
전	체	802	41.8	33.4	2.5	2.4	2.0
성별	남	294	0.5	58.4	4.0	2.8	1.7
	여	508	64.1	19.8	1.6	2.2	2.1
연령	만 15 ~ 18 세	47	0.0	64.6	7.3	4.5	3.2
	만 19 ~ 29 세	453	12.7	54.4	2.8	2.1	2.0
	만 30 ~ 39 세	302	87.2	0.5	1.4	2.6	1.8
지역	서울	143	42.8	33.9	5.3	1.7	1.7
	인천 / 경기	182	52.1	26.9	0.6	1.8	0.0
	대전/충청/세종/강원	96	24.6	35.8	4.8	6.9	2.0
	광주 / 전라 / 제주	107	30.9	41.8	1.8	2.8	3.7
	부산 / 울산 / 경남	156	39.9	36.5	1.8	1.8	3.5
	대구 / 경북	118	40.4	36.3	1.8	1.4	4.6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332	0.0	82.4	1.1	0.1	1.1
	고졸 이하	185	58.9	4.1	3.6	7.8	1.9
	대졸 이상	285	72.1	3.5	3.1	1.4	2.9
주거 형태	동거 / 독립	383	4.7	55.1	3.9	2.5	2.5
	비동거 / 독립	419	75.6	13.6	1.1	2.3	1.5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112)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 지난 주에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제외하고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기간을 물어본 결과,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고, 1개월 이상(18.1%), 1년-2년 미만(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당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평균 40.8개월로 조사됨
- 성별로는 여자(48.6개월)의 지속 기간이 남자(13.0개월)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 육아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남

표 II-112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평균 지속 기간 (개월)
전	체	512	5.7	18.1	15.1	61.0	40.8
성별	남	119	13.0	46.0	26.7	14.3	13.0
	여	393	3.6	10.3	11.9	74.2	48.6
연령	만 15 ~ 18 세	16	7.0	89.8	3.2	0.0	5.3
	만 19 ~ 29 세	196	13.9	33.7	23.1	29.4	16.9
	만 30 ~ 39 세	300	0.3	5.3	10.5	83.8	57.6
지역	서울	92	3.1	16.1	20.0	60.8	42.5
	인천 / 경기	133	5.2	16.2	11.2	67.4	47.7
	대전/충청/세종/강원	60	10.5	26.3	19.7	43.5	28.7
	광주/전라/제주	63	6.8	21.5	21.0	50.8	31.9
	부산/울산/경남	94	4.4	17.1	11.1	67.4	39.1
	대구 / 경북	70	8.5	19.1	16.3	56.1	36.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	36.7	44.3	12.8	6.2	6.0
	고졸 이하	182	3.0	18.1	14.6	64.3	43.3
주거 형태	대졸 이상	276	1.8	13.5	15.9	68.9	45.5
	동거	165	14.7	43.8	21.8	19.7	14.9
비동거 / 독립	비동거	347	1.4	6.0	12.0	80.6	53.1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정규교육기관 통학 외의 사유로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113) 구직 활동 기간

-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으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 구직활동 기간을 물어본 결과, 1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고, 1개월 미만(25.7%), 1년~2년 미만(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8.4개월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자(9.8개월)의 구직활동 기간이 여자(5.6개월)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직활동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1.2개월)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3 구직 활동 기간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구직활동 기간 (개월)
전	체	133	25.7	51.5	13.4	9.4	8.4
성별	남	82	21.4	51.2	14.7	12.7	9.8
	여	51	34.0	52.1	10.9	3.0	5.6
연령	만 15 ~ 18세	4	27.1	72.9	0.0	0.0	1.5
	만 19 ~ 29세	96	30.4	45.5	14.1	9.9	7.9
	만 30 ~ 39세	33	12.2	67.5	12.1	8.2	10.0
지역	서울	25	17.7	69.2	10.8	2.3	5.6
	인천 / 경기	28	44.7	29.5	15.6	10.2	9.6
	대전/충청/세종/강원	29	16.5	69.5	3.2	10.8	8.4
	광주/전라/제주	14	20.2	46.5	33.2	0.0	7.3
	부산/울산/경남	18	13.7	40.8	23.0	22.5	11.2
	대구 / 경북	19	28.5	50.5	10.0	11.0	8.4
	대학생/대학원생	22	33.5	35.1	17.0	14.4	8.2
학력	고졸 이하	39	30.5	50.1	15.1	4.3	6.0
	대졸 이상	72	22.0	55.7	11.9	10.3	9.4
주거	동거	89	24.9	48.7	14.6	11.8	9.8
형태	비동거 / 독립	44	27.9	58.9	10.1	3.0	4.6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지난주 직장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만 응답

11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으로는 ‘사무종사자’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26.0%), ‘판매 종사자’(16.9%) 등의 순임
- 사무종사자 비율은 2018년(45.5%) 대비 16.8%p 하락함
- 남자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이 10.2%로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사무 종사자’ 직업이 35.2%로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직업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사무 종사자’ 직업이 42.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종사자’ 직업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기능직 종사자’ 직업 비율이 높아짐

표 II-11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2016	1,499	2.4	8.2	30.5	27.3	17.4	0.7	8.3	3.4	1.7	0.1	-
2017	1,667	1.8	12.8	25.7	30.5	16.8	0.4	6.2	3.0	2.6	0.2	-
2018	1,990	0.8	3.3	45.5	20.9	18.4	0.8	6.3	2.4	0.9	0.4	0.2
2019	2,005	2.3	10.3	28.7	26.0	16.9	0.7	6.6	3.8	4.2	0.5	-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14-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전		체	2,005	2.3	10.3	28.7	26.0	16.9	0.7	6.6	3.8	4.2	0.5
성별	남	자	1,155	3.4	8.9	24.1	23.6	16.6	0.8	10.2	6.0	5.7	0.6
	여	자	850	0.7	12.4	35.2	29.4	17.4	0.5	1.4	0.6	2.1	0.3
연령	만 1 5 ~ 1 8 세		28	0.0	4.2	9.5	44.8	28.2	0.0	0.0	0.0	13.3	0.0
	만 1 9 ~ 2 9 세		874	1.1	9.5	24.1	33.6	18.0	0.4	4.4	2.9	5.5	0.7
	만 3 0 ~ 3 9 세		1,103	3.4	11.2	33.0	19.3	15.8	0.9	8.5	4.6	3.0	0.3
지역	서 울		398	2.4	12.9	42.1	20.4	16.9	0.0	3.0	1.0	1.3	0.0
	인 천 / 경 기		449	3.8	10.3	25.9	25.3	16.3	0.2	6.9	3.8	6.6	1.1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0.6	7.0	26.9	31.5	19.5	0.5	6.9	3.6	3.5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279	2.7	13.5	13.8	28.6	22.8	2.9	4.8	6.1	4.3	0.5
	부 산 / 울 산 / 경 남		302	1.4	9.5	30.3	27.3	12.8	0.6	9.3	4.1	4.7	0.0
	대 구 / 경 북		257	0.0	7.1	24.2	28.3	15.4	2.0	11.2	7.9	3.2	0.8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8	1.3	7.3	8.2	52.5	19.0	0.0	1.1	0.4	9.0	1.2
	고 졸 이 하		677	2.0	3.9	10.7	32.6	25.3	1.4	10.8	5.6	7.1	0.5
	대 졸 이 상		1,150	2.6	14.5	42.1	18.3	11.8	0.4	4.9	3.2	1.8	0.3
주거 형태	동 거		810	1.1	8.8	24.7	32.2	18.3	0.9	5.2	2.4	6.1	0.2
	비 동 거 / 독 립		1,195	3.1	11.5	31.7	21.3	15.9	0.5	7.6	4.8	2.8	0.6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에 대해 ‘임금 근로자’가 83.6%로 ‘비임금 근로자’ 1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92.9%) 대비 ‘임금 근로자’가 9.3%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86.2%)가 남자(81.8%)보다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90.9%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24.0%), 대구/경북(21.1%)에서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0.1%로 높게 나타남

표 II-11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2016	1,499	89.5	10.5
2017	1,667	85.2	14.8
2018	1,990	92.9	7.1
2019	2,005	83.6	16.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15-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	체	2,005	83.6	16.4
성별	남 자	1,155	81.8	18.2
	여 자	850	86.2	13.8
연령	만 1 5 ~ 1 8 세	28	80.8	19.2
	만 1 9 ~ 2 9 세	874	90.9	9.1
	만 3 0 ~ 3 9 세	1,103	77.6	22.4
지역	서 울	398	84.6	15.4
	인 천 / 경 기	449	87.1	12.9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81.2	18.8
	광주/전라/제주	279	76.0	24.0
	부산/울산/경남	302	85.2	14.8
	대 구 / 경 북	257	78.9	21.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78	89.2	10.8
	고 졸 이 하	677	79.9	20.1
	대 졸 이 상	1,150	85.0	15.0
주거 형태	동 거	810	88.9	11.1
	비 동 거 / 독 립	1,195	79.7	20.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6) 근로 형태(임금 근로자)

- 임금 근로자인 청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88.9%로 2018년 정규직 비율(85.5%) 대비 3.4%p 상승함
- 근로시간 유형은 ‘전일제’가 85.1%로 2018년 전일제 비율(92.1%) 대비 7.0%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정규직’ 비율과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 및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정규직’ 비율이 83.2%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로시간 유형이 ‘전일제’인 비율 역시 부산/울산/경남(89.4%), 대구/경북(89.6%)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의 ‘정규직’ 비율과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6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2016	1,341	75.0	25.0	83.9	16.1
2017	1,432	73.8	26.2	83.2	16.8
2018	1,845	85.5	14.5	92.1	7.9
2019	1,671	88.9	11.1	85.1	14.9

*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16-1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671	76.0	24.0	85.1	14.9
성별	남	자	942	78.4	21.6	88.8	11.2
	여	자	729	72.7	27.3	80.1	19.9
연령	만 1 5 ~ 1 8 세		25	11.7	88.3	35.3	64.7
	만 1 9 ~ 2 9 세		787	65.8	34.2	77.7	22.3
	만 3 0 ~ 3 9 세		859	87.3	12.7	93.4	6.6
지역	서	울	337	79.2	20.8	88.1	11.9
	인 천 / 경 기		390	75.0	25.0	84.1	15.9
	대전/충청/세종/강원		264	64.0	36.0	80.0	20.0
	광 주 / 전 라 / 제 주		215	75.1	24.9	78.7	21.3
	부 산 / 울 산 / 경 남		263	83.2	16.8	89.4	10.6
	대 구 / 경 북		202	80.0	20.0	89.6	10.4
	대학생/대학원생		160	17.6	82.4	28.0	72.0
학력	고 졸 이 하		546	72.9	27.1	88.3	11.7
	대 졸 이 상		965	86.6	13.4	92.1	7.9
주거 형태	동	거	715	66.8	33.2	77.6	22.4
	비 동 거 / 독 립		956	83.6	16.4	91.3	8.7

*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117)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인 청년의 근로 형태를 파악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3.6%), ‘무급가족 종사자’(7.9%)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57.7%) 대비 10.8%p 상승함
- 성별로 남자(25.6%)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 형태 비율이 여자(19.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비율이 15.9%로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9.4%)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8.7%), 서울 지역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14.7%) 근로 형태가 높게 나타남

표 II-117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16	158	28.9	66.3	4.8
2017	235	32.5	59.2	8.3
2018	145	26.0	57.7	16.3
2019	334	23.6	68.5	7.9

*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17-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334	23.6	68.5	7.9
성별	남 자	213	25.6	70.0	4.4
	여 자	121	19.9	65.6	14.5
연령	만 15 ~ 18 세	3	0.0	100.0	0.0
	만 19 ~ 29 세	87	23.0	61.1	15.9
	만 30 ~ 39 세	244	24.2	70.5	5.2
지역	서 울	61	27.1	58.2	14.7
	인 천 / 경 기	59	24.1	73.0	2.9
	대전/충청/세종/강원	56	20.9	68.3	10.8
	광주/전라/제주	64	29.4	60.8	9.8
	부산/울산/경남	39	17.8	78.7	3.4
	대 구 / 경 북	55	19.4	75.5	5.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8	26.3	25.2	48.5
	고 졸 이 하	131	23.7	69.8	6.6
	대 졸 이 상	185	23.3	72.0	4.6
주거 형태	동 거	95	26.4	58.8	14.8
	비 동 거 / 독 립	239	22.5	72.4	5.1

*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118) 일하는 곳

- 현재 일하는 직장 유형으로, 응답자의 85.3%가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5.3%), ‘법인단체’(3.1%),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87.6%)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이 여자(82.0%)에 비해 높고, 여자는 ‘정부기관’(7.6%)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91.0%)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은 ‘정부기관’(8.2%)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18 일하는 곳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기타
2016	1,499	86.1	1.1	2.3	3.4	4.2	2.9	0.1
2017	1,667	82.9	1.6	3.6	3.8	5.2	2.2	0.4
2018	1,990	86.5	3.3	4.6	1.2	3.0	1.4	0.1
2019	2,005	85.3	1.3	2.0	3.1	5.3	3.1	-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4%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18-1 일하는 곳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기타
전	체	2,005	85.3	1.3	2.0	3.1	5.3	3.1
성별	남 자	1,155	87.6	1.3	2.1	2.3	3.7	3.1
	여 자	850	82.0	1.5	1.9	4.2	7.6	2.9
연령	만 1 5 ~ 1 8 세	28	86.9	0.0	0.0	0.0	3.5	9.5
	만 1 9 ~ 2 9 세	874	87.3	1.6	1.8	3.0	3.7	2.7
	만 3 0 ~ 3 9 세	1,103	83.6	1.1	2.2	3.2	6.7	3.2
지역	서 울	398	87.8	2.2	2.2	2.1	2.7	3.0
	인 천 / 경 기	449	85.4	2.0	1.1	2.4	4.7	4.4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83.3	0.5	3.1	3.5	8.1	1.5
	광주/전라/제주	279	81.8	0.0	2.1	3.9	7.0	5.2
	부산/울산/경남	302	85.9	0.9	1.2	5.1	6.0	0.9
	대 구 / 경 북	257	85.0	0.4	4.3	2.8	5.8	1.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78	90.0	0.0	0.0	3.5	3.3	3.3
	고 졸 이 하	677	91.0	0.2	1.2	2.0	0.8	4.7
	대 졸 이 상	1,150	81.3	2.2	2.7	3.6	8.2	2.0
주거 형태	동 거	810	87.0	1.1	2.3	3.1	3.2	3.3
	비 동 거 / 독 립	1,195	84.0	1.5	1.8	3.0	6.9	2.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9)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는 '1-4인'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19.7%) 대비 15.3%p 상승함
- 다음으로 '10-29인'(18.5%), '30-99인'(15.6%)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500인 이상' 규모에서 남자(9.0%)가 여자(5.1%)보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29인 이하'의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30인 이상'의 직장에서의 재직하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은 '1-4인'(64.5%), 고졸이하는 '5-9인'(17.1%), 대졸이상은 '30-99인'(20.5%), '500인 이상'(10.4%)의 규모에서 재직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II-119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16	1,393	27.8	15.9	21.7	16.9	10.7	2.8	4.2
2017	1,667	36.4	14.8	17.1	12.0	8.7	2.8	8.1
2018	1,990	19.7	15.4	22.1	26.0	11.7	2.7	2.3
2019	2,005	35.0	13.1	18.5	15.6	7.3	3.1	7.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19-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2,005	35.0	13.1	18.5	15.6	7.3	3.1	7.4
성별	남 자	1,155	33.9	12.2	17.3	15.4	8.3	3.7	9.0
	여 자	850	36.6	14.3	20.2	15.8	5.9	2.2	5.1
연령	만 15 ~ 18 세	28	57.4	16.7	20.2	0.0	5.6	0.0	0.0
	만 19 ~ 29 세	874	37.4	15.5	19.8	13.9	5.6	2.3	5.5
	만 30 ~ 39 세	1,103	32.6	11.0	17.3	17.3	8.7	3.9	9.2
지역	서 울	398	29.6	17.2	19.2	18.1	8.0	1.8	6.1
	인 천 / 경 기	449	34.1	11.6	20.3	15.2	7.5	3.8	7.6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40.5	14.5	15.8	15.1	3.5	2.5	8.1
	광주/전라/제주	279	45.2	12.8	16.8	12.6	8.2	1.6	2.9
	부산/울산/경남	302	30.6	10.5	17.8	16.2	8.8	4.7	11.5
	대 구 / 경 북	257	38.4	10.9	17.7	14.2	7.2	4.2	7.3
	대학생/대학원생	178	64.5	14.7	8.7	6.7	3.2	0.0	2.2
학력	고 졸 이 하	677	43.9	17.1	20.4	9.4	3.8	1.7	3.6
	대 졸 이 상	1,150	25.6	10.5	18.8	20.5	9.9	4.4	10.4
주거 형태	동 거	810	35.7	14.7	21.2	16.1	5.4	2.2	4.8
	비 동 거 / 독 립	1,195	34.5	11.9	16.5	15.2	8.7	3.8	9.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0)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를 조사한 결과, ‘3년 미만’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35.8%) 대비 16.7%p 상승함
- 현재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년수는 41.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8.9개월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는 ‘3년 미만’(57.7%)에서 남자(48.9%) 보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3년 이상’은 모두 여자보다 남자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높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인 경우 ‘3년 미만’(70.8%)의 응답 비동거/독립 보다 응답 비율이 높고, 비동거/독립은 ‘3년 이상’ 모든 기간에서 동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0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년, 개월)

연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2016	1,499	47.7	20.6	15.2	8.4	7.9	3.7
2017	1,667	54.8	16.9	12.9	8.1	7.3	40.6
2018	1,988	35.8	24.2	18.5	12.9	8.6	60.1
2019	2,005	52.5	19.7	12.5	8.5	6.7	41.2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20-1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단위: 명, 년,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전		체	2,005	52.5	19.7	12.5	8.5	6.7	41.2
성별	남	자	1,155	48.9	20.6	13.2	9.8	7.5	44.1
	여	자	850	57.7	18.3	11.6	6.7	5.7	37.0
연령	만 1 5 ~ 1 8 세		28	100.0	0.0	0.0	0.0	0.0	4.2
	만 1 9 ~ 2 9 세		874	76.7	16.8	5.0	1.5	0.0	21.0
	만 3 0 ~ 3 9 세		1,103	31.3	22.5	19.1	14.6	12.6	58.9
지역	서울		398	51.8	21.8	13.0	8.3	5.1	40.5
	인천 / 경기		449	56.0	19.9	12.6	7.1	4.4	37.3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56.1	14.2	11.3	7.3	11.0	43.0
	광주/전라/제주		279	56.0	19.8	9.6	8.6	6.1	38.9
	부산/울산/경남		302	44.1	20.8	12.6	14.4	8.1	47.5
	대구 / 경북		257	45.3	20.4	16.4	7.1	10.8	47.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78	96.1	3.7	0.0	0.3	0.0	8.0
	고 졸 이 하		677	55.4	21.2	12.0	6.7	4.6	37.1
	대 졸 이 상		1,150	44.5	21.1	14.6	10.8	8.9	48.4
주거 형태	동 거		810	70.8	18.0	6.8	3.4	1.1	25.1
	비 동 거 / 독 립		1,195	38.9	20.9	16.8	12.4	11.0	53.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세후 기준 240.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242.3만원 대비 소폭 하락함
-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은 세후 기준 343.7만원으로 현재 소득 대비 약 103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현재 소득과 희망 소득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평균 소득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만19-29세의 경우 현재 소득-희망 소득 간 격차가 86.7만원으로 다른 연령대 대비 적게 나타나 20대에서 희망하는 소득 수준이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현재 소득(256.3만원)과 희망 소득(365.4만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2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만원)

연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 (만원)	희망 월 평균 소득 (만원)
2016	1,499	223.7	-
2017	1,667	234.5	-
2018	1,990	242.3	-
2019	2,005	240.1	343.7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소득은 2019년 신규 문항임

표 II-121-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 (만원)	희망 월 평균 소득 (만원)
전	체	2,005	240.1	343.7
성별	남 자	1,155	271.7	390.6
	여 자	850	195.1	277.0
연령	만 1 5 ~ 1 8 세	28	124.6	302.4
	만 1 9 ~ 2 9 세	874	190.8	277.5
	만 3 0 ~ 3 9 세	1,103	283.8	400.1
지역	서 울	398	256.3	365.4
	인 천 / 경 기	449	240.1	338.9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228.0	322.8
	광 주/전라/제주	279	227.2	358.9
	부 산/울산/경남	302	233.6	330.1
	대 구 / 경 북	257	245.0	345.2
학력	대 학생/대학원생	178	95.5	147.0
	고 졸 이 하	677	230.5	337.6
	대 졸 이 상	1,150	266.6	375.8
주거 형태	동 거	810	196.7	293.7
	비 동 거 / 독 립	1,195	272.5	381.0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소득은 2019년 신규 문항임

12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은 43.7시간, 희망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3시간 감소한 40.7시간으로 나타남
-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은 세후 기준 343.7만원으로 현재 소득 대비 약 103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현재 주당 노동시간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시간-희망 노동시간 간 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하면 전 영역에서 현재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2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현재 주당 노동시간	희망 주당 노동시간
전	체	2,005	43.7	40.7
성별	남	1,155	45.9	42.4
	여	850	40.5	38.4
연령	만 15 ~ 18 세	28	33.1	32.2
	만 19 ~ 29 세	874	41.6	39.6
	만 30 ~ 39 세	1,103	45.6	41.8
지역	서울	398	44.6	40.6
	인천 / 경기	449	43.2	40.9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42.4	39.9
	광주/전라/제주	279	44.0	38.4
	부산/울산/경남	302	43.7	41.7
	대구 / 경북	257	44.9	42.8
	대학생/대학원생	178	29.2	31.3
학력	고졸 이하	677	46.3	42.5
	대졸 이상	1,150	44.3	41.1
주거	동거	810	41.9	39.9
형태	비동거 / 독립	1,195	45.0	41.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3) 추가 노동 가능 여부

- 주 노동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노동이 가능 했는지 물어본 결과 ‘가능(있었음)’이 42.6%, ‘불가능(없었음)’ 57.4%로 추가 노동이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조사됨
- 성별로는 남자가 가능했다는 응답이 45.5%로 여자(40.3%)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만19-29세(45.8%)에서 가능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50.6%로 타지역 대비 가능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53.7%)이 가능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동거 중인 경우에 46.1%가 추가 근로가 가능했다고 응답하여 비동거/독립에 비해 높음

표 II-123 추가 노동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	체	253	42.6	57.4
	자	111	45.5	54.5
성별	여	142	40.3	59.7
연령	만 15 ~ 18 세	15	38.0	62.0
	만 19 ~ 29 세	166	45.8	54.2
	만 30 ~ 39 세	72	36.2	63.8
지역	서 울	47	43.8	56.2
	인 천 / 경 기	55	42.9	57.1
	대전/충청/세종/강원	56	45.8	54.2
	광 주 / 전 라 / 제 주	42	33.4	66.6
	부 산 / 울 산 / 경 남	27	50.6	49.4
	대 구 / 경 북	26	32.6	67.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2	34.9	65.1
	고 졸 이 하	58	38.9	61.1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83	53.7	46.3
	동 거	149	46.1	53.9
비 동 거 / 독 립		104	37.0	63.0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4)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없었음’이 86.5%로 ‘있었음’ 13.5% 응답 대비 높게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자(14.3%)가 여자(12.9%)에 비해 구직활동 경험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16.7%)의 구직활동 경험이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거주자의 구직활동 경험이 21.7%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5.7%)이 구직활동 경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4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	체	253	13.5	86.5
	남 자	111	14.3	85.7
	여 자	142	12.9	87.1
연령	만 1 5 ~ 1 8 세	15	0.0	100.0
	만 1 9 ~ 2 9 세	166	16.7	83.3
	만 3 0 ~ 3 9 세	72	8.4	91.6
지역	서 울	47	21.7	78.3
	인 천 / 경 기	55	14.0	86.0
	대전/충청/세종/강원	56	13.6	86.4
	광주/전라/제주	42	4.9	95.1
	부산/울산/경남	27	14.5	85.5
	대 구 / 경 북	26	2.6	97.4
	대학생/대학원생	112	13.2	86.8
학력	고 졸 이 하	58	10.7	89.3
	대 졸 이 상	83	15.7	84.3
주거	동 거	149	14.7	85.3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04	11.6	88.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주 35시간 이상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5)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현재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받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6.5%(받고 있는 편이다 31.7%+충분히 받고 있다 4.8%)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 응답 18.2%(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2.2%+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16.0%)보다 높게 나타남
-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결과 31.7% 응답 대비 4.8%p 상승함
- 성별로는 여자(39.0%)가 남자(34.7%) 보다 직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 응답이 22.0%로 나타나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5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2016	1,499	1.2	14.4	50.9	28.0	5.5
2017	1,667	2.3	14.3	46.8	30.4	6.3
2018	1,990	0.7	17.2	50.3	30.0	1.7
2019	2,005	2.2	16.0	45.3	31.7	4.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25-1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체		2,005	2.2	16.0	45.3	31.7	4.8
성별	남자	1,155	2.9	16.7	45.6	29.6	5.1
	여자	850	1.1	14.9	44.9	34.6	4.4
연령	만 15 ~ 18 세	28	0.0	26.5	43.8	22.1	7.6
	만 19 ~ 29 세	874	2.4	14.7	45.4	32.1	5.5
	만 30 ~ 39 세	1,103	2.1	16.9	45.2	31.5	4.2
지역	서울	398	1.5	14.2	46.5	34.2	3.5
	인천 / 경기	449	3.4	19.1	46.4	27.0	4.1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2.5	14.5	43.9	34.4	4.7
	광주/전라/제주	279	1.4	16.6	39.7	32.3	10.0
	부산/울산/경남	302	1.9	16.7	42.1	32.5	6.8
	대구 / 경북	257	0.0	9.5	52.2	36.4	1.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78	2.6	11.5	38.0	40.8	7.1
	고졸 이하	677	2.3	19.7	48.0	25.1	4.9
	대졸 이상	1,150	2.1	14.5	44.8	34.2	4.5
주거 형태	동거	810	2.2	16.7	45.0	30.5	5.5
	비동거 / 독립	1,195	2.1	15.5	45.5	32.6	4.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6) 이직 의향

- 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4.5%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25.5%)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이직할 의향이 ‘없다’(75.0%)는 응답이 0.5%p 하락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9.3%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이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7.7%로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6 이직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1,499	29.4	70.6
2017	1,667	30.2	69.8
2018	1,990	25.0	75.0
2019	2,005	25.5	74.5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26-1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005	25.5	74.5
성별	남 자	1,155	25.5	74.5
	여 자	850	25.5	74.5
연령	만 1 5 ~ 1 8 세	28	25.3	74.7
	만 1 9 ~ 2 9 세	874	32.0	68.0
	만 3 0 ~ 3 9 세	1,103	20.1	79.9
지역	서 울	398	25.8	74.2
	인 천 / 경 기	449	30.7	69.3
	대전/충청/세종/강원	320	23.5	76.5
	광 주/전라/제주	279	24.7	75.3
	부 산/울산/경남	302	25.1	74.9
	대 구 / 경 북	257	10.7	89.3
학력	대 학생/대학원생	178	30.5	69.5
	고 졸 이 하	677	23.7	76.3
	대 졸 이 상	1,150	25.9	74.1
주거 형태	동 거	810	29.9	70.1
	비 동 거 / 독 립	1,195	22.3	77.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7) 이직 희망 사유

-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 이직 희망 사유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55.8%) 대비 7.2%p 하락한 결과임
- 다음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16.2%),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19.2%)가 남자(14.1%)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 이유로 이직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29-39세에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는 응답 비율 57.8%로 다른 연령 대비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 상태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응답이 52.6%로 부모와 동거중인(44.5%)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7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2016	441	47.6	10.1	17.4	4.4	13.2	1.8	3.7	0.0	0.8	0.0
2017	503	52.1	10.8	16.5	3.0	9.9	0.7	4.0	0.5	2.4	0.0
2018	498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2019	490	48.6	10.4	16.2	3.6	11.3	0.9	6.3	0.6	1.2	0.8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27-1 이직 희망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전	체	490	48.6	10.4	16.2	3.6	11.3	0.9	6.3	0.6	1.2	0.8	
성별	남	자	281	48.0	12.0	14.1	3.1	12.7	1.2	7.2	0.4	0.8	0.5
	여	자	209	49.4	8.2	19.2	4.4	9.5	0.3	5.1	0.9	1.7	1.3
연령	만 1 5 ~ 1 8 세	6	35.2	30.1	28.7	0.0	6.0	0.0	0.0	0.0	0.0	0.0	0.0
	만 1 9 ~ 2 9 세	272	42.0	10.6	18.0	5.3	12.9	0.7	7.5	0.2	1.5	1.4	
	만 3 0 ~ 3 9 세	212	57.8	9.7	13.5	1.5	9.4	1.2	4.9	1.2	0.8	0.0	
지역	서울	107	49.3	10.7	10.5	8.6	14.6	1.6	2.9	0.0	0.5	1.2	
	인천 / 경 기	133	49.0	13.3	14.8	1.3	10.1	0.7	8.7	0.7	1.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76	49.5	6.7	19.6	3.2	13.8	0.0	4.6	2.1	0.0	0.5	
	광주/전라/제주	69	42.3	7.9	24.0	4.2	6.0	1.3	6.2	0.0	3.2	4.8	
	부산/울산/경남	76	49.6	9.0	18.2	3.3	10.7	1.1	7.2	0.8	0.0	0.0	
	대구 / 경 북	29	49.4	4.5	23.1	0.0	13.6	0.0	5.3	0.0	4.1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3	28.9	14.3	22.5	10.1	11.0	1.3	5.1	0.0	0.0	6.7	
	고 졸 이 하	148	49.1	8.8	14.8	2.7	9.6	0.0	11.5	0.9	2.7	0.0	
	대 졸 이 상	289	51.7	10.6	15.8	3.0	12.3	1.3	3.8	0.6	0.6	0.2	
주거 형태	동 거	225	44.5	11.9	15.8	6.0	13.0	1.0	5.5	0.2	1.4	0.7	
	비 동 거 / 독 립	265	52.6	9.0	16.5	1.3	9.7	0.8	7.1	1.0	0.9	0.9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128)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0%로 ‘참여하고 있다+참여한 적 있다’ 5.0%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참여 하고 있다’(2.0%), ‘참여한 적이 있다’(4.3%)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8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평균
전	체	2,948	1.6	3.4	95.0	2015.6
성별	남 자	1,537	1.9	2.9	95.2	2015.5
	여 자	1,411	1.2	4.1	94.8	2015.7
연령	만 1 5 ~ 1 8 세	79	0.0	0.0	100.0	-
	만 1 9 ~ 2 9 세	1,431	2.0	4.3	93.7	2016.0
	만 3 0 ~ 3 9 세	1,438	1.2	2.7	96.1	2014.9
지역	서 울	567	3.6	3.8	92.7	2016.3
	인 천 / 경 기	661	1.1	4.6	94.3	2015.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8	2.3	95.9	2014.7
	광주/전라/제주	402	0.9	3.3	95.8	2013.6
	부산/울산/경남	478	0.5	2.5	97.0	2016.2
	대 구 / 경 북	394	0.4	1.9	97.7	2013.8
	대학생/대학원생	540	1.6	1.0	97.4	2016.6
학력	고 졸 이 하	901	0.7	3.0	96.3	2016.0
	대 졸 이 상	1,507	2.1	4.4	93.5	2015.3
주거 형태	동 거	1,289	2.4	4.3	93.3	2016.1
	비 동 거 / 독 립	1,659	0.8	2.7	96.5	2014.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29)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들에게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6.3%,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36.6%),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7.1%)로 조사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응답 비율이 51.2%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12.5%), 대졸이상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43.3%)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부모와 동거인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10.3%) 응답이 높음

표 II-129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	체	2,811	7.1	36.6	56.3
성별	남	1,468	6.9	38.9	54.2
	여	1,343	7.3	34.0	58.7
연령	만 15 ~ 18 세	79	11.1	17.5	71.4
	만 19 ~ 29 세	1,353	9.7	35.2	55.2
	만 30 ~ 39 세	1,379	4.4	38.7	56.8
지역	서울	524	6.0	33.1	60.9
	인천 / 경기	627	9.2	27.0	63.8
	대전/충청/세종/강원	428	4.2	45.7	50.2
	광주 / 전라 / 제주	387	8.5	38.2	53.3
	부산 / 울산 / 경남	464	9.0	43.1	47.9
	대구 / 경북	381	2.4	51.2	46.5
	대학생 / 대학원생	527	12.5	29.1	58.3
학력	고졸 이하	869	5.8	29.4	64.9
	대졸 이상	1,415	6.1	43.3	50.6
주거 형태	동거	1,211	10.3	34.5	55.1
	비동거 / 독립	1,600	4.5	38.2	57.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

130)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8%,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45.6%)가 남자(38.5%)보다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아짐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51.0%)이 동거(30.9%) 보다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30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그만 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	체		2,948	41.8	1.8	3.7	52.6
	성별	남	1,537	38.5	1.3	4.1	56.1
		여	1,411	45.6	2.3	3.4	48.8
연령	만 15 ~ 18 세		79	0.0	0.0	3.5	96.5
	만 19 ~ 29 세		1,431	29.2	1.7	3.4	65.6
	만 30 ~ 39 세		1,438	56.3	1.9	4.1	37.8
지역	서울		567	39.8	0.7	4.5	55.0
	인천 / 경기		661	46.4	2.2	5.5	45.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3.9	1.9	2.5	51.8
	광주/전라/제주		402	44.2	0.8	1.9	53.1
	부산/울산/경남		478	33.3	3.2	2.2	61.3
	대구 / 경북		394	38.4	1.4	2.2	58.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9.8	1.9	1.7	86.6
	고졸이하		901	49.9	1.7	5.6	42.9
	대졸이상		1,507	47.3	1.8	3.4	47.6
주거	동거		1,289	30.9	1.9	3.9	63.3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51.0	1.6	3.6	43.7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31) 실업급여 인지 여부

- 실업급여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예)’고 응답한 비율은 84.2%로 ‘알지 못한다(아니오)’는 응답(15.8%)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86.6%), 인천/경기(87.1%) 지역에서 실업급여의 인지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실업급여 인지 비율이 86.3%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의 실업급여 인지 비율이 85.6%로 동거(81.6%)에 비해 높음

표 II-131 실업급여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334	84.2	15.8
성별	남 자	640	84.1	15.9
	여 자	694	84.3	15.7
연령	만 1 5 ~ 1 8 세	1	100.0	0.0
	만 1 9 ~ 2 9 세	465	80.5	19.5
	만 3 0 ~ 3 9 세	868	86.3	13.7
지역	서 울	245	86.6	13.4
	인 천 / 경 기	358	87.1	12.9
	대전/충청/세종/강원	202	81.3	18.7
	광 주 / 전 라 / 제 주	191	80.2	19.8
	부 산 / 울 산 / 경 남	176	83.3	16.7
	대 구 / 경 북	162	76.5	23.5
	대학생/대학원생	67	76.6	23.4
	고 졸 이 하	487	81.9	18.1
학력	대 졸 이 상	780	86.3	13.7
	대 졸 이 하	436	81.6	18.4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898	85.6	14.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32)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실업급여 인지자 중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2.2%로 수급한 적이 ‘있다’는 응답(37.8%)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40.7%)가 남자(34.7%)보다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비율이 40.7%로 고졸이하(3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2 실업급여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111	37.8	62.2
	자	533	34.7	65.3
성별	여	578	40.7	59.3
	만 15 ~ 18 세	1	0.0	100.0
연령	만 19 ~ 29 세	367	31.0	69.0
	만 30 ~ 39 세	743	41.4	58.6
	서 울	210	34.3	65.7
지역	인 천 / 경 기	310	47.1	52.9
	대전/충청/세종/강원	167	23.9	76.1
	광 주 / 전 라 / 제 주	154	40.4	59.6
	부 산 / 울 산 / 경 남	145	35.6	64.4
	대 구 / 경 북	125	24.5	75.5
	대 학생 / 대 학원생	50	25.0	75.0
학력	고 졸 이 하	388	34.4	65.6
	대 졸 이 상	673	40.7	59.3
주거	동 거	352	34.8	65.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59	39.3	60.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인지자만 응답

13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7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11.9%),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14.5%), 여자는 ‘절차가 복잡, 요구사항이 많아서’(10.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82.6%), 만30-39세는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15.1%) 비율이 비교적 높음

표 II-13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전	체	698	77.3	11.9	8.4	1.8	0.5
	자	352	76.8	14.5	6.8	1.5	0.3
성별	여	346	77.8	9.2	10.0	2.2	0.8
	만 15 ~ 18 세	1	100.0	0.0	0.0	0.0	0.0
연령	만 19 ~ 29 세	254	82.6	6.9	8.5	1.1	0.9
	만 30 ~ 39 세	443	74.0	15.1	8.3	2.3	0.3
	서	139	72.8	15.2	10.8	0.4	0.8
	울	166	78.6	8.1	10.3	2.4	0.6
지역	대전/충청/세종/강원	124	85.0	9.7	2.5	2.8	0.0
	광주/전라/제주	90	79.4	9.3	8.2	3.1	0.0
	부산/울산/경남	89	70.2	19.7	8.0	2.1	0.0
	대구/경북	90	76.9	14.1	6.9	0.0	2.1
	대학생/대학원생	36	84.2	0.0	13.7	0.6	1.5
	고졸이하	258	78.1	10.6	8.8	1.7	0.7
학력	대졸이상	404	76.2	13.9	7.6	2.0	0.3
	동거	265	79.4	8.6	9.8	1.1	1.0
주거 형태	비동거/독립	329	76.1	13.8	7.6	2.2	0.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만 응답

13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 ‘향후 10-20년 미만’이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향후 20년 이후’(17.0%), ‘이미 소유하고 있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의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응답이 36.0%로 타 연령대 대비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상 마련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응답이 12.0%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 낮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이미 소유하고 있다’(26.0%) 응답이 높음

표 II-13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이미 소유 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 할 수 없을 것 같다
2016	2,534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2017	2,714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2018	3,133	8.4	0.1	0.7	4.4	5.8	12.5	32.6	25.2	10.3
2019	3,530	17.0	0.8	1.9	5.0	8.9	11.6	29.2	17.0	8.6

표 II-134-1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 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 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 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 할 수 없을 것 같다	
전		체	3,530	17.0	0.8	1.9	5.0	8.9	11.6	29.2	17.0	8.6
성별	남	자	1,839	16.0	0.5	1.7	5.2	9.2	11.2	30.9	17.7	7.6
	여	자	1,691	18.3	1.1	2.2	4.7	8.6	11.9	27.3	16.3	9.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6	0.1	0.5	1.1	4.3	8.7	36.5	37.4	10.9
	만 1 9 ~ 2 9 세		1,431	3.1	0.7	1.7	4.9	8.7	11.7	38.4	22.8	8.1
	만 3 0 ~ 3 9 세		1,438	36.0	1.1	2.7	6.2	10.5	12.3	17.8	5.2	8.4
지역	서 울		652	12.0	0.4	2.2	5.3	7.3	10.8	28.2	21.7	11.9
	인 천 / 경 기		786	16.0	1.2	1.7	4.7	8.5	11.4	30.7	14.0	11.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6.9	1.1	3.6	4.4	11.5	14.1	31.0	12.8	4.6
	광 주 / 전라 / 제 주		492	16.9	0.2	2.1	4.9	9.0	11.8	32.8	16.9	5.6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24.3	0.2	1.1	6.1	7.7	10.5	23.0	21.6	5.5
	대 구 / 경 북		478	20.6	0.9	0.8	4.0	11.9	11.4	29.5	16.3	4.5
	중 / 고 등 학 생		582	0.3	0.1	0.5	1.3	4.6	9.0	35.0	38.9	10.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0.4	0.0	1.0	0.9	5.5	11.0	43.3	31.7	6.2
	고 졸 이 하		901	17.4	0.4	2.1	5.8	9.3	11.6	27.5	14.4	11.4
	대 졸 이 상		1,507	26.0	1.4	2.5	6.6	10.8	12.3	24.4	8.7	7.2
	대 졸 이 상		1,507	26.0	1.4	2.5	6.6	10.8	12.3	24.4	8.7	7.2
주거 형태	동 거		1,863	2.5	0.6	0.9	3.5	7.8	11.0	38.4	25.7	9.5
	비 동 거 / 독 립		1,667	32.5	1.0	3.0	6.5	10.1	12.1	19.5	7.8	7.5

135)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 평소 집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 중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의 62.8%가 ‘그렇다’(그렇다 50.0%+매우 그렇다 12.8%)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8.0%(전혀 그렇지 않다 1.9%+그렇지 않다 16.0%)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결과(61.5%) 대비 1.3%p 상승한 결과임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 상 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그렇지 않다’(28.5%)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67.2%)이 동거(58.7%) 보다 ‘그렇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35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0	12.1	25.2	48.5	13.3
2017	2,714	2.3	14.8	19.0	47.7	16.2
2018	3,133	1.1	13.8	23.6	51.0	10.5
2019	3,530	1.9	16.0	19.2	50.0	12.8

표 II-135-1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1.9	16.0	19.2	50.0	12.8
성별	남 자	1,839	1.9	15.5	18.9	49.8	14.0
	여 자	1,691	1.9	16.7	19.6	50.4	11.4
연령	만 15 ~ 18 세	661	2.5	16.9	24.6	44.0	12.0
	만 19 ~ 29 세	1,431	2.1	17.4	21.3	48.2	11.0
	만 30 ~ 39 세	1,438	1.6	14.5	15.5	53.7	14.8
지역	서 울	652	2.1	16.8	17.9	51.7	11.4
	인 천 / 경 기	786	2.5	13.4	21.6	51.0	11.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8	17.2	17.8	47.7	16.5
	광주/전라/제주	492	1.8	11.2	20.4	50.3	16.2
	부 산/울 산/경 남	570	2.0	15.8	16.9	52.1	13.2
	대 구 / 경 북	478	1.1	27.3	18.1	43.0	1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3	16.3	25.8	44.4	11.3
	대학생/대학원생	540	1.6	18.1	22.1	48.2	10.0
	고 졸 이 하	901	1.5	16.5	18.6	52.4	11.0
	대 졸 이 상	1,507	2.2	15.0	17.1	50.6	15.0
주거 형태	동 거	1,863	2.0	16.7	22.6	48.2	10.5
	비 동 거 / 독 립	1,667	1.8	15.4	15.6	52.0	15.2

13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평소 집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 중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의 6.2%가 ‘그렇다’(그렇다 5.5%+매우 그렇다 0.6%)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76.4%(전혀 그렇지 않다 35.7%+그렇지 않다 40.7%) 대비 낮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결과(13.7%) 대비 7.6%p 하락한 결과임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 값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그렇지 않다’(91.2%)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그렇지 않다’(80.4%)의 응답이 높은 편임

표 II-13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7.4	42.0	21.6	8.0	1.0
2017	2,714	29.1	40.3	22.0	8.0	0.7
2018	3,133	27.2	37.8	21.2	12.1	1.6
2019	3,530	35.7	40.7	17.5	5.5	0.6

표 II-136-1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35.7	40.7	17.5	5.5	0.6
성별	남 자	1,839	34.5	42.0	17.5	5.4	0.6	
	여 자	1,691	37.0	39.2	17.5	5.7	0.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3.9	40.8	26.0	8.3	1.1	
	만 1 9 ~ 2 9 세	1,431	36.7	40.4	18.0	4.4	0.4	
	만 3 0 ~ 3 9 세	1,438	38.1	40.8	14.4	5.9	0.7	
지역	서 울	652	58.5	32.7	5.8	2.9	0.1	
	인 천 / 경 기	786	35.6	40.5	18.1	5.3	0.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9.3	42.1	27.1	8.5	3.0	
	광주/전라/제주	492	37.9	35.7	17.9	8.4	0.1	
	부산/울산/경남	570	21.7	49.5	23.4	5.3	0.1	
	대 구 / 경 북	478	30.2	47.9	17.2	4.7	0.0	
	중 / 고 등 학 생	582	23.1	41.2	26.1	8.4	1.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31.0	43.0	20.4	5.5	0.1	
	고 졸 이 하	901	36.7	38.9	19.1	4.6	0.8	
	대 졸 이 상	1,507	39.6	40.8	13.6	5.4	0.5	
주거 형태	동 거	1,863	33.6	40.2	20.6	5.1	0.5	
	비 동 거 / 독 립	1,667	38.0	41.1	14.2	6.0	0.8	

137)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평소 집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 중 부모님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의 43.3%가 ‘그렇다’(그렇다 33.0%+매우 그렇다 10.4%)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8.4%(전혀 그렇지 않다 4.4%+그렇지 않다 24.1%)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결과(47.1%) 대비 3.7%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님 도움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그렇다’(60.4%)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표 II-137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5.6	22.8	39.9	27.8	3.9
2017	2,714	7.0	25.6	34.5	25.1	7.8
2018	3,133	2.6	14.4	36.0	37.6	9.5
2019	3,530	4.4	24.1	28.3	33.0	10.4

표 II-137-1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4.4	24.1	28.3	33.0	10.4
성별	남	자	1,839	4.6	24.9	28.6	32.5	9.4
	여	자	1,691	4.1	23.1	27.9	33.4	11.4
연령	만 15 ~ 18 세		661	3.7	25.6	33.0	31.0	6.7
	만 19 ~ 29 세		1,431	4.1	21.9	30.2	34.3	9.5
	만 30 ~ 39 세		1,438	4.8	25.8	24.9	32.1	12.4
지역	서울		652	4.2	15.3	20.1	41.5	18.9
	인천 / 경기		786	3.0	22.3	28.5	36.1	10.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6	30.5	26.6	28.2	9.1
	광주/전라/제주		492	5.9	31.1	28.7	27.0	7.3
	부산/울산/경남		570	5.9	25.8	37.4	24.0	6.9
	대구 / 경북		478	3.2	29.1	32.9	31.3	3.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3.8	27.2	32.0	30.6	6.4
	대학생/대학원생		540	2.9	20.1	33.6	34.3	8.9
	고 졸 이 하		901	4.8	26.2	28.4	31.6	8.9
	대 졸 이 상		1,507	4.6	23.3	25.6	33.8	12.6
주거 형태	동 거		1,863	3.7	21.6	31.6	33.4	9.7
	비 동 거 / 독 립		1,667	5.1	26.6	24.7	32.5	11.1

138)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 공동주거 경험 비율은 6.1%, 향후 공동주거 의향 비율은 6.7%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8년(경험비율 2.5%, 의향비율 2.8%) 대비 상승한 결과임
- 연령별로 공동주거 경험비율은 만19-29세(7.2%)에서, 향후 의향 비율은 만 15-18세(14.1%)에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공동주거 경험비율은 대전/충청/세종/강원(10.4%), 광주/전라/제주(10.1%) 지역에서 비교적 높음
- 학력별로 향후 의향 비율은 중/고등학생(1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8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여부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16	2,534	9.1	90.9	7.6	92.4
2017	2,714	7.1	92.9	8.0	92.0
2018	3,133	2.5	97.5	2.8	97.2
2019	3,530	6.1	93.9	6.7	93.3

표 II-138-1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여부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3,530	6.1	93.9	6.7	93.3
성별	남	자	1,839	6.9	93.1	7.0	93.0	
	여	자	1,691	5.2	94.8	6.4	93.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3.3	96.7	14.1	85.9	
	만 1 9 ~ 2 9 세		1,431	7.2	92.8	8.9	91.1	
	만 3 0 ~ 3 9 세		1,438	5.7	94.3	2.4	97.6	
지역	서		울	652	5.4	94.6	6.6	93.4
	인 천 / 경 기		786	4.6	95.4	6.6	93.4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0.4	89.6	7.5	92.5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10.1	89.9	7.9	92.1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5.0	95.0	7.9	92.1	
	대 구 / 경 북		478	3.3	96.7	3.2	96.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3.2	96.8	14.4	85.6	
	대학생/대학원생		540	7.8	92.2	11.7	88.3	
	고 졸 이 하		901	6.0	94.0	5.5	94.5	
	대 졸 이 상		1,507	6.3	93.7	4.1	95.9	
주거 형태	동		거	1,863	4.6	95.4	9.1	90.9
	비 동 거 / 독 립		1,667	7.6	92.4	4.3	95.7	

139) 부모 동거 여부

- 부모 동거 여부 조사 결과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동거 비율은 51.5%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는 일시 별거 비율이 4.4%,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는 독립 비율이 44.1%로 조사됨
- 2018년 대비 동거 비율이 8.0%p 하락한 반면 독립 비율은 5.7%p 상승함
- 성별로 남자의 동거 비율이 55.3%로 여자(47.3%) 대비 높은 반면 독립 비율은 여자(49.2%)가 남자(39.5%) 대비 높은 것이 특징임
- 연령별로 만15-18세의 대부분(97.5%)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독립 비율도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음

표 II-139 부모 동거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2017	2,714	51.0	4.4	44.6
2018	3,133	59.5	2.1	38.4
2019	3,530	51.5	4.4	44.1

표 II-139-1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전	체	3,530	51.5	4.4	44.1
	자				
성별	남	1,839	55.3	5.3	39.5
	여	1,691	47.3	3.5	49.2
연령	만 15 ~ 18 세	661	97.5	2.4	0.2
	만 19 ~ 29 세	1,431	70.2	7.7	22.1
	만 30 ~ 39 세	1,438	18.8	1.7	79.4
지역	서울	652	52.8	4.3	42.9
	인천 / 경기	786	53.7	1.6	44.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44.2	8.7	47.1
	광주/전라/제주	492	50.8	5.5	43.7
	부산/울산/경남	570	55.6	2.7	41.7
	대구 / 경북	478	46.1	9.6	44.3
	충 / 고 등 학 생	582	98.9	1.0	0.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79.5	16.7	3.8
	고 졸 이 하	901	43.1	2.2	54.7
	대 졸 이 상	1,507	36.3	2.6	61.0
주거 형태	동 거	1,863	100.0	0.0	0.0
	비 동 거 / 독 립	1,667	0.0	9.1	90.9

14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해 41.5%가 ‘취업 전까지 동거’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 전까지 동거’(34.8%),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결혼 전까지 동거’ 응답 비율이 24.2%p로 하락한 반면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10.2%p), ‘취업 전까지 동거’(+11.5%p) 응답은 상승함
- 성별로 남자는 ‘취업 전까지 동거’하겠다는 응답이 43.9%로 여자(39.0%) 대비 높은 반면 여자는 ‘결혼 전까지 동거’하겠다는 응답(38.7%)이 남자(31.0%) 대비 높은 것이 특징임
- 광주/전라/제주(30.9%) 거주자의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53.0%) 지역은 ‘취업 전까지 동거’, 서울(51.8%) 지역은 ‘결혼 전까지 동거’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취업 전까지 동거	결혼 전까지 동거	결혼 후에도 동거	출산 후에도 동거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기타
2016	1,525	3.3	17.6	69.7	2.7	1.1	3.9	1.4
2017	390	16.8	38.1	40.1	0.8	0.0	2.2	2.0
2018	489	9.2	30.0	59.0	1.3	-	0.2	0.3
2019	574	19.4	41.5	34.8	0.5	0.4	2.5	0.9

* 주 1) 중/고등학생 중 부모님과 동거중인 경우에만 응답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3%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40-1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취업 전까지 동거	결혼 전까지 동거	결혼 후에도 동거	출산 후에도 동거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기타	
전		체	574	19.4	41.5	34.8	0.5	0.4	2.5	0.9
성별	남	자	295	21.2	43.9	31.0	0.0	0.2	3.0	0.8
	여	자	279	17.7	39.0	38.7	1.0	0.6	2.1	1.0
연령	만 15 ~ 18 세		574	19.4	41.5	34.8	0.5	0.4	2.5	0.9
지역	서	을	83	8.9	38.2	51.8	1.0	0.0	0.0	0.0
	인 천 / 경 기		123	17.3	43.2	35.1	0.0	0.6	2.6	1.2
	대전/충청/세종/강원		105	26.5	53.0	16.2	0.0	0.0	2.8	1.6
	광 주 / 전 라 / 제 주		89	30.9	36.4	25.5	0.0	1.4	4.8	1.0
	부 산 / 울 산 / 경 남		91	15.0	38.3	40.9	1.5	0.0	3.4	0.9
	대 구 / 경 북		83	25.1	35.4	36.0	1.3	0.0	2.2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74	19.4	41.5	34.8	0.5	0.4	2.5	0.9
주거 형태	동	거	574	19.4	41.5	34.8	0.5	0.4	2.5	0.9

* 주: 중/고등학생 중 부모님과 동거중인 경우에만 응답

14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20.6%가 ‘예’라고 응답해 2018년 조사 결과 대비 4.9% 상승함
- 성별로 남자(27.5%)가 여자(14.2%)보다 미혼 독립 거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은 낮을수록 독립하여 거주한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32.8%) 지역에서 미혼 독립 거주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미혼 독립 거주는 대학생/대학원생(72.7%)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14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1,007	14.9	85.1
2017	1,285	25.3	74.7
2018	1,232	15.7	84.3
2019	1,659	20.6	79.4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4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659	20.6	79.4
성별	남 자	790	27.5	72.5
	여 자	869	14.2	85.8
연령	만 1 5 ~ 1 8 세	12	77.4	22.6
	만 1 9 ~ 2 9 세	491	46.0	54.0
	만 3 0 ~ 3 9 세	1,156	10.8	89.2
지역	서 울	291	21.0	79.0
	인 천 / 경 기	356	11.8	88.2
	대전/충청/세종/강원	287	32.8	67.2
	광 주/전라/제주	235	24.5	75.5
	부 산/울 산/경남	248	16.6	83.4
	대 구 / 경 북	242	28.5	71.5
	대학생/대학원생	133	72.7	27.3
학력	고 졸 이 하	525	19.8	80.2
	대 졸 이 상	1,001	15.7	84.3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20.6	79.4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42) 1인 가구 주거 형태

- 1인 가구 주거 형태에 대해서 ‘원룸(다가구)’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다세대/빌라’(21.9%), ‘아파트’(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는 ‘원룸(다가구)’(50.9%), 남자는 ‘아파트’(20.4%)의 주거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다세대/빌라’는 서울(35.9%), 인천/경기(49.3%)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주거 비율을 보이고, ‘오피스텔’은 서울(2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2 1인 가구 주거 형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다세대/ 빌라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아파트	기타
2016	150	23.7	35.2	4.7	0.6	0.0	0.0	33.6	2.2
2017	330	22.2	37.1	6.5	0.2	2.8	0.0	27.7	3.5
2018	212	32.5	19.4	12.4	0.2	0.4	0.0	26.9	8.3
2019	472	21.9	47.1	7.2	-	3.1	-	17.5	3.2

*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42-1 1인 가구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다세대/ 빌라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기타
전	체	472	21.9	47.1	7.2	3.1	17.5	3.2
	자	297	21.8	45.0	6.6	3.3	20.4	2.8
성별	남	297	21.8	45.0	6.6	3.3	20.4	2.8
	여	175	21.9	50.9	8.3	2.9	12.2	3.8
연령	만 15 ~ 18 세	11	0.0	46.1	0.0	53.9	0.0	0.0
	만 19 ~ 29 세	281	18.9	54.1	5.4	3.6	15.7	2.2
	만 30 ~ 39 세	180	27.4	35.9	10.4	0.3	21.1	4.8
지역	서울	84	35.9	22.3	22.4	0.0	17.5	1.9
	인천 / 경기	59	49.3	25.6	2.7	0.0	22.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23	8.5	63.7	0.9	1.5	21.2	4.1
	광주/전라/제주	72	7.2	56.4	5.3	10.1	16.0	5.1
	부산/울산/경남	53	5.7	51.7	12.5	10.8	17.5	1.8
	대구 / 경북	81	16.9	67.7	0.0	2.5	6.2	6.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09	13.5	55.8	5.4	12.8	12.5	0.0
	고졸 이하	154	24.9	48.3	0.7	0.4	19.5	6.2
	대졸 이상	209	23.9	42.2	12.3	0.4	18.6	2.7
주거 형태	비동거 / 독립	472	21.9	47.1	7.2	3.1	17.5	3.2

*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14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본인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그렇다’ 응답이 82.5%(그렇다 58.9%+매우 그렇다 23.6%)로 ‘그렇지 않다’ 3.4%(전혀 그렇지 않다 0.4%+그렇지 않다 3.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92.9%)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에 따라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85.1%로 비동거/독립(79.7%) 중인 경우보다 높음

표 II-14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3,530	0.4	3.0	14.1	58.9	23.6
	남 자	1,839	0.6	2.5	12.5	56.1	28.4
	여 자	1,691	0.2	3.5	16.0	62.0	18.3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4	1.9	5.8	53.0	39.0
	만 1 9 ~ 2 9 세	1,431	0.3	3.0	14.6	57.6	24.6
	만 3 0 ~ 3 9 세	1,438	0.5	3.3	16.1	61.9	18.2
지역	서울	652	0.0	1.4	7.2	68.1	23.3
	인천 / 경기	786	0.5	4.1	18.6	51.3	25.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8	3.6	12.2	62.4	21.0
	광주/전라/제주	492	0.1	3.1	17.2	61.4	18.2
	부산/울산/경남	570	0.7	3.0	17.6	54.4	24.3
	대구 / 경북	478	0.1	1.4	7.8	64.0	26.7
	중 / 고 등 학 생	582	0.0	2.0	5.1	53.3	39.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0.1	2.6	11.9	56.5	28.9
	고 졸 이 하	901	1.0	3.2	16.3	59.6	19.9
	대 졸 이 상	1,507	0.2	3.2	15.7	60.5	20.4
주거 형태	동 거	1,863	0.5	2.6	11.7	57.5	27.6
	비 동 거 / 독 립	1,667	0.2	3.4	16.7	60.3	19.4

144)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으로 '마른 편이다'라는 응답이 16.4%(매우 마른 편이다 0.9%+약간 마른 편이다 15.6%)로 '비만이다'라는 응답 22.3%(약간 비만이다 19.8%+매우 비만이다 2.5%)보다 낮음
- 2018년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비만이다'(22.0% 응답은 0.3%p 상승한 반면, '마른 편이다'(23.8%) 응답은 7.3%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이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25.5%)인 경우, 동거(19.2%) 보다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4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2016	2,534	1.4	14.6	61.1	20.4	2.5
2017	2,714	2.8	18.1	54.4	20.8	3.9
2018	3,133	2.2	21.6	54.1	20.7	1.3
2019	3,530	0.9	15.6	61.3	19.8	2.5

표 II-144-1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전		체 3,530	0.9	15.6	61.3	19.8	2.5
성별	남	자 1,839	1.1	14.9	61.7	19.8	2.6
	여	자 1,691	0.6	16.3	60.8	19.8	2.5
연령	만 15 ~ 18 세	661	1.5	16.6	65.9	14.1	2.0
	만 19 ~ 29 세	1,431	1.1	17.5	60.2	18.6	2.7
	만 30 ~ 39 세	1,438	0.5	13.3	61.0	22.6	2.5
지역	서울	652	0.9	19.2	64.1	15.1	0.6
	인천 / 경기	786	1.1	15.1	56.8	24.3	2.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8	11.3	61.1	22.8	4.0
	광주/전라/제주	492	0.2	13.4	63.0	19.1	4.3
	부산/울산/경남	570	0.9	17.3	61.3	18.1	2.5
	대구 / 경북	478	0.6	15.1	68.8	13.5	2.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5	17.1	64.8	14.9	1.7
	대학생/대학원생	540	1.7	18.7	62.5	14.9	2.2
	고 졸 이 하	901	0.7	14.7	58.2	22.6	3.9
	대 졸 이 상	1,507	0.5	14.7	61.9	20.8	2.1
주거 형태	동	거 1,863	1.0	18.1	61.6	16.6	2.6
	비 동 거 / 독 립	1,667	0.7	12.9	60.9	23.1	2.4

145) 건강검진 수검 여부

-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 44.3%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로 조사됨
- 연령별로 만30-39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 비동거/독립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54.0%로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의 35.2% 대비 높음

표 II-145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44.3	55.7
	남 자	1,839	44.8	55.2
	여 자	1,691	43.9	56.1
연령	만 1 5 ~ 1 8 세	661	39.4	60.6
	만 1 9 ~ 2 9 세	1,431	32.7	67.3
	만 3 0 ~ 3 9 세	1,438	57.6	42.4
지역	서 울	652	35.2	64.8
	인 천 / 경 기	786	43.0	57.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0.2	49.8
	광 주/전라/제주	492	49.6	50.4
	부 산/울산/경남	570	51.4	48.6
	대 구 / 경 북	478	43.3	56.7
	중 / 고 등 학 생	582	41.7	58.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1.3	78.7
	고 졸 이 하	901	38.0	62.0
	대 졸 이 상	1,507	55.9	44.1
주거	동 거	1,863	35.2	64.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54.0	46.0

146)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응답이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0.9%),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은 여자(85.9%)가 남자(80.7%)보다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86.3%)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응답 비율은 비동거/독립(86.5%)이 동거(79.9%)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146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 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전	체	3,530	83.1	10.9	6.0
성별	남	1,839	80.7	12.3	7.0
	여	1,691	85.9	9.2	4.9
연령	만 1 5 ~ 1 8 세	661	80.4	12.0	7.6
	만 1 9 ~ 2 9 세	1,431	81.4	11.6	7.0
	만 3 0 ~ 3 9 세	1,438	85.7	9.8	4.5
지역	서 울	652	82.4	13.1	4.5
	인 천 / 경 기	786	80.8	11.7	7.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89.6	5.1	5.4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86.5	10.8	2.7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76.6	13.5	9.9
	대 구 / 경 북	478	90.1	7.5	2.4
	중 / 고 등 학 생	582	79.8	12.2	8.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0.4	13.2	6.4
	고 졸 이 하	901	80.5	12.3	7.2
	대 졸 이 상	1,507	86.3	9.0	4.7
주거 형태	동 거	1,863	79.9	12.2	7.8
	비 동 거 / 독 립	1,667	86.5	9.4	4.1

147)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5%), 중/고등학생은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88.9%)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 비동거/독립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1.2%), 동거 중인 경우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83.6%)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47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582	3.0	15.2	1.4	79.8	0.7
성별	남 자	351	3.8	14.5	1.9	79.3	0.5
	여 자	231	1.8	16.2	0.6	80.6	0.8
연령	만 1 5 ~ 1 8 세	123	0.8	9.3	0.8	89.1	0.0
	만 1 9 ~ 2 9 세	263	3.1	13.3	1.6	81.7	0.3
	만 3 0 ~ 3 9 세	196	3.8	20.0	1.3	73.6	1.4
지역	서 울	113	2.3	11.4	3.5	82.8	0.0
	인 천 / 경 기	157	3.3	14.4	1.3	79.6	1.3
	대전/충청/세종/강원	67	9.9	11.1	0.0	76.9	2.1
	광 주 / 전 라 / 제 주	65	0.9	27.5	0.0	71.6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131	0.0	11.6	0.0	88.4	0.0
	대 구 / 경 북	49	7.3	35.5	2.9	54.3	0.0
	중 / 고 등 학 생	110	0.9	9.2	1.0	88.9	0.0
학력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01	2.5	8.0	3.5	86.1	0.0
	고 졸 이 하	175	4.3	18.5	0.4	76.3	0.5
	대 졸 이 상	196	2.9	17.7	1.4	76.7	1.3
주거 형태	동 거	357	3.3	11.3	1.5	83.6	0.2
	비 동 거 / 독 립	225	2.4	21.2	1.2	73.8	1.3

* 주: 질환 발생 시 병원을 가지 않는 응답자

14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74.1%(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3%+대부분 그렇다 44.9%+항상 그렇다 6.9%)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25.9%(전혀 그렇지 않다 1.5%+때때로 그렇다 13.1%+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1.3%)로 조사되어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8년 ‘그렇다’(77.3%) 응답 대비 3.2%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85.1%)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그렇다’(83.5%)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4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 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1.2	16.4	13.2	31.3	34.4	3.4
2018	3,133	0.1	8.8	13.8	28.9	44.7	3.7
2019	3,530	1.5	13.1	11.3	22.3	44.9	6.9

표 II-148-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530	1.5	13.1	11.3	22.3	44.9	6.9
성별	남 자	1,839	1.8	12.6	10.8	24.0	43.5	7.3
	여 자	1,691	1.1	13.7	11.8	20.4	46.6	6.4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9	8.8	6.9	21.6	49.3	12.5
	만 1 9 ~ 2 9 세	1,431	1.9	13.7	10.6	22.5	44.9	6.4
	만 3 0 ~ 3 9 세	1,438	1.3	13.7	13.2	22.3	43.7	5.7
지역	서 울	652	0.8	10.5	11.2	21.8	49.6	6.1
	인 천 / 경 기	786	1.1	16.4	11.0	22.6	43.3	5.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2	15.3	10.3	22.9	36.2	12.2
	광주/전라/제주	492	1.4	10.0	13.2	28.7	41.0	5.6
	부산/울산/경남	570	2.3	14.3	13.3	19.7	45.5	4.9
	대 구 / 경 북	478	0.5	5.7	8.8	18.2	56.9	10.0
	중 / 고 등 학 생	582	1.0	8.5	7.0	20.4	49.5	13.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0.8	11.9	10.4	24.8	45.6	6.4
	고 졸 이 하	901	2.5	14.6	12.1	22.8	41.4	6.6
	대 졸 이 상	1,507	1.3	13.7	12.1	21.7	45.7	5.6
주거 형태	동 거	1,863	1.4	12.8	10.6	23.0	45.3	6.7
	비 동 거 / 독 립	1,667	1.6	13.4	12.0	21.5	44.5	7.1

14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72.6%(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3.8%+대부분 그렇다 39.7%+항상 그렇다 9.2%)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27.4%(전혀 그렇지 않다 2.3% + 때때로 그렇다 12.5%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6%)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그렇다’(74.5%) 응답 대비 1.8%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78.3%)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그렇다’(80.1%)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14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2.2	15.0	15.2	26.8	36.5	4.3
2018	3,133	0.3	7.5	17.7	33.4	32.9	8.2
2019	3,530	2.3	12.5	12.6	23.8	39.7	9.2

표 II-149-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530	2.3	12.5	12.6	23.8	39.7	9.2
성별	남 자	1,839	2.8	11.6	12.3	25.3	38.6	9.5
	여 자	1,691	1.8	13.4	12.9	22.1	40.9	8.8
연령	만 1 5 ~ 1 8 세	661	1.4	7.2	11.7	24.7	41.3	13.7
	만 1 9 ~ 2 9 세	1,431	2.3	13.5	11.7	22.8	40.9	8.9
	만 3 0 ~ 3 9 세	1,438	2.6	13.0	13.7	24.4	38.0	8.2
지역	서 울	652	1.4	9.0	11.3	23.2	44.2	10.9
	인 천 / 경 기	786	2.8	16.1	12.5	23.3	36.1	9.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2	12.6	14.9	21.1	38.7	9.6
	광주/전라/제주	492	1.2	10.3	14.4	29.9	36.0	8.3
	부산/울산/경남	570	3.8	13.2	13.7	19.2	43.4	6.8
	대 구 / 경 북	478	0.4	8.6	8.3	31.1	42.0	9.5
	중 / 고 등 학 생	582	1.6	7.7	10.7	23.3	42.0	1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0	10.8	13.0	26.4	42.2	6.6
	고 졸 이 하	901	4.1	12.7	13.7	23.0	37.5	9.0
	대 졸 이 상	1,507	1.9	14.0	12.2	23.5	39.6	8.8
주거 형태	동 거	1,863	2.1	12.6	11.6	24.5	40.1	9.0
	비 동 거 / 독 립	1,667	2.5	12.3	13.6	23.0	39.3	9.3

15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70.2%(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9%+대부분 그렇다 38.7% + 항상 그렇다 8.6%)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29.8%(전혀 그렇지 않다 2.4%+때때로 그렇다 13.4%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4.0%)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그렇다’(74.0%) 응답 대비 3.8%p 하락함
- 성별로 여자(68.4%)에 비해 남자(71.9%)가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의 ‘그렇다’(78.2%)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81.2%)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그렇다’(78.5%)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15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 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2.3	15.8	15.5	29.5	31.5	5.4
2018	3,133	0.7	9.6	15.7	33.7	32.4	7.9
2019	3,530	2.4	13.4	14.0	22.9	38.7	8.6

표 II-150-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530	2.4	13.4	14.0	22.9	38.7	8.6
	남 자	1,839	2.8	12.7	12.6	24.2	39.2	8.5
	여 자	1,691	2.0	14.1	15.6	21.5	38.1	8.7
연령	만 15 ~ 18 세	661	0.9	9.1	11.8	20.2	41.8	16.1
	만 19 ~ 29 세	1,431	2.9	13.2	14.1	21.9	40.4	7.5
	만 30 ~ 39 세	1,438	2.4	14.8	14.6	24.8	35.9	7.6
지역	서울	652	1.5	8.5	16.1	24.3	40.0	9.6
	인천 / 경기	786	3.0	15.0	12.9	21.6	39.3	8.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5	15.7	14.2	21.7	34.9	10.0
	광주/전라/제주	492	1.7	11.4	15.1	28.2	36.3	7.4
	부산/울산/경남	570	3.2	18.3	15.9	17.3	38.7	6.6
	대구 / 경북	478	0.4	9.5	8.8	29.1	41.5	10.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8	8.2	12.5	19.0	42.5	17.0
	대학생/대학원생	540	2.6	12.2	13.1	22.8	41.8	7.5
	고 졸 이 하	901	3.8	14.0	15.0	20.8	38.6	7.8
	대 졸 이 상	1,507	2.0	14.6	14.0	25.1	36.8	7.5
주거 형태	동 거	1,863	2.6	12.5	13.9	21.9	39.5	9.5
	비 동 거 / 독 립	1,667	2.2	14.2	14.1	24.0	37.8	7.7

15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58.8%(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3.6%+대부분 그렇다 30.2%+항상 그렇다 5.1%)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41.2%(전혀 그렇지 않다 7.1%+때때로 그렇다 18.7%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4%)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그렇다’(68.2%) 응답 대비 9.3%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78.6%)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그렇다’(66.4%)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15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9.8	21.9	17.5	26.2	21.9	2.7
2018	3,133	1.6	12.3	17.8	30.2	33.2	4.8
2019	3,530	7.1	18.7	15.4	23.6	30.2	5.1

표 II-15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530	7.1	18.7	15.4	23.6	30.2	5.1
성별	남 자	1,839	6.0	18.0	16.1	24.3	30.4	5.2
	여 자	1,691	8.3	19.5	14.5	22.8	29.9	5.0
연령	만 1 5 ~ 1 8 세	661	6.2	14.9	12.7	23.2	33.0	10.1
	만 1 9 ~ 2 9 세	1,431	6.1	18.9	16.8	21.8	32.2	4.2
	만 3 0 ~ 3 9 세	1,438	8.3	19.7	14.7	25.5	27.3	4.4
지역	서 울	652	3.2	13.5	17.3	27.6	34.0	4.3
	인 천 / 경 기	786	9.5	23.0	15.6	19.3	27.4	5.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6	20.1	16.5	21.6	25.3	7.0
	광주/전라/제주	492	8.5	21.6	13.9	27.2	25.4	3.5
	부산/울산/경남	570	6.6	19.3	15.8	23.0	31.6	3.8
	대 구 / 경 북	478	2.6	9.5	9.3	29.7	41.8	7.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6.0	14.5	13.2	23.0	33.0	10.4
	대학생/대학원생	540	4.8	19.3	16.1	22.6	33.4	3.9
	고 졸 이 하	901	8.9	19.1	14.2	21.7	30.8	5.3
	대 졸 이 상	1,507	7.0	19.4	16.3	25.1	28.1	4.1
주거	동 거	1,863	6.6	18.3	16.2	22.0	31.3	5.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7.6	19.2	14.5	25.3	29.0	4.6

15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분 중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51.7%(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0.2%+대부분 그렇다 27.1%+항상 그렇다 4.4%)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48.3%(전혀 그렇지 않다 8.6%+때때로 그렇다 24.2%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6%)로 조사돼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그렇다’(65.7%) 응답 대비 14.0%p 하락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63.2%)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그렇다’(66.0%)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15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6.1	26.3	17.4	28.1	19.7	2.5
2018	3,133	2.1	14.8	17.4	31.4	31.1	3.2
2019	3,530	8.6	24.2	15.6	20.2	27.1	4.4

표 II-15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530	8.6	24.2	15.6	20.2	27.1	4.4
성별	남 자	1,839	8.3	23.2	16.2	20.9	26.5	4.9
	여 자	1,691	8.9	25.2	14.9	19.4	27.8	3.8
연령	만 1 5 ~ 1 8 세	661	5.5	17.0	12.9	23.8	31.6	9.2
	만 1 9 ~ 2 9 세	1,431	7.3	24.6	15.7	19.8	28.7	3.8
	만 3 0 ~ 3 9 세	1,438	10.7	25.8	16.2	19.5	24.3	3.5
지역	서 울	652	4.8	23.0	19.3	24.8	25.1	3.0
	인 천 / 경 기	786	10.8	22.9	14.1	18.7	28.5	5.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7	24.8	17.2	19.0	26.6	4.7
	광주/전라/제주	492	8.1	29.1	18.3	19.7	20.8	4.0
	부산/울산/경남	570	13.4	27.2	11.6	15.8	28.9	3.1
	대 구 / 경 북	478	3.2	20.2	13.4	24.2	31.9	7.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5.1	15.7	13.2	23.6	32.3	10.2
	대학생/대학원생	540	6.1	24.5	14.6	22.1	30.2	2.5
	고 졸 이 하	901	12.5	23.3	14.3	16.7	28.0	5.3
	대 졸 이 상	1,507	7.9	26.6	17.2	20.8	24.5	3.1
주거 형태	동 거	1,863	8.0	22.2	15.6	20.5	28.5	5.1
	비 동 거 / 독 립	1,667	9.1	26.2	15.6	19.8	25.7	3.6

15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지난 1주간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4.8%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9.9%), ‘종종 있었다’(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극히 드물다’ 응답이 78.3%로 여자 71.0% 응답 대비 높고, 여자는 ‘가끔 있었다’(23.0%), ‘종종 있었다’(5.0%), ‘대부분 그랬다’(1.1%)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5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74.8	19.9	4.3	1.1
	성별	남 자	1,839	78.3	17.1	3.6	1.0
		여 자	1,691	71.0	23.0	5.0	1.1
연령	만 1 5 ~ 1 8 세		661	74.8	19.9	4.1	1.1
	만 1 9 ~ 2 9 세		1,431	76.0	17.8	5.1	1.1
	만 3 0 ~ 3 9 세		1,438	73.6	22.0	3.5	0.9
지역	서 울		652	77.1	18.9	3.5	0.6
	인 천 / 경 기		786	73.4	20.1	5.5	1.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4.1	20.6	3.8	1.5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75.1	19.4	3.5	2.0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75.1	21.0	3.2	0.7
	대 구 / 경 북		478	75.3	18.9	4.9	0.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75.4	19.7	4.1	0.9
	대학생/대학원생		540	75.2	19.4	4.2	1.2
	고 졸 이 하		901	75.6	18.2	5.1	1.1
	대 졸 이 상		1,507	74.2	21.0	3.8	1.0
주거 형태	동 거		1,863	74.6	20.3	4.2	1.0
	비 동 거 / 독 립		1,667	75.1	19.5	4.3	1.1

15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 비교적 잘 지냈다

- 지난 1주간 비교적 잘 지냈는지에 대해 ‘대부분 그랬다’ 응답이 59.0%로 가장 높고, ‘종종 있었다’(27.2%), ‘가끔 있었다’(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가 ‘대부분 그랬다’ 응답이 60.3%로 남자(5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5-18세에서 ‘대부분 그랬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부분 그랬다’(69.0%)의 응답이,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9.5%)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대부분 그랬다’에서 64.0%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5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 비교적 잘 지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6.1	7.8	27.2	59.0
	남	1,839	6.9	7.3	27.9	57.9
	여	1,691	5.1	8.3	26.4	60.3
연령	만 1 5 ~ 1 8 세	661	6.3	4.6	25.1	64.1
	만 1 9 ~ 2 9 세	1,431	6.4	8.5	26.7	58.4
	만 3 0 ~ 3 9 세	1,438	5.6	8.0	28.2	58.2
지역	서 울	652	6.4	8.8	20.2	64.6
	인 천 / 경 기	786	6.7	7.9	31.1	54.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5	8.7	23.3	58.5
	광 주 / 전 라 / 제 주	492	1.4	8.2	32.8	57.6
	부 산 / 울 산 / 경 남	570	5.2	7.6	30.4	56.8
	대 구 / 경 북	478	4.4	3.2	23.4	69.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6.6	4.4	25.0	64.0
	대학생/대학원생	540	5.9	8.7	26.2	59.2
	고 졸 이 하	901	7.3	7.1	30.0	55.6
	대 졸 이 상	1,507	5.3	8.6	26.3	59.8
주거	동 거	1,863	6.9	8.0	27.8	57.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5.1	7.5	26.5	60.9

15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 상당히 우울했다

- 지난 1주간 상당히 우울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6.7%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8.4%), ‘종종 있었다’(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가 ‘극히 드물다’ 응답이 79.2%로 여자(7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81.6%), 대구/경북(82.9%)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의 ‘극히 드물다’는 응답 비율이 79.2%로 상대적으로 높고, 고졸이하의 응답 비율이 75.6%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15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 상당히 우울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76.7	18.4	3.7	1.1
	남	1,839	79.2	16.3	3.3	1.2
	여	1,691	74.0	20.7	4.2	1.0
연령	만 15 ~ 18 세	661	78.2	16.9	3.8	1.1
	만 19 ~ 29 세	1,431	74.9	20.0	3.6	1.5
	만 30 ~ 39 세	1,438	78.2	17.2	3.8	0.8
지역	서울	652	81.6	14.3	2.9	1.2
	인천 / 경기	786	76.8	17.6	4.0	1.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0.5	24.0	4.6	0.8
	광주/전라/제주	492	78.2	14.1	6.1	1.5
	부산/울산/경남	570	70.7	25.6	3.4	0.3
	대구 / 경북	478	82.9	15.0	1.3	0.8
	중 / 고 등 학 생	582	79.2	15.9	3.6	1.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77.7	17.7	3.7	0.9
	고 졸 이 하	901	75.6	19.4	4.0	1.0
	대 졸 이 상	1,507	76.5	18.6	3.6	1.2
주거	동거	1,863	75.3	19.6	3.5	1.7
형태	비동거 / 독립	1,667	78.3	17.1	4.0	0.6

15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지난 1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61.7%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30.7%), ‘종종 있었다’(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극히 드물다’ 응답이 63.2%로 여자(6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극히 드물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 응답이 70.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극히 드물다’에서 65.9%로 높게 나타남

표 II-15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61.7	30.7	6.2	1.4
	남	1,839	63.2	30.0	5.5	1.3
	여	1,691	60.0	31.4	6.9	1.6
연령	만 15 ~ 18 세	661	65.7	28.8	4.8	0.8
	만 19 ~ 29 세	1,431	61.7	30.8	5.6	1.9
	만 30 ~ 39 세	1,438	60.5	31.1	7.2	1.2
지역	서울	652	60.0	33.5	5.5	1.0
	인천 / 경기	786	63.3	28.5	6.6	1.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9.3	31.9	7.7	1.0
	광주/전라/제주	492	58.6	33.3	6.0	2.0
	부산/울산/경남	570	59.3	32.9	6.2	1.6
	대구 / 경북	478	70.4	23.6	4.4	1.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65.9	28.9	4.2	0.9
	대학생/대학원생	540	63.2	29.3	5.3	2.1
	고 졸 이 하	901	61.9	29.3	7.4	1.4
	대 졸 이 상	1,507	60.1	32.3	6.3	1.4
주거 형태	동 거	1,863	62.0	30.9	5.5	1.7
	비 동 거 / 독 립	1,667	61.4	30.4	7.0	1.2

15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 잠을 설쳤다

- 지난 1주간 잠을 설쳤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63.4%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28.1%), ‘종종 있었다’(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극히 드물다’(66.2%), ‘가끔 있었다’(26.8%)의 응답 비율이 높고, 여자는 ‘종종 있었다’(7.6%), ‘대부분 그랬다’(2.5%)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극히 드물다’의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72.6%)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72.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5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 잠을 설쳤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63.4	28.1	6.6	1.9
성별	남	자	1,839	66.2	26.8	5.8	1.3
	여	자	1,691	60.3	29.6	7.6	2.5
연령	만 15 ~ 18 세		661	73.7	20.3	4.4	1.6
	만 19 ~ 29 세		1,431	63.4	27.7	6.6	2.2
	만 30 ~ 39 세		1,438	60.3	30.9	7.3	1.6
지역	서울		652	65.0	27.8	5.9	1.3
	인천 / 경기		786	61.6	28.8	6.6	3.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61.4	28.2	8.7	1.7
	광주 / 전라 / 제주		492	65.4	25.7	7.1	1.8
	부산 / 울산 / 경남		570	59.7	31.2	7.8	1.2
	대구 / 경북		478	72.6	24.5	2.5	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72.3	21.6	4.4	1.7
	대학생/대학원생		540	66.6	24.7	7.0	1.8
	고 졸 이 하		901	63.4	28.0	6.4	2.3
	대 졸 이 상		1,507	60.3	30.9	7.1	1.7
주거 형태	동 거		1,863	64.6	27.1	6.0	2.3
	비 동 거 / 독 립		1,667	62.1	29.3	7.3	1.4

15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지난 1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9.5%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5.5%), ‘종종 있었다’(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만15-18세에서 ‘극히 드물다’ 응답(82.7%) 비율이 다른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84.5%), 대구/경북(83.3%) 지역에서 타 지역대비 ‘극히 드물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5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79.5	15.5	3.9	1.1
	남	1,839	80.3	14.6	3.8	1.4
	여	1,691	78.5	16.5	4.1	0.8
연령	만 15 ~ 18 세	661	82.7	12.9	2.4	2.0
	만 19 ~ 29 세	1,431	78.7	16.3	4.0	0.9
	만 30 ~ 39 세	1,438	79.3	15.4	4.3	1.0
지역	서울	652	79.9	15.8	3.8	0.5
	인천 / 경기	786	78.5	15.6	3.9	2.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6.3	15.4	7.0	1.2
	광주/전라/제주	492	84.5	11.7	3.4	0.3
	부산/울산/경남	570	77.9	18.9	3.1	0.1
	대구 / 경북	478	83.3	13.5	1.5	1.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82.8	12.6	2.3	2.3
	대학생/대학원생	540	80.3	14.9	4.0	0.8
	고 졸 이 하	901	78.7	16.4	4.0	0.9
	대 졸 이 상	1,507	78.8	15.9	4.3	1.1
주거	동	1,863	79.2	15.8	3.5	1.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79.7	15.2	4.4	0.8

15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지난 1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했는지에 대해 ‘대부분 그랬다’ 응답이 5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종종 있었다’(26.5%) 순임
- 지역별로 서울(57.7%), 대구/경북(57.6%) 지역에서 ‘대부분 그랬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로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대부분 그랬다’는 응답이 53.7%로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들의 ‘대부분 그랬다’ 응답 47.7%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5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11.5	11.4	26.5	50.6
	성별	남	1,839	12.8	10.9	27.3	49.0
		여	1,691	10.0	12.0	25.6	52.4
연령	만 15 ~ 18 세		661	11.4	8.4	25.1	55.1
	만 19 ~ 29 세		1,431	11.0	12.0	27.5	49.5
	만 30 ~ 39 세		1,438	12.0	11.7	25.9	50.5
지역	서울		652	10.0	9.9	22.4	57.7
	인천 / 경기		786	12.6	13.2	29.5	44.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3.9	11.5	26.4	48.1
	광주/전라/제주		492	5.6	14.2	30.0	50.3
	부산/울산/경남		570	11.7	9.7	26.5	52.2
	대구 / 경북		478	13.4	7.7	21.3	57.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1.0	9.2	24.5	55.3
	대학생/대학원생		540	13.0	8.7	30.1	48.2
	고 졸 이 하		901	11.6	10.9	28.7	48.8
	대 졸 이 상		1,507	11.0	13.1	24.5	51.4
주거 형태	동 거		1,863	12.0	11.7	28.5	47.7
	비 동 거 / 독 립		1,667	10.9	11.0	24.4	53.7

16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지난 1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82.8%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2.4%), ‘종종 있었다’(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77.2%) 지역에서 타 지역대비 ‘극히 드물다’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II-16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82.8	12.4	3.8	1.0
	남	1,839	82.5	12.3	3.9	1.2
	여	1,691	83.1	12.5	3.5	0.8
연령	만 15 ~ 18 세	661	83.6	12.9	2.1	1.4
	만 19 ~ 29 세	1,431	82.5	13.0	3.7	0.8
	만 30 ~ 39 세	1,438	82.9	11.6	4.3	1.2
지역	서울	652	82.8	11.3	4.8	1.1
	인천 / 경기	786	83.8	11.7	3.6	0.9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80.9	12.5	5.3	1.3
	광주/전라/제주	492	84.6	12.3	2.8	0.3
	부산/울산/경남	570	77.2	17.7	3.4	1.7
	대구 / 경북	478	89.4	8.6	1.4	0.6
	중 / 고 등 학 생	582	83.8	12.3	2.4	1.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4.4	11.4	3.7	0.6
	고 졸 이 하	901	81.8	13.4	3.7	1.2
	대 졸 이 상	1,507	82.7	12.2	4.2	0.9
주거	동 거	1,863	81.7	13.6	3.8	0.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84.0	11.1	3.7	1.1

16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 마음이 슬펐다

- 지난 1주간 마음이 슬펐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8.7%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7.1%), ‘종종 있었다’(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극히 드물다’(81.1%) 응답 비율이 높고, ‘극히 드물다’를 제외한 3개 항목에서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지역별로 대구/경북(85.6%) 지역에서 타 지역대비 ‘극히 드물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6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 마음이 슬펐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78.7	17.1	3.1	1.1
	남	1,839	81.1	15.3	2.7	0.9
	여	1,691	76.1	19.0	3.5	1.3
연령	만 15 ~ 18 세	661	79.3	16.2	3.4	1.1
	만 19 ~ 29 세	1,431	78.6	17.7	2.5	1.1
	만 30 ~ 39 세	1,438	78.7	16.6	3.6	1.1
지역	서울	652	79.2	16.4	3.2	1.2
	인천 / 경기	786	79.7	15.7	3.5	1.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4.0	21.1	3.7	1.2
	광주/전라/제주	492	79.7	15.6	3.0	1.7
	부산/울산/경남	570	75.3	20.5	3.3	0.9
	대구 / 경북	478	85.6	13.2	0.4	0.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79.2	16.4	3.5	0.9
	대학생/대학원생	540	77.3	18.8	2.1	1.8
	고 졸 이 하	901	77.7	17.4	3.4	1.5
	대 졸 이 상	1,507	79.6	16.5	3.1	0.8
주거 형태	동 거	1,863	78.4	17.5	2.7	1.4
	비 동 거 / 독 립	1,667	79.1	16.6	3.5	0.8

16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지난 1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에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86.2%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0.5%), ‘종종 있었다’(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90.1%)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의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대부분 그랬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6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86.2	10.5	2.3	1.1
	성별	남 자	1,839	85.4	10.8	2.5	1.4
		여 자	1,691	87.1	10.1	2.1	0.7
연령	만 15 ~ 18 세		661	86.7	10.1	1.8	1.4
	만 19 ~ 29 세		1,431	86.3	10.2	2.2	1.3
	만 30 ~ 39 세		1,438	85.9	10.9	2.5	0.7
지역	서울		652	82.7	14.1	2.3	0.9
	인천 / 경기		786	89.2	8.1	1.6	1.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82.0	11.8	4.3	1.9
	광주/전라/제주		492	87.6	9.2	2.4	0.7
	부산/울산/경남		570	84.9	11.2	2.9	1.0
	대구 / 경북		478	90.1	8.9	0.7	0.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86.4	10.4	2.0	1.2
	대학생/대학원생		540	87.7	8.9	2.8	0.6
	고 졸 이 하		901	86.0	10.6	1.9	1.5
	대 졸 이 상		1,507	85.8	10.9	2.4	0.9
주거	동 거		1,863	85.5	10.9	2.4	1.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67	86.9	10.0	2.2	0.9

16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지난 1주간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극히 드물다’ 응답이 77.5%로 가장 높고, ‘가끔 있었다’(17.4%), ‘종종 있었다’(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히 드물다’(81.6%)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로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극히 드물다’는 응답이 79.3%로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들의 75.9%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6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3,530	77.5	17.4	3.7	1.3
	남	1,839	77.5	17.6	3.7	1.2
	여	1,691	77.6	17.2	3.7	1.5
연령	만 15 ~ 18 세	661	78.4	15.1	5.6	0.8
	만 19 ~ 29 세	1,431	76.9	18.2	3.3	1.5
	만 30 ~ 39 세	1,438	77.9	17.3	3.5	1.3
지역	서울	652	78.4	17.9	2.6	1.1
	인천 / 경기	786	79.5	14.3	4.8	1.4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1.8	21.9	5.5	0.7
	광주/전라/제주	492	77.1	18.5	3.5	0.8
	부산/울산/경남	570	75.2	20.1	2.2	2.5
	대구 / 경북	478	81.6	15.1	2.0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77.5	15.5	6.4	0.6
	대학생/대학원생	540	78.2	17.9	3.0	1.0
	고 졸 이 하	901	77.5	16.0	4.1	2.4
	대 졸 이 상	1,507	77.4	18.5	3.1	1.1
주거 형태	동 거	1,863	75.9	18.6	4.2	1.3
	비 동 거 / 독 립	1,667	79.3	16.1	3.2	1.4

164) 규칙적인 운동 여부

- 1회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 물어본 결과 32.1%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9%로 조사됨
- 2018년 조사결과(28.4%) 대비 ‘예’라는 긍정 응답이 3.7%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24.4%)보다 남자(39.0%)가 규칙적 운동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만30-39세(29.6%)의 규칙적 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24.3%)의 규칙적 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로 동거 중인 청년들의 규칙적 운동 응답이 35.0%로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29.0% 보다 높음

표 II-164 규칙적인 운동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27.6	72.4
2017	2,714	36.9	63.1
2018	3,133	28.4	71.6
2019	3,530	32.1	67.9

표 II-164-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32.1	67.9
	남 자	1,839	39.0	61.0
	여 자	1,691	24.4	75.6
연령	만 15 ~ 18 세	661	33.4	66.6
	만 19 ~ 29 세	1,431	34.1	65.9
	만 30 ~ 39 세	1,438	29.6	70.4
지역	서 울	652	31.1	68.9
	인 천 / 경 기	786	33.9	66.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5.5	64.5
	광주/전라/제주	492	30.4	69.6
	부산/울산/경남	570	33.7	66.3
	대 구 / 경 북	478	22.0	78.0
	중 / 고 등 학 생	582	34.6	65.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37.5	62.5
	고 졸 이 하	901	24.3	75.7
	대 졸 이 상	1,507	34.3	65.7
주거 형태	동 거	1,863	35.0	65.0
	비 동 거 / 독 립	1,667	29.0	71.0

165) 규칙적인 운동 빈도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지속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이 36.1%로 가장 높고, ‘일주일에 2번’(17.6%), ‘일주일에 5번’(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결과 대비 ‘일주일에 6번’ 응답은 3.0%p, ‘매일’ 3.5%p 상승하여 꾸준히 운동하는 청년들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임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일주일에 5번’, ‘매일’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음
- 부모와 함께 동거 중인 청년들의 경우 ‘일주일에 4번’ 이상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65 규칙적인 운동 빈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2016	699	7.3	20.0	27.9	17.3	15.4	2.9	9.2
2017	1,007	7.2	15.5	30.1	9.3	19.8	4.3	13.8
2018	918	7.7	20.4	36.8	12.1	15.8	2.2	5.1
2019	1,097	5.9	17.6	36.1	12.7	13.8	5.2	8.6

*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표 II-165-1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 1번	일주일 2번	일주일 3번	일주일 4번	일주일 5번	일주일 6번	매일
전 체		1,097	5.9	17.6	36.1	12.7	13.8	5.2	8.6
성별	남 자	701	6.4	13.7	36.4	14.1	13.7	5.9	9.9
	여 자	396	5.0	24.6	35.7	10.4	14.1	4.0	6.3
연령	만 15 ~ 18 세	212	6.1	19.9	20.0	12.2	18.9	6.2	16.8
	만 19 ~ 29 세	472	3.6	15.7	37.0	14.9	14.2	6.1	8.4
	만 30 ~ 39 세	413	8.4	19.1	40.5	10.3	11.7	3.8	6.1
지역	서 울	205	4.8	31.9	39.6	8.5	4.5	0.5	10.2
	인 천 / 경 기	268	6.2	16.1	39.1	16.2	11.6	6.7	4.2
	대전/충청/세종/강원	185	3.6	9.7	37.2	11.9	19.2	4.1	14.2
	광주/전라/제주	141	9.3	10.9	30.4	10.4	20.1	7.2	11.8
	부산/울산/경남	189	7.6	15.0	30.0	12.0	17.7	9.1	8.6
	대 구 / 경 북	109	3.4	17.3	30.8	15.0	22.8	1.4	9.3
	중 / 고 등 학 생	192	6.2	20.0	21.3	10.2	17.8	6.4	18.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95	4.9	14.0	37.8	14.3	17.7	3.9	7.3
	고 졸 이 하	213	3.5	16.1	38.2	11.0	13.9	7.8	9.6
	대 졸 이 상	497	7.1	19.0	38.2	13.5	11.5	4.3	6.5
주거 형태	동 거	619	4.7	16.7	33.6	14.8	14.1	6.4	9.7
	비 동 거 / 독 립	478	7.4	18.8	39.4	10.1	13.4	3.6	7.3

*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166)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1.2%(어느 정도 중요하다 65.0%+ 매우 중요하다 16.2%)로 ‘중요하지 않다’ 4.8%(전혀 중요하지 않다 0.6%+ 별로 중요하지 않다 4.2%) 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조사 결과 대비 ‘중요하다’(85.0%)는 응답은 3.8%p 하락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은 2.7%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83.2%)가 남자(79.4%)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81.9%)의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66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016	2,534	0.3	2.4	15.7	66.8	14.7
2017	2,714	0.8	4.5	16.4	62.6	15.6
2018	3,133	0.1	2.0	12.8	59.3	25.7
2019	3,530	0.6	4.2	14.0	65.0	16.2

표 II-166-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	체	3,530	0.6	4.2	14.0	65.0	16.2
성별	남 자	1,839	0.7	4.9	15.0	65.2	14.2
	여 자	1,691	0.6	3.4	12.9	64.8	18.3
연령	만 15 ~ 18 세	661	0.6	5.9	15.5	60.1	17.9
	만 19 ~ 29 세	1,431	0.6	4.1	13.3	65.3	16.7
	만 30 ~ 39 세	1,438	0.7	3.7	14.2	66.1	15.2
지역	서 울	652	0.5	2.8	12.7	68.6	15.4
	인 천 / 경 기	786	0.2	4.2	14.3	62.4	19.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4	5.0	13.5	65.7	13.4
	광주/전라/제주	492	0.0	4.5	13.7	64.9	16.9
	부산/울산/경남	570	0.7	6.1	15.1	63.6	14.5
	대 구 / 경 북	478	0.6	2.8	15.0	67.4	14.2
	중 / 고 등 학 생	582	0.6	6.4	17.3	58.1	17.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0.3	3.5	12.4	69.7	14.0
	고 졸 이 하	901	0.9	5.8	15.4	64.3	13.6
	대 졸 이 상	1,507	0.6	2.9	12.9	65.5	18.1
주거 형태	동 거	1,863	0.8	4.6	14.2	64.1	16.3
	비 동 거 / 독 립	1,667	0.5	3.7	13.8	66.0	16.1

167) 성형수술 경험

- 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을 모두 포함, 성형수술 경험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0.7%이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3%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여자(17.8%)가 남자(1.7%)보다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1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167 성형수술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12.7	87.3
2017	2,714	11.8	88.2
2018	3,133	10.4	89.6
2019	3,530	9.3	90.7

표 II-167-1 성형수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530	9.3	90.7
	자			
성별	남	1,839	1.7	98.3
	여	1,691	17.8	82.2
연령	만 15 ~ 18 세	661	3.9	96.1
	만 19 ~ 29 세	1,431	10.1	89.9
	만 30 ~ 39 세	1,438	10.1	89.9
지역	서울	652	10.7	89.3
	인천 / 경기	786	10.5	89.5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8.2	91.8
	광주/전라/제주	492	6.2	93.8
	부산/울산/경남	570	10.3	89.7
	대구 / 경북	478	6.0	94.0
	충 / 고 등 학 생	582	3.6	96.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4	91.6
	고 졸 이 하	901	9.1	90.9
	대 졸 이 상	1,507	11.1	88.9
주거 형태	동 거	1,863	8.2	91.8
	비 동 거 / 독 립	1,667	10.5	89.5

168) 성형수술 목적

-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성형수술의 주 목적으로 ‘미용(쌍꺼플, 보톡스, 지방제거 등)’이 92.9%로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7.1%)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작년 조사 결과 대비 ‘미용’ 목적 성형수술 비율은 4.8%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의 대부분이 ‘미용’(96.0%)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였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의료’의 목적이 3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응답비율이 높음
- 부모 비동거/독립이 95.9%로 동거(89.2%)에 비해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68 성형수술 목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플, 보톡스, 지방제거 등)
2016	321	10.0	90.0
2017	316	11.3	88.7
2018	352	2.3	97.7
2019	318	7.1	92.9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68-1 성형수술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전	체	318	7.1	92.9
성별	남 자	29	36.0	64.0
	여 자	289	4.0	96.0
연령	만 1 5 ~ 1 8 세	23	18.9	81.1
	만 1 9 ~ 2 9 세	148	7.7	92.3
	만 3 0 ~ 3 9 세	147	5.2	94.8
지역	서 울	73	5.9	94.1
	인 천 / 경 기	84	3.6	96.4
	대전/충청/세종/강원	45	9.5	90.5
	광 주/전라/제주	29	13.5	86.5
	부 산/울 산/경 남	53	14.2	85.8
	대 구 / 경 북	34	1.7	98.3
	중 / 고 등 학 생	19	23.5	76.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5	4.1	95.9
	고 졸 이 하	82	8.2	91.8
	대 졸 이 상	172	6.0	94.0
주거 형태	동 거	137	10.8	89.2
	비 동 거 / 독 립	181	4.1	95.9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169)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 ‘자기 만족을 위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18.6%),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결과 대비 ‘자기만족을 위해’라는 이유는 29.6%p 상승한 반면,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20.9%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9.8%),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9.7%)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18.9%), ‘자기만족을 위해’(60.1%)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의 응답이 높음

표 II-169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	기타
2016	289	53.8	31.4	9.1	3.2	-	1.6
2017	279	48.3	31.3	4.5	4.4	10.2	1.3
2018	345	39.5	15.5	10.8	4.0	30.3	0.0
2019	297	18.6	11.6	5.4	4.3	59.9	0.2

* 주 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2) 보기문항 중 ‘자기만족을 위해’는 2017년부터 추가되었음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9% 있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69-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	기타
전	체	297	18.6	11.6	5.4	4.3	59.9	0.2
성별	남 자	20	14.1	9.7	9.8	9.7	56.7	0.0
	여 자	277	18.9	11.7	5.1	3.9	60.1	0.2
연령	만 1 5 ~ 1 8 세	21	16.4	20.0	0.0	0.0	63.7	0.0
	만 1 9 ~ 2 9 세	137	24.6	12.9	7.0	4.1	50.9	0.5
	만 3 0 ~ 3 9 세	139	12.8	9.5	4.3	4.9	68.5	0.0
지역	서 울	69	22.3	12.4	5.1	5.2	54.2	0.9
	인 천 / 경 기	81	12.5	13.3	3.3	5.0	65.9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1	19.0	9.5	1.9	9.1	60.4	0.0
	광주/전라/제주	25	9.3	9.2	12.1	0.0	69.4	0.0
	부산/울산/경남	48	25.8	11.6	10.4	0.0	52.2	0.0
	대 구 / 경 북	33	31.8	5.1	6.8	2.6	53.7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7	21.6	20.5	0.0	0.0	58.0	0.0
	대학생/대학원생	43	24.7	13.5	6.5	6.7	48.7	0.0
	고 졸 이 하	76	13.9	8.6	3.8	6.9	66.8	0.0
	대 졸 이 상	161	19.0	12.0	6.2	2.8	59.6	0.4
주거 형태	동 거	124	21.6	9.3	5.2	2.4	61.0	0.5
	비 동 거 / 독 립	173	16.2	13.4	5.6	5.8	59.1	0.0

* 주: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170)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4.6%(⑤+⑥+⑦)로,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28.2%: ①+②+③)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32.2%로 높은 반면 여자는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9.3%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가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2.2%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3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70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3.1	13.0	18.4	24.8	22.3	16.2	2.1
2017	2,714	3.4	13.4	15.2	24.6	19.5	19.5	4.5
2018	3,133	1.1	12.2	17.7	23.4	25.8	18.3	1.5
2019	3,530	2.1	13.5	12.6	27.2	24.0	17.6	3.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530	2.1	13.5	12.6	27.2	24.0	17.6	3.0
성별	남	자	1,839	2.4	16.3	13.5	27.5	22.7	15.1	2.5
	여	자	1,691	1.8	10.3	11.6	27.0	25.4	20.4	3.5
연령	만 1 5 ~ 1 8 세		661	0.4	9.2	9.4	26.7	28.9	21.7	3.7
	만 1 9 ~ 2 9 세		1,431	1.3	13.6	12.8	27.1	25.2	16.8	3.2
	만 3 0 ~ 3 9 세		1,438	3.4	14.6	13.4	27.5	21.3	17.3	2.5
지역	서 울		652	0.9	12.3	14.0	36.7	22.2	13.0	1.0
	인 천 / 경 기		786	2.1	10.4	11.8	23.5	25.7	22.9	3.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0	16.5	10.2	25.5	23.8	18.4	3.7
	광주/전라/제주		492	2.2	15.4	13.7	27.1	25.2	13.6	2.9
	부산/울산/경남		570	3.9	18.0	12.4	24.7	21.3	17.7	2.0
	대 구 / 경 북		478	2.0	12.9	15.5	25.9	25.2	13.2	5.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5	8.6	9.0	27.7	29.1	21.9	3.2
	대학생/대학원생		540	1.8	13.3	11.3	27.3	27.8	14.0	4.5
	고 졸 이 하		901	2.8	17.0	14.0	26.0	22.2	15.7	2.3
	대 졸 이 상		1,507	2.2	12.6	13.1	27.8	22.6	18.9	2.8
주거 형태	동 거		1,863	1.4	12.6	14.0	26.9	24.7	17.6	2.8
	비 동 거 / 독 립		1,667	2.9	14.4	11.1	27.6	23.2	17.7	3.1

17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현실과 이상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70.2%(①+②+③)로 나타나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11.6%: ⑤+⑥+⑦)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61.4%)이 8.8%p 상승한 반면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16.4%)은 4.8%p 하락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는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75.3%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17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12.4	28.8	26.8	18.0	9.6	4.0	0.4
2017	2,714	11.6	30.8	23.9	18.6	7.8	5.9	1.4
2018	3,133	6.5	20.7	34.2	22.2	11.8	4.4	0.2
2019	3,530	10.6	32.7	26.9	18.3	6.8	3.7	1.1

표 II-171-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명, %)

구분			← 현실							이상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530	10.6	32.7	26.9	18.3	6.8	3.7	1.1
성별	남	자	1,839	11.2	32.5	25.3	19.1	6.6	4.4	0.9
	여	자	1,691	9.9	32.9	28.7	17.3	7.1	2.8	1.3
연령	만 15 ~ 18 세		661	8.0	33.3	26.5	19.5	7.9	3.6	1.3
	만 19 ~ 29 세		1,431	10.0	32.2	28.6	16.4	7.8	3.7	1.3
	만 30 ~ 39 세		1,438	11.9	33.1	25.3	19.8	5.5	3.7	0.8
지역	서 울		652	9.9	28.6	33.6	17.6	6.9	3.0	0.4
	인 천 / 경 기		786	8.9	33.0	28.5	17.3	6.5	4.3	1.4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2.7	33.1	18.7	22.0	5.9	5.6	2.0
	광주/전라/제주		492	14.1	34.0	17.7	20.2	9.1	3.4	1.5
	부산/울산/경남		570	10.4	34.8	26.9	17.8	6.8	3.2	0.1
	대 구 / 경 북		478	11.1	35.2	29.0	16.1	6.8	0.9	0.9
	중 / 고 등 학 생		582	7.9	32.8	27.2	18.8	7.9	3.9	1.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9.4	33.5	27.5	16.7	8.2	3.4	1.2
	고 졸 이 하		901	11.1	31.1	25.8	20.2	6.3	4.3	1.1
	대 졸 이 상		1,507	11.2	33.3	27.3	17.5	6.4	3.3	0.9
주거 형태	동 거		1,863	9.6	31.8	28.1	17.2	7.6	4.3	1.4
	비 동 거 / 독 립		1,667	11.6	33.6	25.6	19.4	6.0	3.0	0.7

172)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3.9%(①+②+③)로 나타나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20.6%: ⑤+⑥+⑦)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51.2%)이 2.7%p 상승하였고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22.1%)은 1.4%p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56.9%)이 높고, 여자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22.5%)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6.7%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72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9.7	21.1	22.8	25.3	14.5	5.4	1.2
2017	2,714	8.7	22.9	20.1	24.7	12.0	9.0	2.6
2018	3,133	4.0	17.4	29.8	26.7	17.6	4.3	0.2
2019	3,530	8.7	24.1	21.1	25.5	12.0	6.9	1.8

표 II-172-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명, %)

구분			← 결과				과정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530	8.7	24.1	21.1	25.5	12.0	6.9	1.8	
		남 자	1,839	9.4	25.2	22.4	24.2	10.6	6.3	1.9
		여 자	1,691	7.9	22.9	19.6	27.0	13.4	7.5	1.6
연령	만 15 ~ 18 세		661	8.1	23.0	17.7	25.1	11.8	10.7	3.6
	만 19 ~ 29 세		1,431	8.2	24.5	22.0	25.0	12.7	6.0	1.7
	만 30 ~ 39 세		1,438	9.4	24.0	21.1	26.2	11.3	6.6	1.3
지역	서울		652	9.4	22.4	26.5	25.1	13.2	3.3	0.2
	인천 / 경기		786	7.2	21.1	19.6	25.4	15.4	8.3	3.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9.7	27.7	18.6	22.6	11.3	7.8	2.3
	광주/전라/제주		492	9.7	23.7	20.0	28.4	8.7	8.4	1.1
	부산/울산/경남		570	10.7	29.1	21.0	21.9	7.8	8.0	1.4
	대구 / 경북		478	6.6	25.5	19.2	33.7	8.8	4.8	1.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8.1	23.0	16.4	24.8	12.6	11.4	3.5
	대학생/대학원생		540	8.1	25.0	23.1	23.4	13.3	5.7	1.4
	고 졸 이 하		901	8.9	26.6	21.2	25.3	10.8	5.1	2.1
	대 졸 이 상		1,507	8.9	22.6	21.4	26.5	12.0	7.2	1.3
주거 형태	동 거		1,863	8.6	24.1	21.4	24.4	12.3	7.1	2.1
	비 동 거 / 독 립		1,667	8.8	24.1	20.7	26.7	11.6	6.6	1.5

17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개인과 집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0.8%(①+②+③)로 나타나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22.7%: ⑤+⑥+⑦)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38.5%)은 2.3%p 상승하였고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25.0%)은 2.3%p 하락하여, 2017년 이후 개인 중시 응답은 꾸준히 상승, 집단 중시 응답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
- 성별로 남자의 결과 중시 응답이 24.8%로 여자(20.3%)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집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표 II-173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6.3	13.0	22.1	37.4	14.6	5.6	1.0
2017	2,714	4.0	14.0	20.3	36.5	13.3	9.5	2.4
2018	3,133	1.8	12.2	24.5	36.5	17.7	6.1	1.2
2019	3,530	3.8	14.5	22.5	36.6	13.4	7.4	1.9

표 II-173-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530	3.8	14.5	22.5	36.6	13.4	7.4	1.9
성별	남 자	1,839	3.7	14.4	21.7	35.3	14.6	8.5	1.7	
	여 자	1,691	3.8	14.6	23.3	38.0	12.0	6.3	2.0	
연령	만 1 5 ~ 1 8 세	661	4.4	16.3	17.7	35.1	13.1	11.0	2.3	
	만 1 9 ~ 2 9 세	1,431	4.0	14.0	24.0	35.3	13.7	7.2	1.8	
	만 3 0 ~ 3 9 세	1,438	3.4	14.5	22.3	38.3	13.2	6.6	1.7	
지역	서 울	652	2.9	15.7	26.6	37.7	13.3	3.6	0.3	
	인 천 / 경 기	786	2.9	13.9	20.9	37.8	14.4	7.8	2.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1	12.9	20.4	38.2	14.3	7.5	1.7	
	광주/전라/제주	492	6.1	15.8	24.5	31.7	9.4	9.8	2.8	
	부산/울산/경남	570	4.4	16.6	20.6	31.5	13.9	10.6	2.4	
	대 구 / 경 북	478	3.2	11.6	22.8	41.2	12.2	6.9	2.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2	16.3	17.6	35.2	13.0	11.2	2.5	
	대학생/대학원생	540	4.7	15.1	24.1	32.5	16.2	6.0	1.5	
	고 졸 이 하	901	3.9	14.2	22.5	39.0	10.8	7.1	2.5	
	대 졸 이 상	1,507	3.3	14.1	23.1	36.8	14.1	7.2	1.5	
주거 형태	동 거	1,863	3.7	14.6	23.2	34.8	13.3	8.4	2.0	
	비 동 거 / 독 립	1,667	3.9	14.4	21.7	38.5	13.4	6.4	1.7	

1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재산·경제력’(31.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24.6%), ‘건강’(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화목한 가정’(+7.0%p), ‘건강’(+5.3%p) 응답에 대한 결과는 상승한 반면 ‘재산·경제력’(-5.3%p), ‘직업·직장’(-4.5%p)은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재산·경제력’(36.0%), 여자는 ‘화목한 가정’(28.7%)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와 만30-39세 등 성인들은 ‘재산·경제력’(만19-29세 32.0%, 만30-39세 31.7%)을 중시하고 특히 만30-39세는 ‘화목한 가정’(31.7%)도 중시하는 데 반해 만15-18세 청소년들은 ‘친구·대인관계’(10.1%), ‘꿈·목표의식’(9.0%)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재산·경제력’(38.5%)을, 대졸이상은 ‘화목한 가정’(28.5%)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에 비해 비동거/독립인 경우 ‘화목한 가정’(31.9%)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재산· 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 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 직장	연인 (이성 관계 등)	친구· 대인 관계	꿈· 목표 의식	기타
2016	2,534	24.3	27.1	12.3	8.0	4.9	0.6	11.4	1.4	5.0	4.9	0.0
2017	2,714	27.8	26.4	10.1	14.2	6.4	0.7	4.5	0.7	4.3	4.7	0.0
2018	3,133	36.5	17.6	10.4	11.0	4.9	0.6	9.0	1.5	5.3	3.3	0.0
2019	3,530	31.2	24.6	7.3	16.3	6.9	0.7	4.5	0.7	3.4	4.4	0.0

표 II-174-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산 경제력	회복한 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 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 직장	연인 (이성 관계 등)	친구· 대인 관계	꿈· 목표 의식
전	체	3,530	31.2	24.6	7.3	16.3	6.9	0.7	4.5	0.7	3.4	4.4
	남 자	1,839	36.0	20.8	6.6	14.9	6.5	0.6	5.5	0.6	3.7	4.8
	여 자	1,691	25.8	28.7	8.2	17.9	7.4	0.9	3.3	0.8	3.0	4.0
연령	만 15 ~ 18 세	661	26.8	19.6	8.7	13.2	5.8	0.9	5.4	0.6	10.1	9.0
	만 19 ~ 29 세	1,431	32.0	19.0	9.0	15.1	7.6	0.7	5.8	1.2	3.9	5.8
	만 30 ~ 39 세	1,438	31.7	31.7	5.2	18.5	6.6	0.7	2.8	0.2	0.9	1.7
지역	서울	652	32.6	22.1	8.1	14.1	7.2	0.1	4.8	0.5	2.8	7.5
	인천 / 경기	786	31.3	26.1	7.9	13.7	8.1	1.1	3.4	0.7	3.2	4.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8.7	22.9	9.6	20.0	5.7	0.8	3.3	0.6	4.1	4.3
	광주/전라/제주	492	39.8	23.3	6.8	13.2	4.7	1.3	4.0	0.6	3.3	2.9
	부산/울산/경남	570	25.0	27.1	5.1	21.1	7.5	0.4	6.0	1.6	4.7	1.6
	대구 / 경북	478	31.5	24.4	4.5	20.6	5.5	0.5	7.0	0.1	2.1	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6.3	21.3	9.4	12.8	5.6	1.0	4.6	0.7	9.5	8.8
	대학생/대학원생	540	28.1	16.8	10.9	15.8	6.8	0.9	6.6	1.3	5.3	7.6
	고 졸 이 하	901	38.5	23.4	4.4	16.8	6.1	0.4	4.2	0.5	2.8	3.0
	대 졸 이 상	1,507	29.1	28.5	7.4	17.1	7.7	0.8	3.9	0.6	1.7	3.2
주거 형태	동 거	1,863	31.0	17.6	8.9	15.3	7.7	0.8	6.0	1.0	5.1	6.6
	비 동 거 / 독 립	1,667	31.3	31.9	5.7	17.4	6.1	0.6	2.8	0.4	1.5	2.2

17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5.1%가 ‘그렇다’(그렇다 38.1%+매우 그렇다 7.0%)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 24.5%(전혀 그렇지 않다 5.9%+그렇지 않다 18.7%)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그렇다’(41.0%)는 응답이 4.1%p 상승했고 ‘그렇지 않다’(21.1%)는 응답도 4.4%p 상승하여 양쪽 모두 상승함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응답이 49.9%로 나타나 남자(40.7%) 대비 높음
- 연령별로 ‘그렇다’는 만15-18세(50.8%), 만30-39세(49.3%)의 응답이 만 19-29세(39.4%)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1.9%), 대구/경북(50.2%)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비교적 높은 편임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52.8%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7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3.2	17.7	44.6	32.3	2.1
2017	2,714	3.2	17.5	38.6	35.4	5.4
2018	3,133	2.9	17.2	39.0	38.9	2.1
2019	3,530	5.9	18.7	30.3	38.1	7.0

표 II-175-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5.9	18.7	30.3	38.1	7.0
성별	남 자	1,839	7.6	21.1	30.5	34.8	5.9
	여 자	1,691	4.0	15.9	30.1	41.7	8.2
연령	만 1 5 ~ 1 8 세	661	8.4	13.8	27.0	40.8	10.0
	만 1 9 ~ 2 9 세	1,431	6.8	21.9	31.9	33.0	6.4
	만 3 0 ~ 3 9 세	1,438	4.2	16.8	29.7	42.5	6.8
지역	서 울	652	5.2	19.5	31.3	39.1	5.0
	인 천 / 경 기	786	6.2	22.4	28.0	37.2	6.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5	20.2	31.2	33.6	9.5
	광주/전라/제주	492	12.1	18.5	28.8	34.2	6.4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3.7	12.6	31.8	45.1	6.8
	대 구 / 경 북	478	3.6	11.5	34.6	38.5	11.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7.0	13.4	26.8	43.0	9.8
	대학생/대학원생	540	6.1	21.3	29.7	33.6	9.4
	고 졸 이 하	901	8.5	21.8	29.3	35.8	4.5
	대 졸 이 상	1,507	4.1	17.2	32.0	39.7	7.1
주거 형태	동 거	1,863	7.1	20.0	30.0	35.7	7.3
	비 동 거 / 독 립	1,667	4.7	17.3	30.7	40.6	6.7

17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95.0%로 나타났으며 평균 친구 수는 4.7명이었음
- 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92.1%) 대비 2.9%p 상승하였으나 평균 친구 수는 4.7명으로 변동 없음
- 여자(95.1%)가 남자(94.9%)보다 친구가 있는 비율이 소폭 높은 반면 친구 수는 남자가 0.5명 많음
- 친구가 있다는 비율 및 1인당 친구 수는 만15-18세가 타 연령 대비 많게 나타남

표 II-176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2016	2,534	8.7	91.3	3.2
2017	2,714	3.9	96.1	5.0
2018	3,133	7.9	92.1	4.7
2019	3,530	5.0	95.0	4.7

표 II-176-1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전	체	3,530	5.0	95.0	4.7
성별	남 자	1,839	5.1	94.9	4.9
	여 자	1,691	4.9	95.1	4.4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4	97.6	6.0
	만 1 9 ~ 2 9 세	1,431	5.7	94.3	4.7
	만 3 0 ~ 3 9 세	1,438	5.2	94.8	4.2
지역	서 울	652	4.8	95.2	4.1
	인 천 / 경 기	786	6.2	93.8	4.8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8	96.2	4.9
	광 주/전라/제주	492	3.5	96.5	5.6
	부 산/울산/경남	570	6.2	93.8	4.9
	대 구 / 경 북	478	3.4	96.6	4.0
	중 / 고 등 학 생	582	2.7	97.3	6.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5.3	94.7	5.2
	고 졸 이 하	901	6.1	93.9	4.0
	대 졸 이 상	1,507	4.9	95.1	4.6
주거 형태	동 거	1,863	5.0	95.0	4.9
	비 동 거 / 독 립	1,667	5.1	94.9	4.4

177)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얼마나 외출 하는지 파악한 결과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10.4%),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은 2018년(84.8%) 대비 9.2%p 하락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응답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를 보임
- 성별로 남자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 비율이 84.0%로 여자(66.3%)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 비율(72.4%)이 고졸이하(70.9%)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77 평소 외출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편의점 등에 외출 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2017	2,321	77.4	4.2	5.2	8.8	1.6	2.5	0.1	0.0
2018	3,133	84.8	2.5	4.1	7.2	0.5	0.9	0.0	0.0
2019	3,530	75.6	3.6	7.3	10.4	0.8	2.2	0.2	0.0

표 II-177-1 평소 외출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3,530	75.6	3.6	7.3	10.4	0.8	2.2	0.2	0.0
성별	남 자	1,839	84.0	4.0	4.3	6.1	0.4	1.0	0.2	0.1
	여 자	1,691	66.3	3.2	10.5	15.1	1.2	3.5	0.2	0.0
연령	만 1 5 ~ 1 8 세	661	92.3	3.5	1.5	2.1	0.2	0.3	0.1	0.0
	만 1 9 ~ 2 9 세	1,431	74.2	5.5	7.0	9.7	1.0	2.5	0.1	0.1
	만 3 0 ~ 3 9 세	1,438	72.1	1.8	9.2	13.5	0.7	2.4	0.3	0.0
지역	서 울	652	75.7	5.2	9.1	7.6	0.6	1.7	0.0	0.1
	인 천 / 경 기	786	71.7	3.6	7.9	12.4	1.0	3.0	0.4	0.0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7.0	4.8	4.8	11.3	0.4	1.7	0.0	0.0
	광 주 / 전라 / 제주	492	81.1	2.8	5.3	8.1	0.5	2.1	0.3	0.0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76.8	2.1	6.0	11.4	1.4	2.1	0.0	0.2
	대 구 / 경 북	478	79.1	1.7	8.7	9.0	0.4	1.1	0.0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94.6	2.4	1.1	1.3	0.1	0.4	0.1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80.2	7.2	5.1	6.1	0.3	1.0	0.0	0.1
	고 졸 이 하	901	70.9	3.7	7.9	12.7	1.2	3.2	0.4	0.1
	대 졸 이 상	1,507	72.4	2.7	9.1	12.5	0.8	2.3	0.1	0.0
주거 형태	동 거	1,863	79.4	4.8	5.6	7.9	0.9	1.3	0.1	0.0
	비 동 거 / 독 립	1,667	71.6	2.4	9.0	13.0	0.7	3.0	0.2	0.1

* 주) 보기: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178)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현재 상태의 지속 기간을 확인한 결과 ‘6개월 미만’이 2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25.1%), ‘3년 이상-5년 미만’(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1년 이상-3년 미만’의 비율이 16.0%p 상승한 반면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비율은 11.7%p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6개월 미만’(44.2%), 여자는 ‘3년 이상-5년 미만’(25.0%)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년 이상’ 현재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 된 응답 비율이 만 30~3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나 변인별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참고적으로만 확인할 것을 권장함

표 II-178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2017	98	18.4	17.9	36.5	16.6	6.0	4.7
2018	41	23.5	23.8	9.1	25.5	11.3	6.9
2019	100	28.3	12.1	25.1	19.2	8.0	7.3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178-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전	체	100	28.3	12.1	25.1	19.2	8.0	7.3
성별	남 자	31	44.2	24.8	27.7	3.4	0.0	0.0
	여 자	69	22.6	7.5	24.2	25.0	10.8	9.9
연령	만 15 ~ 18 세	5	8.6	0.0	74.5	16.9	0.0	0.0
	만 19 ~ 29 세	46	39.9	17.0	25.0	14.9	3.3	0.0
	만 30 ~ 39 세	49	16.8	7.4	22.6	24.1	13.5	15.5
지역	서 울	15	15.5	44.4	21.5	14.8	3.8	0.0
	인 천 / 경 기	32	33.8	0.0	23.1	25.9	7.7	9.4
	대전/충청/세종/강원	13	57.0	9.0	8.7	4.4	12.7	8.1
	광주/전라/제주	11	21.7	23.9	43.2	11.3	0.0	0.0
	부산/울산/경남	21	6.5	10.2	33.7	22.7	13.7	13.3
	대 구 / 경 북	8	56.9	13.1	20.8	0.0	9.2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	10.2	0.0	69.6	20.2	0.0	0.0
	대학생/대학원생	8	22.7	21.6	20.4	35.3	0.0	0.0
	고 졸 이 하	38	26.0	6.0	33.3	19.5	10.0	5.2
	대 졸 이 상	50	31.8	16.5	16.9	16.9	7.6	10.2
주거 형태	동 거	37	39.0	18.4	24.0	16.6	0.0	1.9
	비 동 거 / 독 립	63	21.7	8.2	25.7	20.9	12.9	10.5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179)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현재 상태가 된 계기를 확인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이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22.2%),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응답이 17.2%p 상승한 반면 그 외 모든 경우의 응답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임
- 성별로 남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71.3%) 응답이 높고 여자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71.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19-29세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30.6%), 만30-39세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71.4%)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응답자 특성별 각 결과는 변인별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참고적으로만 확인할 것을 권장함

표 II-179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학업중단 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2017	98	2.2	17.9	10.1	4.6	61.3	3.8
2018	41	5.8	33.0	17.7	4.3	37.2	1.9
2019	100	3.1	22.2	2.3	1.8	54.4	16.3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179-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업중단 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전	체	100	3.1	22.2	2.3	1.8	54.4	16.3
	자	31	5.1	71.3	2.1	2.3	0.0	19.2
성별	여	69	2.4	4.5	2.4	1.6	74.0	15.2
	만 15 ~ 18 세	5	33.1	0.0	8.6	12.4	0.0	46.0
연령	만 19 ~ 29 세	46	4.6	30.6	2.2	1.2	41.2	20.1
	만 30 ~ 39 세	49	0.0	14.2	2.1	1.8	71.4	10.5
지역	서울	15	11.6	27.9	13.7	0.0	29.3	17.5
	인천 / 경기	32	0.9	6.7	0.0	1.9	73.4	17.1
	대전/충청/세종/강원	13	4.4	46.4	2.2	3.2	30.1	13.6
	광주/전라/제주	11	0.0	49.8	0.0	0.0	34.4	15.8
	부산/울산/경남	21	3.3	28.4	0.0	3.6	55.1	9.7
	대구 / 경북	8	0.0	28.0	0.0	0.0	36.1	35.9
	중 / 고 등 학 생	4	20.2	0.0	10.2	14.8	0.0	5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8	36.2	51.8	0.0	0.0	0.0	12.0
	고 졸 이 하	38	0.9	19.9	3.6	3.5	64.8	7.3
	대 졸 이 상	50	0.0	21.2	1.2	0.0	54.8	22.9
주거 형태	동 거	37	8.2	34.2	2.1	4.6	20.4	30.5
	비 동 거 / 독 립	63	0.0	14.7	2.5	0.0	75.4	7.4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18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지난 주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은 52.6%이고 주간 평균 취식 횟수는 3.1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대비 경험 비율(43.5%) 기준 9.1%p, 횟수(2.2회) 기준 0.9회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여자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54.9%로 남자(50.6%)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55.1%), 만30~39세(50.4%)의 경험 비율이 만15~18세(4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58.6%), 인천/경기(56.0%) 지역에서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 청년들이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58.2%로 타 학력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8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2017	2,321	49.8	50.2	3.1
2018	2,641	56.5	43.5	2.2
2019	2,948	47.4	52.6	3.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80-1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전 체		2,948	47.4	52.6	3.1
성별	남 자	1,537	49.4	50.6	2.9
	여 자	1,411	45.1	54.9	3.2
연령	만 1 5 ~ 1 8 세	79	55.9	44.1	3.2
	만 1 9 ~ 2 9 세	1,431	44.9	55.1	3.0
	만 3 0 ~ 3 9 세	1,438	49.6	50.4	3.1
지역	서 울	567	41.4	58.6	2.8
	인 천 / 경 기	661	44.0	56.0	3.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2.2	47.8	3.1
	광주/전라/제주	402	55.3	44.7	3.1
	부산/울산/경남	478	50.1	49.9	3.1
	대 구 / 경 북	394	52.6	47.4	3.0
	대학생/대학원생	540	41.8	58.2	2.9
학력	고 졸 이 하	901	46.0	54.0	3.2
	대 졸 이 상	1,507	50.0	50.0	3.0
주거 형태	동 거	1,289	48.6	51.4	2.9
	비 동 거 / 독 립	1,659	46.4	53.6	3.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8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 지난 주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은 13.6%이고 주간 평균 음주 횟수는 2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경험 비율 기준으로는 1.0%p 하락했지만, 횟수 기준으로는 0.5회 상승한 결과임
- 성별 남자의 경우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18.0%로 여자(8.7%)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15.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도 2.2회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8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2017	2,321	82.0	18.0	2.0
2018	2,641	85.4	14.6	1.5
2019	2,948	86.4	13.6	2.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81-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전 체			2,948	86.4	13.6	2.0
성별	남	자	1,537	82.0	18.0	2.0
	여	자	1,411	91.3	8.7	1.9
연령	만 15 ~ 18 세		79	98.6	1.4	3.4
	만 19 ~ 29 세		1,431	87.8	12.2	1.8
	만 30 ~ 39 세		1,438	84.4	15.6	2.1
지역	서 울		567	87.6	12.4	1.6
	인 천 / 경 기		661	84.9	15.1	2.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2.6	17.4	2.0
	광주/전라/제주		402	91.7	8.3	2.4
	부산/울산/경남		478	85.9	14.1	2.1
	대 구 / 경 북		394	89.5	10.5	2.1
	대학생/대학원생		540	92.3	7.7	1.6
학력	고 졸 이 하		901	84.6	15.4	2.2
	대 졸 이 상		1,507	85.6	14.4	1.9
주거 형태	동 거		1,289	88.9	11.1	1.9
	비 동 거 / 독 립		1,659	84.3	15.7	2.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8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청년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 라는 질문에 대해 64.9%가 ‘그렇다’(그렇다 57.7%+매우 그렇다 7.2%)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8.7%(전혀 그렇지 않다 0.8%+그렇지 않다 7.9%)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34.5%)은 2.9%p 하락, 비동의 비율(24.7%)은 1.2%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71.7%), 대구/경북(71.8%) 지역의 동의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66.6%), 대졸이상(66.3%)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82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0.6	9.7	31.9	50.3	7.5
2017	2,714	1.1	12.1	29.1	49.9	7.7
2018	3,133	0.2	7.3	24.7	61.1	6.7
2019	3,530	0.8	7.9	26.5	57.7	7.2

표 II-182-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0.8	7.9	26.5	57.7	7.2
성별	남 자	1,839	0.8	8.5	25.1	58.4	7.3
	여 자	1,691	0.8	7.1	28.0	56.9	7.1
연령	만 15 ~ 18 세	661	0.5	9.3	28.2	51.8	10.2
	만 19 ~ 29 세	1,431	0.9	7.8	27.7	56.6	7.0
	만 30 ~ 39 세	1,438	0.9	7.5	24.7	60.6	6.4
지역	서울	652	0.9	7.8	19.5	64.0	7.8
	인천 / 경기	786	1.3	8.1	27.2	56.8	6.8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3	8.5	33.5	51.0	6.7
	광주/전라/제주	492	0.4	9.0	28.1	55.0	7.4
	부산/울산/경남	570	0.7	7.2	29.9	52.2	10.1
	대구 / 경북	478	0.6	6.0	21.6	68.7	3.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6	9.7	28.4	50.9	10.5
	대학생/대학원생	540	1.2	8.5	23.7	59.2	7.4
	고 졸 이 하	901	0.8	7.7	28.7	57.1	5.6
	대 졸 이 상	1,507	0.8	7.3	25.6	59.1	7.2
주거 형태	동 거	1,863	1.0	8.2	27.8	55.4	7.6
	비 동 거 / 독 립	1,667	0.6	7.5	25.0	60.1	6.7

18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청년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라는 질문에 대해 26.4%가 ‘그렇다’(그렇다 23.6%+매우 그렇다 2.8%)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32.9%(전혀 그렇지 않다 3.1%+그렇지 않다 29.8%) 대비 낮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34.5%)이 8.1%p 하락, 비동의 비율(24.7%)은 8.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 고졸이하의 비동의 비율이 38.1%로 타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83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4	26.5	42.7	25.6	2.8
2017	2,714	3.8	32.3	41.5	20.8	1.7
2018	3,133	1.5	23.2	40.9	29.4	5.1
2019	3,530	3.1	29.8	40.7	23.6	2.8

표 II-183-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3.1	29.8	40.7	23.6	2.8
성별	남 자	1,839	3.1	29.8	40.9	22.7	3.5
	여 자	1,691	3.1	29.8	40.4	24.7	2.0
연령	만 15 ~ 18 세	661	1.8	27.3	42.7	24.5	3.7
	만 19 ~ 29 세	1,431	2.9	28.0	41.9	24.8	2.4
	만 30 ~ 39 세	1,438	3.8	32.3	38.9	22.2	2.9
지역	서 울	652	2.2	29.4	43.0	24.0	1.4
	인 천 / 경 기	786	4.6	29.1	37.3	25.1	3.9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3	28.8	44.7	21.2	3.9
	광주/전라/제주	492	4.5	32.8	39.8	19.9	3.0
	부산/울산/경남	570	1.9	29.7	42.9	23.8	1.6
	대 구 / 경 북	478	3.1	31.3	38.7	25.3	1.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6	28.1	43.1	24.0	3.3
	대학생/대학원생	540	4.0	26.8	41.4	25.4	2.5
	고 졸 이 하	901	3.5	34.6	38.5	20.2	3.2
	대 졸 이 상	1,507	3.0	28.4	41.2	25.0	2.5
주거 형태	동 거	1,863	3.1	28.4	41.1	25.1	2.3
	비 동 거 / 독 립	1,667	3.1	31.3	40.2	22.1	3.3

18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청년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는 질문에 대해 25.5%가 ‘그렇다’(그렇다 22.5%+매우 그렇다 3.0%)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30.9%(전혀 그렇지 않다 2.3%+그렇지 않다 28.7%) 대비 낮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31.6%)이 6.1%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25.8%)이 5.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로 만15-18세의 비동의 비율이 34.9%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비동의 비율이 36.9%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의 동의 비율이 36.9%로 타 학력 대비 높음

표 II-18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8	29.8	39.0	26.1	3.3
2017	2,714	3.1	32.2	43.3	18.7	2.8
2018	3,133	1.9	23.9	42.6	27.9	3.7
2019	3,530	2.3	28.7	43.6	22.5	3.0

표 II-184-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2.3	28.7	43.6	22.5	3.0
	자	1,839	2.4	27.8	43.6	22.7	3.6
성별	여	1,691	2.1	29.7	43.5	22.3	2.3
	만 15 ~ 18 세	661	2.3	32.6	40.4	21.6	3.1
연령	만 19 ~ 29 세	1,431	2.6	27.0	45.8	21.2	3.4
	만 30 ~ 39 세	1,438	1.9	29.2	42.2	24.2	2.5
지역	서울	652	1.9	35.0	39.9	21.4	1.8
	인천 / 경기	786	3.3	25.5	41.7	25.3	4.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3	23.1	47.5	24.7	3.4
	광주/전라/제주	492	2.4	28.9	47.8	18.6	2.2
	부산/울산/경남	570	2.9	31.2	45.1	19.0	1.8
	대구 / 경북	478	0.0	29.6	45.2	22.2	3.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4	34.5	40.3	20.6	2.3
	대학생/대학원생	540	2.8	27.7	46.1	19.8	3.7
	고 졸 이 하	901	2.9	26.5	43.6	24.6	2.4
	대 졸 이 상	1,507	1.7	28.9	43.5	22.6	3.2
주거 형태	동 거	1,863	2.4	27.9	44.5	22.7	2.6
	비 동 거 / 독 립	1,667	2.1	29.5	42.6	22.3	3.4

185)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라는 질문에 대해 45.3%가 ‘그렇다’(그렇다 41.4%+매우 그렇다 3.9%)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6.4%(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4.3%)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48.6%)이 3.3%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16.1%)은 0.3%p 상승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동의의 비율이 높고, 만15-18세는 동의의 비율이 다른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85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2	18.5	41.0	33.4	5.0
2017	2,714	2.7	15.7	36.9	40.3	4.4
2018	3,133	0.8	15.3	35.4	43.6	5.0
2019	3,530	2.1	14.3	38.3	41.4	3.9

표 II-185-1 노인에 대한 생각_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2.1	14.3	38.3	41.4	3.9
성별	남 자	1,839	2.2	14.6	38.4	41.5	3.3
	여 자	1,691	1.9	14.1	38.2	41.3	4.5
연령	만 15 ~ 18 세	661	1.0	11.1	36.6	43.9	7.4
	만 19 ~ 29 세	1,431	2.0	14.6	38.4	41.2	3.7
	만 30 ~ 39 세	1,438	2.5	15.0	38.6	40.9	3.1
지역	서 울	652	1.7	14.4	38.3	42.2	3.4
	인 천 / 경 기	786	3.2	14.1	37.1	40.9	4.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0	13.0	38.5	41.5	4.0
	광주/전라/제주	492	0.6	12.0	40.7	42.3	4.4
	부 산/울 산/경 남	570	0.9	17.8	37.8	39.9	3.6
	대 구 / 경 북	478	1.0	14.0	40.5	42.7	1.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8	10.7	38.1	42.8	7.6
	대학생/대학원생	540	1.8	11.8	40.0	42.8	3.7
	고 졸 이 하	901	1.9	15.1	37.2	42.7	3.1
	대 졸 이 상	1,507	2.5	15.5	38.4	40.0	3.6
주거 형태	동 거	1,863	2.0	13.6	39.5	40.7	4.3
	비 동 거 / 독 립	1,667	2.1	15.1	37.1	42.2	3.5

186)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36.7%가 ‘그렇다’(그렇다 33.5%+매우 그렇다 3.2%)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2.3%(전혀 그렇지 않다 0.9%+그렇지 않다 21.4%)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만 30~39세에서는 동의(39.6%) 비율이 다른 연령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들의 비동의 비율이 28.6%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39.7%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표 II-186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1	20.0	38.5	36.7	3.7
2017	2,714	1.4	19.9	41.3	33.7	3.6
2018	3,133	0.7	20.6	44.6	31.8	2.3
2019	3,530	0.9	21.4	41.0	33.5	3.2

표 II-186-1 노인에 대한 생각_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0.9	21.4	41.0	33.5	3.2
성별	남 자	1,839	1.0	22.4	40.2	33.4	3.0
	여 자	1,691	0.8	20.3	41.9	33.5	3.5
연령	만 15 ~ 18 세	661	1.2	22.4	41.7	30.2	4.5
	만 19 ~ 29 세	1,431	0.8	22.3	42.5	31.5	2.8
	만 30 ~ 39 세	1,438	0.8	20.3	39.3	36.4	3.2
지역	서 울	652	0.8	25.7	33.9	36.7	2.9
	인 천 / 경 기	786	0.7	16.2	42.8	36.5	3.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3	20.9	43.8	29.8	4.1
	광주/전라/제주	492	0.4	22.6	42.4	32.0	2.6
	부산/울산/경남	570	1.4	27.3	41.3	28.0	2.0
	대 구 / 경 북	478	0.8	20.2	44.5	31.3	3.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2	23.0	41.0	29.9	4.8
	대학생/대학원생	540	1.1	23.2	42.4	31.1	2.2
	고 졸 이 하	901	0.9	22.7	42.4	30.9	3.1
	대 졸 이 상	1,507	0.7	19.7	39.8	36.5	3.2
주거 형태	동 거	1,863	0.9	21.3	41.7	32.8	3.3
	비 동 거 / 독 립	1,667	0.8	21.6	40.4	34.1	3.1

187)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라는 질문에 대해 42.8%가 ‘그렇다’(그렇다 38.4%+매우 그렇다 4.5%)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7.1%(전혀 그렇지 않다 1.4%+그렇지 않다 15.7%)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47.7%)이 4.9%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14.9%)은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비동의 비율은 18.2%로 여자(15.8%)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17.6%), 만30-39세(17.9%)의 비동의 비율이 만 15-18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55.0%), 광주/전라/제주(50.0%)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7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3	21.5	42.5	31.1	3.6
2017	2,714	2.4	19.0	44.2	30.8	3.6
2018	3,133	1.3	14.6	36.4	41.0	6.7
2019	3,530	1.4	15.7	40.1	38.4	4.5

표 II-187-1 노인에 대한 생각_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1.4	15.7	40.1	38.4	4.5
	남 자	1,839	1.6	16.6	39.7	37.9	4.2
	여 자	1,691	1.1	14.7	40.5	38.9	4.8
연령	만 15 ~ 18 세	661	0.6	12.2	43.8	37.6	5.8
	만 19 ~ 29 세	1,431	1.4	16.1	41.6	37.1	3.7
	만 30 ~ 39 세	1,438	1.5	16.4	37.4	39.9	4.9
지역	서울	652	1.0	14.9	29.1	50.0	4.9
	인천 / 경기	786	2.5	15.3	44.9	33.1	4.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0	19.2	44.1	33.0	2.7
	광주/전라/제주	492	1.0	9.3	39.7	42.8	7.1
	부산/울산/경남	570	0.7	16.1	39.5	38.5	5.2
	대구 / 경북	478	0.1	20.6	42.7	33.7	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0.7	12.3	43.5	38.0	5.6
	대학생/대학원생	540	1.7	15.8	39.7	38.8	4.0
	고 졸 이 하	901	1.4	18.1	35.2	41.2	4.1
	대 졸 이 상	1,507	1.4	15.2	42.1	36.7	4.6
주거 형태	동 거	1,863	1.3	16.2	41.1	37.1	4.3
	비 동 거 / 독 립	1,667	1.5	15.2	39.0	39.7	4.7

188)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청년관점에서 노인세대(70세 이상)가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라는 질문에 대해 35.0%가 ‘그렇다’(그렇다 30.3%+매우 그렇다 4.8%)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0.7%(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8.7%)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34.2%)이 0.2%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15.5%)은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은 비동의(30.6%) 응답이, 서울은 동의(42.1%)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38.1%로 타 학력 대비 높음

표 II-188 노인에 대한 생각_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4.0	23.3	43.5	24.6	4.5
2017	2,714	2.8	17.3	47.1	27.2	5.6
2018	3,133	0.9	14.6	49.2	31.9	3.3
2019	3,530	2.1	18.7	44.2	30.3	4.8

표 II-188-1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2.1	18.7	44.2	30.3	4.8
성별	남 자	1,839	2.3	18.5	43.3	31.1	4.9
	여 자	1,691	1.9	18.8	45.2	29.4	4.7
연령	만 15 ~ 18 세	661	1.0	21.8	47.4	25.7	4.1
	만 19 ~ 29 세	1,431	2.3	17.9	45.2	30.0	4.6
	만 30 ~ 39 세	1,438	2.2	18.5	42.2	31.9	5.2
지역	서 울	652	1.1	14.2	42.6	36.9	5.2
	인 천 / 경 기	786	3.1	19.7	42.1	30.5	4.7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0.8	13.4	49.0	31.3	5.5
	광주/전라/제주	492	1.5	24.2	46.1	22.4	6.0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1.8	18.6	45.9	29.1	4.6
	대 구 / 경 북	478	4.0	26.6	43.2	24.1	2.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2	22.9	48.3	24.5	3.1
	대학생/대학원생	540	1.2	17.7	48.4	27.2	5.4
	고 졸 이 하	901	1.9	19.8	44.2	29.6	4.5
	대 졸 이 상	1,507	2.7	17.3	41.9	33.0	5.1
주거 형태	동 거	1,863	2.0	18.2	45.8	29.7	4.2
	비 동 거 / 독 립	1,667	2.2	19.1	42.5	30.9	5.4

189)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16.8%가 ‘참여 한다’(아마도 14.9%+확실히 1.9%)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62.6%(절대로 30.4%+아마도 32.2%) 대비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 비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72.6%), 대구/경북(75.3%)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68.1%)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89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4.3	24.4	27.8	30.5	3.0
2017	2,714	12.9	27.5	28.0	28.1	3.5
2018	3,133	9.1	24.0	28.8	35.1	3.0
2019	3,530	30.4	32.2	20.6	14.9	1.9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189-1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530	30.4	32.2	20.6	14.9	1.9
성별	남 자	1,839	31.6	32.1	20.6	13.7	2.0
	여 자	1,691	29.1	32.3	20.6	16.3	1.6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8.6	26.6	20.4	21.2	3.3
	만 1 9 ~ 2 9 세	1,431	28.5	34.9	21.5	13.5	1.5
	만 3 0 ~ 3 9 세	1,438	32.9	31.0	19.8	14.5	1.8
지역	서 울	652	33.8	30.8	17.6	16.4	1.4
	인 천 / 경 기	786	24.7	32.1	25.2	15.8	2.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31.3	27.9	20.7	16.8	3.3
	광주/전라/제주	492	24.5	30.7	22.1	21.4	1.4
	부산/울산/경남	570	41.4	31.2	16.1	10.0	1.3
	대 구 / 경 북	478	30.4	44.9	17.0	6.5	1.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9.2	26.3	19.0	21.8	3.8
	대학생/대학원생	540	24.4	36.7	21.4	16.0	1.5
	고 졸 이 하	901	34.8	33.4	21.1	9.3	1.6
	대 졸 이 상	1,507	30.1	31.4	20.5	16.3	1.7
주거 형태	동 거	1,863	28.6	31.7	21.5	16.1	2.1
	비 동 거 / 독 립	1,667	32.3	32.6	19.8	13.7	1.5

190)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
/부착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14.6%가 ‘참여 한다’(아마도 12.2%+확실히 2.5%)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66.3%(절대로 34.2%+아마도 32.1%)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 비의향이 70.6%로 나타나 여자(61.6%)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 비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비의향 비율이 72.9%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의향이 72.9%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참여 비의향 비율(69.9%)이 동거 중인 청년(62.9%) 대비 높음

표 II-190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6.5	25.2	25.3	28.4	4.6
2017	2,714	13.0	28.0	29.0	25.9	4.1
2018	3,133	13.4	20.2	29.9	32.4	4.1
2019	3,530	34.2	32.1	19.1	12.2	2.5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190-1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530	34.2	32.1	19.1	12.2	2.5
성별	남 자	1,839	36.4	34.2	17.6	10.1	1.7
	여 자	1,691	31.8	29.7	20.7	14.4	3.3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8.8	24.0	19.3	21.6	6.3
	만 1 9 ~ 2 9 세	1,431	34.4	32.3	19.8	11.5	2.0
	만 3 0 ~ 3 9 세	1,438	35.6	34.2	18.3	10.1	1.8
지역	서 울	652	37.6	25.8	18.6	14.9	3.0
	인 천 / 경 기	786	27.1	35.3	22.5	12.0	3.2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41.7	28.2	16.6	10.7	2.8
	광주/전라/제주	492	27.1	30.9	24.0	15.8	2.2
	부산/울산/경남	570	43.0	29.4	16.0	10.2	1.3
	대 구 / 경 북	478	34.3	46.1	11.5	7.9	0.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8.1	22.7	19.1	23.2	6.8
	대학생/대학원생	540	29.8	35.0	18.0	15.0	2.2
	고 졸 이 하	901	40.6	32.4	19.4	6.8	0.9
	대 졸 이 상	1,507	33.4	33.2	19.3	11.7	2.5
주거 형태	동 거	1,863	32.9	30.1	19.9	14.2	2.9
	비 동 거 / 독 립	1,667	35.7	34.2	18.2	10.0	2.0

19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에 대한 의향 응답 결과, 22.2%가 ‘참여 한다’(아마도 18.8%+확실히 3.4%)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54.6%(절대로 27.3%+아마도 27.3%)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의 참여 의향이 25.3%로 나타나 남자(19.4%)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의 참여의향이 30.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의 참여 의향(31.6%)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9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4.9	19.9	31.0	28.2	6.0
2017	2,714	10.4	22.7	28.4	32.9	5.6
2018	3,133	12.8	22.1	29.6	31.1	4.3
2019	3,530	27.3	27.3	23.3	18.8	3.4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191-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530	27.3	27.3	23.3	18.8	3.4
성별	남 자	1,839	29.3	28.5	22.8	16.6	2.8
	여 자	1,691	25.0	25.9	23.7	21.3	4.0
연령	만 1 5 ~ 1 8 세	661	27.4	20.3	22.0	24.2	6.1
	만 1 9 ~ 2 9 세	1,431	26.9	29.3	23.1	17.3	3.4
	만 3 0 ~ 3 9 세	1,438	27.7	27.2	23.8	18.7	2.5
지역	서 울	652	30.0	25.9	19.5	21.1	3.4
	인 천 / 경 기	786	19.2	27.9	29.9	19.9	3.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28.8	24.0	21.5	21.6	4.2
	광주/전라/제주	492	25.0	23.1	25.9	22.3	3.7
	부 산 / 울 산 / 경남	570	42.1	25.1	18.1	11.4	3.3
	대 구 / 경 북	478	26.1	40.8	16.8	13.6	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28.6	19.6	20.2	26.1	5.5
	대학생/대학원생	540	22.4	29.7	21.4	20.8	5.6
	고 졸 이 하	901	34.5	29.5	21.7	12.5	1.8
	대 졸 이 상	1,507	24.4	26.9	25.5	20.1	3.1
주거 형태	동 거	1,863	27.1	26.4	23.3	19.2	4.0
	비 동 거 / 독 립	1,667	27.5	28.2	23.2	18.4	2.7

192)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에 대한 의향 응답 결과, 6.7%가 ‘참여 한다’(아마도 5.9%+확실히 0.8%)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78.5%(절대로 41.6%+아마도 36.9%)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 비의향이 79.6%로 나타나 여자(77.2%)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 비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비의향 비율이 90.6%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비의향(84.0%)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92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24.4	33.5	29.5	11.2	1.5
2017	2,714	17.0	34.1	29.4	17.5	2.1
2018	3,133	18.3	27.6	32.4	20.0	1.8
2019	3,530	41.6	36.9	14.8	5.9	0.8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192-1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530	41.6	36.9	14.8	5.9	0.8
성별	남 자	1,839	43.2	36.4	13.8	5.7	0.9
	여 자	1,691	39.7	37.4	16.0	6.1	0.7
연령	만 1 5 ~ 1 8 세	661	40.4	30.3	19.2	8.3	1.9
	만 1 9 ~ 2 9 세	1,431	41.2	38.0	14.4	5.7	0.7
	만 3 0 ~ 3 9 세	1,438	42.3	37.7	14.0	5.3	0.6
지역	서 울	652	43.3	32.7	15.6	7.9	0.5
	인 천 / 경 기	786	35.0	42.9	15.4	5.9	0.9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46.5	28.1	17.6	6.3	1.5
	광주/전라/제주	492	36.3	35.7	19.2	7.8	1.0
	부산/울산/경남	570	50.6	33.2	12.0	3.2	1.0
	대 구 / 경 북	478	44.8	45.8	6.6	2.9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1.4	30.4	18.4	7.8	2.0
	대학생/대학원생	540	38.7	36.2	15.8	8.4	0.9
	고 졸 이 하	901	47.1	36.9	12.2	3.1	0.8
	대 졸 이 상	1,507	39.3	38.7	15.2	6.3	0.6
주거 형태	동 거	1,863	41.4	35.0	15.6	7.1	0.9
	비 동 거 / 독 립	1,667	41.8	38.9	14.0	4.6	0.8

193)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항의 전화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6.7%가 ‘참여 한다’(아마도 5.9%+확실히 0.8%)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78.7%(절대로 43.7%+아마도 3.5%) 대비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89.1%, 대구/경북 88.7%로 참여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경기 지역에서 참여 의향(10.8%)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93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7	2,714	22.2	34.5	25.7	14.8	2.8
2018	3,133	19.9	30.3	32.7	15.4	1.7
2019	3,530	43.7	35.0	14.6	5.9	0.8

* 주: 의견 표명 행동은 2018년 이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를 위한 행동의 의견 표명이었으나 2019년 설문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 조사 항목이 변경됨

표 II-193-1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530	43.7	35.0	14.6	5.9	0.8
성별	남 자	1,839	45.0	34.7	14.0	5.5	0.9
	여 자	1,691	42.2	35.5	15.2	6.3	0.7
연령	만 1 5 ~ 1 8 세	661	46.1	30.9	15.3	6.7	1.0
	만 1 9 ~ 2 9 세	1,431	43.5	36.5	14.2	5.0	0.8
	만 3 0 ~ 3 9 세	1,438	43.2	34.7	14.8	6.6	0.7
지역	서 울	652	43.4	37.3	14.0	5.0	0.3
	인 천 / 경 기	786	38.9	31.3	19.0	9.8	1.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0.2	30.5	13.8	4.1	1.3
	광주/전라/제주	492	38.7	36.4	18.2	5.3	1.4
	부산/울산/경남	570	53.9	35.2	8.3	2.3	0.3
	대 구 / 경 북	478	40.5	48.2	7.7	3.5	0.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46.1	31.3	15.1	6.3	1.2
	대학생/대학원생	540	47.8	33.1	12.7	6.0	0.5
	고 졸 이 하	901	45.5	32.4	15.5	5.9	0.7
	대 졸 이 상	1,507	40.8	38.0	14.5	5.8	0.9
주거 형태	동 거	1,863	44.7	34.6	13.9	6.0	0.7
	비 동 거 / 독 립	1,667	42.6	35.5	15.3	5.8	0.9

194) 의견 표명 행동_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관련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29.4%가 ‘참여한다’(아마도 23.7%+확실히 5.7%)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47.4%(절대로 24.9%+아마도 22.6%) 대비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의향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 32.7%, 대졸이상 31.3%로 대재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194 의견 표명 행동_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성별	체	2,948	24.9	22.6	23.2	23.7	5.7
		남 자	1,537	26.4	21.3	23.7	23.5	5.2
		여 자	1,411	23.1	24.0	22.7	23.9	6.3
연령		만 15 ~ 18 세	79	23.7	24.5	26.4	24.5	1.0
		만 19 ~ 29 세	1,431	25.1	24.4	22.3	23.0	5.2
		만 30 ~ 39 세	1,438	24.7	20.7	24.0	24.3	6.4
지역		서 울	567	28.6	19.5	17.7	29.5	4.7
		인 천 / 경 기	661	17.8	19.1	31.2	24.7	7.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28.8	24.2	17.9	23.5	5.6
		광주/전라/제주	402	19.3	18.6	28.6	27.9	5.7
		부산/울산/경남	478	35.9	23.5	18.4	18.4	3.9
		대 구 / 경 북	394	23.5	42.5	17.5	10.7	5.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4.4	25.2	17.7	25.9	6.7
		고 졸 이 하	901	30.2	23.0	22.6	20.5	3.7
		대 졸 이 상	1,507	21.9	21.5	25.3	24.8	6.5
주거		동 거	1,289	25.1	22.6	22.5	24.0	5.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24.7	22.6	23.8	23.4	5.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95) 의견 표명 행동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27.0%가 ‘참여 한다’(아마도 23.5%+확실히 3.5%)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43.9%(절대로 21.7%+아마도 22.2%) 대비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의향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지역의 참여 의향 32.0%로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 27.2%, 대졸이상 29.8%로 대재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195 의견 표명 행동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21.7	22.2	29.1	23.5	3.5
성별	남 자	1,537	22.4	22.0	28.2	24.0	3.4
	여 자	1,411	21.0	22.3	30.1	22.9	3.7
연령	만 1 5 ~ 1 8 세	79	20.4	18.7	40.0	18.9	2.1
	만 1 9 ~ 2 9 세	1,431	23.2	23.3	29.2	20.8	3.5
	만 3 0 ~ 3 9 세	1,438	20.2	21.2	28.6	26.5	3.6
지역	서 울	567	20.9	18.8	28.2	28.5	3.5
	인 천 / 경 기	661	14.8	21.3	36.7	23.0	4.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28.1	20.9	23.1	24.1	3.8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21.3	18.6	32.4	24.5	3.1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33.0	21.4	21.3	21.7	2.6
	대 구 / 경 북	394	20.3	40.0	22.2	14.6	2.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22.9	23.1	26.8	22.4	4.8
	고 졸 이 하	901	26.2	23.9	27.8	20.3	1.9
	대 졸 이 상	1,507	18.7	20.9	30.5	25.7	4.1
주거 형태	동 거	1,289	22.5	22.2	29.3	22.8	3.3
	비 동 거 / 독 립	1,659	21.1	22.1	28.9	24.1	3.7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96) 의견 표명 행동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정치인이나 공무원, 언론기관에 접촉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4.9%가 ‘참여한다’(아마도 4.4%+확실히 0.5%)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81.5%(절대로 42.4%+아마도 39.1%)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87.6%), 대구/경북(87.5%)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6 의견 표명 행동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성별	전체	2,948	42.4	39.1	13.6	4.4	0.5
	남자	1,537	42.1	38.9	14.2	4.2	0.5
	여자	1,411	42.6	39.3	12.9	4.5	0.6
연령	만 15 ~ 18 세	79	48.5	31.6	15.7	4.2	0.0
	만 19 ~ 29 세	1,431	42.3	39.4	14.4	3.6	0.3
	만 30 ~ 39 세	1,438	42.2	39.1	12.7	5.2	0.8
지역	서울	567	43.3	37.1	13.8	5.5	0.4
	인천 / 경기	661	39.2	39.6	15.4	5.4	0.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6.7	33.3	15.7	3.5	0.8
	광주/전라/제주	402	41.4	38.6	14.3	4.7	0.9
	부산/울산/경남	478	48.9	38.8	9.4	2.3	0.6
	대구 / 경북	394	35.7	51.8	9.8	2.6	0.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42.6	38.4	13.2	5.5	0.4
	고졸 이하	901	46.4	36.2	14.1	2.9	0.4
	대졸 이상	1,507	40.0	41.0	13.5	4.9	0.6
주거 형태	동거	1,289	43.1	39.2	13.1	4.4	0.2
	비동거 / 독립	1,659	41.8	39.1	14.1	4.3	0.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97) 의견 표명 행동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18.3%가 ‘참여 한다’(아마도 14.8%+확실히 3.5%)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61.6%(절대로 32.9%+아마도 28.7%)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의 참여의향이 21.0%로 나타나 남자(15.8%) 대비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비의향 비율이 78.5%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참여의향이 20.7%로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참여 의향 비율(20.2%)이 동거(15.9%) 중 응답자 대비 높음

표 II-197 의견 표명 행동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32.9	28.7	20.1	14.8	3.5
성별	남	1,537	35.9	29.0	19.2	13.3	2.5
	여	1,411	29.5	28.4	21.1	16.4	4.7
연령	만 15 ~ 18 세	79	27.9	24.3	27.5	18.5	1.8
	만 19 ~ 29 세	1,431	33.6	29.9	20.6	12.7	3.2
	만 30 ~ 39 세	1,438	32.4	27.7	19.3	16.7	3.8
지역	서 울	567	33.3	23.7	21.8	17.5	3.7
	인 천 / 경 기	661	28.0	26.5	23.4	17.3	4.8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0.5	28.2	15.0	13.9	2.3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30.4	26.9	23.0	17.4	2.3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38.1	31.5	17.9	9.0	3.5
	대 구 / 경 북	394	32.0	46.5	12.7	7.3	1.6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32.2	30.4	18.7	15.1	3.7
	고 졸 이 하	901	37.6	29.4	19.2	12.3	1.5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1,507	30.4	27.8	21.1	16.1	4.6
	동 거	1,289	34.7	29.4	20.0	12.9	3.1
	비 동 거 / 독 립	1,659	31.4	28.2	20.2	16.4	3.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98) 의견 표명 행동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하기 위한 정당 가입, 기부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3.5%가 ‘참여 한다’(아마도 3.0%+확실히 0.5%)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83.3%(절대로 47.4%+아마도 35.9%)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89.2%), 대구/경북(92.7%)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8 의견 표명 행동_10)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정당에 가입, 기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47.4	35.9	13.2	3.0	0.5
	남	1,537	47.3	35.3	13.6	3.3	0.5
	여	1,411	47.5	36.5	12.8	2.7	0.4
연령	만 1 5 ~ 1 8 세	79	46.0	34.9	16.3	2.8	0.0
	만 1 9 ~ 2 9 세	1,431	47.2	36.7	13.5	2.5	0.2
	만 3 0 ~ 3 9 세	1,438	47.7	35.1	12.9	3.6	0.7
지역	서 울	567	43.6	36.5	15.8	3.6	0.6
	인 천 / 경 기	661	47.5	34.7	14.0	3.6	0.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1.8	33.4	10.8	3.4	0.6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43.0	30.8	22.2	3.6	0.4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51.7	37.6	8.9	1.5	0.4
	대 구 / 경 북	394	47.0	45.7	5.4	0.9	1.0
	대 학생 / 대 학원생	540	45.3	40.2	11.5	2.6	0.3
학력	고 졸 이 하	901	51.0	34.1	12.7	1.9	0.4
	대 졸 이 상	1,507	45.9	35.6	14.1	3.9	0.5
주거	동 거	1,289	46.6	36.6	14.2	2.5	0.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48.1	35.3	12.4	3.5	0.7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99) 의견 표명 행동_11)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3.4%가 ‘참여 한다’(아마도 3.0%+확실히 0.4%)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81.9%(절대로 43.6%+아마도 38.3%)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비의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89.2%), 대구/경북(92.2%)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비의향 비율이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9 의견 표명 행동_11)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43.6	38.3	14.7	3.0	0.4
	남	1,537	43.8	37.2	15.1	3.5	0.3
	여	1,411	43.4	39.4	14.3	2.4	0.5
연령	만 15 ~ 18 세	79	38.7	40.4	17.1	2.6	1.1
	만 19 ~ 29 세	1,431	41.9	38.4	16.2	3.0	0.4
	만 30 ~ 39 세	1,438	45.5	38.0	13.1	2.9	0.4
지역	서 울	567	42.3	37.4	15.9	4.1	0.3
	인 천 / 경 기	661	38.9	40.9	17.3	2.7	0.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9.7	32.1	13.2	4.5	0.4
	광 주 / 전라 / 제 주	402	38.9	34.4	23.2	2.6	1.0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52.3	36.9	8.2	2.4	0.2
	대 구 / 경 북	394	45.3	47.0	6.3	0.6	0.9
	대 학생 / 대 학원 생	540	40.1	39.4	16.0	4.0	0.5
학력	고 졸 이 하	901	46.0	37.7	13.5	2.4	0.5
	대 졸 이 상	1,507	43.3	38.2	15.1	3.0	0.3
주거	동 거	1,289	40.9	39.5	16.2	2.8	0.5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45.9	37.2	13.5	3.1	0.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0) 의견 표명 행동_12) 투표에 참여하기

-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투표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69.3%가 ‘참여 한다’(아마도 40.1%+확실히 29.2%),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17.1%(절대로 9.6%+아마도 7.5%)로 의견 표명 행동 중 유일하게 참여 의향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의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74.1%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69.4%), 대졸이상(73.8%)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참여 의향이 71.5%로 동거 (66.7%) 중인 응답자 대비 높음

표 II-200 의견 표명 행동_12) 투표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9.6	7.5	13.6	40.1	29.2
성별	남	1,537	10.0	7.1	14.2	40.7	27.9
	여	1,411	9.1	8.0	12.8	39.5	30.6
연령	만 15 ~ 18 세	79	17.9	8.9	18.5	34.5	20.2
	만 19 ~ 29 세	1,431	9.1	8.0	15.4	42.7	24.8
	만 30 ~ 39 세	1,438	9.8	7.0	11.5	37.7	34.0
지역	서울	567	9.4	8.5	7.9	38.7	35.4
	인천 / 경기	661	6.5	7.2	17.7	42.9	25.7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2.0	8.0	10.5	36.2	33.2
	광주 / 전라 / 제주	402	11.6	3.7	13.0	36.8	35.0
	부산 / 울산 / 경남	478	13.7	7.1	17.6	36.5	25.1
	대구 / 경북	394	8.3	10.7	10.8	48.9	21.3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40	11.2	9.4	10.0	40.3	29.0
	고졸 이하	901	12.1	8.5	18.0	41.4	20.1
주거 형태	대졸 이상	1,507	7.7	6.4	12.2	39.3	34.5
	동거	1,289	10.3	7.8	15.1	41.1	25.6
	비동거 / 독립	1,659	9.0	7.2	12.3	39.2	32.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7.1%가 ‘그렇다’ (그렇다 32.8%+매우 그렇다 4.2%)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5.2%(전혀 그렇지 않다 5.9%+그렇지 않다 19.3%) 대비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39.1%)이 2.0%p 하락함
- 성별로 남자의 동의 비율이 39.9%로 나타나 여자(34.0%)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4.1%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결과는 대학생/대학원생(39.9%), 대졸이상(44.3%)이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동의 비율(40.1%)이 동거 중 청년(34.2%) 대비 높음

표 II-20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2.6	16.9	42.0	33.8	4.6
2018	3,133	4.4	20.8	35.8	37.4	1.7
2019	3,530	5.9	19.3	37.7	32.8	4.2

표 II-201-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5.9	19.3	37.7	32.8	4.2
성별	남 자	1,839	5.7	18.4	36.0	34.9	4.9
	여 자	1,691	6.1	20.3	39.7	30.5	3.5
연령	만 1 5 ~ 1 8 세	661	14.2	25.8	36.9	21.7	1.4
	만 1 9 ~ 2 9 세	1,431	4.6	19.8	39.9	32.3	3.4
	만 3 0 ~ 3 9 세	1,438	4.8	16.9	35.8	36.6	5.9
지역	서 울	652	7.3	21.5	30.5	37.2	3.5
	인 천 / 경 기	786	5.6	18.8	40.0	30.7	4.9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0	12.9	41.9	37.0	3.2
	광주/전라/제주	492	7.8	23.2	37.7	29.4	1.8
	부산/울산/경남	570	6.9	20.7	40.5	29.1	2.8
	대 구 / 경 북	478	1.3	19.3	35.2	34.0	10.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4.3	27.2	35.9	21.3	1.3
	대 학생/대학원생	540	4.9	18.1	37.1	34.0	5.9
	고 졸 이 하	901	6.5	22.3	42.4	26.6	2.2
	대 졸 이 상	1,507	3.9	16.1	35.7	38.8	5.6
주거 형태	동 거	1,863	6.9	21.5	37.4	31.5	2.7
	비 동 거 / 독 립	1,667	4.9	16.9	38.1	34.2	5.8

202)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9.9%가 ‘그렇다’ (그렇다 35.4%+매우 그렇다 4.5%)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19.5%(전혀 그렇지 않다 5.0%+그렇지 않다 14.4%)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동의 비율이 42.7%로 나타나 여자(36.8%)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 결과는 대학생/대학원생(42.1%), 대졸이상(4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02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1.7	12.2	40.9	40.0	5.2
2018	3,133	3.8	15.3	40.3	38.0	2.7
2019	3,530	5.0	14.4	40.6	35.4	4.5

표 II-202-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530	5.0	14.4	40.6	35.4	4.5
성별	남자	1,839	5.1	13.3	38.9	37.6	5.0
	여자	1,691	4.9	15.7	42.5	32.8	4.0
연령	만 15 ~ 18 세	661	11.3	16.5	38.6	29.9	3.6
	만 19 ~ 29 세	1,431	3.4	15.4	42.5	34.7	3.9
	만 30 ~ 39 세	1,438	4.8	12.8	39.3	37.6	5.4
지역	서울	652	6.0	16.5	34.0	38.5	5.0
	인천 / 경기	786	3.3	12.4	43.0	36.3	5.1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5.3	9.9	46.1	35.3	3.4
	광주/전라/제주	492	7.7	13.3	40.2	36.4	2.4
	부산/울산/경남	570	7.8	18.1	40.8	29.1	4.3
	대구 / 경북	478	1.3	19.2	39.3	34.3	6.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1.9	16.6	37.2	31.1	3.2
	대학생/대학원생	540	3.1	13.2	41.7	36.2	5.9
	고졸 이하	901	6.1	17.1	42.1	32.1	2.6
	대졸 이상	1,507	3.4	12.8	40.3	38.0	5.5
주거 형태	동거	1,863	5.5	16.4	39.2	35.1	3.8
	비동거 / 독립	1,667	4.5	12.4	42.1	35.7	5.3

203)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29.2%가 ‘그렇다’(그렇다 25.0%+매우 그렇다 4.1%)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31.4%(전혀 그렇지 않다 7.8%+그렇지 않다 23.6%) 대비 낮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동의 비율(31.0%)이 1.8%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25.3%)이 6.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능감 인식이 약해진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 결과는 대학생/대학원생(32.6%), 대졸이상(3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03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3.8	19.8	43.4	29.7	3.3
2018	3,133	4.7	20.6	43.7	27.3	3.7
2019	3,530	7.8	23.6	39.4	25.0	4.1

표 II-203-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530	7.8	23.6	39.4	25.0	4.1
성별	남 자	1,839	8.0	23.7	38.9	25.1	4.3
	여 자	1,691	7.6	23.5	40.1	25.0	3.9
연령	만 15 ~ 18 세	661	14.8	25.2	34.6	22.2	3.2
	만 19 ~ 29 세	1,431	7.0	23.2	41.7	24.9	3.1
	만 30 ~ 39 세	1,438	6.5	23.5	38.6	26.0	5.4
지역	서울	652	8.1	23.5	36.5	27.2	4.7
	인천 / 경기	786	6.1	25.7	38.2	24.5	5.6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7.8	17.5	44.8	27.7	2.1
	광주/전라/제주	492	10.9	22.8	38.7	24.0	3.5
	부산/울산/경남	570	11.4	25.8	42.3	17.7	2.7
	대구 / 경북	478	3.9	22.7	38.7	31.0	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582	14.8	25.1	34.3	22.4	3.5
	대학생/대학원생	540	4.4	21.4	41.6	28.9	3.7
	고 졸 이 하	901	9.6	28.4	40.3	19.7	2.0
	대 졸 이 상	1,507	6.2	21.2	39.5	27.5	5.6
주거 형태	동 거	1,863	9.2	23.7	39.2	24.8	3.1
	비 동 거 / 독 립	1,667	6.4	23.4	39.7	25.3	5.3

204) 정치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을 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2%, ‘참여한 적이 없다’는 73.8%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1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타 지역대비 ‘참여한 적 없음’(84.3%)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79.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4 정치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73.8	13.4	7.8	3.9	1.2
	남	1,537	74.1	13.3	7.5	4.1	1.1
	여	1,411	73.4	13.5	8.2	3.7	1.2
연령	만 15 ~ 18 세	79	70.1	11.4	9.3	5.1	4.1
	만 19 ~ 29 세	1,431	74.2	12.9	7.4	4.4	1.1
	만 30 ~ 39 세	1,438	73.5	13.9	8.2	3.3	1.1
지역	서 울	567	74.8	10.4	9.0	5.4	0.3
	인 천 / 경 기	661	69.8	14.6	8.7	4.1	2.7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9.8	16.8	9.7	3.0	0.7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73.0	11.1	10.1	5.0	0.7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78.7	14.2	4.0	2.9	0.2
	대 구 / 경 북	394	84.3	11.8	2.4	1.4	0.1
	대학생/대학원생	540	70.4	15.9	6.7	6.2	0.8
학력	고 졸 이 하	901	79.3	9.8	6.3	3.0	1.6
	대 졸 이 상	1,507	71.6	14.7	9.1	3.7	1.0
주거	동 거	1,289	72.3	14.1	7.5	4.8	1.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75.0	12.8	8.1	3.2	1.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5) 정치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부착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3%, ‘참여한 적이 없다’는 81.7%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12.7%로 가장 높음
- 성별로 남자의 ‘참여한 적 없음’이 84.0%로 여자(79.2%)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87.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5 정치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81.7	12.7	2.9	1.6	1.1
	남	1,537	84.0	11.5	2.4	1.4	0.7
	여	1,411	79.2	14.1	3.4	1.7	1.6
연령	만 15 ~ 18 세	79	82.0	7.3	4.9	2.5	3.4
	만 19 ~ 29 세	1,431	80.8	12.7	3.4	2.0	1.1
	만 30 ~ 39 세	1,438	82.7	13.0	2.2	1.1	1.0
지역	서울	567	77.8	15.9	2.8	1.2	2.2
	인천 / 경기	661	80.1	13.0	3.3	2.5	1.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5.7	10.1	3.3	0.6	0.3
	광주/전라/제주	402	76.0	13.3	5.1	3.4	2.1
	부산/울산/경남	478	86.1	12.0	1.3	0.4	0.2
	대구 / 경북	394	90.0	9.0	1.0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78.1	14.7	3.3	2.4	1.6
	고졸 이하	901	87.4	8.5	2.5	0.7	0.9
	대졸 이상	1,507	79.6	14.6	2.9	1.8	1.1
주거 형태	공동	1,289	79.8	13.3	3.7	1.7	1.4
	비공동 / 독립	1,659	83.3	12.2	2.2	1.4	0.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6) 정치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5%, ‘참여한 적이 없다’는 66.5%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25.0%로 가장 높고, ‘한 달에 1~2회’(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한 적 없음’이 69.5%로 여자(63.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77.1%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6 정치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당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66.5	25.0	6.3	2.0	0.3
	성별						
	남	1,537	69.5	21.9	6.1	2.2	0.3
연령	여	1,411	63.1	28.4	6.5	1.7	0.2
	만 15 ~ 18세	79	71.0	18.0	5.3	2.7	3.0
	만 19 ~ 29세	1,431	66.7	24.8	6.3	1.9	0.3
지역	만 30 ~ 39세	1,438	66.0	25.5	6.3	2.0	0.2
	서울	567	64.6	26.7	6.1	2.1	0.4
	인천 / 경기	661	64.0	24.4	9.1	2.5	0.1
학력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8.2	33.2	5.0	3.0	0.5
	광주/전라/제주	402	68.2	22.1	7.6	1.6	0.5
	부산/울산/경남	478	74.9	19.8	4.0	1.1	0.2
주거 형태	대구 / 경북	394	76.5	22.4	0.9	0.2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62.3	27.7	6.3	2.7	1.0
	고졸이하	901	77.1	17.8	3.4	1.3	0.4
주거 형태	대졸이상	1,507	61.7	28.3	7.9	2.2	0.0
	동거	1,289	66.4	24.2	7.0	2.1	0.4
	비동거 / 독립	1,659	66.5	25.6	5.7	1.9	0.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7) 정치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개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9%, ‘참여한 적이 없다’는 91.1%로 10명 중 9명은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6.4%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1년에 1~2회’ 참여가 10.8%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07 정치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91.1	6.4	1.8	0.6	0.1
성별	남 자	1,537	90.1	6.7	2.3	0.7	0.2
	여 자	1,411	92.2	6.2	1.2	0.4	0.0
연령	만 1 5 ~ 1 8 세	79	88.8	7.1	4.1	0.0	0.0
	만 1 9 ~ 2 9 세	1,431	90.9	6.5	2.0	0.4	0.1
	만 3 0 ~ 3 9 세	1,438	91.4	6.4	1.5	0.7	0.1
지역	서 울	567	87.9	8.9	2.6	0.6	0.0
	인 천 / 경 기	661	90.2	6.7	2.3	0.5	0.3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8.2	8.4	1.4	1.8	0.1
	광주/전라/제주	402	93.6	4.9	1.4	0.0	0.1
	부산/울산/경남	478	94.8	4.2	0.9	0.2	0.0
	대 구 / 경 북	394	97.4	2.2	0.5	0.0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86.2	10.8	2.5	0.1	0.4
학력	고 졸 이 하	901	93.5	4.3	1.5	0.5	0.2
	대 졸 이 상	1,507	91.2	6.3	1.8	0.7	0.0
주거 형태	동 거	1,289	89.6	7.5	2.2	0.5	0.2
	비 동 거 / 독 립	1,659	92.3	5.5	1.5	0.6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8) 정치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항의 전화하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1%, ‘참여한 적이 없다’는 89.9%로, 10명 중 1명은 항의 전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7.7%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의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이 96.0%로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년에 1~2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1년에 1~2회’(12.5%)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208 정치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89.9	7.7	1.7	0.4	0.2
	남	1,537	90.3	7.0	2.1	0.5	0.1
	여	1,411	89.5	8.6	1.3	0.4	0.2
연령	만 15 ~ 18 세	79	96.0	1.2	2.8	0.0	0.0
	만 19 ~ 29 세	1,431	89.6	7.6	1.9	0.7	0.2
	만 30 ~ 39 세	1,438	90.0	8.1	1.5	0.1	0.2
지역	서울	567	90.3	7.0	1.6	0.8	0.2
	인천 / 경기	661	84.7	12.5	2.3	0.2	0.3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90.0	6.1	2.6	1.1	0.3
	광주/전라/제주	402	91.7	5.6	2.4	0.3	0.0
	부산/울산/경남	478	95.1	4.1	0.6	0.1	0.0
	대구 / 경북	394	96.7	3.2	0.0	0.1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9.1	8.3	1.7	0.4	0.5
	고졸이하	901	91.0	6.6	1.9	0.3	0.1
	대졸이상	1,507	89.5	8.2	1.6	0.6	0.1
주거	동거	1,289	89.4	8.0	1.9	0.6	0.2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90.4	7.6	1.6	0.3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09) 정치 참여 경험_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관련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1%, ‘경험이 없다’는 51.9%로 조사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 달에 1~2회’가 17.2%로 가장 높고, ‘1년에 1~2회’(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은 ‘참여한 적 없음’(68.2%), 인천/경기는 ‘한 달에 1~2회’(22.0%)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참여한 적 없음’(58.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09 정치 참여 경험_6) 사회,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51.9	14.7	17.2	12.5	3.6
성별	남 자	1,537	52.8	12.6	17.3	13.3	4.0
	여 자	1,411	50.9	17.0	17.1	11.7	3.2
연령	만 15 ~ 18 세	79	54.3	16.6	21.5	7.1	0.5
	만 19 ~ 29 세	1,431	53.8	14.6	17.5	11.2	2.9
	만 30 ~ 39 세	1,438	49.9	14.7	16.7	14.1	4.6
지역	서 울	567	49.4	16.5	15.5	14.0	4.7
	인 천 / 경 기	661	45.3	15.2	22.0	13.4	4.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2.7	16.0	16.8	12.9	1.7
	광주/전라/제주	402	50.8	10.4	17.3	18.5	3.0
	부산/울산/경남	478	59.8	13.5	15.2	9.2	2.3
	대 구 / 경 북	394	68.2	13.5	8.2	4.3	5.7
	대학생/대학원생	540	52.0	17.2	17.1	9.8	3.8
학력	고 졸 이 하	901	58.2	13.3	15.2	10.9	2.3
	대 졸 이 상	1,507	48.2	14.7	18.4	14.3	4.4
주거 형태	동 거	1,289	52.0	15.8	17.3	11.5	3.3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51.8	13.8	17.1	13.4	3.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0) 정치 참여 경험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응답은 58.0%, ‘나눈 적이 없다’는 42.0%로, 과반 수 이상이 주변사람들과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 달에 1~2회’ 응답이 2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에 1~2회’(19.0%) 등의 순임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참여한 적 없음’ 응답이 55.0%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이상은 ‘한 달에 1~2회’(29.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0 정치 참여 경험_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42.0	19.0	27.0	10.3	1.7
성별	남	1,537	41.3	18.1	27.8	11.1	1.7
	여	1,411	42.8	20.0	26.2	9.3	1.6
연령	만 15 ~ 18 세	79	52.7	13.8	22.7	10.2	0.5
	만 19 ~ 29 세	1,431	45.4	19.4	25.5	8.3	1.4
	만 30 ~ 39 세	1,438	38.1	18.8	28.7	12.3	2.0
지역	서울	567	31.3	22.8	30.4	13.8	1.6
	인천 / 경기	661	38.2	20.6	29.3	9.5	2.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0.3	11.7	27.0	9.2	1.8
	광주 / 전라 / 제주	402	44.3	16.5	23.2	14.7	1.3
	부산 / 울산 / 경남	478	48.3	17.0	26.4	8.2	0.0
	대구 / 경북	394	55.0	21.4	16.8	5.0	1.8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40	47.5	18.7	24.1	7.2	2.4
	고졸 이하	901	47.9	19.1	24.7	7.5	0.7
	대졸 이상	1,507	36.8	19.0	29.3	12.9	2.0
주거 형태	공동거	1,289	42.6	18.9	27.3	9.7	1.5
	비동거 / 독립	1,659	41.5	19.1	26.8	10.8	1.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1) 정치 참여 경험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개인 의견 표현을 정치인이나 공무원 또는 언론기관 접촉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5%, '참여한 적이 없다'는 86.5%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9.4%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이 90.0%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11 정치 참여 경험_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86.5	9.4	3.2	0.8	0.2
	남	1,537	86.1	8.7	4.0	1.1	0.1
	여	1,411	86.9	10.1	2.4	0.5	0.2
연령	만 15 ~ 18 세	79	93.5	2.5	4.0	0.0	0.0
	만 19 ~ 29 세	1,431	86.8	9.2	3.1	0.9	0.1
	만 30 ~ 39 세	1,438	85.9	9.8	3.3	0.8	0.2
지역	서울	567	83.3	12.2	3.4	1.1	0.0
	인천 / 경기	661	85.0	8.7	5.1	0.9	0.3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6.0	10.7	2.0	1.1	0.2
	광주 / 전라 / 제주	402	89.3	7.8	2.2	0.3	0.4
	부산/울산/경남	478	89.6	8.7	1.1	0.6	0.0
	대구 / 경북	394	91.3	6.0	2.5	0.2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5.2	11.6	2.1	1.0	0.2
	고졸이하	901	90.0	6.2	3.0	0.5	0.2
	대졸이상	1,507	84.8	10.5	3.7	0.9	0.1
주거 형태	공동	1,289	84.4	11.3	3.2	0.9	0.2
	비동거 / 독립	1,659	88.2	7.8	3.2	0.7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2) 정치 참여 경험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특정 상품 불매, 구매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8%, ‘참여한 적이 없다’는 72.2%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16.1%로 가장 높음
- 성별로 남자의 ‘참여한 적 없음’이 76.0%로 여자(68.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은 대구/경북(83.4%)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66.0%), 인천/경기(69.2%)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한 적 없음’ 응답이 80.2%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2 정치 참여 경험_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72.2	16.1	6.5	3.3	1.9
	남	1,537	76.0	14.0	5.7	2.5	1.7
	여	1,411	68.0	18.4	7.3	4.1	2.2
연령	만 15 ~ 18 세	79	74.8	12.7	8.6	1.3	2.6
	만 19 ~ 29 세	1,431	73.7	14.7	6.6	3.6	1.4
	만 30 ~ 39 세	1,438	70.7	17.6	6.2	3.0	2.5
지역	서울	567	66.0	19.9	5.6	4.8	3.7
	인천 / 경기	661	69.2	18.0	7.0	3.4	2.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4.5	13.2	9.1	2.6	0.7
	광주/전라/제주	402	74.5	15.5	4.7	3.6	1.7
	부산/울산/경남	478	77.4	11.2	8.0	3.1	0.4
	대구 / 경북	394	83.4	13.5	2.3	0.2	0.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71.5	15.8	7.4	4.3	1.0
	고졸이하	901	80.2	13.2	4.2	1.3	1.1
	대졸이상	1,507	67.9	17.9	7.5	4.0	2.8
주거 형태	공동거	1,289	72.7	15.3	6.9	3.3	1.7
	비동거 / 독립	1,659	71.8	16.7	6.1	3.2	2.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3) 정치 참여 경험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 정치 참여 중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를 위해 정당 가입,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9%, ‘참여한 적이 없다’는 89.1%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7.8%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음

표 II-213 정치 참여 경험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89.1	7.8	2.4	0.5	0.2
	자	1,537	88.4	8.1	2.9	0.5	0.2
성별	여	1,411	89.9	7.4	1.9	0.6	0.2
	자	1,411	89.9	7.4	1.9	0.6	0.2
연령	만 15 ~ 18 세	79	94.6	1.3	4.1	0.0	0.0
	만 19 ~ 29 세	1,431	89.1	8.0	2.1	0.6	0.1
	만 30 ~ 39 세	1,438	88.9	7.8	2.7	0.4	0.2
지역	서울	567	85.5	8.8	3.6	1.5	0.5
	인천 / 경기	661	88.1	8.4	3.1	0.2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8.8	8.3	2.1	0.8	0.0
	광주/전라/제주	402	91.8	7.1	0.8	0.0	0.3
	부산/울산/경남	478	91.4	7.0	1.6	0.0	0.0
	대구 / 경북	394	94.5	4.4	1.0	0.1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8.0	9.8	1.7	0.3	0.3
	고졸 이하	901	92.6	5.2	1.9	0.2	0.1
	대졸 이상	1,507	87.4	8.6	3.0	0.8	0.2
주거 형태	동거	1,289	87.6	8.9	2.8	0.5	0.2
	비동거 / 독립	1,659	90.4	6.9	2.1	0.5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4) 정치 참여 경험_11)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 정치 참여 중 지난 1년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0%,
‘참여한 적이 없다’는 91.0%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년에 1~2회’ 응답이 6.0%로 가장 높음

표 II-214 정치 참여 경험_11)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91.0	6.0	2.5	0.4	0.0
	남	1,537	90.9	6.0	2.7	0.3	0.1
	여	1,411	91.2	6.1	2.3	0.4	0.0
연령	만 15 ~ 18 세	79	91.3	4.6	4.1	0.0	0.0
	만 19 ~ 29 세	1,431	89.9	7.1	2.6	0.4	0.0
	만 30 ~ 39 세	1,438	92.2	4.9	2.3	0.4	0.1
지역	서울	567	86.7	8.3	4.0	1.0	0.0
	인천 / 경기	661	90.2	6.6	2.8	0.2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90.7	5.8	3.2	0.3	0.0
	광주/전라/제주	402	94.0	4.1	1.7	0.1	0.0
	부산/울산/경남	478	94.5	4.3	1.0	0.2	0.0
	대구 / 경북	394	95.7	3.7	0.6	0.0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87.8	10.0	2.1	0.1	0.0
학력	고졸 이하	901	93.5	4.3	2.0	0.1	0.1
	대졸 이상	1,507	90.6	5.8	3.0	0.6	0.0
주거 형태	동거	1,289	88.3	7.8	3.3	0.5	0.1
	비동거 / 독립	1,659	93.3	4.5	1.9	0.3	0.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5) 사회 및 정치 참여 이유

-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 이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20.8%),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비율이 23.4%로 나타나 여자(16.3%)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의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44.4%), 만19~29세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27.3%) 응답이 타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215 사회 및 정치 참여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참여활동 자나 친로 체에 대한 나 스펙에 관심이 많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타	
전	체	2,039	32.2	20.8	20.0	15.3	7.9	3.3	0.5
성별	남	1,054	30.8	22.1	23.4	12.9	7.4	3.1	0.2
	여	985	33.7	19.3	16.3	17.9	8.4	3.5	0.9
연령	만 1 5 ~ 1 8 세	46	44.4	14.9	9.8	23.0	4.5	2.3	1.2
	만 1 9 ~ 2 9 세	959	26.7	27.3	16.6	17.6	7.5	3.5	0.8
	만 3 0 ~ 3 9 세	1,034	37.0	14.8	23.6	12.9	8.4	3.1	0.3
지역	서울	445	36.5	23.3	14.6	19.0	4.0	2.6	0.0
	인천 / 경기	498	29.6	23.3	22.2	13.2	6.6	3.8	1.2
	대전/충청/세종/강원	295	31.9	21.8	22.5	10.3	10.8	2.3	0.4
	광주 / 전라 / 제주	277	31.1	18.4	23.8	13.8	9.6	3.1	0.2
	부산 / 울산 / 경남	308	30.3	16.5	18.3	18.5	11.1	5.0	0.3
	대구 / 경북	216	35.8	9.3	21.5	18.3	13.3	1.8	0.0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361	28.6	21.4	18.5	19.1	7.6	4.4	0.5
	고졸 이하	558	31.1	22.8	16.0	18.4	7.8	3.9	0.1
	대졸 이상	1,120	33.8	19.6	22.5	12.7	8.0	2.7	0.7
주거 형태	동거	891	29.0	26.4	15.7	17.2	7.0	3.6	1.0
	비동거 / 독립	1,148	34.9	16.0	23.6	13.8	8.6	3.0	0.1

* 주: 중/고등학생 제외,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한 적이 있는 응답자

216) 정치문제 관심 정도

- 정치 문제에 대해 42.6%가 ‘관심 없다’(전혀 8.9% + 별로 33.6%)고 응답하여 ‘관심 있다’ 23.7%(약간 20.8% + 매우 2.9%)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 15-18세에서 ‘관심 없다’(63.1%)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관심 없다’(54.9%), 대졸이상은 ‘관심 있다’(27.4%)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6 정치문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성별	전체	2,948	8.9	33.6	33.8	20.8	2.9
	남자	1,537	8.9	31.7	32.8	22.9	3.7
	여자	1,411	8.9	35.8	34.8	18.4	2.0
연령	만 15 ~ 18세	79	22.3	40.8	20.5	16.4	0.0
	만 19 ~ 29세	1,431	10.8	35.9	33.7	17.4	2.2
	만 30 ~ 39세	1,438	6.5	31.1	34.3	24.4	3.7
지역	서울	567	6.6	34.9	33.3	21.3	3.8
	인천 / 경기	661	11.0	34.6	32.4	18.7	3.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1	32.4	36.0	21.3	3.3
	광주/전라/제주	402	9.9	37.1	29.5	21.0	2.5
	부산/울산/경남	478	11.8	29.8	35.3	21.7	1.4
	대구 / 경북	394	3.7	31.8	38.6	24.5	1.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7.8	35.8	34.5	19.2	2.6
	고졸이하	901	15.0	39.9	26.8	16.9	1.3
	대졸이상	1,507	5.7	29.3	37.5	23.5	3.9
주거 형태	동거	1,289	10.6	35.0	32.4	19.7	2.3
	비동거 / 독립	1,659	7.5	32.5	34.9	21.7	3.4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7)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 했다’는 응답은 79.9%, ‘참여하지 않았다’(10.8%)로 조사됨
- 지역별로 서울에서 ‘참여했다’의 응답이 85.3%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의 참여 비율이 49.2%로 상대적으로 낮고, 대졸이상이 93.1%로 상대적으로 높음
- 부모와 비동거/독립인 경우 ‘참여했다’ 88.9%로 동거(69.1%)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217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 없었음
전	체	2,948	79.9	10.8	9.4
	남	1,537	80.5	11.3	8.2
	여	1,411	79.2	10.1	10.6
연령	만 15 ~ 18 세	79	0.0	0.0	100.0
	만 19 ~ 29 세	1,431	69.4	15.5	15.1
	만 30 ~ 39 세	1,438	93.7	6.3	0.0
지역	서울	567	85.3	7.3	7.4
	인천 / 경기	661	80.7	10.8	8.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8.1	12.1	9.8
	광주 / 전라 / 제주	402	80.9	6.9	12.1
	부산 / 울산 / 경남	478	74.8	13.6	11.6
	대구 / 경북	394	74.2	16.4	9.4
	대학생/대학원생	540	49.2	13.8	37.0
학력	고졸 이하	901	73.8	17.1	9.1
	대졸 이상	1,507	93.1	6.2	0.8
주거 형태	동거	1,289	69.1	13.8	17.1
	비동거 / 독립	1,659	88.9	8.3	2.8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19대 대통령 선거(투표일: 2017년 5월 9일) 투표 가능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이므로 해당 기간 이후 출생자는 ‘투표권 없었음’으로 분류함

218)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 했다’는 응답은 72.5%, ‘참여 하지 않았다’(22.2%)로 조사됨
- 연령별로 만 30-39세에서 ‘참여했다’(86.0%)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의 참여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낮고, 대졸이상이 85.2%로 상대적으로 높음
- 부모와 비동거/독립인 경우 ‘참여했다’ 80.7%로 동거(62.7%)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218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 없었음
전	체	2,948	72.5	22.2	5.3
	남	1,537	73.0	21.4	5.7
	여	1,411	72.0	23.1	4.9
연령	만 15 ~ 18세	79	0.0	0.0	100.0
	만 19 ~ 29세	1,431	62.0	31.1	6.8
	만 30 ~ 39세	1,438	86.0	14.0	0.0
지역	서울	567	73.2	22.2	4.6
	인천 / 경기	661	73.8	21.0	5.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3.7	20.9	5.4
	광주 / 전라 / 제주	402	70.5	22.3	7.3
	부산 / 울산 / 경남	478	70.2	23.9	5.9
	대구 / 경북	394	70.8	25.4	3.8
	대학생/대학원생	540	47.5	31.5	21.1
	고졸이하	901	64.3	30.0	5.7
학력	대졸이상	1,507	85.2	14.7	0.0
	동거	1,289	62.7	27.4	9.9
주거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80.7	17.9	1.4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일: 2018년 6월 13일) 투표 가능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므로 해당 기간 이후 출생자는 ‘투표권 없었음’으로 분류함

219)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23.0%),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15.9%)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II-219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시간이 부족해서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전	체	2,948	8.9	34.8	9.1	3.8	23.0	15.9	4.5
성별	남	1,537	10.2	33.9	7.5	4.2	23.1	16.5	4.6
	여	1,411	7.5	35.9	10.9	3.3	23.0	15.2	4.4
연령	만 15 ~ 18 세	79	7.3	41.8	13.7	5.8	13.3	11.5	6.7
	만 19 ~ 29 세	1,431	8.4	40.1	9.3	4.3	20.7	12.6	4.6
	만 30 ~ 39 세	1,438	9.5	29.2	8.7	3.1	25.8	19.3	4.3
지역	서울	567	6.7	34.3	7.6	2.7	27.3	16.2	5.3
	인천 / 경기	661	7.0	37.7	8.4	4.3	20.7	18.3	3.6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6	33.4	13.2	2.5	24.7	13.7	4.9
	광주 / 전라 / 제주	402	13.3	37.2	8.4	2.3	21.9	12.6	4.2
	부산 / 울산 / 경남	478	14.7	31.1	10.3	4.0	23.4	14.3	2.3
	대구 / 경북	394	8.6	31.6	7.8	7.4	19.4	15.9	9.4
	대학생 / 대학원생	540	8.7	42.6	9.9	3.3	18.5	11.4	5.5
학력	고졸 이하	901	9.0	38.6	9.2	3.6	21.5	13.9	4.2
	대졸 이상	1,507	8.9	30.2	8.8	4.0	25.3	18.5	4.4
주거 형태	동거	1,289	8.1	38.4	8.6	4.1	22.2	13.2	5.3
	비동거 / 독립	1,659	9.6	31.8	9.5	3.4	23.7	18.1	3.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0) 단체(모임) 참여 경험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 단체(모임) 활동 중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4%, ‘참여한 적이 없다’는 48.6%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 달에 1-2회’ 응답이 20.4%로 가장 높음
- 성별로 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남·여 모두 ‘한 달에 1~2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순위로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1~2회’(17.2%)를, 여자의 경우 ‘1년에 1~2회’(13.7%)를 응답 해 2순위 응답에 차이를 보임

표 II-220 단체(모임) 참여 경험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48.6	13.9	20.4	14.6	2.6
	남	1,537	42.4	14.0	23.5	17.2	2.8
	여	1,411	55.4	13.7	16.8	11.8	2.3
연령	만 15 ~ 18세	79	62.4	4.1	9.5	21.0	3.1
	만 19 ~ 29세	1,431	47.2	13.7	21.4	14.5	3.3
	만 30 ~ 39세	1,438	49.4	14.5	19.8	14.5	1.8
지역	서울	567	54.2	13.9	19.3	11.4	1.2
	인천 / 경기	661	44.4	16.3	23.7	14.5	1.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9.5	9.7	21.6	14.3	4.9
	광주/전라/제주	402	40.2	14.1	15.9	24.8	5.0
	부산/울산/경남	478	52.7	10.0	18.7	14.7	4.0
	대구 / 경북	394	51.1	17.8	16.9	11.5	2.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46.3	11.2	22.6	15.7	4.1
	고졸 이하	901	51.8	15.3	19.6	11.6	1.7
	대졸 이상	1,507	47.4	13.9	20.1	16.0	2.6
주거	동거	1,289	46.2	11.9	22.9	15.6	3.3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50.5	15.5	18.3	13.8	1.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1) 단체(모임) 참여 경험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 단체(모임) 활동 중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4.6%, ‘참여한 적이 없다’는 25.4%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 달에 1-2회’ 응답이 3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에 1-2회’(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만 15-18세는 ‘일주일에 1~2회’(23.9%)의 응답이, 만 19-39세는 ‘한 달에 1~2회’(만 19-29세 39.1%, 만30-39세 41.6%) 응답이 가장 높음
- 부모 비동거/독립의 경우 77.4%로 동거(71.3%) 보다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I-221 단체(모임) 참여 경험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25.4	22.2	39.9	11.9	0.6
	남	1,537	23.0	22.5	40.1	13.6	0.9
	여	1,411	28.1	21.9	39.7	10.0	0.3
연령	만 15 ~ 18 세	79	42.2	14.3	16.4	23.9	3.2
	만 19 ~ 29 세	1,431	28.1	17.1	39.1	14.7	1.0
	만 30 ~ 39 세	1,438	21.9	27.7	41.6	8.5	0.2
지역	서울	567	20.7	24.7	47.6	6.5	0.5
	인천 / 경기	661	25.8	25.3	33.7	14.8	0.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30.4	19.3	36.4	12.6	1.3
	광주 / 전라 / 제주	402	22.5	17.8	40.6	17.7	1.4
	부산 / 울산 / 경남	478	26.9	18.7	41.9	11.9	0.6
	대구 / 경북	394	28.0	20.5	45.2	6.3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34.0	13.7	34.9	15.6	1.8
학력	고졸 이하	901	26.7	21.9	39.9	10.7	0.8
	대졸 이상	1,507	21.9	25.1	41.5	11.4	0.2
주거	동거	1,289	28.7	17.7	37.4	15.4	0.8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22.6	26.0	42.0	8.9	0.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2) 단체(모임) 참여 경험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 단체(모임) 활동 중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1%, ‘참여한 적이 없다’는 74.9%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 달에 1-2회’ 응답이 1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에 1-2회’(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만 19-29세의 참여 경험이 30.1%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의 참여 경험이 43.4%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참여 주기는 ‘한 달에 1~2회’(22.3%)가 가장 높음
- 부모 동거 응답자의 참여 경험은 31.5%로 비동거/독립(19.7%) 보다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I-222 단체(모임) 참여 경험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74.9	9.8	10.2	5.0	0.1
	남	1,537	74.9	9.5	10.2	5.2	0.1
	여	1,411	74.9	10.1	10.2	4.7	0.1
연령	만 15 ~ 18 세	79	78.2	5.8	10.4	5.5	0.0
	만 19 ~ 29 세	1,431	69.9	9.7	13.5	6.8	0.2
	만 30 ~ 39 세	1,438	79.9	10.1	6.9	3.1	0.0
지역	서울	567	68.8	13.0	12.1	6.0	0.1
	인천 / 경기	661	77.8	6.7	10.9	4.6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9.3	14.7	9.6	6.3	0.1
	광주 / 전라 / 제주	402	78.2	7.9	8.7	4.9	0.4
	부산/울산/경남	478	81.0	7.2	8.0	3.8	0.0
	대구 / 경북	394	73.7	12.3	9.8	3.8	0.4
	대학생/대학원생	540	56.6	10.6	22.3	10.3	0.2
학력	고졸 이하	901	87.9	5.5	4.4	2.1	0.1
	대졸 이상	1,507	73.2	12.1	9.8	4.9	0.1
주거	동거	1,289	68.5	10.5	14.2	6.7	0.1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80.3	9.2	6.9	3.5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3) 단체(모임) 참여 경험_4) 종교모임

- 단체(모임) 활동 중 종교모임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9%, ‘참여한 적이 없다’는 84.1%로 나타남
- 참여 경험에 있는 응답자는 ‘일주일에 1~2회’ 응답이 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13.2%) 보다 여자(19.0%)의 참여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경험 응답 비율이 더 높아짐

표 II-223 단체(모임) 참여 경험_4) 종교모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84.1	3.4	4.0	7.8	0.8
	남	1,537	86.8	3.1	3.6	5.8	0.8
	여	1,411	81.0	3.8	4.4	10.1	0.7
연령	만 15 ~ 18 세	79	91.0	0.0	1.5	5.6	1.9
	만 19 ~ 29 세	1,431	84.4	3.2	4.7	7.1	0.6
	만 30 ~ 39 세	1,438	83.4	3.7	3.3	8.6	0.9
지역	서울	567	81.4	4.8	4.4	9.1	0.3
	인천 / 경기	661	81.5	2.4	5.7	9.3	1.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6.5	4.4	2.7	5.7	0.7
	광주/전라/제주	402	78.7	3.1	3.0	13.6	1.7
	부산/울산/경남	478	91.8	3.3	1.7	3.0	0.2
	대구 / 경북	394	89.1	2.6	3.6	4.1	0.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1.3	4.5	4.3	8.8	1.2
	고졸 이하	901	86.9	3.0	3.9	5.6	0.6
	대졸 이상	1,507	83.3	3.3	3.9	8.8	0.8
주거	동거	1,289	83.2	4.0	4.6	7.5	0.7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84.8	2.8	3.4	8.1	0.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4) 단체(모임) 참여 경험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 단체(모임) 활동 중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 ‘참여한 적이 없다’는 96.2%로 응답자 대부분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2.5%)에서 참여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II-224 단체(모임) 참여 경험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성별	전 체	2,948	96.2	2.3	0.9	0.3	0.2
	남 자	1,537	96.1	2.1	1.0	0.4	0.3
	여 자	1,411	96.3	2.5	0.8	0.3	0.1
연령	만 1 5 ~ 1 8 세	79	94.2	2.0	2.5	1.3	0.0
	만 1 9 ~ 2 9 세	1,431	96.6	2.1	0.9	0.2	0.2
	만 3 0 ~ 3 9 세	1,438	95.9	2.5	0.9	0.5	0.2
지역	서 울	567	96.4	2.4	0.9	0.3	0.1
	인 천 / 경 기	661	95.1	2.3	1.6	0.5	0.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96.2	2.6	0.6	0.6	0.0
	광 주 / 전라 / 제주	402	98.0	1.1	0.4	0.3	0.2
	부 산 / 울 산 / 경남	478	97.0	2.3	0.7	0.0	0.0
	대 구 / 경 북	394	96.7	2.8	0.3	0.2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95.4	4.2	0.4	0.0	0.1
학력	고 졸 이 하	901	97.5	0.9	1.4	0.2	0.1
	대 졸 이 상	1,507	95.8	2.5	0.9	0.5	0.3
주거	동 거	1,289	95.6	2.6	1.1	0.5	0.3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96.8	2.0	0.8	0.3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5) 단체(모임) 참여 경험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 단체(모임) 활동 중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 ‘참여한 적이 없다’는 94.3%로
 나타남

표 II-225 단체(모임) 참여 경험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94.3	3.7	1.5	0.3	0.2
성별	남	자	1,537	95.4	2.9	0.9	0.4	0.3	
	여	자	1,411	93.0	4.5	2.2	0.2	0.1	
연령	만 15 ~ 18 세		79	97.5	2.5	0.0	0.0	0.0	
	만 19 ~ 29 세		1,431	97.1	1.6	0.9	0.2	0.2	
	만 30 ~ 39 세		1,438	91.3	5.8	2.2	0.4	0.2	
지역	서 울		567	93.0	5.2	1.5	0.3	0.1	
	인 천 / 경 기		661	93.3	3.6	2.3	0.4	0.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95.6	3.4	0.8	0.3	0.0	
	광주/전라/제주		402	93.4	3.1	2.4	0.8	0.3	
	부산/울산/경남		478	96.6	2.7	0.7	0.0	0.0	
	대 구 / 경 북		394	96.3	3.1	0.6	0.0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97.4	2.1	0.2	0.0	0.3	
학력	고 졸 이 하		901	95.4	2.7	1.8	0.1	0.0	
	대 졸 이 상		1,507	92.7	4.7	1.8	0.5	0.3	
주거 형태	동 거		1,289	95.8	2.2	1.3	0.4	0.3	
비 동 거 / 독 립			1,659	93.1	4.8	1.7	0.2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6) 단체(모임) 참여 경험_7) 학술단체

- 단체(모임) 활동 중 학술단체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 ‘참여한 적이 없다’는 94.6%로 응답자 대부분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9.1%)의 경험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8.4%)의 경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26 단체(모임) 참여 경험_7) 학술단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94.6	3.5	1.3	0.4	0.2
	남	1,537	94.8	2.9	1.5	0.6	0.2
	여	1,411	94.3	4.3	1.1	0.1	0.1
연령	만 15 ~ 18 세	79	96.8	3.2	0.0	0.0	0.0
	만 19 ~ 29 세	1,431	94.5	3.3	1.5	0.5	0.1
	만 30 ~ 39 세	1,438	94.6	3.8	1.2	0.3	0.3
지역	서울	567	90.9	6.5	1.3	1.1	0.1
	인천 / 경기	661	93.5	3.4	2.5	0.2	0.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96.8	2.4	0.5	0.3	0.0
	광주/전라/제주	402	96.6	3.1	0.2	0.0	0.2
	부산/울산/경남	478	98.2	1.0	0.5	0.3	0.0
	대구 / 경북	394	95.2	3.5	1.3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91.6	5.8	2.1	0.3	0.1
	고졸 이하	901	97.9	1.2	0.7	0.1	0.1
	대졸 이상	1,507	93.6	4.2	1.5	0.6	0.2
주거	동거	1,289	92.6	4.3	2.3	0.6	0.2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96.2	2.9	0.5	0.2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7) 단체(모임) 참여 경험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 단체(모임) 활동 중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 ‘참여한 적이 없다’는 96.4%로 응답자 대부분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27 단체(모임) 참여 경험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948	96.4	2.2	0.9	0.3	0.2
	성별	남 자	1,537	96.1	2.2	1.1	0.3	0.3
		여 자	1,411	96.9	2.1	0.5	0.4	0.1
연령	만 15 ~ 18 세		79	98.0	2.0	0.0	0.0	0.0
	만 19 ~ 29 세		1,431	96.7	1.8	0.7	0.6	0.1
	만 30 ~ 39 세		1,438	96.1	2.5	1.0	0.1	0.3
지역	서울		567	96.4	2.9	0.3	0.3	0.1
	인천 / 경기		661	95.8	2.0	1.2	0.6	0.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96.8	2.3	0.9	0.0	0.0
	광주/전라/제주		402	97.9	1.6	0.3	0.0	0.2
	부산/울산/경남		478	96.4	1.4	1.6	0.6	0.0
	대구 / 경북		394	97.0	2.7	0.0	0.1	0.2
	대학생/대학원생		540	97.0	2.6	0.2	0.0	0.1
학력	고졸 이하		901	97.3	1.7	0.7	0.2	0.1
	대졸 이상		1,507	95.8	2.3	1.1	0.5	0.3
주거 형태	동거		1,289	95.7	2.3	1.2	0.6	0.2
	비동거 / 독립		1,659	97.1	2.1	0.5	0.1	0.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28) 단체(모임) 참여 이유

- 지난 1년 동안 1가지 이상의 단체(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단체(모임) 참여의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의 응답이 2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맥을 쌓기 위해서’(26.9%),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18.6%) 등의 순임
- 성별로 여자는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29.3%), 남자는 ‘인맥을 쌓기 위해서’(30.3%)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은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30.6%), 고졸이하는 ‘인맥을 쌓기 위해서’(34.0%)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부모와 비동거/독립 경우 ‘인맥을 쌓기 위해서’(30.1%)의 응답에 높게 나타남

표 II-228 단체(모임) 참여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 되고 싶어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전	체	2,419	28.0	26.9	6.7	18.6	4.2	15.6
성별	남	1,293	27.0	30.3	7.3	17.9	4.0	13.5
	여	1,126	29.3	22.9	5.9	19.4	4.5	18.1
	만 15 ~ 18 세	52	29.9	21.6	15.1	13.6	4.6	15.2
연령	만 19 ~ 29 세	1,149	28.3	25.6	8.6	19.5	3.0	15.1
	만 30 ~ 39 세	1,218	27.8	28.3	4.5	18.0	5.4	16.1
	서 울	485	25.1	23.4	7.1	16.1	5.9	22.4
지역	인 천 / 경 기	559	31.2	26.6	6.3	17.8	3.3	14.8
	대전/충청/세종/강원	344	30.4	33.8	4.9	17.6	3.7	9.7
	광주/전라/제주	346	31.3	26.7	5.9	18.7	4.4	12.9
	부산/울산/경남	379	19.3	31.6	8.0	23.7	4.8	12.7
	대 구 / 경 북	306	30.8	18.3	8.5	21.4	2.8	18.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23	25.6	18.9	16.3	20.6	4.6	13.8
	고 졸 이 하	708	24.6	34.0	4.2	14.6	4.0	18.6
	대 졸 이 상	1,288	30.6	25.3	5.2	20.2	4.2	14.5
주거	동 거	1,033	28.1	22.9	9.4	19.7	4.0	15.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386	28.0	30.1	4.5	17.7	4.4	15.3

* 주: 단체(모임) 참여 한 개 이상 응답자만

229)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 향후 단체(모임) 중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19.6%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7.0%+아마도 12.6%)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59.2%(아마도 47.2%+확실히 12.0%) 응답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 의향이 62.1%로 여자(56.0%)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 의향(54.3%)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표 II-229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7.0	12.6	21.2	47.2	12.0
성별	남	자	1,537	6.6	12.1	19.3	47.6	14.5
	여	자	1,411	7.4	13.2	23.4	46.8	9.2
연령	만 15 ~ 18 세		79	4.5	12.9	23.5	44.2	14.8
	만 19 ~ 29 세		1,431	7.0	12.5	20.6	46.6	13.3
	만 30 ~ 39 세		1,438	7.1	12.8	21.8	47.9	10.5
지역	서울		567	3.4	12.1	25.2	50.8	8.6
	인천 / 경기		661	4.7	7.7	25.5	49.2	12.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3.4	12.8	13.9	45.7	14.1
	광주/전라/제주		402	6.1	13.2	19.4	43.0	18.3
	부산/울산/경남		478	13.8	17.2	18.6	40.5	9.9
	대구 / 경북		394	3.5	23.1	14.5	49.5	9.4
	대학생/대학원생		540	7.2	10.8	18.6	47.5	15.9
학력	고졸이하		901	7.9	14.7	23.1	46.2	8.1
	대졸이상		1,507	6.3	12.0	21.0	47.7	13.0
주거	동거		1,289	7.8	12.1	21.3	45.5	13.4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6.3	13.1	21.1	48.6	10.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0)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 향후 단체(모임) 중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16.2%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6.7%+아마도 9.5%)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63.8%(아마도 49.6%+확실히 14.2%) 응답 대비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230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6.7	9.5	20.0	49.6	14.2
성별	남	1,537	6.8	9.8	18.4	49.8	15.1
	여	1,411	6.5	9.2	21.7	49.5	13.2
연령	만 1 5 ~ 1 8 세	79	11.3	14.3	14.8	45.1	14.5
	만 1 9 ~ 2 9 세	1,431	7.3	9.0	21.1	47.7	14.8
	만 3 0 ~ 3 9 세	1,438	5.8	9.9	19.0	51.8	13.5
지역	서울	567	6.9	7.1	19.2	53.3	13.5
	인천 / 경기	661	6.0	8.4	24.5	47.7	13.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3	10.7	14.3	55.5	11.2
	광주/전라/제주	402	9.4	7.1	17.8	41.4	24.3
	부산/울산/경남	478	6.4	11.1	20.8	47.5	14.3
	대구 / 경북	394	3.7	17.6	15.3	51.6	11.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7.5	9.3	20.5	48.9	13.8
	고졸이하	901	8.2	10.9	20.5	47.4	13.0
	대졸이상	1,507	5.6	8.8	19.5	51.2	15.0
주거	동거	1,289	8.6	9.1	21.0	47.0	14.3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5.1	9.9	19.1	51.8	14.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1)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 향후 단체(모임) 중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46.2%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23.1%+아마도 23.1%)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26.7%(아마도 23.1%+확실히 3.5%)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49.0%로 여자(43.0%)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지역별로 ‘참여하지 않음’ 응답은 서울(33.1%)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산/울산/경남(63.5%) 지역이 타 지역대비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는 ‘참여하지 않음’(59.7%) 응답이, 대학생/대학원생은 ‘참여하겠다’(45.6%)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1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23.1	23.1	27.1	23.1	3.5
성별	남	1,537	24.5	24.5	25.6	22.0	3.4
	여	1,411	21.5	21.5	28.9	24.4	3.7
연령	만 15 ~ 18 세	79	24.1	14.1	36.5	21.5	3.7
	만 19 ~ 29 세	1,431	20.5	21.7	26.8	26.2	4.7
	만 30 ~ 39 세	1,438	25.7	24.9	27.1	20.0	2.3
지역	서울	567	12.9	20.2	36.1	26.7	4.1
	인천 / 경기	661	18.2	22.3	30.2	26.3	3.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29.9	20.9	20.9	24.1	4.2
	광주 / 전라 / 제주	402	34.0	21.4	24.5	14.4	5.7
	부산 / 울산 / 경남	478	36.9	26.6	18.3	15.8	2.4
	대구 / 경북	394	18.8	32.6	22.5	23.6	2.5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40	13.7	16.1	24.7	38.6	7.0
	고졸이하	901	31.8	27.9	25.0	13.8	1.5
	대졸이상	1,507	21.0	22.6	29.2	23.6	3.6
주거	동거	1,289	19.4	21.0	28.3	27.2	4.1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26.2	24.9	26.1	19.7	3.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2)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4) 종교모임

- 향후 단체(모임) 중 종교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76.8%가 ‘참여하지 않음’ (절대로 49.1%+아마도 27.7%)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11.8%(아마도 6.8%+확실히 5.0%)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의향은 8.7%로 여자(15.3%) 대비 낮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17.8) 지역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산/울산/경남(5.4%)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232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4) 종교모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성별	전	체	2,948	49.1	27.7	11.4	6.8	5.0
	남	자	1,537	53.2	27.8	10.3	5.1	3.6
	여	자	1,411	44.4	27.7	12.6	8.8	6.5
연령	만 15 ~ 18 세		79	44.2	29.5	16.9	3.2	6.2
	만 19 ~ 29 세		1,431	50.8	27.0	11.4	6.5	4.3
	만 30 ~ 39 세		1,438	47.4	28.5	11.2	7.3	5.6
지역	서울		567	37.4	33.8	14.1	8.9	5.8
	인천 / 경기		661	45.6	25.0	15.7	8.7	4.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6.6	28.9	6.0	4.4	4.1
	광주 / 전라 / 제주		402	54.6	17.9	9.7	7.9	9.9
	부산/울산/경남		478	61.3	26.0	7.3	2.9	2.5
	대구 / 경북		394	50.8	35.6	6.3	4.1	3.2
	대학생/대학원생		540	48.6	27.8	9.1	8.6	5.9
학력	고졸 이하		901	51.3	27.6	12.3	4.8	4.0
	대졸 이상		1,507	47.9	27.8	11.6	7.4	5.3
주거	동거		1,289	48.7	27.5	11.5	7.4	5.0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49.4	27.9	11.3	6.4	5.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3)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 향후 단체(모임) 중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87.2%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55.3%+아마도 31.9%)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2.7%(아마도 2.5%+확실히 0.2%) 응답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89.5%로 여자(84.5%)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 15~18세의 ‘참여하지 않음’(76.4%)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서울(85.4%), 인천/경기(81.6%) 지역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II-233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55.3	31.9	10.1	2.5	0.2
	성별	남 자	1,537	57.8	31.7	8.1	2.2	0.1
		여 자	1,411	52.4	32.1	12.3	2.8	0.3
연령	만 15 ~ 18 세		79	52.2	24.2	16.5	7.0	0.0
	만 19 ~ 29 세		1,431	56.4	32.1	9.9	1.5	0.1
	만 30 ~ 39 세		1,438	54.2	32.0	10.1	3.3	0.3
지역	서 울		567	47.5	37.9	11.8	2.7	0.1
	인 천 / 경 기		661	51.1	30.5	14.0	4.0	0.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0.5	30.2	7.9	1.0	0.3
	광 주 / 전라 / 제주		402	67.2	25.5	6.3	1.0	0.0
	부 산 / 울산 / 경남		478	62.5	30.1	6.3	1.1	0.0
	대 구 / 경 북		394	54.9	35.7	6.1	3.2	0.0
	대학생/대학원생		540	51.1	36.7	8.4	3.6	0.2
학력	고 졸 이 하		901	59.5	30.1	9.0	1.3	0.0
	대 졸 이 상		1,507	54.1	31.4	11.3	2.8	0.3
주거	동 거		1,289	54.9	32.4	10.0	2.6	0.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55.6	31.5	10.2	2.5	0.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4)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 향후 단체(모임) 중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에 참여 의향은 83.4%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52.7%+아마도 30.7%)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3.5%(아마도 3.2%+확실히 0.3%)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86.2%로 여자(80.3%)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 19~29세의 ‘참여하지 않겠다’(88.7%)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인천/경기(77.7%)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구/경북(90.2%) 지역이 타 지역대비 높음
- 현재 부모와 동거중인(87.0%) 응답자가 비동거/독립(80.4%)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34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52.7	30.7	13.1	3.2	0.3
성별	남	1,537	55.9	30.3	11.3	2.4	0.2
	여	1,411	49.1	31.2	15.2	4.2	0.4
연령	만 15 ~ 18 세	79	53.4	28.0	13.8	4.8	0.0
	만 19 ~ 29 세	1,431	56.8	31.9	10.0	1.1	0.2
	만 30 ~ 39 세	1,438	48.5	29.6	16.2	5.3	0.4
지역	서울	567	47.4	35.3	14.1	3.0	0.1
	인천 / 경기	661	47.0	30.7	17.2	5.0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58.7	28.8	10.1	1.8	0.5
	광주 / 전라 / 제주	402	62.6	19.5	13.7	3.0	1.2
	부산 / 울산 / 경남	478	59.4	30.2	9.4	0.8	0.2
	대구 / 경북	394	54.0	36.2	6.2	3.6	0.0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40	54.7	37.4	6.3	1.6	0.0
	고졸 이하	901	56.2	29.0	12.2	2.1	0.5
주거 형태	대졸 이상	1,507	50.1	29.6	15.8	4.4	0.2
	동거	1,289	55.5	31.5	11.1	1.7	0.2
	비동거 / 독립	1,659	50.4	30.0	14.8	4.5	0.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5)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7) 학술단체

- 향후 단체(모임) 중 학술단체 참여 의향은 84.5%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54.2%+아마도 30.2%)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4.6%(아마도 4.0%+확실히 0.5%)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인천/경기(78.4%)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산/울산/경남(91.9%) 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참여하지 않겠다’(89.9%)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35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7) 학술단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54.2	30.2	11.0	4.0	0.5
	남	1,537	56.3	29.2	10.1	3.8	0.6
	여	1,411	51.9	31.4	12.0	4.3	0.5
연령	만 15 ~ 18 세	79	53.9	28.0	12.7	5.3	0.0
	만 19 ~ 29 세	1,431	54.1	30.6	11.0	3.4	0.7
	만 30 ~ 39 세	1,438	54.3	29.9	10.8	4.6	0.4
지역	서울	567	44.6	37.3	12.4	4.7	1.0
	인천 / 경기	661	49.1	29.2	14.6	6.8	0.2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1.1	27.1	8.2	3.4	0.3
	광주/전라/제주	402	65.1	23.8	7.9	1.6	1.5
	부산/울산/경남	478	63.5	28.4	6.9	1.0	0.2
	대구 / 경북	394	56.8	32.5	8.8	1.5	0.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47.3	34.1	9.7	7.5	1.4
	고졸이하	901	62.2	27.7	8.8	1.2	0.1
	대졸이상	1,507	51.8	30.5	12.6	4.6	0.5
주거	동거	1,289	51.6	31.6	11.8	4.2	0.8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56.4	29.1	10.3	3.9	0.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6)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 향후 단체(모임) 중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에 참여 의향은 87.4%가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56.7%+아마도 30.7%)으로 응답하여 '참여함' 2.4%(아마도 2.1%+확실히 0.2%)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90.3%), 대구/경북(90.7%) 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표 II-236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948	56.7	30.7	10.3	2.1	0.2
	남	1,537	57.2	30.2	10.1	2.2	0.3
	여	1,411	56.1	31.3	10.4	2.0	0.1
연령	만 15 ~ 18 세	79	54.5	32.9	12.6	0.0	0.0
	만 19 ~ 29 세	1,431	56.6	31.3	10.7	1.2	0.2
	만 30 ~ 39 세	1,438	56.8	30.0	9.7	3.2	0.3
지역	서울	567	51.6	35.8	10.6	1.8	0.1
	인천 / 경기	661	52.8	31.3	12.2	3.3	0.3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2.6	27.0	9.2	1.2	0.0
	광주/전라/제주	402	64.0	23.2	11.2	1.3	0.3
	부산/울산/경남	478	61.3	29.0	8.1	1.4	0.3
	대구 / 경북	394	57.3	33.4	6.7	2.2	0.4
	대학생/대학원생	540	51.4	35.7	10.8	2.1	0.0
학력	고졸 이하	901	61.6	27.9	8.6	1.6	0.2
	대졸 이상	1,507	55.5	30.7	11.0	2.5	0.3
주거	동거	1,289	54.4	33.0	10.9	1.6	0.1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58.6	28.8	9.8	2.6	0.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7)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3.5%),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은 ‘시간이 부족해서’(30.9%), 고졸이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6.6%), 대학생/대학원생은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3.6%)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7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시간이 부족 해서	경제적 으로 여유가 없어서	사람 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 되어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단체 (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변에 원하는 단체 (모임)가 없어서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기타
전	체	2,948	28.8	23.5	7.2	8.8	5.1	9.7	9.6	6.9	0.3
성별	남	1,537	30.5	24.2	5.7	8.8	4.6	9.4	9.0	7.5	0.3
	여	1,411	27.0	22.7	9.0	8.9	5.7	10.0	10.2	6.3	0.2
연령	만 15 ~ 18 세	79	20.2	19.1	2.4	6.8	4.1	29.0	8.1	10.3	0.0
	만 19 ~ 29 세	1,431	28.1	22.8	7.8	9.1	5.6	9.5	9.7	7.2	0.1
	만 30 ~ 39 세	1,438	29.9	24.4	6.9	8.6	4.7	9.1	9.5	6.6	0.4
지역	서울	567	29.2	14.4	8.8	10.6	5.7	10.0	13.8	7.2	0.5
	인천 / 경기	661	30.8	22.8	7.0	10.5	4.7	10.0	7.9	5.7	0.5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25.7	32.9	8.6	5.6	3.9	5.8	7.5	10.0	0.0
	광주 / 전라 / 제주	402	31.1	28.6	6.5	4.4	4.7	12.9	5.8	6.1	0.0
	부산 / 울산 / 경남	478	28.5	20.3	5.6	7.8	8.2	11.8	11.5	6.3	0.0
학력	대구 / 경북	394	23.9	32.4	6.1	10.5	2.6	6.5	10.0	8.0	0.0
	대학생 / 대학원생	540	23.2	20.5	7.1	9.3	7.7	13.6	11.4	7.2	0.0
	고졸이하	901	28.5	26.6	6.7	8.8	4.5	9.0	9.3	6.2	0.4
주거 형태	대졸이상	1,507	30.9	22.7	7.6	8.7	4.7	8.8	9.2	7.2	0.3
	동거	1,289	26.8	20.9	8.1	10.3	5.3	11.0	9.7	8.0	0.0
	비동거 / 독립	1,659	30.6	25.7	6.6	7.6	5.0	8.5	9.5	6.0	0.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8)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6.6%(전혀 모른다 37.7%+모른다 39.0%)로 ‘알고 있다 6.7%(알고 있다 6.5%+매우 잘 알고 있다 0.1%)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85.8%)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9.5%)에서 ‘알고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84.4%)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38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있다
전	체	2,948	37.7	39.0	16.7	6.5	0.1
성별	남	1,537	35.5	39.0	18.4	6.9	0.2
	여	1,411	40.2	38.9	14.8	6.1	0.0
연령	만 1 5 ~ 1 8 세	79	44.6	30.8	20.3	4.3	0.0
	만 1 9 ~ 2 9 세	1,431	37.7	39.4	17.0	5.6	0.2
	만 3 0 ~ 3 9 세	1,438	37.4	38.8	16.2	7.6	0.0
지역	서 울	567	31.6	37.5	22.1	8.8	0.0
	인 천 / 경 기	661	39.0	38.8	17.2	4.7	0.3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0.9	38.3	11.3	9.4	0.1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35.8	39.9	19.1	5.2	0.0
	부 산 / 울 산 / 경남	478	36.9	40.5	15.0	7.6	0.0
	대 구 / 경 북	394	45.7	40.1	10.6	3.5	0.1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540	33.6	39.6	19.0	7.6	0.2
	고 졸 이 하	901	44.1	40.3	12.0	3.6	0.0
	대 졸 이 상	1,507	35.2	38.0	18.7	7.9	0.2
주거 형태	동 거	1,289	36.7	37.7	18.8	6.5	0.2
	비 동 거 / 독 립	1,659	38.5	40.0	14.9	6.6	0.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9)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 중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84.7%(전혀 모른다 42.6%+모른다 42.1%)로 ‘알고 있다 3.2%(알고 있다 3.2%+매우 잘 알고 있다 0.1%) 대비 높음
- 지역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대구/경북(92.2%)에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고, 대전/충청/세종/강원(79.2%)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고졸이하(8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졸이상(82.1%)에서 낮게 나타남

표 II-239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있다
전 성별	체	2,948	42.6	42.1	12.1	3.2	0.1
	남 자	1,537	39.4	43.3	13.5	3.7	0.1
	여 자	1,411	46.1	40.8	10.5	2.7	0.0
연령	만 1 5 ~ 1 8 세	79	43.8	41.4	12.2	2.6	0.0
	만 1 9 ~ 2 9 세	1,431	42.9	42.6	11.5	3.0	0.0
	만 3 0 ~ 3 9 세	1,438	42.2	41.6	12.8	3.4	0.1
지역	서 울	567	35.7	46.8	13.2	4.1	0.2
	인 천 / 경 기	661	45.1	41.6	12.0	1.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3.5	35.7	15.9	4.9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42.2	40.5	14.5	2.8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41.7	43.3	10.0	5.0	0.0
	대 구 / 경 북	394	50.0	42.3	5.0	2.8	0.0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540	40.0	44.4	12.2	3.4	0.0
	고 졸 이 하	901	48.1	41.1	8.6	2.2	0.0
	대 졸 이 상	1,507	40.2	41.9	14.1	3.7	0.1
주거 형태	동 거	1,289	40.7	43.0	13.1	3.2	0.0
	비 동 거 / 독 립	1,659	44.2	41.3	11.3	3.2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0)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 중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82.4%(전혀 모른다 41.5%+모른다 40.9%)로 ‘알고 있다 5.3%(알고 있다 5.1%+매우 잘 알고 있다 0.1%)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모른다’(77.0%)는 응답이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모른다’(91.3%)는 응답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학력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고졸이하(8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졸이상(79.3%)에서 낮게 나타남

표 II-240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있다
전	체	2,948	41.5	40.9	12.4	5.1	0.1
성별	남	1,537	38.9	41.7	13.5	5.8	0.2
	여	1,411	44.4	40.0	11.1	4.4	0.1
연령	만 1 5 ~ 1 8 세	79	44.5	32.6	17.8	5.2	0.0
	만 1 9 ~ 2 9 세	1,431	41.8	41.0	12.3	4.8	0.1
	만 3 0 ~ 3 9 세	1,438	41.0	41.1	12.2	5.5	0.2
지역	서 울	567	36.2	42.5	14.0	7.0	0.3
	인 천 / 경 기	661	42.0	41.5	13.1	3.3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2.2	36.5	13.5	7.8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41.2	37.9	15.0	5.8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42.2	43.1	9.6	4.9	0.2
	대 구 / 경 북	394	50.0	41.3	5.7	2.9	0.1
	대 학생 / 대 학원생	540	39.8	42.7	12.5	4.9	0.1
학력	고 졸 이 하	901	47.1	40.4	9.9	2.4	0.2
	대 졸 이 상	1,507	38.7	40.5	13.7	6.8	0.2
주거 형태	동 거	1,289	39.7	40.9	13.9	5.4	0.1
	비 동 거 / 독 립	1,659	43.0	40.8	11.1	4.9	0.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1)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 사업

-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 중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6.3%(전혀 모른다 39.1%+모른다 37.2%)로 ‘알고 있다 7.3%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 15-18세에서 ‘알고 있다’(10.9%)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대구/경북(89.5%)에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서울(67.1%)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고졸이하(8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졸이상(73.1%)에서 낮게 나타남

표 II-241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있다
전	체	2,948	39.1	37.2	16.3	7.3	0.0
	자	1,537	36.1	38.6	17.0	8.1	0.1
성별	여	1,411	42.5	35.6	15.6	6.3	0.0
	만 15 ~ 18 세	79	44.3	31.4	13.4	10.9	0.0
연령	만 19 ~ 29 세	1,431	38.4	38.0	17.3	6.3	0.1
	만 30 ~ 39 세	1,438	39.7	36.6	15.5	8.1	0.0
지역	서울	567	33.5	33.6	25.1	7.7	0.1
	인천 / 경기	661	39.1	37.3	16.3	7.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1.5	33.9	15.5	9.0	0.0
	광주 / 전라 / 제주	402	36.0	36.8	17.8	9.2	0.2
	부산 / 울산 / 경남	478	41.5	42.8	9.2	6.4	0.0
	대구 / 경북	394	48.2	41.3	7.5	3.0	0.0
	대학생 / 대학원생	540	37.4	39.6	15.3	7.6	0.1
학력	고졸 이하	901	43.8	37.7	13.8	4.7	0.1
	대졸 이상	1,507	37.0	36.1	18.2	8.7	0.0
주거 형태	공동거 / 독립	1,289	36.1	37.4	18.9	7.5	0.1
비동거 / 독립		1,659	41.6	37.0	14.2	7.1	0.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2)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 중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81.8%(전혀 모른다 40.5%+모른다 41.3%)로 ‘알고 있다’ 4.9%(알고 있다 4.8%+매우 잘 알고 있다 0.1%) 대비 높음
- 지역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대구/경북(90.9%)에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모른다’는 응답은 고졸이하(8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졸이상(79.1%)에서 낮게 나타남

표 II-242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_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	체	2,948	40.5	41.3	13.3	4.8	0.1
	남	1,537	37.2	43.5	14.1	5.1	0.1
	여	1,411	44.1	38.9	12.3	4.5	0.2
연령	만 15 ~ 18 세	79	44.2	37.3	13.0	5.6	0.0
	만 19 ~ 29 세	1,431	39.8	42.7	13.1	4.1	0.2
	만 30 ~ 39 세	1,438	41.0	40.1	13.4	5.5	0.0
지역	서울	567	33.4	43.4	17.6	5.3	0.3
	인천 / 경기	661	41.8	42.0	12.1	4.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1.3	37.8	15.2	5.7	0.0
	광주 / 전라 / 제주	402	38.6	37.7	15.6	7.4	0.6
	부산 / 울산 / 경남	478	43.7	41.5	10.0	4.9	0.0
	대구 / 경북	394	47.7	43.2	7.1	2.0	0.0
	대학생 / 대학원생	540	38.0	43.5	13.3	4.8	0.3
학력	고졸이하	901	46.0	40.6	10.4	3.0	0.0
	대졸이상	1,507	38.0	41.0	15.0	5.8	0.1
주거 형태	공동거	1,289	38.1	42.3	15.1	4.2	0.2
	비동거 / 독립	1,659	42.5	40.5	11.7	5.2	0.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3)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를 응답한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17.7%),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20.3%)가 여자(16.1%) 보다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43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전	체	2,948	18.3	17.7	12.5	12.1	10.0
	자	1,537	20.3	18.0	11.0	12.4	9.8
성별	여	1,411	16.1	17.2	14.1	11.9	10.2
	만 15 ~ 18 세	79	16.7	22.9	10.8	6.3	7.2
연령	만 19 ~ 29 세	1,431	17.7	17.3	13.6	11.2	12.8
	만 30 ~ 39 세	1,438	19.1	17.8	11.4	13.4	7.2
지역	서울	567	18.3	18.1	14.1	12.4	7.9
	인천 / 경기	661	20.3	17.9	12.5	10.5	9.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14.4	16.2	11.1	14.9	11.1
	광주 / 전라 / 제주	402	15.2	18.9	14.8	13.3	11.0
	부산 / 울산 / 경남	478	13.4	14.9	13.1	14.6	12.3
	대구 / 경북	394	29.0	21.1	7.0	7.6	8.7
	대학생 / 대학원생	540	19.8	16.1	11.9	11.8	13.6
학력	고졸 이하	901	18.1	16.7	13.1	11.7	12.6
	대졸 이상	1,507	18.0	18.7	12.3	12.5	7.3
주거 형태	동거	1,289	19.4	16.5	11.8	11.6	11.5
	비동거 / 독립	1,659	17.4	18.7	13.1	12.5	8.7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243-1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정책 추진 과정 에서 청년 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 제정 및 제도 활성화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전	체	2,948	43.7	40.3	38.1	37.6	33.5	
성별	남	자	1,537	43.4	38.3	38.9	39.8	33.2
	여	자	1,411	44.0	42.5	37.1	35.1	33.9
연령	만 1 5 ~ 1 8 세	79	51.3	29.8	43.7	40.2	26.5	
	만 1 9 ~ 2 9 세	1,431	42.3	41.9	35.7	36.1	32.3	
	만 3 0 ~ 3 9 세	1,438	44.8	39.0	40.3	39.0	35.0	
지역	서 울	567	40.0	42.0	41.5	40.5	27.8	
	인 천 / 경 기	661	44.0	41.8	37.9	39.9	34.9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42.6	35.0	42.8	33.7	31.5	
	광 주 / 전라 / 제주	402	44.5	49.6	33.5	32.8	36.3	
	부 산 / 울 산 / 경남	478	41.2	39.2	33.2	31.9	37.8	
	대 구 / 경 북	394	56.0	30.4	36.6	43.0	34.6	
학력	대 학생 / 대학원생	540	39.9	41.1	33.8	38.1	30.5	
	고 졸 이 하	901	41.8	41.1	35.6	36.7	35.6	
	대 졸 이 상	1,507	46.0	39.5	40.9	37.8	33.2	
주거 형태	동 거	1,289	40.8	39.2	37.5	39.3	31.5	
	비 동 거 / 독 립	1,659	46.1	41.2	38.5	36.1	35.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4)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88.0%,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0%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244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88.0	12.0
	남 자	1,537	87.3	12.7
	여 자	1,411	88.8	11.2
연령	만 1 5 ~ 1 8 세	79	79.6	20.4
	만 1 9 ~ 2 9 세	1,431	87.0	13.0
	만 3 0 ~ 3 9 세	1,438	89.3	10.7
지역	서 울	567	89.6	10.4
	인 천 / 경 기	661	86.6	13.4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1.5	18.5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88.5	11.5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92.2	7.8
	대 구 / 경 북	394	91.7	8.3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540	85.8	14.2
	고 졸 이 하	901	88.0	12.0
	대 졸 이 상	1,507	88.7	11.3
주거	동 거	1,289	87.0	13.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88.9	11.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학교에서의 활동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73.7%,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26.3%임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참여한 적 있음’(19.9%)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45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73.7	26.3
성별	남 자	1,537	73.2	26.8
	여 자	1,411	74.2	25.8
연령	만 1 5 ~ 1 8 세	79	74.6	25.4
	만 1 9 ~ 2 9 세	1,431	73.4	26.6
	만 3 0 ~ 3 9 세	1,438	74.0	26.0
지역	서 울	567	74.0	26.0
	인 천 / 경 기	661	72.4	27.6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0.3	29.7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72.3	27.7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76.6	23.4
	대 구 / 경 북	394	79.2	20.8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40	72.6	27.4
	고 졸 이 하	901	80.1	19.9
	대 졸 이 상	1,507	70.3	29.7
주거	동 거	1,289	74.2	25.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73.2	26.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6)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이외에서의 활동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87.4%,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6%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246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87.4	12.6
	성별	남 자	1,537	87.1	12.9
		여 자	1,411	87.7	12.3
연령	만 1 5 ~ 1 8 세		79	78.5	21.5
	만 1 9 ~ 2 9 세		1,431	86.4	13.6
	만 3 0 ~ 3 9 세		1,438	88.7	11.3
지역	서 울		567	88.0	12.0
	인 천 / 경 기		661	85.2	14.8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2.9	17.1
	광 주 / 전 라 / 제 주		402	88.5	11.5
	부 산 / 울 산 / 경 남		478	91.3	8.7
	대 구 / 경 북		394	92.7	7.3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 생		540	85.5	14.5
	고 졸 이 하		901	88.2	11.8
	대 졸 이 상		1,507	87.5	12.5
주거	동 거		1,289	86.0	14.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659	88.5	11.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7)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4) 봉사활동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32.8%,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67.2%로 10대 시기 정치·사회 참여 활동 중 유일하게 참여 경험 응답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75.3%)에서 ‘참여한 적 있음’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55.5%)에서 참여 경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47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4) 봉사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32.8	67.2
성별	남	1,537	33.8	66.2
	여	1,411	31.6	68.4
연령	만 15 ~ 18 세	79	32.1	67.9
	만 19 ~ 29 세	1,431	29.2	70.8
	만 30 ~ 39 세	1,438	36.5	63.5
지역	서울	567	30.7	69.3
	인천 / 경기	661	33.2	66.8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31.7	68.3
	광주 / 전라 / 제주	402	24.7	75.3
	부산 / 울산 / 경남	478	34.9	65.1
	대구 / 경북	394	43.7	56.3
	대학생 / 대학원생	540	24.4	75.6
학력	고졸 이하	901	44.5	55.5
	대졸 이상	1,507	28.7	71.3
주거	동거	1,289	29.0	71.0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36.0	64.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8)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5)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71.6%,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28.4%임
- 성별로 보면 남자(26.4%) 보다 여자(30.6%)가 참여 경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참여한 적 있음’(18.6%)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3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248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5)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71.6	28.4
	남	1,537	73.6	26.4
	여	1,411	69.4	30.6
연령	만 15 ~ 18 세	79	60.7	39.3
	만 19 ~ 29 세	1,431	69.6	30.4
	만 30 ~ 39 세	1,438	74.1	25.9
지역	서울	567	76.0	24.0
	인천 / 경기	661	67.9	32.1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65.6	34.4
	광주 / 전라 / 제주	402	63.5	36.5
	부산 / 울산 / 경남	478	78.8	21.2
	대구 / 경북	394	81.4	18.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63.1	36.9
	고졸 이하	901	78.2	21.8
	대졸 이상	1,507	70.6	29.4
주거	동거	1,289	69.5	30.5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73.4	26.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49)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86.4%,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13.6%임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한 적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참여한 적 있음’(20.2%)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18.2%)의 참여 경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49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86.4	13.6
	남	1,537	86.4	13.6
	여	1,411	86.5	13.5
연령	만 1 5 ~ 1 8 세	79	72.8	27.2
	만 1 9 ~ 2 9 세	1,431	85.5	14.5
	만 3 0 ~ 3 9 세	1,438	87.9	12.1
지역	서울	567	85.6	14.4
	인천 / 경기	661	85.4	14.6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79.8	20.2
	광주 / 전라 / 제주	402	86.7	13.3
	부산 / 울산 / 경남	478	91.7	8.3
	대구 / 경북	394	93.2	6.8
	대학생 / 대학원생	540	81.8	18.2
학력	고졸 이하	901	87.9	12.1
	대졸 이상	1,507	87.0	13.0
주거	동거	1,289	84.6	15.4
형태	비동거 / 독립	1,659	88.0	12.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50)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7) 사회단체 활동

-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중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88.9%,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11.1%임
- 연령별로 보면 만 15-18세에서 ‘참여한 적이 있음’(21.7%)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50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_7) 사회단체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	체	2,948	88.9	11.1
	남	1,537	88.7	11.3
	여	1,411	89.1	10.9
연령	만 15 ~ 18 세	79	78.3	21.7
	만 19 ~ 29 세	1,431	89.1	10.9
	만 30 ~ 39 세	1,438	89.1	10.9
지역	서울	567	89.2	10.8
	인천 / 경기	661	88.4	11.6
	대전/충청/세종/강원	446	82.8	17.2
	광주 / 전라 / 제주	402	90.4	9.6
	부산 / 울산 / 경남	478	92.0	8.0
	대구 / 경북	394	92.2	7.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87.7	12.3
	고졸이하	901	89.3	10.7
	대졸이상	1,507	89.0	11.0
주거 형태	동거	1,289	88.1	11.9
	비동거 / 독립	1,659	89.6	10.4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 부 록

-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 4.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 5.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 6.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부록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표 부록-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대책	-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결혼 여부	-	문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8-1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8-2
	맞벌이 유무	-	문9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10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1
	2025년 출산율 전망	-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3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3-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5(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문16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졸업여부, 학년, 입학 및 졸업연월	-	문16(1)~(7)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7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8
	졸업 유예 사유 및 미이수 사유	-	문19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3. 경제와 고용	복수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경험*	-	문20
	복수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전공 계열*	-	문20-1
	고교교육 및 대학교육 만족도	문8	문21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	문22
	대학원 박사 과정 진학 여부*	-	문22-1
	대학원 재학상태*	-	문22-2
	대학 미진학 사유	-	문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9	문24
	고등학교 재학 경험	문10	문25
	고등학교 유형	문10-1	문25-1
	고등학교 재학 학년	문10-2	-
	고등학교 재학 중 계열 및 전공 변경 여부	문10-3	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	문10-4	문25-3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문10-4-1	문25-3-1
	취업 준비 여부	문11	문26
	취업 준비 기간*	-	문26-1
	취업 준비 방법별 경험 여부	문12	문27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여부	문13	문28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정도	문13-1	문28-1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내용	문13-2	문28-2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 월 이용 비용	문13-3	문28-3
	사설기관 외 취업준비 관련 월 이용 비용	문13-4	문28-4
	평일 기준 취업 준비 투자 시간	문13-5	문28-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4	문29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30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5	문3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문16	문32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7	문3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8	문34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9	문35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9-1	문35-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문36
	채무 발생 사유	-	문36-1
	대출을 받은 기관*	-	문36-2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20	문3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식	문21	문38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22	문39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22-1	문39-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40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4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41-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41-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42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43
	지난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	문44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	문4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	문45-1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	문46
	구직활동을 한 기간	-	문4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48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문49(1)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문49(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문49(3)
	지난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	문49-3-1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	문49-3-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문49(4)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50
	이직 의향	-	문51
	이직 희망 사유	-	문51-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5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	문52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	문53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문54
	실업급여 인지 여부	-	문55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문5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문56-1
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23	문57
주거	집에 대한 생각	문24(1)~(3)	문58(1)~(3)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5	문59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6	문60
	부모 동거 여부	문27	문61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8	-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62
	현재 주거 형태	-	문62-1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29	문6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30	문64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31	문6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32	문6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33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문34(1)~(5)	문68(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문35(1)~(11)	문69(1)~(1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36	문70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36-1	문70-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37	문71
	성형수술 경험	문38	문72
	성형수술 목적	문38-1	문72-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38-2	문72-2
6.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9(1)~(4)	문73(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40	문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41	문75
7.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수	문42	문76
	평소 외출 정도	문43	문77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43-1	문77-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43-2	문77-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	문78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	문79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44(1)~(7)	문80(1)~(7)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¹⁰⁾	문45(1)~(5)	문81(1)~(12)
	정치적 효능감	문46(1)~(3)	문82(1)~(3)
8. 정치·사회 참여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경험*	-	문83
	사회·정치 참여 이유*	-	문84
	정치 문제 관심 정도*	-	문85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	문86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	문87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문88
	단체(모임) 참여 경험*	-	문89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단체(모임) 참여 이유*	-	문90
	단체(모임) 참여 의향*	-	문91
	청년들의 단체,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문92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별 인지도*	-	문93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문94
	10대(중·고등학교) 시기 내 활동별 참여 경험*	-	문95

10) 청년용 설문은 2019년 조사 시 7개 문항이 추가됨(중·고등학생용 설문 문항은 동일)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9\%p$ 임.
- 아래는 주요 항목별 추정치의 전체 및 권역별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편차(CV)를 설계효과 3.17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부록-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요항목 상대표준편차

(단위 :%)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 (명)	표준편차	표준 오차	상대 표준 편차 (CV)
아동 나이 최소 (세)	전체	4.246	16,951,267	2.243	0.001	0.023
	서울	4.254	3,441,342	1.958	0.002	0.044
	인천/경기	4.700	5,409,374	2.251	0.002	0.037
	대전/충청/세종/강원	3.718	2,321,152	2.153	0.003	0.068
	광주/전라/제주	3.771	1,735,631	2.464	0.003	0.088
	부산/울산/경남	3.871	2,483,513	2.219	0.003	0.065
	대구/경북	4.570	1,560,255	2.329	0.003	0.073
아동 나이 최대 (세)	전체	10.937	16,951,267	2.310	0.001	0.009
	서울	10.594	3,441,342	2.351	0.002	0.021
	인천/경기	11.180	5,409,374	2.044	0.002	0.014
	대전/충청/세종/강원	10.619	2,321,152	2.555	0.003	0.028
	광주/전라/제주	11.085	1,735,631	2.338	0.003	0.029
	부산/울산/경남	10.761	2,483,513	2.475	0.003	0.026
	대구/경북	11.437	1,560,255	2.195	0.003	0.027

* 주: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세,원,명)	모집단 (명)	표준편차	표준 오차	상대 표준 편차 (CV)
청소년 나이 최소 (세)	전체	12.354	16,951,267	2.083	0.001	0.007
	서울	12.346	3,441,342	2.059	0.002	0.016
	인천/경기	12.473	5,409,374	1.848	0.001	0.011
	대전/충청/세종/강원	12.108	2,321,152	2.308	0.003	0.022
	광주/전라/제주	12.434	1,735,631	2.046	0.003	0.022
	부산/울산/경남	12.062	2,483,513	2.378	0.003	0.022
	대구/경북	12.699	1,560,255	1.991	0.003	0.022
청소년 나이 최대 (세)	전체	18.439	16,951,267	1.401	0.001	0.003
	서울	18.288	3,441,342	1.458	0.001	0.008
	인천/경기	18.398	5,409,374	1.276	0.001	0.005
	대전/충청/세종/강원	18.568	2,321,152	1.335	0.002	0.008
	광주/전라/제주	18.400	1,735,631	1.371	0.002	0.010
	부산/울산/경남	18.553	2,483,513	1.663	0.002	0.010
	대구/경북	18.579	1,560,255	1.314	0.002	0.010
청년 나이 최소 (세)	전체	19.520	16,951,267	1.414	0.001	0.003
	서울	19.406	3,441,342	1.535	0.001	0.008
	인천/경기	19.476	5,409,374	1.237	0.001	0.005
	대전/충청/세종/강원	19.625	2,321,152	1.394	0.002	0.008
	광주/전라/제주	19.501	1,735,631	1.206	0.002	0.008
	부산/울산/경남	19.633	2,483,513	1.729	0.002	0.010
	대구/경북	19.613	1,560,255	1.365	0.002	0.010
청년 나이 최대 (세)	전체	32.348	16,951,267	4.937	0.002	0.007
	서울	31.584	3,441,342	4.327	0.004	0.013
	인천/경기	32.066	5,409,374	4.775	0.004	0.011
	대전/충청/세종/강원	32.563	2,321,152	5.295	0.006	0.019
	광주/전라/제주	32.803	1,735,631	5.644	0.008	0.023
	부산/울산/경남	32.813	2,483,513	4.977	0.006	0.017
	대구/경북	33.438	1,560,255	4.946	0.007	0.021

* 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 (명)	표준편차	표준 오차	상대 표준 편차 (CV)
가정으 로부터 독립정 연령 (세)	전체	25.634	8,877,554	4.207	0.003	0.010
	서울	26.851	1,501,762	4.487	0.007	0.024
	인천/경기	25.576	3,066,945	4.193	0.004	0.017
	대전/충청/세종/강원	24.348	1,302,833	4.026	0.006	0.026
	광주/전라/제주	24.906	978,601	3.907	0.007	0.028
	부산/울산/경남	26.000	1,424,423	4.069	0.006	0.023
	대구/경북	25.995	602,989	3.683	0.008	0.032
결혼 연령 (세)	전체	30.403	7,771,157	2.935	0.002	0.006
	서울	30.865	1,578,027	3.118	0.004	0.014
	인천/경기	30.136	2,374,225	2.955	0.003	0.011
	대전/충청/세종/강원	29.975	1,100,818	3.055	0.005	0.017
	광주/전라/제주	30.428	949,608	2.580	0.005	0.015
	부산/울산/경남	30.601	1,211,453	2.887	0.005	0.015
	대구/경북	30.603	557,026	2.477	0.006	0.019
첫 자녀를 갖는 최저연 령 (세)	전체	31.813	7,810,128	2.918	0.002	0.006
	서울	32.327	1,584,240	2.797	0.004	0.012
	인천/경기	31.748	2,385,968	3.032	0.003	0.011
	대전/충청/세종/강원	31.101	1,067,787	3.175	0.005	0.018
	광주/전라/제주	31.743	1,046,411	2.697	0.005	0.015
	부산/울산/경남	31.952	1,184,292	2.696	0.004	0.014
	대구/경북	31.825	541,430	2.788	0.007	0.021
2020년 최저임 금 (원)	전체	9201.645	16,951,267	1211.693	0.524	0.006
	서울	9290.608	3,441,342	1283.043	1.231	0.013
	인천/경기	9330.191	5,409,374	1330.937	1.019	0.011
	대전/충청/세종/강원	9086.002	2,321,152	1014.975	1.186	0.013
	광주/전라/제주	9289.886	1,735,631	1096.840	1.482	0.016
	부산/울산/경남	9042.981	2,483,513	1075.936	1.216	0.013
	대구/경북	8886.190	1,560,255	1105.652	1.576	0.018

* 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문항 (단위)	분석 단위(권역)	추정값	모집단 (명)	표준편차	표준 오차	상대 표준 편차 (CV)
한 달 생활비 (만원)	전체	79.142	16,951,267	67.574	0.029	0.037
	서울	79.605	3,441,342	65.907	0.063	0.079
	인천/경기	75.460	5,409,374	64.000	0.049	0.065
	대전/충청/세종/강원	85.705	2,321,152	73.292	0.086	0.100
	광주/전라/제주	71.377	1,735,631	63.229	0.085	0.120
	부산/울산/경남	84.660	2,483,513	73.745	0.083	0.098
	대구/경북	80.974	1,560,255	67.103	0.096	0.118
어려울 때 의지하 는 지인 수 (명)	전체	4.687	16,096,280	3.546	0.002	0.034
	서울	4.076	3,274,844	2.766	0.003	0.067
	인천/경기	4.811	5,076,202	3.806	0.003	0.063
	대전/충청/세종/강원	4.862	2,233,148	3.423	0.004	0.084
	광주/전라/제주	5.611	1,674,240	4.878	0.007	0.120
	부산/울산/경남	4.860	2,330,328	3.066	0.004	0.074
	대구/경북	4.047	1,507,518	2.872	0.004	0.103

* 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신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19년 6월 1일) 현재 만19세~만39세(1979년 6월 2일~2000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거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작성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자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자조사
------------	--------------------------------	--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박수미: 02-3014-0115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출산장려금 확대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⑤ 가구의 소득 증대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20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예정)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④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⑥ 가구의 소득 증대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 ① 배우자 있음
- ② 사별이혼
- ③ 결혼하지 않음

문8)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9로 이동

문8-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8-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결혼비용 때문에 (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문9)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맞벌이)
- ② 아니오 (외벌이)

문10)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문12)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3)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 영역(문14)」으로 이동

문13-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5)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에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하신 경우 모두 ‘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문23으로 이동

문16-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 입학연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연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편)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연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____ 년 ____ 월	① 졸업 ➔ 졸업연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7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____ 년 ____ 월
② 대학교 (4-6년제)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찰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 다음(문17~문22)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8)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요

→ 문17과 문 18 모두 '②아니오' 인 응답자는 문20으로 이동

문19) (문17에 ① 또는 문18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⑥ 기타(적용 것: _____)

문20) 귀하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을 하고 있거나 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자로 이동

문20-1)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 ⑨ 사단학교, 경원대 ⑩ 기타(적용 것 : _____)

문2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수료)한 경우는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예 → 문2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5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2-1)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문22-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5로 이동

※ 다음(문23-문24)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3)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문26~문30)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9로 이동

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년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7)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문28) 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13-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약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중·고등학교 및 대학(원) 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문29)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30)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7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 |

문32)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33)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3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35)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35-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② 없다 → 문37로 이동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③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③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9)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문40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39-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의 부재 |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40)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41)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 문41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41-1과 문41-2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2) 귀하는 지난해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48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8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43) 귀하는 지난4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해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7로 이동**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해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44로 이동**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45로 이동**

문44) 귀하는 지난해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2로 이동**
 -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응답 후 문47로 이동**

문45)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에 규칙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직을 것 : _____)	①	②

문45-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번 → 문45-(7)에 '0예'를 선택한 경우 문52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46으로 이동

문46)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2로 이동

문47)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2로 이동

※ 다음(문48-문51-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42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등) 모두 응답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8)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직업군인 |
|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 |

문4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만원
-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만원
-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9-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으로 이동

문49-3-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9-3-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었음 ② 없었음

-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문50)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51)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51-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⑩ 기타(적용 것 : _____)

※ 다음의 문항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52)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4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년) → 문54로 이동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3)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 ③ 모름/다

문54)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추가」영역(문57)으로 이동

문55)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주거」 영역(문57)으로 이동

문56)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주거」 영역(문57)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56-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58)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 예 ☐ 아니요

문60)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illegible]

문61)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결강] 영역(문3)으로 이음**
 ② [미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하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62) (문61에서 ②, 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건강」 영역(문63)으로 이동

문62-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3)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64)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65)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66)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8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67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7로 이동
- ④ 기타(적용 것 : _____) → 문67로 이동

문67) (문66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문68)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69)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자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치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70)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요 → **문71로 이동**

문70-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문71)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72)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 ① 예
- ② 아니요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문72-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2-2로 이동

문72-2) (문72-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 ⑤ 자기만족을 위해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3)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74)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 ⑪ 기타(적은 것 : _____) | |

문7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6)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7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78로 이동

→ 문77-1로 이동

문77-1) (문7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77-2) (문7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문78)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79)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80)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 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81)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댓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12) 투표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정치·사회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3)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댓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형의 전향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4) 귀하가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③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④ 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
⑤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⑦ 기타(적용 것: _____)

문85)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86) 귀하는 지난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투표권 없었음)

문87) 귀하는 지난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가?

-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투표권 없었음)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③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⑦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⑧ 기타(적용 것: _____)

문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째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습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①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 ② 인맥을 쌓기 위해서
③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⑥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⑦ 기타(적용 것: _____)

문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습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문92) 귀하는 청년들의 단체나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시간이 부족해서 | ②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
| ③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어서 |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 ⑤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 ⑥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 ⑦ 주변에 원하는 단체(모임)가 없어서 | ⑧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
| ⑨ 기타(적용 것: _____) | |

문93) 귀하는 다음과 같이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또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 교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예: 서울시 '놀자리', 대구시 '다모디라' 등)
 **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장소들을 뜻합니다(예: 서울시 '무중력시대', 광주 'the 숲' 등)

문 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①	②	③	④	⑤
(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94)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
| ③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
|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
|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
|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
| ⑪ 기타(적용 것: _____) | |

문95) 귀하는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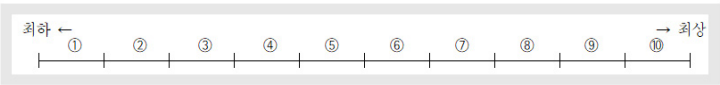
문항	참여한 적이 없음	참여한 적이 있음
(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①	②
(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	①	②
(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①	②
(4) 봉사활동	①	②
(5)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7) 사회단체 활동(청소년 NGO [*] 단체, 청소년 NPO ^{**} 단체, 청소년 지역사회 단체 등) *·NGO: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PO: 비영리단체	①	②
(8) 기타(적용 것: _____)	①	②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4) [취업] 현재 취업 증aisin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아래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년 개월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신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증서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19년 6월 1일) 현재 만15세~만18세(2000년 6월 2일~2004년 6월 1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원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용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지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면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지조사
------------	--------------------------------	---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희: 02-3014-0995
박수미: 02-3014-0115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기개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져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용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그렇다 → **문10-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11로 이동**

문10-1)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고 | ② 자율형고 |
|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
|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
|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0-2) 현재 몇 학년입니까?

- | | | |
|-------|-------|-------|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

문10-3)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 ② 문과(이과)에서 이과(문과)로 변경하였다
- ③ 일반계(직업계)에서 직업계(일반계)로 변경하였다(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 ④ 예체능계(일반·직업계)에서 일반·직업계(예체능계)로 옮겨왔다
-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4)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10-4-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0-4)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10-4-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14로 이동**

문12)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타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13)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1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3) 도움 받은 경험	문1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13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이니 인 경우는 문13-4로 이동**

문13-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13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13-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13-4로 이동

문13-3) (문13-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약 만원

문13-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중·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만원

문13-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문14)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 |

문1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17)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9)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19-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20)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2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주거 영역(문2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족 |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⑤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⑥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24)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걱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② 아니오

문2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illegible]

문2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28로 이동
 ② [미동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②, ③ 응답자는 '건강, 영적(문29)으로 이동'

문28) (문27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① 대학교 진학 전(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동기 ② 취업 전까지 동기
③ 결혼 전까지 동기 ④ 결혼 후에도 동기
⑤ 출산 후에도 동기 ⑥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기
⑦ 기타(적용 것 : _____)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9)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30)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31)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32)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4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33으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33으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3으로 이동

문33) (문32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4)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35)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자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36)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요 ➡ **문37로 이동**

문36-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문37)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38)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9)으로 이동

문38-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9)으로 이동
-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8-2로 이동

문38-2) (문38-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 ⑤ 자기만족을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40)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 ⑪ 기타(적용 것 : _____) | |

문4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43)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44로 이동

→ 문43-1로 이동

문43-1) (문43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43-2) (문43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⑥ 기타()

문4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형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4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최상
------	---	---	---	---	---	---	---	---	---	---	------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1) 본인	①	②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3
2. 조사연혁	3
3. 조사기준 및 기간	3
4. 조사주기	4
5. 조사대상	4
6. 조사표 구성	4
7. 조사항목	5
8. 조사방법	9
9. 조사체계	9

II.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13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16
3. 현장조사 요령	20
4. 본 조사의 특징	24

IV.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9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0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37

2019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CHAPTER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연혁
3. 조사기준 및 기간
4. 조사주기
5. 조사대상
6. 조사표 구성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9. 조사체계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청년 문제는 청년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음
-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취업 위주의 정책에서 보다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의 실제 삶에 기반한 청년문제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조사들은 조사 전체에서 청년층 분석만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청년 노동시장 이행과정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종합적인 청년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조사를 통하여 청년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 및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조사연혁

- 2013년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16년 : 본원 5개년(2016~2020)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개발 및 2016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
- 2017년 :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를 진행
- 2018년 :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를 진행

3 조사기준 및 기간

- 조사기준 : 2019년 6월
- 조사 실시기간 : 2019년 6월~7월

4 조사주기

- 작성주기 : 1년
- 통계작성 기준시점 : 조사기준년도 6월

5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전국 조사구 내 선정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남녀 가구원

6 조사표 구성

1)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만 19~39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2)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인 경우 만 15~18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7 조사항목

1)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¹⁾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절한 연령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II. 「교육과 훈련」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고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도움정도 및 전공 적합도 •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재학중인 고등학교 유형, 학년, 계열/전공 변경 여부 •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제공받은 프로그램별 도움 정도 • 취업준비 여부 및 세부 행동 • 취업준비 관련 도움 받은 대상 및 도움 성도 • 취업준비 관련 월평균 지출 비용 및 일평균 투자 시간 •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III. 「경제와 고용」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20년 최저임금 • 현재 대비 2025년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 한 달 본인 용돈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율 • 물질적 박탈감 정도 • 고졸/대졸 청년세대에 대한 대우 및 지원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유
IV.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및 향후 부모 동거 기간

1) 기본 조사항목 내 Bold 처리된 항목은 2019년 신규문항임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V. 「건강」	-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건강검진 경험 - 아플 때 조치 방법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 일상생활 행복정도 - 일상생활 우울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외모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VI.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충분성 정도
VII. 「관계와 참여」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유무 및 인원 - 평소 외출 정도 - 해당 상태 지속시기 및 계기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반대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의향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배경문항	- 성별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2)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용)²⁾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절한 연령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육아대책 • 혼인 여부 • 결혼 준비 여부 • 결혼 망설임 경험 및 결혼 망설임 이유 • 맞벌이 여부 • 자녀 유무 및 자녀수 • 향후 자녀 계획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생각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II. 「교육과 훈련」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대학(교) 진학 경험 • [대학 진학자]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 • 졸업유예 경험 여부,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 요건 미이수 경험 • 복수/부/심화/연계 전공 경험 및 전공계열 •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도움정도 및 전공 적합도 • 추후 대학원 진학 의사 • [대학원 진학자] 박사과정 진학 여부 및 현재 대학원 재학 상태 • [대학 비진학자] 대학 비진학 이유,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고등학교 유형, 재학 시 계열/전공 변경,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도움 정도 • 취업준비 경험 및 준비 기간 •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및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향

2) 기본 조사항목 내 Bold 처리된 항목은 2019년 신규문항임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II. 「경제와 고용」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20년 최저임금 • 현재 대비 2025년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 한 달 본인 생활비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율 • 채무 여부 • [채무자] 채무 발생 사유 및 대출 기관 • 물질적 박탈감 정도 • 고졸/대졸 청년세대에 대한 대우 및 지원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유 • 창업에 대한 생각 • 청년 고용위기 해법(노동공급, 노동수요) 중요도 및 그에 대한 생각 • 현재 경제활동 상태(수입 목적 일, 구직 경험 유무)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세 이유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지난 주 한 일, 비교육 및 미취업 지속기간, 구직활동 지속기간 • [취업자] 직업, 조건에 맞는 직장 대우 정도, 이직 의향 및 이유 • [취업자] 현재 및 희망 월평균 소득, 현재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더 많은 일을 위한 이직 의향 및 탐색 경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 퇴사 및 해고 경험 • 퇴사 당시 실업급여 인지 • 실업급여 수급 경험 및 미수급 사유
IV.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 [비동거 및 독립한 경우]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지 여부, 주거형태
V. 「건강」	•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 아플 때 조치 방법 및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 일상생활 행복정도 • 일상생활 우울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외모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VI.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충분성 정도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VII. 「관계 및 정치·사회참여」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 평소 외출 정도 • 비외출 상태 지속 기간 및 계기 • 지난 주 혼잡/혼술 경험 및 횟수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사회·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 경험 •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하게 된 이유 • 사회·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향후 참여의향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 • 제19대 대통령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여부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지난 1년 동안 단체(모임) 참여 경험 • 단체(모임) 참여 이유 • 향후 단체(모임) 참여 의향 • 청년들의 단체(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정치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 •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중·고등학교 시기 활동별 참여 경험
배경문항	• 성별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 [취업자]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장유형, 종사자 수, 근속년수

8 조사방법

- 예비조사 - 종이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 조사
- 본 조 사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하는 대면면접조사 (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유치가 필요할 경우, 혹은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치/조사를 진행함

9 조사체계

담당 역할	기관명
조사기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장조사	한국리서치
자료처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CHAPTER

II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3. 현장조사 요령

Ⅲ.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가. 면접원의 마음가짐

- 면접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조사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 있어야 하고 잘 준비되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 면접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 해 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다. 면접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실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유치 조사된 조사표는 리뷰 후 즉시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함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실사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통계법(법률 제14467호 2016.12.27.일부개정)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라. 면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 조사기간 중,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설문지 응답을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면접원의 설문은 전량 폐기됩니다. 폐기된 설문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면접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

-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연구원이나 담당 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담당 실사 연구원 및 실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종료된 설문지는 바로 전송하여 담당 실사연구원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태블릿PC로 조사를 진행하며 유지 설문은 회수 즉시 리뷰 후 입력합니다.

바. 면접원 안전수칙

- 조사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 면접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실사연구원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합니다.
- 조사 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 조사 수행 시 사고나 부상 시는 즉시 가족, 실사연구원에 연락합니다.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가.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구란?
: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보통 1조사구에 60가구 해당)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된 명부의 거처와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 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조사구 교체

- 정해진 조사구에서 최선을 다해 10샘플을 확보하되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사구 대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구 교체 상황	조사구 교체 방법
조사구 멸실 및 재개발 등에 의해 조사구내 50% 이상이 다른 주택형태로 바뀌거나 없어진 경우	해당 조사구는 조사하지 말고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새로운 대체조사구로 교체후 조사 진행
정해진 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구 전체를 조사하여도 1개 조사구에서 10부 미만의 샘플이 확보될 경우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지시한 대로 수행 (비슷한 유형의 대체조사구로 10샘플 확보 (기존+대체))

다. 조사가구 선정 및 대체

- 조사구내 가구수 / 10=X, X번째 가구부터 X번째 건너뛰어 10개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임.
(예: 조사구가 60가구이면 일련번호 6번째 가구가 시작가구로, 이후 6번째 가구씩 건너뛰어 조사 진행)

- 순서대로 조사하여 조사구 끝번호까지 갔으나 조사완료 가구가 10개가 안되면 다시 일련번호 앞으로 돌아가 조사 진행
(예: 7-)14... 70가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0가구 진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8-)16-)23... 순으로 조사를 진행)

〈예시 1. 시작번호 3〉

순번	가구	조사구번호	조사구특성	가구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행정동리	번지	도로명	건물번호명	행정동리	주책명칭	종	호수	성명	가구수	가구외종류	거처외종류
1	0991	099	1	001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02	김서지	일반가구	다세대	
2	0991	099	1	002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10	박재희	원룸인가구	다세대	
3	099	099	1	003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11	이재희	일반가구	다세대	
4	099	1	004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19	김구라	일반가구	다세대	
5	099	1	005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06	박재희	일반가구	다세대	
6	099	1	006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26	박재희	일반가구	다세대	
7	099	1	007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27	김 구	일반가구	다세대	
8	099	1	008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29		일반가구	다세대	
9	099	1	009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32	이 정	일반가구	다세대	
10	099	1	010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13	김 경	일반가구	다세대	
	099	1	011	00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중림동	355				보라온스쿨	201	425		원룸인가구	다세대	

표본조사구 내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본명부에 기재된 시작가구에서 규칙 대로 (조사구 가구수/10) 건너뛰어 총 10가구를 조사한다

- 제공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를 조사구 확정 후 조사원에게 제공한다.
 - 「가구명부」에서 시작번호 가구부터 10번째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이다.
 - 조사대상가구의 대체 사유가 발생 시에는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요청한 후 처리한다.
 - 조사원은 실지조사에 활용하면서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줄 그음)하며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한다.
 - 가구명부가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사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 조사구별 가구 일련번호 부여
 - 명부 가구순서에 의거 가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첫번째 가구(예시 이후)의 번호가 1이 되며 이 후 가구마다 1씩 증가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번호를 부여함)
- 조사대상 선정
 - 해당 조사구의 시작번호가 3일 경우 가구번호가 3인 가구부터 시작하여 10가구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 시작번호가 가부명부 상의 전체 가구 수보다 클 경우, 명부상 1번 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10가구를 조사한다.

〈예시 2. 시작 번호 3〉

예시 법정동 주소는 우편물에 사용하는 주소로 기입하며, 농가, 임가, 어가에 동시에 해당되면 해당하는 곳 모두 표기합니다.

첫 번째 가구	008 001	둔산동	3	908-1	통계청 빌라	가동 302호	김통계	2	1	1	○		○			
	1	빈집														
사작가구	2	001 001	노은동	5동	107-1		김복지	5	3	2	○					
	3	002	노은동	5동	209-1		박영복	4	2	2	○					
		002 001	노은동	5동	209-1		이새롬	1	1	0	○					

○ 조사대상 가구 선정 시 주의할 점

- '①'의 경우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가구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 '②'의 경우 : 가구명부 상 '빈집'이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사람이 가구에 거주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예시 3〉

[illegible]

○ 가구/조사구 대체

- ‘불응가구’, ‘불능가구’, ‘빈집’ 등이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연이어 다음 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대상 가구 찾기

- 가구명부 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가구인지를 결정한다.
- 가구명부 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3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역도, 태블릿PC, 조사표, 방문안내장, 조사안내팜플렛, 지침서, 답례품 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 휴대

2) 가구를 방문할 때

- ①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②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③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①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 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③ 태블릿PC를 가지고 TAPI 조사를 시작한다. 소득이나 부채,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 ④ 조사 대상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에게 팸플릿 등 자료를 전달, 조사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을 요청한다.
- ⑤ 설문 회수 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유치 설문을 회수 할 때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⑥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면접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 조사 불응 : 면접 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관리자 의 동행으로 설득한다.
- 장기 부재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상태 및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입니다.

2) 어디서 조사할까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법 제32조)

4)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 및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6) 한국리서치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리서치는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회사입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여론의 생각을 수집하거나 기업에서 판매를 위한 소비자의 생각을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7)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조사된 내용은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8)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나요?

- 본 조사는 통계승인을 받은 정부공식 통계로써 통계 목적 이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9조).

9) (조사 연령대) 대상 및 자녀가 집에 없어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선 해당 연령대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여 이후 방문시에도 접촉이 어려운지 확인 합니다.
- 본 조사는 해당 연령대 자녀분께서 스스로 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조 공문, 팸플릿과 조사 설문지, 작성 방법이 담긴 자료를 드릴 테니 내용을 살펴보고 자녀 분께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설문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문이 완료되면 면접원이 다시 방문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본 조사의 특징

가. TAPI 조사와 종이설문 조사(유치조사)를 병행하는 조사

- 주요 조사 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조사이나 조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종이설문을 통한 유치조사를 병행함
- 유치조사는 응답자 접촉이 어려운 경우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조사 형태는 TAPI 조사임

1) 유치조사 진행 시

- 설문지와 함께 입력 지침서를 전달하여 응답 시 가이드 내용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유치조사 설문을 받으면 면접원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설문을 TAPI 설문문에 입력해야 함. 이는 종이설문 응답값 중 오류 사항을 빠르게 발견하여 바로 잡기 위함임

나. 응답자 동의서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

- TAPI 및 종이설문을 이용한 조사 모두 연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음
- 설문조사 시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중: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제3조(기본 원칙)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를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될 때에는 개인정보정보가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반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력 유형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연구대상자 성명 _____ (서명)

2019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CHAPTER

III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 작성 대상 및 기준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인'이며, 해당 가구 내 만 15~39세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본인(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가구소득' 등 가구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 받는다.

2)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단위 금액이 원단위(최저임금), 만원단위(월평균 소득 등)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단위에 주의하며, 만원단위 응답 시 만원 미만 액수는 반올림한다.
- TAPI 조사 시 문항과 보기를 면접원이 직접 설명하고 응답을 기입해야 하며 태블릿 PC를 응답자에게 맡겨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표가 총 2종이므로 항상 조사 시작 전 해당 응답자가 어떤 조사표 응답 대상인지를 확인 한 후 시작해야 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0"으로 표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둬
 - "0"으로 표시하는 경우 예시 : 실제 용돈이 없어서 0원인 경우,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용돈 지원금액이 없어서 0%인 경우 등
- 종이설문에 의한 조사표 작성 시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함
- 종이설문에 의한 조사표 작성 중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정사항은 수정액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아래에 기입함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가구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가구주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가구원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즉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임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시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고 현재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 상태가 아닌 부모 및 친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의 의미한다.

○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의미한다.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일하였음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달리하는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 현금급료나 봉급을 받고 하는 일, 현물급료(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틈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식당 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여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자기사업장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를 가진 경우를 말하며, 소속이 없더라도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예) 작가, 화가, 배우 등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무실, 상점 또는 자기 영업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전화서비스,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해 사업광고를 하는 경우
-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
- 성수기(해당계절)에 경작지, 스키임대 매장, 물놀이 시설 등이 있는 경우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는 가사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 사업장비가 없이 가구를 상대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
- 목수 등이 가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수리활동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 ② 지난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소득

근로소득(일을 해서 얻은 소득) + 사업소득(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 이전소득(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해 준 일체의 지원금과 생활비로 타 가구원, 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여기에 해당

○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이때 고용원의 구분은 임금 지급 여부로 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에 해당된다.

- 일정한 사업장 없이 장사를 하는 행상, 노점상
- 가내 작업자 중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전문적인 일(예: 과외, 통번역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단 해당 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기간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아님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함. 직업훈련에는 직장연수, 학원 수강, 직업훈련 등을 포함

- 통신폭화 및 교양 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되지만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됨
- 정규학교교육이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됨

○ 주택(주거형태) 형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 ③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 거주형태 중 하숙

일정한 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하는 것을 말함

○ 고시원

보통 1개의 방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보통 청년층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킴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1)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

- 2019년 5월 말을 기준으로 2000년 6월 2일~2004년 6월 1일 출생자 중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만 19~39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 예) 문2)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교 유

문10-1)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고 | ② 자율형고 |
| ③ 특성화고(특목고) |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
|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
|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

고등학교 유형

• 고등학교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② 자율형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결정,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③ 특성화고: 특목고(마이스터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등
- ④ 마이스터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하여 미디어, 에너지, 로봇, 플랜트, 해양, 식품, 반도체, 항공, 조선 등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특목고 중 ③⑤⑥⑦에 해당되지 않는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포함

문10-4)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10-4-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0-4)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10-4-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학교로부터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 고등학교 재학 시 본인이 직접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함
- 6개의 프로그램별로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문10-4)에서 ① 예 응답 후 문10-4-1)에서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도움이 안 됨)부터 ⑤ 매우 그렇다(매우 도움이 된다) 중 1가지로 응답함

문13)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1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3) 도움 받은 경험	문1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대상

- 5개 대상별로 취업 준비 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문13)에서
① 예 응답 후 문13-1)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도움이 안 됨)부터 ⑤ 매우 그렇다(매우 도움이 된다) 중 1가지
로 응답함

문13-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문13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대상별 도움 내용

- 문13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만 문13-2에서 응답함
예) 취업 준비 관련해서 학교와 친구, 선후배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
문13-2에서 (1) 학교, (5) 친구, 선후배 항목에만 응답하며 나머지는 비워
놓음
- 대상 별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 1가지만 응답함

문13-3)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약 만원

문13-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약 만원

문13-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취업 준비 관련
비용 지불 및
투자 시간**

- 문13-3)은 사설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 응답함
- 문13-3), 문13-4) 지불 비용은 만원 단위로 응답하며, 기간이 길어도 1개 월당 지불한 비용으로 응답함
예) 토익 학원에 3개월 수강과정 패키지를 45만원으로 등록한 경우
월 평균 비용은 $45 / 3 = 15$ 만원임
- 문13-4)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에는 교통비, 식비와 정규교육기관 수업비(대학교 등록금)은 포함하지 않음
단,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과정 외의 어학, 자격증 강좌 등을 수강한 것은 장소만 학교인 것일 뿐이므로 포함됨
- 문13-5) 투자 시간 기준은 1일 평균임. 10시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답자에게 확인이 필요함(순수하게 투자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식사, 휴식 등의 시간은 제외해야 함)

문14)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국가전문자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에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 교원임용시험은 전국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졸업 대상 시험(초등교사임용) 및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중등교사임용)을 의미함

경 제

문1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로 응답
-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또는 전년도 조사 결과값(2020년도 최저 임금 9,23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 지를 확인함(기준 액수보다 적어도 응답값이 틀린 것은 아니나 확인 필요)

문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미취업 청년 대상 수당

- 지자체나 시행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 미취업자이면서
 - 특정 연령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19)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 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한 달 용돈

- 한 달 용돈은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응답(문16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가구 기준이 아니라 본인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
- 부모님과 동거 할 경우 주거비는 포함하지 않음(문27과 연결 확인)
- 정해진 월/주/일별 용돈 금액 없이 필요시 수시로 받는 응답자(특히 문화생활비)의 경우 대략적인 월 총액을 환산하여 응답 받음

문19-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한 달 용돈 중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한 달 용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지원 받는 비율을 기재
- “0”은 가능하나(용돈 전액을 본인이 벌어서 쓰는 경우 해당) “100”을 초과할 수는 없음

주 거

문2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공동 주거

- 본 조사에서 다루는 ‘공동주거’란 집의 출입구(대문, 현관 등)는 하나인 공간에서 여러 가족 및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대문과 현관이 별도인 단독주택 형태인 경우, 대문이 하나면서 거주공간에 출입하는 현관도 하나이고, 하나의 거주공간 내의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며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대문은 하나나 현관이 여럿이고 각 현관을 통해 독립된 거주공간, 거실, 욕실을 소유하는 경우는 공동주거가 아님)
 - 대문이 곧 현관인 형태의 주택인 경우, 현관이 하나면서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고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문2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통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28로 이동**

② [비통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 통거 및 독립

- ‘② 비통거’와 ‘③ 독립’을 혼동하여 오 응답 받지 않도록 주의
 - ② 비통거 예시: 지방 거주자가 대학 재학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도움’ 하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 ③ 독립 예시: 지방 거주자가 서울로 취업, 서울에 거주하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 대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건강

문32)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4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33으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33으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3으로 이동

이름 때 조치 방법

-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소 본인이 주로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함
예) 감기에 걸렸을 때 보통은 며칠 약만 사 먹다가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음
→ 평소 약 복용 후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편이므로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으로 응답함

문36)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요 → 문37로 이동

문36-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 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예)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일 수를 기준으로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으로 응답함

문38)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기차편」 영역(문39)로 이동

문3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기차편」 영역(문39)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8-2로 이동

용어 설명

성형수술 목적

- 안검하수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의료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이왕 하는' 미용 수술을 겸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목적과 계기가 '의료' 목적인 경우 "① 의료" 로 응답 받음

가치관

문30)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						→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가치관별 선호도

- 양측에 상반되는 가치관 중 본인이 더 선호하는 가치관 쪽에 가깝게 응답을 함
예) 일과 여가를 비교했을 때 본인은 일보다 여가 쪽이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⑤ 또는 ⑥에 응답함

사회관계

문4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의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기본 사항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소득 수준 =
경제적 수준

- 부모님의 소득 수준 응답 시에는 근로소득,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 외에도 부동산 소유 등 전체적인 부의 수준을 고려하여 응답함.
예)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정기적인 소득은 없으나 건물 소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상위 수준으로 분류 할 수 있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종학력

- 부모님이 비동거 중이거나 돌아가신 경우라도 최종 학력을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 으로 응답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 으로 응답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2)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

- 2019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979년 6월 2일~2000년 6월 1일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함
- 만 15~18세인 가운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 조기입학을 하신 분 등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본 설문에 응답함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인 경우 만 15~18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해야 함
 예) 문2)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문7) 귀하는 결혼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 ② 사별·이혼
- ③ 결혼하지 않음

문8)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 9로 이동

혼인상태 및
결혼준비 경험

- 결혼 준비 중으로 곧 결혼을 앞둔 경우라도 “③ 결혼하지 않음”으로 응답
- 결혼식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①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
- 결혼하지 않음 - 결혼 준비 경험 있음(곧 결혼 예정 또는 파혼)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 결혼 준비 경험 없음(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나 현장에서 응답자에게 응답 오류는 아닌지 정도만 확인함(민감한 사항이므로 세세하게 묻지 않음)

문9)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맞벌이)
- ② 아니오(외벌이)

맞벌이 기준

- 부부가 모두 5월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예(맞벌이)”로 응답함
- 5월 말 현재 임시 휴직, 장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여, 가정 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본 문항에서 해당되지 않음

교육 및 훈련

문16-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____년 ____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7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____년 ____월
② 대학교 (4-6년제)						

대학(교) 진학 경험 세부내용

-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을 모두 포함하여 대학(교)에 진학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한 설문임
- 학교유형, 학교소재지(지역), 전공계열, 입학년월까지는 공통적으로 응답 후 재학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답
 - 졸업 : 학년은 응답하지 않고 졸업년월만 응답 후 다음 문항으로 이동
 - 재학/휴학 : 학년 응답 후 다음문항으로 이동
 - 중퇴 : 다음문항으로 이동
- 편입, 재수 등으로 학교를 여러 곳 다닌 경우,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를 기준, 대학(교)를 2개 이상 졸업한 경우에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소재지는 본교가 아니라 캠퍼스 기준으로 응답
- 응답자의 만 연령을 고려하여 대학입학년도가 너무 빠른 경우 재확인 필요
- 2019년 5월이 조사 기준년도이므로 졸업시기는 "2019년 5월" 이후일 수 없음
-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제외하고 졸업월은 대부분 2월 또는 8월로 응답되어야 함. 이외 경우는 재확인 필요
- 최종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경우 조기졸업 등을 한 경우인지를 면접원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① 예 ② 아니오

-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필요 이 수학과 같거나 적은 경우 인데 졸업 유예 경험에 대해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입학 및 졸업년도를 틀리게 응답한 것을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강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적용 것 : _____)

- 복수/부전공은 입학 시 선택한 주전공 외에
 - 복수전공: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복수 학위를 받는 것
 - 부전공: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는 것(추가 학위는 없음)
- 심화/연계전공은 입학 시 선택한 주전공에
 - 심화전공: 추가적으로 주전공 관련 학점을 이수하는 것
 - 연계전공: 둘 이상의 학과, 학부가 연계,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
- 전공 이수가 여러 개(예: 심화+부전공인) 경우 주전공 외에 학점을 가장 많이 획득한 과목을 기준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 고등학교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2 자율형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결정,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3 특성화고: 특목고(마이스터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등
- 4 마이스터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하여 미디어, 에너지, 로봇, 플랜트, 해양, 식품, 반도체, 항공, 조선 등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특목고 중 ③⑤⑥⑦에 해당되지 않는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포함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항	문25-3)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5-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⑤

**학교로부터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 고등학교 재학 시 본인이 직접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함**
- 6개의 프로그램별로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문25-3)에서 ① 예 응답 후 문25-3-1)에서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도움이 안 됨)부터 ⑤ 매우 그렇다(매우 도움이 된다) 중 1가지로 응답함

문26)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29로 이동**

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취업 준비 경험 및
기간**

- 취업준비는 구직, 이직, 창업과 관련하여 실제 행동(이력서 작성, 면접, 사업자 등록 등) 외에도 관련 활동을 위한 정보탐색 과정도 포함됩니다.
예) 공무원 시험의 경우 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 모의고사, 스터디 활동 뿐만 아니라 학원 검색, 공무원 시험 관련 커뮤니티 정보 검색 등 시험 준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포함됨
- 취업 준비 기간은 준비 시작과 끝 사이의 기간이 아닌 실제로 최소한의 정보 탐색 이상의 활동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함
예) 2018년 2월 졸업 후부터 2019년 1월까지 12개월동안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그 사이에 1개월 간 해외여행, 1개월간 아파서 쉬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10개월로 응답 해야 함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8) 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	①	②	③	④	⑤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대상

- 5개 대상별로 취업 준비 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문28)에서 ① 예 응답 후 문28-1)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도움이 안 됨)부터 ⑤ 매우 그렇다(매우 도움이 된다) 중 1가지로 응답함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문28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대상별 도움 내용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만 문13-2에서 응답함
예) 취업 준비 관련해서 학교와 친구, 선후배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
문28-2에서 (1) 학교, (5) 친구, 선후배 항목에만 응답하며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음
- 대상 별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 1가지만 응답함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약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약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취업 준비 관련
비용 지불 및
투자 시간**

- 문28-3)은 사설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 응답함
- 문28-3), 문28-4) 지불 비용은 만원 단위로 응답하며, 기간이 길어도 1개 월당 지불한 비용으로 응답함
예) 토익 학원에 3개월 수강과정 패키지를 45만원으로 등록한 경우
월 평균 비용은 $45 / 3 = 15$ 만원임
- 문28-4) 사설기관을 제외한,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에는 교통비, 식비와 정규교육기관 수업비(대학교 등록금)은 포함하지 않음
단,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과정 외의 어학, 자격증 강좌 등을 수강한 것은 장소만 학교인 것일 뿐이므로 포함됨
- 문28-5) 투자 시간 기준은 1일 평균임. 10시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답자에게 확인이 필요함(순수하게 투자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식사, 휴식 등의 시간은 제외해야 함)

문29)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예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 교원임용시험은 전국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졸업 대상 시험(초등교사임용) 및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중등교사임용)을 의미함

문30)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직업 훈련 계획

- 직업 훈련은 취, 창업 준비 및 본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훈련이 포함되며 취미를 위한 훈련은 해당되지 않음
 - 인턴 근무(스펙 목적) : (O)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마련 차원에서 인턴십은 직업 훈련에 해당
 - 인턴 근무(학점 획득) : (X) 해당 전공 학점 취득이 주 목적인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해당되지 않음
 - 대학 재학중의 실습 : (X) 간호학과에서의 병원 실습, 사범대 교생 실습 등 정규학교교육 내의 실습은 본 문항에서의 의미하는 직업 훈련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오프라인, 온라인 등 매체에 상관 없이 업무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이라면 직업 훈련에 해당됨
- 단, 예외적으로 행정고시,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위한 학원 수강은 직업 훈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경제

문32)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로 응답
-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또는 전년도 조사 결과값(2020년도 최저 임금 9,23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값인지 확인함(기준 액수보다 적어도 응답값이 틀린 것은 아니나 확인 필요)

문35)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한 달 평균 생활비

- 한 달 생활비는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응답(문32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가구 기준이 아니라 본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응답
- 특히, 응답자 본인이 가구 경제권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예: 맞벌이 가정의 아내(또는 남편)가 부부합산 소득 전체를 관리,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으로 가구 경제를 관리) 가족을 위한 전체 생활비가 아닌, 본인을 위한 생활비(식비, 여가비 등) 개념으로 응답 받아야 함
 - 예를 들어 전업주부 응답자인 경우, 가족 생활을 위한 지출(장보기, 남편/아이 옷 구매, 자녀 학비 등)이 아닌, 본인을 위한 지출 비용(자녀를 등원/등교 시킨 후 친구와 식사 등)으로 응답 받아야 함
- 정해진 월/주/일별 용돈 금액 없이 필요시 수시로 지출하는 응답자(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대략적인 월 총액을 환산하여 응답 받음

문35-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한 달 생활비 중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한 달 생활비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지원 받는 비율을 기재
- 본 응답도 문29)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가족 생활비 전체가 아닌, 본인을 위한 생활비(용돈, 여가비 개념) 총액을 100%로 삼고 응답해야 함
- 경제권을 공유하는 부부 사이는 본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에 해당하지 않
 - 남편되는 아내인 응답자가 한달 생활비(용돈)로 50만원을 전액 아내 또는 남편로부터 받는 경우, "0%"로 응답함
 - 남편되는 아내인 응답자가 한달 생활비(용돈)로 100만원을 사용, 이 중 아내 또는 남편으로부터 5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50만원을 받는다면 "50%"로 응답함
- "0"은 가능하나(용돈 전액을 본인이 벌여 쓰는 경우 해당) "100"을 초과할 수는 없음

문36)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6-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기타(적을 것 : ____)

채무 발생 이유

- 채무 발생 이유가 여럿인 경우(예: 전월세 자금 대출과 창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가장 비용이 큰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응답 받음

문3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高)학(校)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高)학(校)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高)학(校)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청년 지원 주제

- 각 세부문항별 주제에 주의요망
 - (1), (2)는 '우리사회 전반' 이, (3), (4)는 '기성세대' 가, (5), (6)은 '정부 또는 지자체' 가 청년 세대에게 행하는 대우와 배려에 대해 평가 받는 문항임

문41)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노동공급, 노동수요
용어 설명

- 노동공급
 - 정부보조금, 무료 강좌 등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함
- 노동수요
 - 기업이 사람을 채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줌(예, 청년추가고용 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등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제도)

문41-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문41-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공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위기 해법
용어 설명**

- '독일, 스위스식의 일·학습 병행제도' 는 주당 1~2일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 및 고숙련 훈련과정을 거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임
- '경제민주화'란 대기업 등에 편중된 부를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 소득 분배, 재벌개혁 등을 통해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임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임

문42)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 48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48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경황상태

- 총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수입을 목적으로 지난 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① 일을 하였음으로 응답함
- 현재 소속된 직장, 업장 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중단(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으로 응답함
 - 퇴사 후 쉬면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이 아니므로 ③ 일을 하지 않았음이 올바른 응답임
- 무급가족종사자(보수를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 대상자)도 ① 일을 하였음으로 응답함
 - 단 무급 업무를 하는 것은 가족 및 친지의 일을 돕는 것으로 한정되며 불특정 인원을 위한 무급 업무(봉사활동)는 일이 아님

문46)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 (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비경제활동 기간

-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지속시기를 묻는 문항으로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중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만 고르고 기간을 일(1개월 미만일 경우), 개월(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년 개월(1년 이상/2년 이상일 경우)로 응답함
- 1년 - 2년 미만 선택 시에는 1년 0개월 ~ 1년 11개월 사이 응답만 가능함

문47)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 (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구직활동 기간

- 구직활동 지속시기를 묻는 문항으로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중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만 고르고 기간을 일(1개월 미만일 경우), 개월(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년 개월(1년 이상/2년 이상일 경우)로 응답함
- 1년 - 2년 미만 선택 시에는 1년 0개월 ~ 1년 11개월 사이 응답만 입력하도록 함
- 구직활동이 잠시 중단되었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예) 구직활동 6개월 후 취업, 퇴사 후 3개월 간 구직활동 중 → 3개월
구직활동 6개월 후 사고로 잠시 쉬 후 3개월 간 구직활동 중 → 9개월

문52)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4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년) → 문54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집중상담, 적성 및 심리검사,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과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등의 지원으로 구성되어있음. 따라서 시작년도가 2010년 이전인 응답인 경우 다른 취업 프로그램으로 오인한 것인지 확인 필요

주 거

문59)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② 아니요

공동 주거

- 본 조사에서 다루는 '공동주거'란 집이 출입구(대문, 현관 등)는 하나인 공간에서 여러 가족 및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대문과 현관이 별도인 단독주택 형태인 경우, 대문이 하나이면서 거주공간에 출입하는 현관도 하나이고, 하나의 거주공간 내의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며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대문은 하나이나 현관이 여럿이고 각 현관을 통해 독립된 거주공간 거실 욕실을 소유하는 경우는 공동주거가 아님)
 - 대문이 곧 현관인 형태의 주택인 경우, 현관이 하나이면서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고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문61)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 **거장, 양육(문63)으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 동거 및 독립

- '② 비동거' 와 '③ 독립' 을 혼동하여 오응답 받지 않도록 주의
 - ② 비동거 예시 : 지방 거주자가 대학 재학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도움 하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 ③ 독립 예시 : 지방 거주자가 서울로 취업 서울에 거주하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 대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문62) (문61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63)으로 이동**

문62-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미혼자 주거형태

- 기존 독립자는 주거형태 응답대상(문62-1)에서 제외
- 주거 형태별 설명
 - 다세대/빌라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하숙 : 일정한 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하는 것
 - 고시원 : 보통 1개의 방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에 해당됨(응답자의 판단 하에 응답함)

건강

문66)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4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33으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33으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3으로 이동

이름 때 조치 방법

-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소 본인이 주로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함
예) 감기에 걸렸을 때 보통은 며칠 약만 사 먹다가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음
→ 평소 약 복용 후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편이므로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으로 응답함

문70)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52로 이동

문70-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예)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일 수를 기준으로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으로 응답함

문72)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3)로 이동

문72-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2-2로 이동

용어 설명

- 안검하수: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성형수술 목적

- 의료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이왕 하는' 미용 수술을 겸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목적과 계기가 '의료' 목적인 경우 "① 의료"로 응답 받음

사회관계

문57)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문81)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엽서, 팸플리,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3)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					

사회, 정치 문제 의견 제시 방법별 경험 및 향후 의향

• 문81, 문83은 (1) SNS 의견 제시 ~ (11) 청년참여기구 활동까지 총 11개의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해
- 지난 1년 간 참여 경험에 있는지(문81)
- 향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문83)
를 묻는 문항으로 동일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해 이전에 참여 경험이 있어도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문89)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직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문91) 귀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항	결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					

단체(모임)별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 문89, 문91은 (1) 여가활동 모임 ~ (11) 기타 단체 활동까지 총 8개의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해
 - 지난 1년 간 참여 경험이 있는지(문89)
 - 향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문91)를 묻는 문항으로 동일 모임에 대해 이전에 참여 경험이 있어도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문93) 귀하는 다음과 같이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또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 교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예: 서울시 '놀자리', 대구시 '다모디라' 등)
- **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장소들을 뜻합니다(예: 서울시 '무중력지대', 광주 'the 숲' 등)

문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①	②	③	④	⑤
(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①	②	③	④	⑤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 고용의 경우 34세)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임
- **청년기본조례**는 지자체별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하고 시기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고용촉진 외에도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지원, 문화생활 활성화 등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
-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또는 세미나, 커뮤니티 공간, 교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예: 서울 '놀자리', 대구 '다모디라' 등)
- **청년 참여 및 활동공간**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사전예약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임.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로 공간 사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예: 서울 '무중력지대', 광주 'the 숲' 등)

문94)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청년기본법·제정 및 제도 활성화 | ⑫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
| ③ 청년정책 전달부처 구성 | ⑭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
|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 ⑯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
|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⑰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
|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⑱ 청년 활동제 도입(경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
| ⑪ 기타(적용 것: _____) | |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우선순위대로 최대 3순위까지 응답함
- 보기①의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청년 관련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고용 뿐 아니라 능력개발, 주거, 금융,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청년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법령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전 계류 중임

기본 사항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소득 수준 =
경제적 수준

- 부모님의 소득 수준 응답 시에는 근로소득,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 외에도 부동산 소유 등 전체적인 부의 수준을 고려하여 응답함.

예)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정기적인 소득은 없으나 건물 소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상위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종학력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 으로 응답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 으로 응답

배경문항 4) [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년 개월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규모가 작더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고용원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일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무급가족 종사자)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다음의 경우도 자영업자에 해당됨
 - 일정한 사업장 없이 장사를 하는 행상, 노점상
 - 가내 작업자 중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 예) 과외(소속 사업체 없이 혼자 수행하는 경우), 통·번역 등

정규직(상용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신과 같은 집에 사는 가족(친척) 중의 한 사람이 경영 하는 사업체에서 아무런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혈연관계에 있으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취업자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경우에는 일한 대가에 대한 제공여부를 재확인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여 소속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단,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기간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단,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일시 또는 일용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 (기간제,파견, 용역 등)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 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근로시간 유형	• 다음의 시간제 근로조건에 1개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일제' 임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정규 시간동안 일하거나 -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총사자수

- 총사자수 응답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함.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본인을 포함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를 모두 합친 수임
- 고용주는 자신을 포함한 사업체내의 전 총사자수를, 자영업자는 가족종사자가 있는 경우 자신을 포함한 전 총사자수를 기입, 작은 개인 사업체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수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6.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안내서

조사 대상자께서는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반드시** 본 안내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 보기 옆의 다음 문항으로 안내하는 화살표가 있는 경우, 잘 따라가 주세요.

아래 문항에 만약 문72 [① 예], 문72-1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을 선택했다면, 문72-2로 이동
문72 [② 아니오]를 선택했다면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합니다

(정년 문72)(중고등학생 문38)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기질과 영역(문73)으로 이동**

(청소년 문72-1)(중고등학생 문38-1) 귀하는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기질과 영역(문73)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2-2로 이동**

(청소년 문72-2)(중고등학생 문38-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용 것 : _____)

2 문항에 **모두** 고르라는 말이 없는 경우, 1개의 응답만 선택해주세요.

아래 문항처럼 모두 응답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문항만 여러 개의 응답 선택이 가능합니다.

(형년 문36-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3 문항의 설명문은 반드시 읽고 응답 해 주세요.

질문 위, 아래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정년 문26)(중고등학교 문1)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다가?

☒ 예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요 → 문 27도 이동

4 선택한 보기에 추가 입력칸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 해 주십시오.

문2, 3, 4의 경우 보기①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연령을 작성합니다. 보기②③을 선택하는 경우 연령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5 복합 매트릭스 문항은 응답 누락에 주의 하주세요.

매트릭스 문항은 기본적으로 **각 항목마다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노락 주의)

단, 문 25-3과 같이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① 예로 응답한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문25-3-1 '도움이 되는 정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청년 문25-3)(중고등학생 문10-4)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 문25-3-1)(중고등학생 문10-4-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5-3)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5-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 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금액을 적는 문항의 경우 '만원' 혹은 '원' 응답 단위를 확인 후 정확하게 응답 해 주세요

출처: [이원영, 2014](#) (출판권 없음)

[illegible]

(첨단 문32)(국고토문생 문1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실제 조세입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산회계감계조사 결과 천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천원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	점	분	초	원
----	---	---	---	---

학교 소재지는 *보기1(소재지)에서 전공계열은 *보기2(전공계열)에서 확인 후 숫자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상계열일 경우 ①, ③을 각각 응답 합니다

(정년 문16)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력이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이신 경우 모두 '○' 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없다 → 문장으로 이동

문16-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문답해 작성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 참조)	전공개원 (* 보기 참조)	입학연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 이상)	졸업연월 (졸업한 경우 종류)
① 전문대 (2~3년제)	1	3	년 월 일	① 졸업 → 졸업연월 ② 휴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년 월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응답을 빠트린 문항이 없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응답 내용에 따라 문항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중 해당 문항 응답 시에는 관련 문항 및 주의 사항을 확인하며 작성 해 주십시오.

청년층 대상 설문

대상 문항	응답	관련 문항	응답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 연령	연령 입력	문2,3,4) 독립, 결혼, 자녀 출산 적정 연령	연령 입력
- 이전 단계와 연령이 겹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 아동 만 6~15세, 청소년 만 12~18세 응답은 12~15세가 겹치므로 오류) - 문2,3,4에서 적정 연령을 응답하신 경우 문1에서의 연령대 응답과 비교하여 연령 값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문16-1) 대학(교) 학교유형	① 전문대	문22) 추후 대학원 진학 의사	③ 대학원 진학
-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필요합니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한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외에는 바로 대학원 진학이 불가능하므로 위에 해당 되는 경우 응답값을 확인 해 주십시오.			
문25) 고등학교 재학 경험	② 아니다	문16) 대학(교) 진학 경험	① 있다
- 검정고시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고졸학력 취득이 필요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확인 해 주십시오.			
문26-1) 취업 준비기간	기간 입력	문47) 구직활동 기간	기간 입력
- 취업준비 기간은 순수하게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26-1 취업 준비기간과 문47) 구직활동 기간 응답값을 비교하여 특정 값이 없거나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문28)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대상	① 예	문28-1, 문28-2) 대상별 도움 정도, 내용	객관식 응답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만 문28-1, 문28-2에서 응답하며 나머지는 비워놓으면 됩니다.			
문28-3, 문28-4) 사설기관 및 그 외 지불	금액 입력	문35) 한달 생활비	금액 입력
- 한달 생활비에는 학원수강비 등 취업준비 관련 비용도 포함이 되므로 문28-3, 문28-4 금액도 문35 생활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42) 수입 목적의 일자리 여부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9) 맞벌이 여부	① 예(맞벌이)
- 문9에서 맞벌이 중이었다고 응답 했으면 문42에서도 일을 하였거나 휴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문9에서의 맞벌이는 본인 기준입니다)			
문5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	② 참여한 적이 있다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으로 그 이전년도 응답 시 해당 사업이 맞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배경문항3) 본인 및 부모님 최종학력	학력 응답	문16-4) 대학(교) 졸업여부 문22-2) 대학원 재학여부	재학/졸업 상태
- 본인의 최종학력 응답 시 문16-4) 대학(교) 졸업 상태와 문22-2) 대학원 재학 상태 응답 내용과 일치 하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배경문항4-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문49-3) 현재 주당 노동시간	35시간 이하
- 주 35시간 이하로 일하는데 전일제 라고 응답하거나 주 36시간 이상으로 일하는데 시간제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값을 확인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

대상 문항	응답	관련 문항	응답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 연령	연령 입력	문2,3,4) 독립, 결혼, 자녀 출산 적정 연령	연령 입력
- 이전 단계와 연령이 겹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 아동 만 6~15세, 청소년 만 12~18세 응답은 12~15세가 겹치므로 오류) - 문2,3,4에서 적정 연령을 응답하신 경우 문1에서의 연령대 응답과 비교하여 연령 값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문13) 취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은 대상	① 예	문13-1, 문13-2) 대상별 도움 정도, 내용	객관식 응답
- 문13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만 문13-1, 문13-2에서 응답하며 나머지는 비워놓으면 됩니다.			
문13-3, 문13-4) 사설기관 및 그 외 지불	금액 입력	문19) 한 달 용돈	금액 입력
- 한달 용돈에는 학원수강비 등 취업준비 관련 비용도 포함이 되므로 문13-3, 문13-4 금액도 문19 한 달 용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 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자·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자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태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해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해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28-5 94330

979-11-5654-225-4 (세트)



연구보고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